

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

Vol. 8 No. 3 December 2015

Institute for English Cultural Studies

Contents

[특집 논문] 생명윤리: 혼란의 시대에 생명의 길 찾기

■ 김 대 중 ■

포스트 디아스포라 시대의 입양과 존재윤리 7

■ 박효진·김가희 ■

문화번역가 펄벅의 동양 철학적 '생명' 의식: 『새해』를 중심으로 29

■ 이 정 일 ■

생물학적 통제의 시대 인간복제(human cloning)에 대한 윤리적 논의
: 불교와 기독교 시각을 중심으로 53

■ 최훈·김대영 ■

생명과학기술, 생명윤리,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의 관계 고찰
: 로이스 로리의 『더 기버』를 중심으로 75

[일반 논문]

■ 김 종 갑 ■

서만 알렉시의 『파트타임 인디언의 정말로 진실한 일기』
: 패러디로서 유머 105

Ⅱ Bae, Kyung-Jin Ⅱ

Speaking Stella and Silent Astrophil :

An Unstable Gender Paradigm in Astrophil and Stella 127

Ⅱ 유 미 Ⅱ

Anne Sexton의 Love Poems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적 효과 :

Émile Durkheim의 ‘Anomie’와 Lacan의 ‘Signifiant’ 151

Ⅱ 이 정 진 Ⅱ

비판과 매혹 사이 : 『코스모폴리스』가 그리는 한 금융자본가의 초상 ... 175

Ⅱ 장 재 일 Ⅱ

반영과 굴절의 경계 : 『술라』(Sula)의 영한번역 비교연구 203

Ⅱ 정 윤 길 Ⅱ

신, 윤리, 신념에 대한 이글턴의 성찰과 이데올로기적

주체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읽기 231

Ⅱ 조 속 희 Ⅱ

베누티의 이국화로 본 김지영의 번역 텍스트 Please Look After Mom

: 문화특정어를 중심으로 253

Ⅱ 최 창 영 Ⅱ

Study on the Time Consciousness of Wordsworth

in the “Tintern Abbey” 273

- 『영어권문화연구』 발간 규정 299
- 『영어권문화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 301
- 『영어권문화연구』 편집 및 교정 기준 306
- 『영어권문화연구』 투고 규정 313
-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314
- 원고작성 세부 지침 317
- 영어권문화연구소 연구윤리규정 320



포스트 디아스포라 시대의 입양과 존재윤리

김대중

1. 포스트 디아스포라(Post-diaspora) 시대와 생명 권력

21세기에 접어들어 “호모 사케르”(Homo Sacer)와 “예외상황”(State of Exception)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9/11이후 전 세계는 두 명의 이탈리아 철학자들에 주목을 하였다.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이다. 안토니오 네그리의 『제국』(Empire)은 기존의 미국 중심의 세계에 대한 이해, 혹은 세계의 중심과 주변부를 해석한 임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 시스템 이론’(world system theory)등과는 사뭇 다른 탈중심, 다중중심이론, 잠재성과 다중(multitude)이론,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이론을 전용한 노마드와 탈주선 등에 대한 이론들을 통해 세계화를 분석하고 다중의 잠재적 혁명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르지오 아감벤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과 한나 아렌트(Hanna Arendt)의 국가와 폭력 문제를 재해석하며 서구 정신과 역사에 근간한 생명의 이분화(zoe, bios)와 배제를 통한 통합의 문제를 법의 보호에서 배제당한 인간들인 호모 사케르와 법을 지탱하는 법의 부재 속에서 만들어지는 예외상황으로 연결시킨다.

아감벤의 이론이 적용되었던 아부그라이브(Abu Graib)수용소를 예로 들자면 그 안에 갇힌 죄수들은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조건으로 법의 폭력에 종속된 존재들로서 호모 사케르라 볼 수 있으며, 그들이 갇힌 공간 역시 “예외상황”의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조르지오 아감벤과 안토니오 네그리는 또한 이러한 호모사케르와 탈중심의 다중(Multitude)의 예로서 어느 국가에도 주권(sovereignty)을 지니고 정주하지 못하고 정체성 없이 전세계를 떠도는 난민들이나 무국적 노동자들의 출현과 그들이 창조해내는 새로운 공간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기존의 국제 정치 문법으로 해독이 불가능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조르지오 아감벤은 집단과 개별 사이의 구별이 불가능한 이들의 공동체를 “다가오는 공동체”(Comming Community)라 이름 붙인다. 물론 조르지오 아감벤의 “다가오는 공동체”는 안토니오 네그리의 “다중”과는 차이가 많다. 안토니오 네그리의 “다중”이 새로운 전지구적 프로레타리아라는 계급성을 지닌 잠재적 공동체라면, 아감벤의 다가오는 공동체는 정체성이 법의 영역에서 숨겨지고 법의 보호와 예외상황에 동시에 잠재적으로 놓인 정체성 없는 “형태만으로서의 존재”(form-of-life)들의 집합체로서 정치적이거나기보다는 존재윤리적 공동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디아스포라 이후의 보다 탈중심화되고 탈역사화된 디아스포라 시대와 그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의 도래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들 공동체가 갖게 되는 존재윤리의 문제를 묻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디아스포라가 집단적 이주의 기억과 역사적 실존성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지금의 디아스포라는 개별적 존재들의 존재성과 세포 단위 나 유전자 단위의 이주라는 미시적 이주부터 국경 없이 존재하는 난민들의 거시적 목적성이 제거된 이주까지 포함하게 된다. ‘지금’(Now-time)의 디아스포라는 기존의 디아스포라가 강조한 이주의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 정치학(identity politics)의 근원에 자리 잡힌 존재윤리성을 더욱 강하게 묻고 있다. ‘지금’(now-time)은 유토피아와 디아스포라가

디아스포라 속에 공존하는 시간이며 인간의 몸이 어디에도 정착되지 못하고 끝없이 떠도는 시간이며, 미래에 올 새로운 공동체(다중 혹은 도래하는 공동체)의 잠재적 시간이다. 지금 시간 속 존재윤리는 단순한 윤리의 문제를 넘어서 각 존재들의 삶들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공동체와 존재성으로 묻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공간과 시간의 배경으로서 '지금의 디아스포라'(Now-time diaspora)를 논하기 위해 포스트디아스포라(post-diaspora)를 본 논문은 제안하려 한다. 디아스포라가 역사적, 지구적 변화에 따른 특수한 소수집단들의 집단적 이주의 기억과 그에 대한 재현에 초점을 맞춘다면, 포스트디아스포라는 기존의 디아스포라 이론이 담아낼 수 없는 산발적이고 전지구적 방랑, 역이주, 육체적 이주가 아닌 정신적, 혹은 재현 차원에서의 이주 등을 다루며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이주에서 다를 수 없는 특이성(singularity)를 지닌 이주를 다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디아스포라가 기존의 디아스포라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적 세계관에 대한 혼종화와 패스타쉬 혹은 탈구조주의의 영향 속에서의 새로운 텍스트 읽기 등을 특징으로 갖는다면, 포스트 디아스포라에서의 포스트(post)는 20세기 디아스포라 담론에서 배제되거나 목격되지 못했던 21세기 현상들에 대한 논의의 확장을 위해 적용한 개념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포스트는 '미시적 세계관', '특이성', '다중', '탈중심', '정체성 해체', '인종 담론의 해체', '소수자가 아닌 소수문학이나 문화' 등을 함의한다.

포스트 디아스포는 세계 자본주의 속에서의 포스트 맞시즘과 포스트 휴머니즘과 담론적 결을 같이 한다. 초기 맞시즘에 기초한 분석에서 인간의 본질과 존재론적 근거(ethos)는 생산에 맞추어졌다. 생산하는 인력(productive force)로서의 인간은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을 독점하는 자본가와 국가에 이용되면서도 생산력의 파업이나 테업 등을 통해 저항하는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중심의 인간에 대한 관점은 재생산(reproduction)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도외시하였다. 인간의 현재와 노동력(맷스적으로 보자면 노동 시간)이 중심이 되는 생산과 다르게 재생산은 인간의 존재 기반 속에 있는 성적 주체로서의 인간, 혈연관계라는 담론 속의 인간, 그리고 들뢰즈가 말하는 외디푸스구조에 저항하는 특이성(singularity)을 지닌 존재들의 담론이다. 이 재생산 속에서 인간의 몸은 '노동하는 인간'을 넘어서 세포나 유전자 차원의 '존재'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생체 권력' 속의 기표들이 된다. 더구나 이러한 재생산의 담론은 세계화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포스트디아스포라 현상의 예들로는 가령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제3세계에서 제1세계로의 장기밀매, 국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약취, 제1세계 부모들의 아이들을 대신 낳아주는 제3세계의 대리모들, 제3세계에서 제1세계로의 입양과 파양, 국제 분란지역에서의 외국인 군인과의 결혼 및 이주, 원정출산, 줄기세포 등과 같은 세포단위의 국제적 이동 등이 있다. 이러한 예들에서 인간의 몸은 이제 노동하는 몸이 아닌 자본화된 몸이 되고 국제생체 권력에 조종당한 몸이 되며 주권이나 인권이 해체된 몸이 된다. 이 현상들은 탈식민주의나 초국가주의로만 해석될 수 없으며 기존의 디아스포라 이론으로도 설명이 제한적이다. 초국가주의가 인간의 이동을 기반한다면 인간 신체 부분들의 이동이나 세포단위의 이동이나 입양아들의 자본을 기반으로 한 거래들은 설명해 내기 어렵다. 인종학적으로도 폴 길로이(Paul Gilroy)가 『인종에 반하여』(*Against Race*)에서 논하듯 인종담론이 나노(nano)단위로 해체되는 것이 포스트디아스포라 시대의 특징이다.

이외에도 국제적인 인간 몸의 이동과 궤를 같이 하는 질병의 이동 역시 포스트디아스포라 현상의 하나이다. 메르스나 에볼라 등의 바이러스 단위의 보균자들의 이동과 그를 통한 각종 국가 담론들의 재생산과 폭력적 집행들은 파편화된 인간의 몸과 그 몸들의 재생산 조건들은 디아스포

라 시대 이후의 새로운 인간론을 요구한다. 우선 이 새로운 현상들에 대한 분석은 국제적 질서 속의 인간의 몸에 대한 존재윤리적 정초를 필요로 한다. 더불어 이러한 새로운 몸들의 개별화된 세계들의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새로운 존재윤리관을 기반으로 어떠한 저항담론이 가능한지도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러한 넓은 담론의 가능성 중에서 한국인의 미국으로의 입양과 그것의 재현이라는 특수한 담론만을 다룰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입양 내러티브에서 인간의 몸이 어떻게 설정되고 그것이 어떻게 포스트디아스포라적 세계 속에서 간극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마리 리(Marie G. Lee)의 『어떤 이의 딸』(*Somebody's Daughter*)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분석의 영역 역시 미국으로의 한국인 입양 담론과 재현에 맞춰질 것이다.

2. 입양 담론과 미국에서의 입양 소설

한국의 디아스포라가 식민시대와 전쟁을 거치면서 사할린, 일본, 미국, 중국, 멕시코 등의 여러 갈래로의 이민들이 중심이 되는 집단 이주였다면 포스트디아스포라로 살펴본 한국인들의 이주는 역사적 상황보다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생체 권력의 구획에 따른 자발적 비자발적 이주들로 이루어져 있다. 포스트디아스포라 이주의 특징은 다면화, 다중화, 세계 자본화, 미시적 생체권력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입양은 초국가적 자본화 세계 속에서 독특한 담론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가령 50년대 이후, 특히 60년대와 70년대에 입양으로 해외로 보내졌던 입양 아동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방문하는 역-디아스포라(counter-diaspora)가 그 예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양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미래의 문제

이기도 하고 제 1세계와 제3세계의 국경을 통한 양방향 신체 거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입양은 또한 기존의 이주 정체성에 대한 담론 역시 모호하게 만든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자신을 버린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혼란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이주는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국가 간에 일어난 이민자들의 정체성 문제와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 입양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발적 판단이 배제된 상태로 '버림받은 기억'으로 인하여 더 강렬하게 자신의 뿌리를 거부하거나 찾으려 한다. 그들에게 주체(subject)란 트라우마와 거래의 흔적(trace)이다. 이러한 점에서 입양인의 정체성의 중심에는 생체 권력과 국제 자본주의를 통해 생성된 간극(interstice) 속에 놓인 존재성이 있다.

입양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독특한 경험을 영화나 소설이나 에세이 형식으로 재현해내었다. 입양인들의 내러티브들은 그들이 건너간 국가들의 다양함만큼이나 다양하게 존재한다. 미국, 스웨덴, 독일 등의 제1세계로 넘어간 입양인들은 유럽 각지와 미국에서 서로 다른 국적과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입양인들이 나이를 먹고 가정을 꾸리면서 입양인 2세대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들 역시 기존에 보지 못했던 내러티브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내러티브들의 국제적 가능성은 그들의 몸적 경험들의 다양성에서 비롯되며 입양인들은 자신들의 기원이 되는 한국과 자본적, 역사적, 미시적 결합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독특한 경험들을 독특한 내러티브들로 승화시켜 왔다.

그 중에서 이미 영미권에서 하나의 장르로 굳어지는 입양문학의 한 갈래인 한국계 입양 문학의 경우에 제인 트렌카 정(Jane Jeong Trenka)을 비롯한 작가들이 문학작품들을 통해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다.¹⁾ 입양작

1) 그러나 이러한 입양 문학은 몇 가지 특수한 요건들 하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 역시 다양한 관점들에서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

폼 속 재현과 내러티브 분석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가령 마가렛 호먼스(Margaret Homans)는 「입양 내러티브들, 트라우마, 그리고 기원들(“Adoption Narrative, Trauma and Origin”)에서 입양문학에서의 특정한 내러티브 구조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입양문학은 고대로부터 있었던 정체성을 모르는 이가 자신의 뿌리를 찾는 뿌리 찾기 여정(root trip)과 정체성 찾기라는 내러티브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버림받음’이라는 트라우마 내러티브가 중심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기원과 뿌리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 여정은 늘 그 기원이 결국은 허구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고 본다. 기원 만들기는 허구 만들기와 다름이 없다고 본다. 이러한 어린 시절 버림받음의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입양인들의 기원 찾기의 불안과 실패담은 그들이 찾으려는 정체성이 결국은 그들의 삶의 기원이 될 수 없으며, 그들을 낳아준 부모들 역시 그들을 길러준 부모보다 더 그들의 인생에 결정적이지 않음을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호먼스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녀의 또 다른 논문인 「입양 읽기: 가족과 소설 속에서의 차이」(“Reading Adoption: Family And Difference In Fiction”)에서 최근에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소수인종작가들에 의해 씌여진 입양 내러티브들을 분석한

계 미국인 작가라는 범주에 이들 작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의 한국계 미국인 문학작품들이 미국 소수인종이라는 틀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이라는 고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어떠한 일군의 작가들의 문학을 한국계 미국인 문학이라고 부를 때 입양인들의 문학을 과연 한국계 미국 문학의 일부로 부를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사실상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들은 미국인들(주로 백인들)에 의해 입양이 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자란다는 점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어떠한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기 힘들다. 오히려 많은 입양인들은 자신이 한국계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입양인이라는 정체성만으로 그들의 문학을 한국계 미국문학의 틀에서 분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특정한 입양인 출신의 작가들의 공통적인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주제의식이 한국이라는 자신들의 모국에 대한 실함과 버림받음의 고통이라는 점에서 한국계 입양문학이라는 하나의 장르가 가능해진다.

다. 그녀는 베티 제인 리프트튼(Betty Jean Lifton)의 『두번 태어난(*Twice Born*)』과 토니 모리슨의 『타르 베이비(*Tar Baby*)』와 바바라 킹솔버(Barbara Kingsolver)의 『하늘의 콩나무와 돼지들』(*The Bean Trees and Pigs in Heaven*)』과 셔먼 알렉시(Sherman Alexie)의 『인디언 킬러』(*Indian Killer*)들을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작가, 미국 원주민 작가들과 같은 소수인종 작가들이 정체성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어떻게 밝혀내고 이를 통해 입양문화에서 기원의 내러티브와 어떻게 허위의 내러티브가 되는지를 보여준다.²⁾

이들 간-인종간(inter-racial) 입양작품들과 한국계 미국 입양인들의 작품들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유사점은 이들 다른 소수인종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계 미국 입양문화에서도 유사한 정체성의 혼란과 이를 통한 기원의 허구를 밝혀내는 과정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러티브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수인종 작가들의 입양 문화가 대부분 미국 내의 소수인종간의 담론에 머무는 반면 한국계 미국 입양 문화는 엘리나 김(Eleena Kim)이 「국제 친족」(“Global Kinship”)에서 밝히는 것처럼 초국가적인 현상이며 작품 역시 인종간의 벽 뿐 아니라 국경간의 벽을 넘나드는 과정이 담겨 있다. 엘리나 김이 이 논문에서 논하듯이 한국계 입양 문화에는 기원의 문제가 인종적 기원보다도 “태어난 국가”에 대한 디아스포라라는 이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구로서의 기원의 내러티브가 담기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입양에서 자신들이 세계화 속의 생체 정치(bio-politics)의 대상이 된다는 자각이 들어가게 된다.

엘리나 김(Eleena Kim)이 논하듯 입양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아동 수출”이 “국가적 자산의 확충”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홀츠 재단을 비롯한 국가들과 수요공급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어떻게 강력

2) 로라 브릭스(Laura Briggs)는 그녀의 논문에서 국가간 혹은 인종간의 입양 속에 나타난 인종담론의 현실을 살피면서 미국의 생명정치가 어떻게 입양을 ‘구출(rescue)’담론으로 치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 생체 권력의 대리인들로 작용하고 이를 통해 헤게모니로서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아동의 이득’이나 ‘손쉬운 해결과 같은’ 유럽중심주의와 계급적인 언어로 매개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503). 엘레인 킴도 암시하듯 국제적 생체권력(bio-power)과 생체 정치 그리고 그에 대한 생명윤리의 문제는 입양문학의 담론을 분석하는 데 중심적이다. 입양이라는 사태 자체가 한 나라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그 국가의 가부장적인 사회 체계와 혈족 중심주의에 의해 그 나라에서 입양을 시키거나 다른 위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제 3세계에서 제 1세계로 아동들이 수출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제 정치 경제의 문제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제1세계 부모들이 상당한 돈을 들여서 아동들을 입양한다는 점에서 국제 자본체계의 측면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거래’들의 대상이 사람의 몸이기에 ‘생명’은 이념의 담론으로 구조화되고 세계화라는 틀이 가진 헤게모니가 담론의 중심이 된다. 즉 제 1세계에서 동양 아동들에 대한 일종의 페티쉬즘에 가까운 선호와 그 문화가 불려온 구조에서 한국의 아동들은 헤게모니의 구조에 따라 제 3세계에서 1세계로 수출이 되고, 이러한 ‘거래’들에서 ‘미국의 꿈’이라는 환상이 조직된다. 더구나 입양이 일어난 후에도 이들 입양인들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외국인들이거나 동포의 한 부분집합으로 보고 국제화된 한국인들로 포함시키려는 노력들을 통해 입양을 국가주의나 세계화라는 이념을 대표하는 것으로 허구화시키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입양된 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찾아 한국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한국의 문화를 접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문화가 자신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이들 입양인들이 단지 자신의 고향과 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땅에서 또다른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수출되었다가 수입된 신체’와 같은 ‘이방인’ 혹은 ‘방외자’로 살게 된다.

무론 엘리나 킴이 논하듯 국제화와 기술의 진보는 이들 입양인들이 인

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게 하였고, 이들 사이에 일종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그들의 생체적 기원이 사실은 문화적 기원이 될 수 없게 되면서 또다른 차별을 겪게 된다. 1991년부터 한국에 입국한 입양인들의 수가 대략 3,000명에서 5,000명들에 달한다는 점(Eleana 505)에서 이러한 또 다른 '방외자 되기'의 과정은 입양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현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입양인들의 상당수가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와 미국의 백인 남성 중심 문화는 이들에게 이중적인 억압의 기제들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계 입양 문화는 대부분 이러한 이중 배제 현상을 다룬다. 대다수 미국 입양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미국에서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편견을 하듯이 한국에서는 또 다시 외국인이라는 차별을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그들은 뿌리 찾기와 부모를 찾는, 자신의 존재론적 모호함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포스트 디아스포라 시대의 입양인들의 작품들이나 인터뷰에서 나온 내러티브들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었다는 관점에 거부감을 표시한다(정해린 외 317).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길 바라는 사회의 시선을 일종의 억압이라고 생각한다. 주디스 버틀러를 비롯한 많은 이론가들이 말하듯이 현대의 정체성은 수행성(performativity)으로 결정되며 각 개인의 선택에 의해 정체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입양인들의 내러티브가 보여주는 혼종적 정체성과 수행적 정체성은 포스트 디아스포라 시대의 새로운 잠재성을 보여준다. 또한 작품 속 입양인들은 자신들의 생모 등과의 가상의 소통이나 다른 소수자들, 즉 혼혈이나 소외받은 서벌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3세계의 여성들(특히 자신의 어머니들과 형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입양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solidarity)의 가능성을 꿈꾸게 된다. 바로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포스트디아스포라 시대의 새로운 정체성 담론에서 특이성으로 나아가는 ‘다가오는 공동체’를 볼 수 있게 된다.

3. 입양 문학 속의 찢어진 몸들의 재생산

입양 소설이 다루는 초국가적 정체성의 문제는 입양 현상을 매개하는 국제적 자본 질서와 자신의 몸의 생물학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사이의 간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작품 속 입양인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유전적 몸의 정체성의 문제로 씨름한다.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는 자신이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어떠한 질병 등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성덕 바우만의 경우에서 보듯이 입양인들의 몸은 입양을 보낸 국가와 입양을 받은 국가의 사회적 체계들의 간극에서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의 유전단위까지 내재한 모호함과 간극으로 “모순적 생명”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양인이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를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국가적, 개인적 기원뿐 아니라 자신의 유전적 기원을 찾는 것이며 자신의 미래를 앞당겨 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입양인의 모순적 생명은 피부 아래의 유전의 문제에서 비롯되며 입양국에서 입양인이 넘어가게 되는 사회적 결정요인과 또다른 모순을 이루게 된다. 미국에서 한국계 입양인을 받는 이유는 한국아이들에 대한 문화적 페티쉬즘 뿐 아니라 ‘건강하고 똑똑하고 순종적이며 허용할 만한 피부색’에 대한 생물학적 요구조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만 달러의 돈을 쓰면서도 한국아이들을 선호하는 미국인들의 선택은 후진국 아이들을 받아들여 기독교인으로 만든다는 소명의식, 자신의 정치적 정당함과 윤리적 선함에 대한 자긍심, 주로 농업기반의 가족에게 필요한 노동력이나 정부의 특별한 혜택 등을 염두에 둔 경제적 이득 등의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결국 입양아의 몸은 생명 정치, 국제 정치, 국제 자본주의 등의 다양한 담론의 집결체이다.

이러한 “모순적 생명”으로서의 입양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낸 작품 중 하나가 마리 명옥 리(Marie Myung Ok Lee)의 『누군가의 딸』(*Somebody's Daughter*)이다. 주로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 소설들을

써온 마리 명옥 리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조사들과 입양인들이나 입양을 보낸 부모들과의 실제 인터뷰 등을 배경으로 입양아의 문제를 단순히 입양 자체에 국한한 것이 아닌 입양을 한 어머니의 관점과 연결시켜서 제시하고 있다. 작품의 플롯은 비교적 단순하며 작품이 다루는 주제에 비해서 절제된 감성과 명쾌한 스타일로 쓰였다. 특이한 점은 작품의 전체적 구조가 입양아인 사라 쏘슨스(Sarah Thorsons)의 한국 방문과 그녀의 어머니 찾기 내러티브와 생물학적 어머니인 경숙(Kyung-Sook)의 삶을 1970년대와 1993년이라는 시점과 더불어 배치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병렬구조는 입양의 문제를 단순히 입양을 당한 아이의 입장뿐 아니라 그 아이를 입양해야 했던 어머니의 입장과 병치시킬 뿐 아니라 역사의 두 시기를 대조함으로써 사건을 다면적으로 파악해보려는 노력에서 나왔다. 더불어 사라의 한국 탐방기의 동반자이자 주한미군과 기지촌 여성의 혼혈아인 더그(Doug)의 이야기가 사라의 이야기와 얽혀져 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미국 미네소타 주의 경건한 루터교도인 쏘슨스 씨 집에 입양을 온 사라는 자신의 한국의 부모들이 차 사고로 사망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어린 시절 인종편견 등을 겪었던 사라는 19살이 되는 해에 대학에 가는 것 대신 자신의 모국인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고 서울에 있는 조선 대학(Chosun University)에 입학하게 된다.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와중에 사라는 같이 한국어 수업을 듣는 더그를 만나게 되고 한국의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변화들을 목격한다. 그러던 중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를 찾아 고아원을 방문하지만 그녀가 고아원에 왔을 때 분노에 더럽혀져 왔다는 점과 고아원에서 지어준 자신의 이름이 이순민(Lee Soon-Min)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학연수 중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부모를 찾던 사라는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진행되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되고 그곳에 전화를 한다. 방송국을 통해 사라는 자신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유전자 테스트를 통해 결국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게 된다.

이에 병치된 사라의 어머니 경숙의 이야기는 시대적 배경을 1972년의 한국과 1993년의 사라가 한국을 방문한 시기의 한국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숙은 배씨 가문의 딸로서 인송마을(Enduring Pine Village)라는 민통선 근처의 전통적 한국의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대금연주에 재능을 보인다. 경숙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서울로 유학을 떠나 서울의 한 대학에 들어가기도 이를 포기하고 돈을 벌어 음악을 전공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음식점에 취업한다. 이 음식점에서 한 미국인을 만나게 되면서 경숙은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데이빗(David)이라는 미국인은 경숙을 미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꿈을 미끼로 농락하고 아이를 임신한 경숙에게 낙태 비용으로 만원을 쥐어주고 사라지게 된다. 결국 경숙은 유신반대투쟁에 대한 군부정권의 폭압으로 혼란한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혼혈 사생아를 낳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부모 때문에 돼지우리에서 분노에 쌓인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는 입양을 위해 고아원으로 아무런 출생에 대한 정보도 없어 넘기게 된다. 이후 시간이 흘러 1993년의 경숙은 한쪽 팔이 없는 목사와 결혼하여 살면서 어느 날 사라의 부모를 찾는 방송을 보고 서울에 찾아가지만 또다시 일어난 대학생들의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 등을 겪으며 자신의 존재를 사라에게 알리지 못한 채 시골마을로 돌아오게 된다.

작품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경숙과 사라의 병치된 내러티브 구조이다. 일종의 어머니와 딸의 대화의 구조를 가진 이러한 병치된 이야기 서술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역사의 지난한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모호한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역사의 질곡과 그 간극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어머니와 딸의 병치된 내러티브를 통해 치유(healing)와 모계 전통의 확립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입양이라는 국제 자본주의 질서 속의 사건 속에서 피해자는 분명 입양아이다. 대부분

아직 사리판단 능력이 생기지 않은 아이들의 입양은 아이를 절대적 타자로 만드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인 아이들에 대한 가해자는 명확히 한정될 수 없다. 입양을 용인하고 오히려 부추긴 한국정부, 필요와 당위로 입양을 하려는 양부모들, 역사적 질곡 속에서 나타나는 혼혈아나 미혼모를 용인하지 못하는 가부장적 한국 문화, 해외로의 입양을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했던 부모들이 모두 하나의 가해자 콘텍스트로 모아질 수 있으며, 그 구조의 가장 중심에는 국제적으로 중개를 담당하는 홀츠 재단을 통한 영유아들의 인신거래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생체 권력과 그 바닥에 깔린 세계 자본주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설 속에서 사라의 한국인 친구이자 한국어선생님 역할을 하는 준호는 입양아를 “구매를 위한 아동”(child for purchase)이라고 부른다(17).

그러나 어느 쪽을 마냥 가해자라 볼 수 없다는 것을 소설은 또한 잘 드러내준다. 역사는 ‘모호한 매개자’로서 어느 한쪽에 대한 일방적 윤리 판단을 중지시킨다. 경숙이 속한 마을은 이러한 역사를 대변한다. 그녀의 마을을 3.1운동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쑥대밭이 되고 경숙의 친구는 기지촌 여성이 된다. 전통적인 유교적 사회는 해체가 되고 젊은이들은 군부독재의 정치적 억압 속에서 도시로 몰려들어 빈민이 된다. 유교적 사회는 기독교 사회와 충돌하고 세대간의 갈등은 심화된다. 이러한 역사의 질곡은 사라의 친구 더그의 삶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지촌의 여성과 주한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인 그는 어린 시절 한국말을 할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62). 이후 어머니의 삶을 추적하기 위해 기지촌에 다시 방문한 더그는 그곳에 있는 혼종적 공간에 당황하게 된다. 주한미군 병사들과 기지촌 여성들의 공간은 “미국이면서도 미국이 아니었다”(This was America, yet it wasn't)(111).

작품에서 묘사되는 기지촌은 일종의 예외공간이다. 외국군의 주둔지면서도 국내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소파(SOFA)법령에 의한 제한만을 받

는 미군기지 옆에 정부주도로 설정된 공간인 기지촌은 법적으로 미군 부대도 아니면서도 한국과 미국의 법적 테두리의 간극에 위치한 지역이다. 여성의 성이 매매되는 것이 국가주도로 가능하게 만들어진 장소로서 생체 권력의 가장 중심인 '벌거벗은 생명'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생기는 장소이다. 더구나 이 생체 권력의 공간에 출현하게 되는 혼혈아들은 단일 민족이라고 여겨지는 한국에서 인종의 뒤섞임이 발생하는 신체-공간이며 기존의 정치적 인간(bios)과 생명으로서의 인간(zoe)의 간섭과 배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이다.

예외상황은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의 '지금-시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현재진행형이다. 일제 식민시대의 조선, 제주 43항쟁당시의 제주도, 거제포로수용소, 여순사건시대의 여주와 순천, 광주민주화항쟁시의 광주, 반복된 독재정권들의 계엄령, 유신통치, 87년 민주화항쟁 때의 대한민국 전국, 미군부대와 그 주변 기지촌들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예외상황의 특징은 포함적 배제(inclusive exclusion)이다. 포함적 배제는 법의 배제를 법의 영향력 안에서 포함시키는 형태로 진행된다. 인간의 정치적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해체하여 단지 인간의 존재윤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벌거벗은 몸'을 법의 보호에서는 배제시키고 그 몸의 처벌은 방관하는 것이 바로 포함적 배제이다.

사라와 경숙이 경험하는 한국은 이러한 포함적 배제가 끝없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흥미롭게도 경숙이 아이를 임신하고 미국인에게 버림받고 나서 출산이 얼마 안 남은 상태로 해매는 한국의 모습은 유신반대 투쟁에 대한 군인들의 무자비한 탄압이 일어나는 1972년의 남한 사회였고, 사라가 돌아와서 경험하고 경숙이 사라를 만나러 가지만 만남을 실패하는 1993년의 남한 사회 역시 문민정부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학생들에게 대한 경찰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일어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예외공간의 발생으로 경숙은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고 1993년의 경숙 역시 사라를 만나지 못하고 그녀의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러한 두 번의 예외상

태로 경숙과 사라는 소설의 마지막 순간까지 만나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사라의 자신의 유전자 차원의 현존성을 확인하려 한다.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던 사라는 자신의 부모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병력에 대해 전혀 작성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혹시나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유전적 형질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한다.

이러한 사라의 모습은 포스트디아스포라 시대의 미시화된 생체 권력의 지형의 단면을 드러낸다. 입양아들은 자신이 결코 알 수 없는 유전 차원의 정체성에서부터 모호성을 겪게 된다. 특히나 입양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 혼혈에 대한 재현은 기존의 인종 담론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며 한국과 미국 어느 곳에서도 배제당할 수밖에 없는 입양아들의 운명의 기반이 된다. 작품에서 경숙이 자신의 딸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모호하지만, 어쨌든 사라가 미국으로 보내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미혼모의 아이일 뿐 아니라 백인과의 혼혈이라는 점 역시 고려되었을 것이다. 김영미가 보았듯 “극도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처녀로 아이를 낳았을 뿐 아니라, 그것도 혼혈아를 낳은 경숙의 입장에서서는 입양 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39) 혼혈은 미국과 한국의 간극의 상징이며 단일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한국 땅에서 배척당할 구실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라를 비롯한 혼혈 입양아들은 이중적 배제 논리 속에 갇힌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혼혈의 정체성이 비교적 용인되는 미국으로 갔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계라는 신분은 주로 백인 부모들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일종의 이물감을 가진 정체성이 되고 이들 입양인들은 자신들의 트윙키(twinkie)로서의 정체성으로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곤 한다. 더구나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해도 그들의 피부색으로 인하여 한국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게 된다. 입양이라는 거래의 이면에 피부색이라는 기제까지 덮여져 그들은 어느 곳에서도 주권을 지닌 주체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방외자로 남게 된다.

인종담론과 국제 생명 정치의 결합은 입양인들을 일종의 ‘별거벗은 몸’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권마저 모호하게 만든다. 가령 입양이 실패하는 ‘파양’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양된 아동이 파양을 당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들이 곧잘 빚어지게 된다. 어느 경우에는 양 쪽 국적이 모두 없어져서 무국적자가 되기도 한다. 아감벤이 말하는 호모 사케르는 실제 입양으로 발생하는 현재형 존재들인 셈이다.

4. 결어: 우리 속의 호모 사케르들과 새로운 다중의 가능성

본 논문의 포스트디아스포라와 생명윤리에 대한 주장과 작품들을 통한 이론적 점검은 아직 실험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여러 측면에서 포스트디아스포라라는 용어는 아직 더 많은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디아스포라의 미시적, 특이성의 상황으로서의 의미가 왜 필요할지에 대한 의문과 탈식민주의와 초국가주의와의 차이에 대한 논의를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탈식민주의가 기반한 식민주의 담론의 전지구적 적용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 초국가주의가 담지하지 못하는 국가 안에서의 예외상태의 발현과 호모 사케르들의 출현, 혹은 초국가주의가 어쩔 수 없이 내재하는 코스모폴리탄 유토피아의 세계관, 로봇시대에 출현하게 되는 생산이 아닌 재생산의 몸으로서의 인간과 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등은 분명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입양인들의 몸들이 새로운 다중으로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다중은 대중과 군중 사이의 정치세력화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중들이 모두 호모 사케르의 이면이라는 점일 것이다. 정치적 담론은 변화를 이룰 수 있지만 ‘별거벗은 몸’들의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윤리적 질문을 담아내지 못한다. 호모사케르가 담고 있는 존재윤리의 틀

안에는 입양으로 수출되는 아이들과 세월호 참사 속에서 사라진 아이들과 겹쳐진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담론은 이들 호모 사케르에 대한 멈추지 않는 재현과 존재윤리적 이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잇으라'는 정치권력의 호소에 대한 '다중'들의 응답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렇다. 응답(response)은 윤리적 책임(responsibility)의 근원이며 정치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잠재태이다. 이 응답의 순간에 예외상황은 혁명의 공간이 되고 호모 사케르들은 변혁의 추동체인 '다중'이 될 것이다. 여기에 포스트디아스포라 문학의 소명이 있다.

(강원대)

■ 주제어

포스트 디아스포라, 생체 권력, 호모 사케르, 예외상태, 마리 리, 『어떤이의 딸』

■ 인용문헌

- 김영미, 「초국가적 입양소설에 나타난 동화와 민족 정체성 문제: 마리 명옥 리의 『누군가의 딸』과 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를 중심으로」, 『미국소설』 15.2 (2008): 27-52.
- Briggs, Laura. "Mother, Child, Race, Nation: The Visual Iconography of Rescue and the Politics of Transnational and Transracial Adoption," *Gender & History* 15.2 (2003): 179-200.
- Gilroy, Paul. *Against Race: Imagining Political Culture Beyond the Color Line*. Cambridge: Belknap/Harvard UP, 2000.
- Homans, Margaret. "Adoption Narratives, Trauma, And Origins," *Narrative* 14.1 (2006): 4-26.
- _____. "Reading Adoption: Family And Difference In Fiction,"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24.2 (2005): 348-350.
- Kim, Eleana. "Our Adoptee, Our Alien: Transnational Adoptees As Specters Of Foreignness And Family I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80.2 (2007): 497-531.
- Lee, Marie Myung Ok. *Sombody's Daughter*. Boston: Beacon Press, 2005.
- Trenka, Jane Jeong. *The Language of Blood: A Memoir*. St. Paul, MN: Borealis, 2003.

■ Abstract

Adoption and Ethico-ontology in the Era of Post-diaspora

Kim, Dae-Joo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potentiality of a new theoretical territory—namely, ‘post-diaspora’ focusing on how ‘adoption,’ as a post-diasporic global phenomena, is represented in a Korean American adoptee novel, Lee, Marie Myung Ok’s *Somebody’s Daughter*.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investigates adoptee’s narrative through theoretical lens of Giorgio Agamben’s ideas of ‘homo sacer’ and ‘the state of exception,’ Bio-politics, established upon global capitalism and post-marxist shift from production to reproduction, inclusively exclude human life through turning it into ‘bare life’—i.e. refugee, surrogate mothers, human organ trafficking, etc. As an example of those phenomena, Korean adoptee narrative in *Somebody’s Daughter* illuminate how those transnationally exported human subject turns into commodity and how the bi-racial adoptee of the novel, Sarah, comes to realize the true meaning of life through post-diasporic odyssey to find her hidden identity. In paralleled narrative of her birth mother, Kyung-Sook also shows how state of exception and bio-politics operate to turn both mother and daughter into homo sacer.

■ Key Words

Post-diaspora, bio-politics, homo sacer, state of exception, Lee, Marie Myung Ok, Somebody's Daughter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5년 12월 4일 ○심사일: 2015년 12월 18일 ○게재일: 2015년 12월 31일



문화번역가 펄벅의 동양 철학적 ‘생명’ 의식: 『새해』를 중심으로

박효진 · 김가희

Language is a translation of thought; writing translates speech; literature translates life; a reading translates a text; all metaphors are also translations, [...]. (Pym 2010:158)

I. 서론

최초의 미국여성 노벨상 수상자 펄벅(Pearl S. Buck)은 다소 특이한 이력의 작가라 할 수 있다. 그녀의 전 생애에 걸쳐 쓰여진 작품들 대부분은 이(異)문화를 그 배경으로 하며,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내용 또한 자신의 고국인 미국적인 것이라기보다 타자(the others) 혹은 타자성(the otherness)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펄벅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대지』(*The Good Earth*)이다. 김효원(2000)은 『대지』에서 “중국인에 대한 생생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인생의 초반과 중반을 중국에서 보냄으로써 정신적으로는 중국인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며, 펄벅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중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그의 작품 세계를 대변하기 때문”(31)이라고 평한다.

또한 펄빅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통해 “민족 간, 인종간 모순대립을 승화시켜 평화적 세계주의의 건설을 주요 작가의식으로 삼으면서 서구적 가치에 교훈적 보상이 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동양적 가치를 제시한다. 일본, 한국, 인도 등의 아시아에서 각기 민족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본연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시아 지역을 두루 여행하며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키고, 그의 인도주의적 세계정신을 구현”(김효원 2000: 31-32)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펄 빅에 대한 평가는 민족지학자들이 이문화를 기술할 때, 해당 문화를 그들 자신의 전문 언어로 ‘번역’한 것으로 보는 “번역으로서의 민족지학(ethnography as translation)”으로 핼(Pym 2010: 153)이 정의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

즉, 민족지학은 민족지학자의 관점에서 이문화를 자신의 언어로 기술하는 영국의 사회인류학적 전통에서 발전한 것으로, 민족지학자는 하나의 문화를 번역하는 번역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민족지학자인 번역자가 바라보는 이문화와 그가 속해 있는 자(自)문화가 겹쳐지는 곳으로, 호미 바바(Homi Bhabha 1994/2004)가 칭한 “제 3의 공간(Third space)¹⁾”인 것이다. 또한 바바는 “이 언어와 이문화의 겹치는 부분, 즉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언어적인 산출물을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으로”(박미정 2012: 3) 정의했다. 핼(Pym)은 문화번역이 언어적 산물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문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번역이 없는 번역(translation without translations)”(Pym: 148)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 번역자의 중재적 역할을

1) “제3의 공간은 문화의 의미와 상징에 있어서 원시적인 일치나 고정성이 없음을 확정하는 언술의 담화 조건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여기서는 어떠한 것도 전용, 번역, 재역사화 되어 새롭게 읽힐 수 있다. (번역은 필자의 것임) (It is the Third Space [...] which constitutes the discursive conditions of enunciation that ensure that the meaning and symbols of culture have no primordial unity or fixity; that even the same signs can be appropriated, translated, rehistoricized and read anew).” (Bhabha 2004: 55)

드러내면서 혼종성(hybridity)을 정립시키는 일련의 담화를 문화번역이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사이 공간(in-between)으로도 일컬어지는 제3의 공간에 자리하는 번역자는 “간문화적 정체성”(임선에 2008: 88)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인이면서 중국인이었던 펄벅의 삶의 터전이 이른바 사이 공간이었으므로, 필연적으로 그녀는 ‘간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녀가 만들어내는 담화는 ‘문화번역’이라 할 수”(박미정: 3)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펄 벅 자신이 문화번역가로서 풀어낸 『새해』(*The New Year*)라는 문화번역 담론을 통해 그녀가 동양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의 내리는 ‘생명’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그 생명에 숨을 불어넣어주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펄벅의 『새해』(*The New Year*)

서론에서 펄벅을 문화번역가로 명명했듯이, 펄벅의 작품 대다수는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문화와 미국 문화가 접목하는 그곳에 자리한다. 이러한 작품 가운데 한국을 배경 및 소재로 다루고 있는 펄벅의 대표작품은 1963년에 출판된 『살아있는 갈대』(*The Living Reed*)로, 구한말부터 6·25 전쟁까지의 한국을 서사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그 후, 아시아의 혼혈아에 대한 관심을 높이던 펄 벅은 1968년 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를 주제로 다루는 『새해』를 출간하게 된다. 그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미국 군인인 크리스 윈터스(Chris Winters)는 6·25전쟁에 참전하면서 한국인 여성 김 수니야를 만나게 된다. 크리스에게는 미국에 이미 약혼녀가 있었지만, 전쟁터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수니야로부터 위로받고자 한다. 곧 수니야와 크리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

데, 크리스는 어린 아이와 수니야를 한국에 남겨두고 미국으로 돌아가 약혼녀 로라(Laura)와 결혼한다. 10여년의 시간이 흘러 크리스는 미국에서 전도유망한 정치인으로 변모하여 주지사에 출마하게 되고, 이 때 잊고 있었던 한국에 두고 온 자신의 아들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게 된다. 김 수니야는 그의 아들에게 아버지인 크리스의 이름을 따서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크리스토퍼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첫 편지에 자신의 이름을 '김 크리스토퍼'로 소개한다. 학교에도 다닐 수 없고, 자신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냉대에 괴롭다는 내용의 아들이 보낸 편지는 크리스에게 또한 괴로움을 안겨준다. 이내 크리스는 아내인 로라에게 사실을 털어놓게 되고, 크리스가 아닌 로라가 그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난다. 한국에서 남편의 아들 김 크리스토퍼와 한국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로라는 크리스토퍼와 같은 혼혈아에 대해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결국에는 김 크리스토퍼를 미국으로 데려와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단순한 박애적 즐거리의 소설"(Conn 1996: 573)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즐거리라는 평가와 별개로, 펄벅은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 1960년대의 한국이라는 현실과 한국과 미국이 풀어야 할 생명윤리적 문제인 '혼혈아'에 대해 자신의 작가의식을 바탕으로 동양적 생명관을 투영시켰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간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펄벅이었기에 가능한 생명에 대한 윤리적 고찰일 것이다. 또한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공간으로서 사이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펄벅이 어떻게 생명을 정의하는지 살펴보겠다.

Ⅲ. 펄벅이 정의하는 생명(Life)

펄벅이 『새해』에서 혼혈아인 김 크리스토퍼를 통해 정의하는 생명은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생명은 “호흡+혈액순환·체온+의식·지각의 세 요소”(최재목 2011: 42)²⁾로 논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돼야 비로소 하나의 생명으로 완성된다는 일종의 생명윤리를 김 크리스토퍼라는 인물을 통해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먼저인 것은 ‘호흡’하는 것이다. “즉, 숨을 쉬는 것”(최재목: 44)으로, 생명을 흔히 ‘목숨’이라고 하여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 있는 것’으로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호흡으로서의 생명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

Then, unable to endure his loneliness, he had accepted the knowledge of his fatherhood, and he went to her. Only months later, when the child was born, had he known that he must return to his own country.

[...]

That last farewell he could not bear, even now, to remember. He had taken a last look at child, a solemn little creature, with the strangely Asian and yet not Asian face, and it had seemed to him, though of course it was imagination, that the child had met his look with recognition. Certainly it was the only time he had felt a flicker of kinship. (30)

그러다가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수니야를 찾았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야 할 시간임을 깨달았다.

2) 최재목(2011)은 「동양철학에서 '생명' 개념」에서 생명의 의미를 동양철학이 제시하는 세 요인인 ‘호흡’, ‘체온(혈액순환)’, ‘마음’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은 생명에 대한 동양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충분하며, 펄벅이 작품세계를 통해 접목시키고자 했던 ‘아시아적 세계관’으로 대체 가능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생명’의 요소로 적용하고자 한다.

[...]

그 마지막 작별은 지금 떠올려도 견딜 수 없이 가슴이 아파왔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조그맣고 신성한 생명체를, 묘하게 동양적이면서 동양인이 아닌 그 얼굴을 바라 보았다. 혼자만의 상상이었겠지만 아이가 자기를 알아보고 눈을 맞춘 것 같았다. 한 순간이나마 부자지간이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들었다. (32)³⁾

위의 예문은 수니야의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던 크리스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수니야에게 돌아오고, 몇 달 후 아이가 태어난 때를 보여준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크리스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부분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a solemn little creature(조그맣고 신성한 생명체)’로 크리스토퍼를 언급함으로써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의 요소인 ‘호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숨을 쉬는 것 그 자체만으로 생명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김 크리스토퍼를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호흡’이 충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다.

또 하나의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는 ‘혈액순환·체온’이다. “유교에서는 몸-핏줄은, 조상-후손을 연결하는 이른바 ‘유체(遺體)=유전자(遺傳子)’로서, 마치 벚꽃이 새끼를 엮어가듯이, 나만의 것이 아닌 조상과 후손을 연결하는 고리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몸’-‘핏줄’의 의미 연대=공동체를 형성한다”(최재목: 47). 즉, 피가 돌고 체온을 가진다는 것은 ‘숨을 쉬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연대감이 형성된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혈액순환과 체온으로서의 생명이 제시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eantime she has also told me her greatest difficulty.” He paused and continued, “This child—he is not a usual boy. He is the son of an American

3) 한글 번역은 정연희의 번역본 『새해』에서 발췌한 것임.

man. Twelve years ago she met this man when he was here after the war. They shared a life together for a year and more. She hoped he would marry her and he promised to return to this country. He went to America when the child was a month old, and from then on she has heard nothing from him. Meantime she has had to care for the child alone, although it is not her duty to do so.” (80)

“나중에 설명 드리지요. 그런데 가장 큰 걱정거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 “아이가 ……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이라고 하는군요. 12년 전에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전쟁 직후예요. 1년 넘게 같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가 자기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도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간 모양인데, 그때부터 아무 소식이 없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자기 의무도 아닌데 그 동안 혼자서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85)

“Certainly it is her duty,” she said firmly. “She is the child’s mother.” Mr. Choe looked at her steadily, his hands outspread on his knees. “Here it is the father who is responsible for the child. When there is no father, there is no family. The child is lost. He cannot go to school, nor can he hold a job, because the father has not registered his birth. So far as we are concerned, the child has not been born. He has no family, no one stands behind him. Therefore, he does not exist.” She felt a welcome and supporting rush of anger. “That is ridiculous. The child is here. He does exist.” “Not legally,” Mr. Choe said. She could not answer. (81)

“아이를 돌보는 게 왜 의무가 아닌가요. 아이의 어머니잖아요.”

로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조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을 펴 무릎 위에 올렸다.

“이곳에서 아이는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혈통도 없는 셈입니다. 아예 없는 아이가 돼 버리지요. 학교도 갈 수 없고 취직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은, 그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혈통도 없고 뒷받침을 해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로라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일더니 점점 거세졌다. “말도 안 돼요. 그 아이는 태어났어요, 존재한다고요.” “법적으로는 아닙니다.”(85)

첫 번째 예문은 김 크리스토퍼가 혼혈아임을 알 수 있도록 묘사하면서, 아이를 돌볼 의무가 엄마인 수니아에게는 없음을 제3자인 Mr. Choe가 설명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예문은 엄마인 수니아가 김 크리스토퍼를 돌볼 의무가 없다는 말에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로라와 Mr. Choe의 대화이다. 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 크리스토퍼는 엄마인 수니아와 아버지인 크리스 모두로부터 그 어떠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그의 존재는 부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아버지로부터 그의 존재가 부정됨으로써, 전혀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혈액순환’이라는 개념에서 발전된 ‘유대감’의 요소가 결여된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의무와 책임을 중시 여기는 한국의 사회문화를 내비치면서, 혼혈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두 번째 예문에서 Mr. Choe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통해 김 크리스토퍼는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다.

“What do you propose to do with the boy?” he asked, “When I came here,” she said, “my only intention was to put him in a school and give him an education... fit him to earn his living in some honorable way.” “Make a Korean

out of him," he amended. "He is a Korean, isn't he? He was born here." "You may call him a Korean but we do not. For us he is the son of his father. He is American. Why does his father not claim him? Then all problems would be solved." How could she explain to him? "You have been in my country..." she began. "In your country all nationalities are mixed," he protested. "There can be no disgrace in being partly Korean. For us it is not the same. We are the oldest people in the world, the most civilized. When your ancestors were living in caves my ancestors were artists and scholars." (120)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학교에 보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꾸리게끔 하려고 했어요.” “그 아이는 한국인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부인은 그 아이를 한국인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미국인인 거지요. 왜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여기서 그녀가 그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신은 미국에 있어 봤으니까…….” 로라가 말했다. “당신네 나라에는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어요.” 조가 항변했다. “네, 그곳에서는 한국 피가 일부 섞였다 해도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고, 가장 발달한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 나라의 조상들이 동굴에서 살고 있었을 때, 우리 조상들은 예술가고, 학자였습니다.”(131)

위의 예문은 Mr. Choe와 로라가 김 크리스토퍼가 속할 수 있는 국적에 대해 나누는 대화이다. 속지주의(屬地主義)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온 로라는 한국에서 태어난 김 크리스토퍼가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아이는 아버지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김 크리스토퍼는 그 누구와도 연

결되지 못하는 존재임을 제3자인 Mr. Choe의 입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미국인인 로라는 분개하면서도 안타까워한다. ‘혈연관계’를 중시 여기는 한국의 사회문화에서 비롯된 생명의 구성요소인 ‘유대감’이 김 크리스토퍼에게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인 아버지 크리스의 ‘인정’, 미국이라는 사회와의 조화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In that case what will happen to children like Kim Christopher?” Mr. Choe answered without hesitation, “They will be killed. Many have already died.” “What do you mean?” she demanded. “There was a period in the last decade, Mrs. Winters, when mysteriously many of these children fathered by your men disappeared.” “Disappeared?” “Yes. They died. In many ways. Also, some of the male children were castrated. Not only here but also in Japan. It is true. This was done. You will blame us very much and we are to blame, but you must remember that we are an ancient people, and very proud. In fact, you have only to see what takes place in your own country when two different races meet by blood. Many murders—” (115)

“그럴 경우에 김 크리스토퍼와 같은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죠?” 조가 주저 없이 답했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그랬고요.” “무슨 뜻인가요?” “지난 10년 동안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인 아이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실종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한 거지요. 다양한 방법으로요. 거세를 당한 남자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 사실이고, 실제로 행해진 일입니다. 외부에서는 우리를 비난할 테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전통을 가진 자부심 강한 민족입니다. 사실 당신의 나라에서도, 다른 두 인종이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만 봐도 알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된 거죠…….”(125)

위의 예문은 김 크리스토퍼와 같은 혼혈아들은 한국의 정세에 따라 쉽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Mr. Choe가 로라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김 크리스토퍼와 같은 혼혈아들은 사회 전체로부터 그 존재가 거부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 하겠다. 또한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을 통해 생명을 구성하는 '호흡'의 요소마저 박탈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혈액순환과 체온을 드러내는 위의 예문들 모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 크리스토퍼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배제된 존재라는 것이다. 생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결핍됐음을 알 수 있다.

생명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인 '의식·지각'에 대해 살펴보자. 의식과 지각은 마음(心)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원래 심장을 가리키던 말임과 동시에 사고의 중추로 간주되어, 단순히 어떤 사실 인식 기능만이 아니라 양심과 같은 윤리적 가치 판단 기능도 함께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천지의 어떤 사물이든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것에게끔 하는 작동(활동) 원리’”(최재목: 55-56)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정체성(identity)'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hat my father says, I do. I belong father, not mother.” “Yet you are all she has.” “She is woman. She must do he say. If he tell me come, she must also.” “What if he wishes you to stay with her?” He threw out his hands in a gesture of despair. “Here I am nothing—nothing. Supposing he send money for school, still I am nothing. I am not Korean. I am foreign. My father American. Why am I born?” (107)

“저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게 속해 있

어요.” “하지만 너는 어머니의 전부란다.” “어머니는 여자예요. 어머니는 아버지 뜻을 따라야 해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면 어머니는 그 말을 따라야 해요.” “아버지가 여기서 어머니랑 함께 살라고 하시면?” 소년은 몹시 실망한 듯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다. “여기에서 전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예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예요. 저는 외국인이에요. 아버지가 미국인이니까요. 저는 왜 태어났죠……?”(116)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김 크리스토퍼가 로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김 크리스토퍼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nothing)’로 인식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유대감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체성이 전혀 확립되지 못한 것이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묻는 김 크리스토퍼의 마지막 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 또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Kim Christopher lifted his eyebrows. “Who I am, please?” The headmaster looked at him quizzically. “You are one of my boys.” Christopher was patient. “For myself, who I am, sir?” The headmaster rubbed his chin. How was he to reply? “You tell me who you are, Christopher.” “I don't know, sir. I think I am my father's son, name is Winters, as you know. But now I am bot sure. Maybe I am only mother's son, name is Kim.” “Where is your mother, Christopher?” He was treading unfamiliar ground, forbidden, perhaps, but where a boy was concerned no one else came first. “She is in Korea, sir. She is Korean woman.” (211)

김 크리스토퍼가 그를 바라보았다. “전 누구죠?” 바트렛 교장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너는 우리 학교 학생 중 하나지.” 크리스토퍼는 잠자코 들었다. “저만 놓고 본다면, 저는 누구인가요, 교장선생님?” 바트렛 교장은 턱을 문질렀다. 어떻게 대답해야 한단 말인가? “네가 먼저 이야기해봐라, 크리스토퍼.”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시는 것처럼 이름은

원터스예요.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단지 어머니의 아들이고, 이름은 김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크리스토퍼?” 어쩌면 지금 교장은 생소한 땅, 금지된 땅을 밟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이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나 아이가 최우선이었다. “어머니는 한국에 계세요. 한국 여자시고요.”(229)

위의 예문은 미국으로 오게 됐지만, 아버지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채 기숙학교에서 지내게 된 김 크리스토퍼가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달리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자인 교장선생님의 눈에 비친 김 크리스토퍼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존재로 비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ood,” she said, “Now you look handsome.” “American?” he inquired hopefully. “Yes,” she said, in truth and untruth, Very American here in Korea, but when she got him home—she knew he would look Asian. Where, where was his country? (140)

“좋구나. 멋져 보이는데.” “아메리칸?” 소년이 희망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로라의 대답에는 진실과 거짓 모두가 담겨 있었다. 아이는 한국에서는 매우 미국적으로 보이겠지만, 집에 가게 되면—만약 집으로 데려간다면 한국인으로 보일 게 분명했다. 그의 고국은 도대체 어디, 어느 곳이란 말인가?(153)

“I think it is for some reason because I am American, like my father. In Korea I am American, But here I am not sure. It seems here I am Korean, There I am called Round Eyes, Here I am called Slant Eyes.” (212)

“제가 아버지처럼 미국인이어서 그러셨던 거 같아요. 한국에서 저는 미국인이에

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제가 한국인처럼 느껴져요. 한국 아이들은 저를 왕눈이라고 놀려댔는데, 여기 오니 짜진 눈이라고 놀림을 받아요.”(230)

첫 번째 예문은 서울에서 로라가 김 크리스토퍼에게 옷을 사주면서 나는 대화이다. 김 크리스토퍼는 미국인이 되는 것이 자신의 존재가 인정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로라는 그의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대목이다. 두 번째 예문은 김 크리스토퍼가 그토록 원하던 미국—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에 왔음에도 여전히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거부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김 크리스토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그의 존재는 거부되고, 그의 정체성은 전혀 부여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예들이다. 생명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인 ‘정체성’ 또한 김 크리스토퍼에게 부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펄 벅은 김 크리스토퍼라는 존재를 통해 생명이 무엇인지 동양철학의 관점에서 정의내리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호흡, 혈액 순환·체온, 의식·지각의 세 요소가 충족될 때에만 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동양철학적 관점을 김 크리스토퍼라는 혼혈아를 통해 펄 벅이 구현해 냈음을 예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펄 벅의 작품세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결핍’은 문화번역의 담론을 통해 보상받는다. 다음 장에서 펄 벅이 생명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IV. 생명이 부여되는 번역 공간

펄 벅은 『새해』를 이끌어 가는 인물인 로라(Laura)의 직업을 해양학자(oceanographer)로 설정한다. 로라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을 살펴보면, 펄 벅이 로라의 직업을 해양학자로 설정한 것은 일종의 복선임을 알 수 있다.

“We were studying the ocean itself—the bottom, its shape and contours, the sea water, its chemistry and physics, currents, plant life, animal life—everything possible. Each of us had a responsibility. Mine was—is—to study that type of life which hovers between plant and animal, and may be either, or both.” “Ah, the bridge creatures! Yes, they are important—but you amaze me!”(76)

“우리는 해양 자체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해저의 지형이나 바닷물의 화학적이고 물리학적 성질, 해류, 식물의 생활, 동물의 생활처럼 해양에 대한 모든 것 말이에요. 우리에게 각자 맡은 책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맡았고, 지금도 맡고 있는 일은 식물과 동물 사이에 놓인 어중간한 생물, 그러니까 동물이거나 식물인 생물들, 아니면 동물인 동시에 식물인 생물들에 대한 연구예요.” “아, 중간적인 생물 말이로군요! 분명 그런 생물도 중요하지만—저는 부인에게 더 놀랐습니다!”(80)

위의 대화는 로라와 Mr. Choe가 처음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일부로 로라가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는 대목이다. 로라가 해양생명을 다루고 있으며, 무엇보다 bridge creatures(중간적인 생물)를 연구한다는 대목은 혼혈아인 김 크리스토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로라 뿐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Yet surely there was a special alchemy here, for she had not seen Korean children as beautiful as this one, nor indeed the children in her own city, with whom she had grown out of childhood. It was not merely a matter of feature and coloring. There was an added grace, a combination perhaps of grace with strength. Kim Christopher was more graceful than the American child, and

stronger than the Korean. She thought of her sea plants, those bridging creatures, the delicacy of the waving fronds of seaweed somehow verging into the strong life of the animal. (140)

한국 아이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 함께 자라난 보스턴의 아이들 중에서도 이만큼 아름다운 생김을 한 아이가 없었던 걸 보면, 여기에는 분명 특별한 연금술이 작용했을 것이다. 단순히 이목구비나 피부색 문제가 아니었다. 거기에 보태진 품위, 어찌면 품위와 힘의 조화 때문일 것이다. 김 크리스토퍼는 보통 미국 아이들보다는 품위 있어 보였고, 한국 아이들보다는 강해 보였다. 로라는 자신이 연구하는 바다 생물들을, 그 중간적인 생물들을, 해조류 엽상체의 가녀린 흔들림이 동물의 강한 생명력과 잇닿은 경계를 생각했다. (152-153)

“Here also. Well, they begin life in the water. I suppose they think—that they are water creatures. But one day they feel the urge to rise to the surface of the water. There they shed their skins and suddenly they find themselves with wings. They have never known wings before, but as soon as they have them, they soar away into the sunshine, never to return to their water beginnings. What I am trying to say is that all through nature we have these valuable links between the races. I call them valuable because they make a unity of creation. Divisions are not permanent.” “You are meaning me, sir?” “Yes. Someday there will be so many like you everywhere in the world that no one will call you names. It is a process of nature and it cannot be stopped. You are important. You are essential. I cannot tell you how you happen to be born one of these link people, because I don't know your story. But someday you will know. Meanwhile, remember that you are valuable and that you have been born for a purpose—nature's eternal purpose, first to diversify and then to unify, and so make of life a continuing, continuous stream.” (213-214)

“여기도 많지. 우선 잠자리는 물속에서 생명이 시작된다. 내 생각에 잠자리들은 스스로를 수중 생물이라고 생각할 것 같구나. 잠자리도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말이지.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수면 위로 떠오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는 허물을 벗으면 자기들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날개가 뭔지를 몰랐지만, 그 날개라는 걸 갖게 되자마자 햇빛 속으로 높이 떠올라서 그 이후로는 자기들의 생명이 시작된 물의 세계로 결코 돌아가지 않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자연계 속에는 영역과 영역, 종과 종 사이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이제는 인종과 인종 사이에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란단다. 나는 그걸 소중한다고 생각한단다. 바로 결합된 생명이기 때문이야. 분열은 영원하지 않거든.”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언젠가는 세계 곳곳에 너 같은 아이가 많이 생겨날 거고, 그때는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다. 그건 자연의 변천 과정이고 멈출 수 없는 것이거든. 너는 중요한 존재야. 참 소중한 존재지. 너에 대해서 잘 모르니, 나도 네가 왜 그런 연결자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그 동안은 네가 소중한다는 사실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자연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만 기억하자꾸나. 처음에는 다양성을, 다음에는 결합을 추구하면서 생명은 쉽 없는 물결처럼 흘러가는 거란다.”(231-232)

위의 첫 번째 예문은 로라가 김 크리스토퍼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에게 정체성을 찾아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를 고민하던 그녀가 자신의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인과 미국인의 피를 물려받은 bridging creature로 받아들이며, 그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예문은 미국의 기숙학교 교장선생님이 김 크리스토퍼에게 곤충인 잠자리를 예로 들며, 잠자리의 생명에 대한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하며 그의 생명이 잠자리와 유사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두 예문을 통해 김 크리스토퍼는 어느 한쪽에 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이공간에 속하는 존재로서 인정받아야 함을 펄 벅이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간적인 존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시켜주는 존

재이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 인식은 김 크리스토퍼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인 ‘인식·지각’이 충족되는 것이라 하겠다.

“Friends, this is my son—our son, for my wife is with me in all this. She went to Korea and brought our boy back with her, our son Christopher. He has a beautiful voice. I want him to sing for you. Sing, Christopher!” (253)

“친애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제 아들—우리 아들입니다. 아내도 이 모든 일을 저와 함께 해주었으니깐요. 아내가 한국으로 가서 우리 아들 크리스토퍼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여러분께 노래를 불러들일 겁니다. 크리스토퍼, 노래 한 곡 불러다오!”(274-275)

“Welcome, Christopher,” Mrs. Allen said in her loud imperial voice. “We’re glad you’ve come home.” “Welcome, my boy,” Mr. Allen said and seizing Christopher’s two hand in his he shook them both at the same time. Then he turned to Chris. “Congratulations, Winters, a fine son—very fine boy—glad you found him—glad about—everything!” (254)

“크리스토퍼, 어서 오렴.” 앨런 여사가 위엄 있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이곳에 오게 되어 기쁘구나.” “크리스토퍼, 환영한다.” 헨리 앨런도 말하며 크리스토퍼의 두 손을 붙잡고 동시에 흔들었다. 그런 다음 크리스에게 돌아섰다.

“윈터스, 축하하오. 아주 멋진 아들—정말 멋진 아들이로군요. 아이를 다시 찾게 되어 기쁘고—이 모든 일이 기쁩니다.”(275)

위의 두 예문은 주지사로 선출된 크리스가 새해를 맞이하는 파티에서 자신의 아들인 김 크리스토퍼를 소개하는 장면이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서 인정받는 부분인 것이다. 중간적인 존재로서 그 양단에 있는 아버지와의 유대감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비로소 체온을 가지고 있고, 피가 도는 생명을 김 크리스토퍼가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As the clock began to strike that magic hour the voices of their friends around them rose in song. Over the singing could be heard the clear bell-toned voice of their child Christopher. (255)

마법의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모두들 한 목소리로 올드랭사인을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의 구름 위로, 그들의 아이, 크리스토퍼의 음성이 종소리처럼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276)

위의 예문은 『새해』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크리스와 로라, 그리고 김 크리스토퍼가 한 가족으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하겠다. 김 크리스토퍼가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사회로부터 그의 간문화적 정체성을 부여받아 하나의 완전한 생명이 된다는 것이 일면 미국의 박애주의적 결말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펄벅이라는 '문화번역가' 자신이 『새해』라는 작품에서 간문화적 정체성을 띤 김 크리스토퍼이기도 하면서, “세계통합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정신이어야 한다”(김효원: 59)고 주장하는 미국인의 로라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인 아버지인 크리스는 김 크리스토퍼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임으로써 김 크리스토퍼를 ‘피가 돌고’, 자신에 대해 ‘자각’하는 완벽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모시킨다 하겠다.

그를 받아들이는 공간을 아버지의 나라인 미국이라고 일면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문화번역가로서의 펄벅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인이지만 중국인으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 펄

벽 자신만의 '제3의 공간'으로서 김 크리스토퍼의 생명이 부여되는 곳으로 설정한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문화번역가'로 볼 수 있는 펄벅이 하나의 문화담론인 『새해』를 통해, 생명을 정의하고 부여하는 방식을 살펴봤다. 그녀의 대다수 작품이 동양적인 가치와 서양의 가치를 접목시키고자 했으며, 이는 영어를 통해 동양적인 세계관을 '번역'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새해』에서는 펄벅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간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동양철학이 정의하는 생명을 김 크리스토퍼라는 혼혈아에게 투영했으며, 혼혈아라는 사실을 통해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호흡+혈액순환·체온+의식·지각-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핍된다면, 진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없음을 문화 담론의 형식으로 보여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의식(마음)'으로 표현되는 '정체성'을 가장 부각시킴으로써, 생명을 대하는 윤리적 기준으로서 정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완결된 생명으로서 생명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이공간', 이 문화가 서로 만나는 '제3의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번역가로서의 펄 벅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이에 대한 의의 또한 있다고 사료된다.

(홍익대학교, 인천대학교)

■ 주제어

문화번역가, 생명의식, 동양철학, 호흡, 연대감, 정체성

■ 인용문헌

- 김효원, 「펄벅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세계정신」, 『영어영문학』, 봄, (2000): 31-65.
- 박미정, 「펄벅 <대지>의 여성지시어 번역 양상 고찰: 한국어번역과 일본어번역 비교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3, (2012): 1-22.
- 벅, 펄, 정연희 역, 『새해』(*The New Year*), 경기: 길산, 2009.
- 이장형, 「생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소고」, 『기독교사회윤리』, 4, (2002): 215-227.
- 임선애, 「서구 작가의 한국쓰기: 펄 벅의 <한국에서 온 두 아가씨>」, 『한국사상과 문화』, 45, (2008): 81-106.
- 최재목, 「동양철학에서 '생명' 개념」, 『인간·환경·미래』, 6, (2011): 33-63.
- 콘, 피터, 이한음 역, 『펄벅평전』(*Pearl S. Buck: A Cultural Biography*), 서울: 은행나무, 2006.
-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
- Buck, Pearl. *The New Year*. New York: Moyer Bell, 1968/2007.
- Pym, Anthony. *Exploring Translation Theor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0.

■ Abstract

Cultural Translator, Pearl S. Buck's Oriental
Philosophical Perception of 'Life':
Focused on *The New Year*

Hyojin Park (Hongik University) · Gahee Kim(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at how 'life' of a child of mixed blood is defined in her work, *The New Year* written in 1968 by Pearl S. Buck, the first female Nobel Prize winner and cultural translator, and how she breathes new life into the child based on Asian values. In other words, the way to project life force of human being and bioethics provided by the cultural translator onto the child who is a half-Korean and half-American, Kim Christopher, is studied on the basis of oriental philosophy. The three elements of life defined by oriental philosophy are breathing, blood circulation with body temperature, and sense or perception, Pearl S. Buck brings up identity as an important ingredient needed for bioethics via Kim Christopher who has an identity crisis by reason of that he has never won recognition from both mother's country, Korea and father's, America. Therefore this paper illuminates the writer's way to authorize him legally and ethically with the Third Space.

■ Key Words

cultural translator, perception of life, oriental philosophy, breathing,

• 문화번역가 펄벅의 동양 철학적 '생명'의식 | 박효진 · 김가희

kinship, identity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5년 12월 4일 ○심사일: 2015년 12월 18일 ○게재일: 2015년 12월 31일



생물학적 통제의 시대 인간복제(human cloning)에 대한 윤리적 논의

: 불교와 기독교 시각을 중심으로

이 정 일

1. 서론

1996년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경이로운 해이다. 바로 영국 에든버러 시에 위치한 로슬린 연구소(Roslin Institute) 실험실에서 복제양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체세포 핵전이(somatic cell nuclear transfer)란 기술을 통해 복제(cloning)가 이루어졌다. 스티븐 스피버그(Stephen Spielberg) 감독이 영화 <쥬라기 공원>(Jurassic Park, 1993)에서 선보인 호박 속에 묻힌 공룡 DNA를 추출하여 공룡을 재탄생시킨 기술이, (그 기본 원리에선), 실제 공간에서 실현된 것이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이언 맬콤 박사(Ian Malcolm; 제프 골드블럼 Jeff Goldblum 분)는 이렇게 설명한다. “신은 공룡을 만들었고, 신은 공룡을 파괴했어. 신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신을 파괴했지. 그리고 인간은 공룡을 창조했어.”

스코틀랜드의 발생학 전문가인 이언 윌무트(Ian Wilmut)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6년 된 암양에서 젖샘 세포를 추출했다. 그리고 핵전이 과정을 통해 동일한 게놈(genome)을 가진 복제된 양이 태어난 것이다. 발생학자(embryologist) 이언 윌무트가 한 일이나 영화에서 수학자인 이언 맬콤이 하는 일은 자연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두 사람은 자연이 어떻게 움직

이고 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대다수의 윤리학자들이 인정하듯, 자연계에 대한 지식은 인간이 더 나은 윤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데이빗 흄(David Hume), 토마스 헉슬리(Thomas Huxley), G. E. 무어(Moore)가 선례로 보여주듯, 자연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인간에게 도덕적 위상을 심어주는 것은 아니다 (Scott 690).

복제양 돌리(Dolly)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징이다. 이언 월무트는 2000년에 출간한 키스 캠펠(Keith Campbell)과 콜린 터지(Colin Tudge)와 공저한 자신의 책 제목을 ‘제2의 창조’(The Second Creation)라고 부쳤고, 부제를 ‘돌리와 생물학적 통제’의 시대’(Dolly and the Age of the Biological Control)라고 부쳤다. ‘생물학적 통제’란 말은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다. 통제란 내가 출입(出入)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힘을 가졌다는 걸 내포하기 때문이다. 돌리가 충격을 준 이유는 한 동물의 체세포를 떼어내어 똑같은 양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용된 복제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 이것은 인간이—진화한 존재이든 창조된 피조물이든—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생명(Life)이라는 영역에 가까웠음을 뜻한다.¹⁾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1859년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 《종의 기원》을 출간하여 생물진화론의 새 장을 연 이후, 인간은 영혼(soul)을 가진 비물질적인 존재(non-material being)란 정의는 급속히 약해졌다.

1) 성경의 창세기 3장 24절은 이렇게 적고 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아담과 하와]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밀줄 인용자) 하나님은 선악과(עֵץ הַדַּעַת,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동산에 들어가 혹시 생명나무(the tree of life)의 열매까지 먹어 ‘죄인’(sinner)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까 염려하여 천사를 시켜 막은 것이다. 왜냐하면 언약(covenant)을 통해서만 인간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여준 상태—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이다(Sailhamer 110)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다는 시각은 철학, 과학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 종교에서도 의심받고 있다.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하여 1962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프랜시스 크릭(Francis Crick)은 《놀라운 가설》(The Astonishing Hypotheses, 1994)에서 “인간이 육체가 없는 영혼을 가졌다는 생각은 불필요하다”(Crick 7)고 단정한다.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dualism)을 믿고 있지만, 머피(Murphy)는 여전히 다수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인간을 그저 육체만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31, 37). 하지만 철학자들 중 인간에게서 육체를 배제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에, 이 논문에선 머피의 지적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과학자 리처드 시드(Richard Seed)는 절대자인 신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며, 따라서 인간에게 복제능력을 주었다고 성급하게 주장했지만(Durst 20), 복제는 여전히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이다. 줄기세포 연구는 특히 의학 분야에서 잠재적인 폭발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런 잠재력은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강조하듯 “진실성과 윤리에 대한 매우 높은 기준”(키슬러 80) 같은 윤리적 인식에 제지를 받곤 한다.²⁾ 이제 생명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 시대, 알츠하이머, 파킨슨, 일부 암과 척추 손상 같은 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인 줄기세포치료를 통해 얻어지는 현재와 미래의 유익들은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달콤하다.

정치경제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환경 활동가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독일 녹색당 당수 볼커 벡(Volker Beck) 의원도 줄기세포를 통한 복제연구에 브레이크를 걸지만, 과학자들은 왜 복제가 신의 영역인가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빠르게 축적되는 과학지식과 진화론으로 훈련된 지식인들은 ‘창조주로서의 신’(God as a

2) 황우석은 바로 윤리와 진실이라는 두 가지에서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키슬러 49-103). 2005년 말 황우석(Hwang Woo-Suk) 박사의 스캔들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줄기세포연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Creator)이란 개념을 배제했고 신을 자연으로부터 추방하였다. 다윈 이후 신은 자연에선 설 자리가 없다. 그 여파는 강력하여 줄기세포 연구는 ‘질병’과 ‘죽음’이란 메타포로 상징되던 인간의 한계를 깨뜨리는 종교적 이상처럼 여겨진다. 그 결과 진보적인 크리스천인 필립 헤프너(Philip Hefner)는 《진화, 문화와 종교》(Evolution, Culture, and Religion)에서 인간을 “신에게 창조된 공동 창조자”(God's created co-creators)로 설명한다(27).

헤프너는 유전공학과 복제가 때론 불경스런 방법으로 진행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려는 인간의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석한다. 신학자란 직분만 없다면 헤프너는 어느 생물학자들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 불교나 힌두교와 달리 가톨릭과 개신교에선 생명의 첫 시작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다. 예컨대 가톨릭 신학에선 영혼은 수정체 안에 불어넣어진다고 주장한다. 불교에선 창조주 개념과 유일신 개념이 없다. 대신 혼(sprit)은 영원하며 개인의 업보(業報, karma)는 그 혼이 다음 생(生)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업보는 우리 행동의 결과로 생기는 반응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수정된 순간을 생명의 시작으로, 인간(person)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복제를 통해 불임(不妊)을 해결하거나 혹은 연구목적으로 태아를 파괴하는 것 모두가 잘못된 것으로 해석한다.

줄기세포/인간복제를 둘러싼 논쟁은 어쩌면 ‘거울’(mirror)과 ‘등불’(lamp)이란 용어를 차용하여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M. H. 에이브럼즈(Abrams)는 《거울과 등불》(The Mirror and the Lamp)에서 작품, 예술가, 세계, 청중의 네 가지 요소를 설명하지만, 그가 한 발언 중 “시인은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들의 갈 길을 일깨워주는 선지자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시인은 그 시대를 물끄러미 비춰주는 거울이어야 하는가.”란 말은 다르게 들린다. 거울은 현실이고 시대와 사회를 반영한다. 본 논문에서 거울은 인간이 처한 육체적 질병이란

한계를 상징한다. 반면 등불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새로운 지시 틀(tool of reference)로 재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줄기세포를 둘러싼 논쟁의 초점은 태아의 줄기세포를 사용한다는 데 있고, 이것은 생명의 시작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비롯된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본 논문은 줄기세포치유/인간복제를 둘러싼 제반의 논의들을 불교와 기독교란 두 줄기로 묶어서 해석하며, 충돌하는 시각을 중재시킬 접촉점을 찾고자 한다.

2. 본 론

2.1 줄기세포치유/태아복제에 대한 불교의 시각

가톨릭과 개신교가 생명은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 여기는 데 반해서, 불교에선 초월적인 창조자(Creator) 개념이 없다. 생명의 창조는 고정되거나 명료한 과정이 아니다. 불교윤리학자인 데미언 키온(Damien Keown)은 “불교는 생명이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하며, 성적인 재생산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성적인 재생산은 다른 형태의 출생보다 신이 인정했기에 우월한 이유는 없다고 가르친다.”(Frazzetto 554 재인용)고 주장한다. 게다가 불교에선 인간의 개성을 망상(illusion)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복제는 한 인간의 개성이나 인격을 위협하거나 폄하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복제가 갖는 신학적인 난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불교적 논의에선 태아는 사람인가? 연구과정에서 태아를 파괴하는 것은 살인인가? 복제는 가족관계를 어지럽히는가? 혹은 복제는 신의 창조를 훼방하는가? 같은 질문들은 그저 참조사항일 뿐이다.

이 논문의 핵심어휘인 생명윤리는 생명과 윤리를 결합한 말이다. 하지만 생명이란 말은 불교에서는 낯선 표현이다. 불교에선 ‘생명’이란 표현

대신 생(utpada, jati)과 명(jivita)을 따로 사용하거나, 수명(ayur)이나 명근(ivita-mula)을 사용한다(김기선 3; 김종욱 10). 또한 불교에선 생명을 보는 관점이 연기설을 기반으로 한다. 연기설에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소멸한다”³⁾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불교의 생명관은 연기법의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은 유기체인 생명체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생명은 생물과 무생물, 인간과 자연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에 통하는 진리의 개념을 띠고 있다(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 59). 따라서 불교에선 생명을 해석하는 방식이 기독교와 상이하다. 불교에선 인간을 육체(色), 감각(受), 지각(想), 의지(行), 의식(識)의 구성체로 인식한다. 이 오온의 구성체가 인연으로 화합하여 생성된 것이 생명이다. 따라서 이 생성의 인연이 다할 때 죽음이 찾아온다(김기선 4).

불교에선 생명을 피조물이나 혹은 일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불교에선 인간생명을 “윤회와 해탈의 과정이라는 전혀 다른 맥락”(김종욱 15)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한다. 말하자면 인간이란 그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윤회에 머물 수도 있고 해탈에 머물 수도 있다(김종욱 16). 따라서 불교에서 업(業)과 보(報)는 매우 중요하다. 이 업과 보의 연결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세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가 마음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김종욱 26). 이런 맥락에서 인과업보의 불교적 사상은 인간복제의 윤리적 측면을 해석하는 불교의 도덕적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불교는 두 가지 상반된 딜레마를 보여준다. 인간복제는 예를 들면 불임이라는 고통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생명을 위해 한 배아란 생명의 시작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

3) 이것을 다른 말로 비유한다면,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시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끝이 없는 것도 아니다.”(이중표 1999 225-256)

을 덜어주는 이타적 행위는 선을 가져 오지만, 이것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불명확한 경계는 관용적 자유로운 태도로 표현된다. 이것은 생명 윤리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약간의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는 생명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에서 기인한다. 불교적 시각에선 인간의 수정란 혹은 배아는 생명체에 해당할 수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교에선 수정과 착상을 구분하지 않고 그 대신 입태(入胎)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 말은 실제적으로 착상에 가깝다. 태(胎)란 말 자체가 생명체를 감싸고 있는 태반을 가리키고, 이것은 착상이 되었다는 걸 함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적 시각에선 인간생명의 시발점은 착상인 것으로 보여진다(김종욱 32). 그런데 문제는 불교에선 인간으로 여겨지는 시발점이 수정부턴 아니란 점이다. 착상 혹은 입태부터 생명으로 여기기에 불교는 이 점에 대해선 자유롭게 접근한다. 김종욱은 이렇게 설명한다.

착상 이전의 잉여 냉동 수정란을 이용하거나, 착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체세포 핵 이식 복제술을 활용하거나 하여 배아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불교 교리적으로 용인해도 무방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인간의 복제는 착상을 전제로 하므로, 이렇게 수정보다는 착상을 강조해야만 인간 복제를 막으면서도,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인간 자비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34).

불교에선 인간으로 여겨지는 기준점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그 수정란이 모태에 착상된 때부터인 것이다(33). 따라서 치료용으로 인간의 배아를 파괴하는 일은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허남결 56-57). 허나 논의를 조금 확대하면, 자비행이라 할지라도 배아에 대한 파괴는 불살생을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58). 이 점에 대해선 불교윤리학자인 데미언 키온도 동의한다. 일반화해서 말하면, 복제배아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생명의 잠재성이나 궁극적으로 생명을 파괴하게 되는데, 이는 불살

생(ahimsa)이란 원칙을 깰 수 있다는 것이다(cf. 허남결 58). 황우석 박사는 불자(佛子)이기 때문에 불자의 시각으로 생명윤리를 이해한다. 사실 불교에선 낙태나 안락사 같은 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다. 생명을 윤회와 해탈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복제를 둘러싼 윤리적 접근이 기독교에 비해선 보다 유연하다. 이런 관용적인 태도는 황우석 박사의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난다. 따라서 불교의 견해는 이렇게 정리된다.

종교	배반포(6일까지)	태아(6일~8주까지)	태아(8주 이후)
불교	생명의 시작을 착상 이후로 보며, 낙태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해석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불교적 시각에선 배반포를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선 찬성하는 윤리학자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파킨슨, 알츠하이머, 혹은 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아픈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태아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허용되고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는 움직임도 있다. 필립 키처(Philip kitcher)는 「도 대체 누구의 자아인가?」란 논문에서 “복제를 통해 인간을 복사하는 것은 단 한 명의 유전적 부모를 가진 세계 최초의 인간을 탄생시킴으로써 인간 존재에 대한 정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왓슨 139)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키처의 지적처럼 유전공학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는 달리 표현하면 (a) 사실 아이를 구할 것인가, (b) 배아를 구할 것인가 혹은 (a) 배아는 인간인가 (b) 세포 덩어리인가로 단순화될 수 있다. 사실 배아를 인간으로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수정부터 출생 중 어느 시점에서 인격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샌델 165)

R. C. 르윈틴(Lewontin)⁴⁾은 이점에 주목하면서 복제에 관한 혼동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지적한다(왓슨 222). 르윈틴은 복제를 둘러싼 논쟁들이 종교적 고찰과 윤리적 고찰이란 시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논의는 미묘하다. 개신교나 천주교가 인간복제를 엄격하게 금지하지만, 헤프너처럼 인간을 신의 공동 창조자로 본다면 복제를 신과의 협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여지는 기독교보다는 불교에서 훨씬 넓다. 그 이유는 불교에선 생명의 시작을 착상 이후로 보기 때문이다. 복제를 향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 논의는 철학, 윤리와 법에서의 논의 이상으로 종교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기독교에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되고 있다. 불교와 달리, 기독교에선 (a) 생명의 시작을 착상되는 순간부터 보기 때문이고, 동시에 (b)인간을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이란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2.2 배아는 인간인가, 세포 덩어리인가 : 태아복제에 대한 기독교의 시각

2004년 황우석 박사팀이 세계 최초로 인간의 태아 복제에 성공하였다. 지오바니 프라제토(Giovanni Frazzetto)는 2004년 인간태아 복제 성공 소식을 듣고 EMBO 보고서에 쓴 〈태아, 세포와 신〉(Embryos, Cells and God)이란 글에서 한국은 불교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제가 가능하였다고 분석하였다(553). 기독교가 여전히 강한 입김을 드러내는 서구의 국가들은 인간복제를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 국가에선 생명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선물'(gift)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모두 어떤 형태이든 인간복제를 반대하는데, 이들의 견해를

4) 르윈틴은 《진화론적 변화의 유전적 기초, 1974》(The Genetic Basis of Evolutionary Change), 《이데올로기로서의 생물학》(Biology as Ideology, 1991)을 쓴 생물학자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개신교 교단의 관점에 대한 개관

종교	배반포(6일까지)	태아(6일~8주까지)	태아(8주 이후)
기독교 (태아의 위상에 대한 견해들) ○ 로마 가톨릭 ○ 동방정교 ○ 근본주의 크리스천	이들은 모두 수정하는 순간 도덕적 위상을 획득한다는 데 동의한다.		
○ 복음주의 개신교	이들은 태아(8주 이후)는 제한된 도덕적 위상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된 도덕적 위상은 수정될 때 획득된다고 말한다.		

·출처: *Fundamentals of stem cell debate: the scientific, religious and political issue* by Monroe et. al. page 81 참고

위 도표 1에서 보듯, 가톨릭 교회는 인간복제를 반대한다. 또한 시험관에서 태아들의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것도 반대한다. 이런 반대는 1987년에 발표된 <인간생명의 근원과 출산의 존엄성 안에서 인간생명의 존중에 관한 바티칸의 가르침>(Instruction on Respect for Human Life in its Origin and on the Dignity of Procreation (*Donum Vitae*))에 근거한다. 로마 가톨릭의 해석에 의하면, 복제는 윤리에도 어긋나지만 더 근원적으로 인간의 태아(embryo)가 갖는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난모세포(oocyte)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person)이란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가톨릭 모두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 시작된다고 인식한다.

a) 인간복제의 윤리적 개념정립에 적용되는 성경적 근거

성경은 복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복제 개념 정립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성경은 21세기 생명윤리에서도 기준(measure)이며 정전(canon)이 되고 있다(Verhey 297; O'Mathuna 246). 특히 오마

투나(O'Mathuna)는 생명윤리 분야에서 성경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52).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는 창세기 1장 26-27절에 나온다. 창세기(Genesis)의 첫 두 장은 천지창조와 각종 식물들과 생물들의 창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인 인간의 창조를 적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독특하다. 이것은 언어나 지능 이상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Hammett 341).

복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영혼(נֶפֶשׁ, nefesh)⁵⁾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에, 수태한 순간 생명이 시작된다고 여기지 않는다(Crick 7). 따라서 태아는 아직 인간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해석한다. 시편 139장 13-16절은 이렇게 적고 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⁶⁾(밀줄 인용자). 저자인 닷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 수태할 때 이미 인간임을 적고 있다.

이사야 49장 1-5절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는 장면을 기

5) 네페쉬는 생령적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구약에서 755회 나온다. 네페쉬는 인격적 존재인 인간을 가리킨다. 하지만 네페쉬는 육체를 떠난 정신적 측면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성경에서 영혼은 언제나 몸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영혼은 목마르며(잠 25:25), 배고픔을 느끼고(시 107:9), 하나님을 사모한다(사 26:9; 시 33:20, 42:1). 그러나 네페쉬는 범죄하면 죽는다(겔 18:4).

6) 이 논문에서 인용된 성경구절은 《성경전서:개역개정판》 서울:대한성서공회, 2001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영어성경은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NASB(New American Standard Bible)와 NKJV(New King James Version)을 참고하였다.

록하고 있다. 이사야(יֵשַׁיָּהוּ, Yeshayahu)는 특히 1절 후반부에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밀줄 인용자) 라고 적고 있다. 또한 누가(Luke)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연 침례 요한(Ἰωάννης ὁ βαπτιστής, John the Baptist)의 출생을 기록하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눅 1:16, 밀줄 인용자)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성경구절들은 모두 생명은 수태와 동시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고 쓴다. 이 말은 창조주가 있다는 뜻이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man]이 생령[a living soul]이 되니라”(밀줄 인용자). 영혼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what we have)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what we are)를 보여준다(고후 15:45). 성경은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분명히 한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순간, 이 영혼의 등불이 꺼진 것이다. 그리고 영이 죽고 육체만 남은 그 꺼진 등불은, 구원자(Savior)이자 주님(Lord)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상으로 회복된다.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이란 사실은 인간 스스로는 복제, 안락사, 낙태 같은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윤리적 문제들은 에덴동산의 선악과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b) 마태복음 1장의 예수의 족보로 읽는 인간복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
기독교에선 생명을 이해하는 관점이 불교와 상당히 다르다. 불교와 달리 기독교에선 죄(罪)의 개념을 중요시한다. 바로 죄를 자복하고 구원자 예수를 구주(Savior)이자 주님(Lord)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구원으로 이해하며, 이것을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복제는 이 구원의 과정을 혼동시킬 수 있다.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듯이,

예수는 인간이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것을 케노시스(kenosis)⁷⁾ 곧 성육신이라고 부른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사건이다. 이 사건 속에 출생(birth)이란 과정이 포함된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창조주가 출생을 통해 역사란 피조된/창조된 세계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 중 하나는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17절과 누가복음 3장 23절-38절에 보면 예수의 계보(系譜)가 나온다. 마태(Ματθαῖ/Matityahu)의 계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무엇일까? 동사를 찾은 뒤, 그 동사의 태(voice)를 살펴보면 재미난 사실이 드러난다. 태란 문법에서 동사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태에는 적극적인 능동태와 소극적인 수동태가 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를 자세히 관찰하면, 계보에서 사용된 40개의 동사의 태가 한곳만 빼곤 모두 능동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수동태가 쓰인 한 곳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뭘까?

마태복음 1장에선 ‘낳다’(γεννάω/gennaó)란 헬라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동사이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낳고, 낳고 ... 연이어 등장하는 39개의 동사의 태가 모두 능동태인데,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마리아에게서 그 규칙이 깨진다(Huffman 256). 수동태는 “예수가 나시니라”(Jesus was born, NASB)란 표현에만 유일하게 등장한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장 18절-25절이 수동태가 쓰인 이유를 설명한다. 이 모든 것들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동시에 인자(人子) 곧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이란 사실이다.

7) 케노시스(κένωσις, kénōsis)는 ‘비움’을 뜻하는 헬라어이다. 케노시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신성을 낮춰 자신을 비운 모습을 의미하기 위해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다. 메리엄-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케노시스란 단어는 1873년부터 쓰였다고 한다. 이 단어는 빌립보서 2장 6절-8절에 딱 한번, 그것도 간접적으로 등장하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종(δοῦλος/doulos)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것은 가장 겸손한 자기 낮춤의 모습이다.

동사 ‘낳다’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NIV 영어성경은 이 단어를 ‘-의 아버지’로 번역하지만, 둘 다 의미는 같다. 영어와 달리 독일어나 스페인어, 라틴어나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면 격변화(주격, 소유격, 목적격, 여격)를 외우는 것도 힘든데, 단어들을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으로 나눠 외워야 한다. 성과 격에 따라 형태가 바뀌기 때문이다.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때로는 이 복잡한 변화가 의외의 사실을 드러내기도 한다. 마태복음 1장 16절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신약성경을 기록한 원어인 헬라어(Greek)로 읽으면 이렇게 된다.

Ἰακώβ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σήφ τὸν ἄνδρα Μαρίας, ἐξ ἧς ἐγεννήθη
Ἰησοῦς ὁ λεγόμενος Χριστός.⁸⁾

이 절을 헬라어로 음독하면 이렇게 발음된다. “이아코스 데 에게네센 톤 이오셉 톤 안드라 마리아스 엑스 헤스 에게네세 이에수스 호 레구메노스 크리스토스.” 밑줄 친 세 단어 ‘엑스 헤스 에게네세’를 읽기 쉽게 영어 알파벳으로 쓰면 ‘ex hes egennethe’가 된다. 헬라어 엑스(ἐξ)는 전치사이고, 헤스(ἧς)는 관계대명사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헤스는 여성형이다. 여성형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아버지 요셉(Joseph)이 아닌 어머니 마리아(Mary)만이 예수와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던지는 신학적 의미는 이렇다.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은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Christ)는 두 번째 아담(Adam)이다. 그리스도는 실패한(혹은 범죄한) 옛 아담을 새로운 창조물로 변형시킨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질 깊숙한 곳을 들여다본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

8) 마태복음 1장 16절에 대한 헬라어(Greek) 판본은 다음 주소에서 참고하였다. <http://bibletranslation.ws/palmer-translation/>

간의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Brun 187).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e)을 따라 창조된 모습으로 살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복제(cloning)는 ‘창조된’(created)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만들어진’(made) 인간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성경에선 아담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이를 낳았다고 은유적으로 설명한다(창 5:3).⁹⁾ 이런 초월적인 내면을 복제란 방식을 통해 본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서 말하는 대용품(‘사람들의 영혼’)을 의미하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인간의 생명을 상품(commodity)처럼 다루어선 안 된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The Book of Revelation) 18장은 세상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Babylon)의 패망을 설명한다. 상인들이 그 동안 물건을 납품했던 견고했던 바빌론 성(城)이 허물어져 불타는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데, 그들이 거래한 품목들의 이름이 12절과 13절에 나온다. 13절은 이렇게 적고 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밀줄 인용자). 마지막에 기록된 거래품목이 ‘사람의 영혼들’이다. 이 표현을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은 ‘노예들’(slaves)로 해석하지만(650), 개정판 흠정역 성경(NKJV)은 ‘souls of men’으로 적고 있다.

생명윤리학자 길버트 메일엔더(Gilbert Meilaender)는 인간을 설명하면서 “태어났으나 만들어지지 않은”(begotten, not made)이란 독특한 표현을 쓴 적이 있다(77-83). Begotten은 ‘낳다’란 뜻을 가진 beget의 과거분사이다. ‘태어났으나 만들어지지 않은’이란 표현은 신구약 성경에선 족보를 설명할 때 자주 쓰인다. 동시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의 탄생을 설명할 때도 쓰인다.¹⁰⁾ 길버트의 표현은 출생(birth)

9)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이를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창 5:3, 밀줄 인용자).

10) 그리스도의 인성(humanity)은 하나님을 반영한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

혹은 생식(procreation)은 신의 특권이며,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 암시한다. 영(Soul)이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전 15:45; cf Blomberg 195-198). 따라서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소설 속 인물인 몬스터(Monster)는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박사가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이다.

3. 결론

즐기세포치유(SCT)를 둘러싼 복제논쟁은 결국은 세계관으로 연결되며, 이것은 현실을 보는 관점을 보여준다. 거울은 현실을 그대로 반사한다. 현실이란 실제적인 장애와 한계를 의미한다. 슈퍼맨, 원더우먼, 스파이더맨 같은 캐릭터들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가를 상징한다. 힘이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인간이 한계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왜 하는가를 생각할 때 드러난다. 즐기세포치유는 불임(不妊)으로 고통 하는 부부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선다. 하지만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불임을 상식과는 다르게 해석한다. 볼프는 9년간 불임(infertility)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 고통을 그는 이렇게 쓴다. “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9년이란 시간은 매달 독(毒)이 든 샘물에서 쓴 물을 마시는 것 같았다.”(31)

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었다. 이것을 성육신(incarnation)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다. 그리스도는 실패한 또는 죄를 범한 옛 아담을 새로운 창조물로 변형시킨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본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초월적으로 지향한다. 이런 초월적인 지향을 만들어진 대용품으로 대체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성경은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과 셋의 자손을 구분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슈퍼맨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다. 복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인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Brun 187).

볼프는 후에 두 명의 남자 아이를 입양하면서 불임이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 두 아이란 선물을 주기 위한 조건임을 깨달았다. 그는 “가임(fertility)은 나에게서 사내아이들을 빼앗아갈 수도 있었다.”(32)라고 고백한다. 불임이란 장애는 입양(adoption)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전제 조건이 된다. 현실을 해석하는 틀이 거울에서 등불로 바뀐 것이다. 복제는 불임이란 현실을 그대로 반사한다. 하지만 볼프는 복제(cloning)란 거울을 입양(adoption)이란 등불로 재해석하였다. 사실 이런 해석을 처음 시도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다(롬 8:14-17).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adopted children of God)로 이해하기 때문이다.¹¹⁾ 이 개념이 부분적으로 불교의 자비(great compassion)란 속성으로 표현된다.

복제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분명하고, 두 가지 다 설득력 있다. 찬성하는 쪽은 고통 하는 현실의 모습에 연민을 보여준다. 이것은 불교의 시각이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신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시각이다. 생명 통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외 없이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에서처럼 찬성과 반대란 두 갈래 길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는(partitive) 노선을 택하는 대신, 양자의 접촉점을 찾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싶다.

1세기 때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구분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인간이 세상과 서로서로와, 특히 신에 대한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불교에선 이것을 자비 혹은 인과응보로 표현한다. 자비는 중생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실천행이다. 이것을 기독교에선 십자가(cross)란 상징으로 표현한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

11) 중생 때 새로운 영적 삶이 주어지고, 칭의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법적 권리를 가지며, 양자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보았다. 즉 혈육이 아닌 약속의 자녀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이다(Grudem 736-737)

님을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교차한다. 일례로 불임은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다. 줄기세포란 기술이 아니라 사랑 혹은 자비의 표현인 입양을 통해 해결한다면, 우리는 생명윤리란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깜깜한 밤에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들의 갈 길을 일깨워주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동국대)

■ 주제어

인간복제, 불교, 기독교, 영혼, 마태복음 1장 16절, 생물학적 통제

■ 인용문헌

- 김기선, “생명윤리와 불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45권 (2014) 1-28.
- 김종욱, “불교의 생명 이해”, 《불교학연구》 제12호 (2005) 7-40.
-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2.
- 샌델, 마이클, 《생명의 윤리를 말한다》, 서울: 동녘, 2010.
- 왓슨, 제임스 & 스티븐 제이 굴드 외, 《인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울력, 2002.
- 이중표, “불교의 생명관”, 《범한철학》 제20권 (1999) 225-246.
- 키슬러, 알렉산더, 《복제인간, 망상기계들의 유토피아》,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07.
- 허남결, “불교와 생명윤리: 불교의 생명조작기술의 발달과 불교생명윤리의 정립방향”, 《불교학연구》 제12호(2005) 41-69.
- Abrams, M. H. *The Mirror and the Lamp*. Oxford: Oxford UP., 1953.
- Blomberg, Craig L. *From Pentecost to Patmos: An Introduction to Acts through Revelaton*. Nashville, TN: B&H Academic, 2006.
- Brun, Rudolf B. “Cloning humans? Current Science, current views, and a perspective from Christianity,” *Differentiation* 69 (2002) 184-187.
- Crick, Francis H. *The Astonishing Hypothesis: The Scientific Search for the Soul*, London: Simon and Schuster, 1994.

- Durst, Dennis L. "Uses of Biblical, Theological, and Religious Rhetoric by Cloning Advocates: A Critique," *Ethics and Medicine* 24,1 (2008) 19–28.
-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4.
- Hammett, John. "Human Nature," *A Theology for the Church*, ed. Daniel L. Akin, Nashville: B&H, 2007.
- Hefner, Philip. *Evolution, Culture, and Relig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Huffman, D.S. "Genealogy," *Dictionary of Jesus and Gospels*, ed. Joel Green, Scot McKnight, I. Howard Marshall. Downers Grove, IL: IVP, 1992.
- Meilaender, Gilbert. "The Case Against Cloning," in *Beyond Cloning: Religion and the Remaking of Humanity*, ed. Ronald Cole-Turner.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1.
- Monroe, K.R., Miller RB, and Tobis JS. *Fundamentals of the stem cell debate: the scientific, religious, ethical, and political issues*. Berkley: Univ. of California P., 2008.
- Murphy, Nancey. "Do Humans Have Soul? Perspectives from Philosophy, Science, and Religion,"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67.1 (2013) 30–41.
- O'Mathuna, Donal P. "Christian Bioethics and the Bible," *Christian Bioethics* 20,2 (2014) 246–259.
- Osborne, Grant R. *Revelatio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2.
- Sailhamer, John H. *The Pentateuch as Narrative* (A Biblical-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2.

Scott, Eugenie. "Brave new bioethics," *Nature* 452,10 (April 2008) 690-691

Verhey, Allen. "What Makes Christian Bioethics Christian? Bible, Story, and Communal Discernment," *Christian Bioethics* 11 (2005) 297-315.

Volf, Miroslav. *Free of Charge: Giving and Forgiving in a Culture Stripped of Grace*.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5.

Wilmut, Ian. *The Second Creation: Dolly and the Age of Biological Control*. Farrar, Straus and Giroux, 2000.

■ Abstract

**Ethical Discussions about Human Cloning in
the Age of Biological Control :**
With an emphasis on Buddhist and Christian Perspectives

Lee, Jeong-Il (Dongguk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thical discussions regarding human cloning in the perspective of ethics presented in Buddhism and Christianity. Since the birth of Dolly the cloned sheep in 1996, ethical issues have been inevitably intertwined in the field of cloning. For some, cloning has become an ideology or a religious ideal. Buddhism accepts cloning as a method of generating new hope. However, Christianity claims that 'life is a creation, not a commodity.' This contrast can be observed in bioethical reasoning. In this paper, I argue that we need to promote a concept of love or great compassion that is calling us to responsibility.

■ Key Words

human cloning, Buddhism, Christianity, soul, Matthew chapter 1 verse 16, biological control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5년 12월 4일 ○심사일: 2015년 12월 18일 ○게재일: 2015년 12월 31일



생명과학기술, 생명윤리,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의 관계 고찰

- 로이스 로리의 『더 기버』를 중심으로

최훈 · 김대영

I. 들어가며

과학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인간 삶을 향상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중 생명의료에 관한 기술은 인간 삶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 생명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더욱 가속화하며, 생명 통제의 측면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한 생명 통제는 인간 삶을 지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배제하게 되어 인간 삶의 향상이라는, 그 본원의 목적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생명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 연구를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다른 분야, 즉 생태학이나 윤리 분야와 분리되어 인간 소외의 현상을 드러내며, 생명에 대한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그래서 생명과학기술이 학제적 논의를 통한 담론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중국에는 인간이 소외된 과학기술 자체만을 추구하게 되어 일반 대중의 외면으로 인해 과학기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왜냐하면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통제는 주로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인류가 의지해 왔던 지구 생태계 내의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과학기술의 그런 측면이 부각된다면 대중의 지지를 얻기가 어

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기술을 외면한다면 그것 역시 인류의 생존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간 사회가 단지 과학기술의 비판에만 경도되어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순기능을 외면한다면 인간의 삶의 질적 하락뿐 아니라 생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 역시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삶의 향상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다른 학문과의 학제 간 논의를 통해 다양한 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은 과학기술적 효율성과 생물 다양성의 공존 가능성을 탐색하여 다양성에 대한 생태학적 가치를 통한 윤리학적 접근 가능성을 모색한다. 먼저 생명에 대한 과학기술이 인간의 자연계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 생명을 통제하는 문제점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중심으로 탐색하여 본다. 또한 윤리학적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윤리 의식의 부재의 관계를 규명한다. 이 논문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생태학적 가치를 통한 윤리학적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여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며, 그 예시를 로이스 로리(Lois Lowry)의 작품 『더 기버』(*The Giver*)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과학기술의 생태계 통제 양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 논문은 거기에 덧붙여 생명과학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려고 한다. 이것은 생명과학기술을 부정하기보다는 인간 삶의 향상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위해 생태학과 윤리학적 논의를 통해 인간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고민과 자유로운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동시에 탐색하여 각각의 윤리학적 연구와 관련시키면 인간 사회, 과학기술, 그리고 다양한 학문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인 인간 삶의 향상이라는 지향점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의 방향성에 대해 타 학문, 특히 윤리학과 의 교류를 통해 통제에 대한 여러 상이한 측면을 비교하여 일반 대중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면, 과학기술의 본원의 가치인 인간 삶의 질적 향상

을 추구하며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작품 속 인물이 보여주는 행동의 결정은 단지 그것의 결과에 주목하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을 할 여지를 제공하며, 인간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생명과학기술과 생명윤리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

최근 생명과학기술의 업적 중 하나는 생명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증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세기 말부터 추진되었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는 21세기에 들어서며 완성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생명과학기술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이고 비약적인 발달을 이루게 되었다. 미국 국립 인간게놈연구소(NHGRI)는 2003년 4월 15일 AP 통신과 BBC 방송을 통해 인간의 게놈 지도가 거의 완성됨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관련 질병들의 원인을 유전자를 토대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탄생과 죽음마저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생명의 통제라는 측면은 단지 21세기에서의 현상만은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통제하는 기술은 게놈 지도 완성과는 다른 양상으로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발달하여 왔다. 산전 진단, 시험관 아기, 성감별, 태아 조직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체외 수정 기술을 이용하여 대리모를 통한 출산에 관한 연구와 실행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을 단지 가치중립적인 연구의 성과로 보는 견해와 인간 삶에 매우 중차대한 인과 관계를 유발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는 대립 중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생명과학에 대한 윤리학적 연구가 과학기술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둘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왜냐하

면 과학기술과 윤리학적 연구 모두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학문 분야이기 때문이다.

생명윤리는 단지 과학기술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생명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윤리적 접근은 단지 상호 대립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 있다. 김상득은 과학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므로 그 본연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과학기술의 발달은 대중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며, 윤리학적 연구는 과학기술의 발달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23)하며 과학기술이 인간의 활동이기에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17). 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학적 연구는 일상인들에게 막연한 상식과 잘못된 편견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여 특히 생명공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지적하였다(24). 그는 생명으로 분야에 윤리학적 연구를 시도하는 생명으로 윤리학은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적 사실뿐 아니라 이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포괄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을 지님을 강조한다(28). 윤리학과 과학기술의 관계의 중심에는 인간이 존재하고 이를 위해 윤리학과 과학기술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생명윤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태학적 진화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생태윤리는 생명윤리와 관련시킬 수 있다. 생명윤리적 연구들 중 몇몇 논의들은 생태계 내의 생물 다양성의 유지 및 증가로 접근할 수 있다. 생태학적 가치의 훼손은 인간 종의 다양성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종은 생태계 내의 생물 다양성을 기반으로 생존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주로 다루는데, 생물 생활 터전인 환경의 오염으로 새로 출현하는 종보다는 사라지는 종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로 인간뿐 아니라 자연환경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지목된다¹⁾. 하

지만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단지 도덕적 책임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환경을 유지한다는 가치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 환경에서는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다양한 생태계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생물 역시 영향을 받아 사라지게 되므로 인간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을 이용한 통제는 가치중립적 연구 목적이나 효율성에 경도되어 생물 다양성을 제한하며 인간 삶의 기본 토대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는 생태학적 가치는 우리에게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 및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다.

III. 문학과 생명윤리의 학제적 접근

생명윤리의 근간은 인간의 가치와 직결되며 생물 다양성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인간의 가치를 문학 작품으로 접근하는 문학 분야 역시 생명윤리적 성찰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일조할 수 있다. 앨버레히트(Milton C. Alberecht)가 지적하듯이 문학 작품은 그 특성상 작가 주변의 자연환경과 인간 사회가 투영되기도 하고, 주변부에 때로는 문제 제기를 하며, 그리고 기존의 사상을 강화하는 특징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²⁾ 문학의 이러한 특징은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를 작품 속에 내포하며 대중을 생명윤리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문학 분야에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문제를 학제 간으로 접근

1) 다음 백과사전, “생물 다양성”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1s2909a>)

2) Milton C. Alberecht, “The Relationship of literature and socie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9,5 (1954, 3): 425-36.

하는 생태 비평(ecocriticism)³⁾은 과학기술과 윤리, 그리고 인간을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연결할 것을 주장하기에, 여러 학제 간 논의들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드밍(Alison Hawthorne Deming)은 문학 작품과 문화적 인식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문학 작품이 문화적 변화에 중요함을 광고의 조작과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의 긍정뿐 아니라 인류 진화의 역사와 중국의 문화 혁명의 귀결에서 고찰하였다(71). 그녀는 그 예로 문학 작품이 사라진 자연환경, 즉 숲에 대한 기억을 담아내며, 그것을 접하는 대중이 사라진 자연환경에 대해 그것을 직접 경험하였던 이들이 경험하고 찬양한 것을 기억하여 슬픔과 아쉬움을 느끼게 되고, 자연환경을 추동하였던 원천에 대해 분노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문학 작품이 이러한 자연환경에 대한 아쉬움과 사라진 자연환경에 대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또 다른 능력,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72). 드밍의 연구가 시사하는 것처럼, 문학 작품 연구에서 인간-자연의 관계 중심적 관점(relation-centered perspective)과 다양한 자연환경에 대한 예를 발굴한다면, 생명윤리의 논의에 다양한 근거를 제공하여 학제 간 논의를 깊이 있게 활성화하며 일반 대중과의 소통의 통로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기버』에서 생명윤리와 생태학적 관점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자연 생태계의 직접 경험은 생태계의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윤리로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기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 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유제분은 주인공 조너스(Jonas)가 경험하는 기억을 통해 실용주의적 측면이 갖는 공동체의 허구성과 사회적 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112). 이수진은 동일함을 위한 통제가 가지는 공동체의 폭력적인 제도를 고찰하며

3) Cheryll Glotfelty & Harold Fromm,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Athens, GA: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6), xvii-xix.

감정의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77). 그러나 이 논문은 통제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생명과학기술의 통제로 범위를 한정하며, 이 작품이 생명과학기술이 가지는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여 새로운 논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통해 단순히 사회적 통제 또는 생명과학기술의 통제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생태학과 윤리학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을 생명윤리와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주인공 조너스의 인류 전체의 기억을 통한 감정 회복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유제분은 법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이 문학 작품에서 특수한 도덕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조너스의 감정 회복이 현실 인식과 윤리 의식을 수반함을 지적하였다(105). 조너스의 감정 회복으로 수반되는 현실 인식이란 통제 사회 이면의 자연 생태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감정 회복은 생태학적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층 성숙한 윤리의식으로 접근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로 완성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 유제분은 기억 보유자로부터 인류의 다양한 기억을 통해 자연생태계를 접하고 통제사회 이면을 인식하는 조너스에 대한 지적과 과거 기억 경험을 통해 생명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로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지적한다(109-110). 이 작품에 대해 생명윤리와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제는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다. 아래에서 효율성을 위해 과학기술이 통제하는 것과 거기서 생기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 문제, 작품에서 감정이 회복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생명윤리 의식의 문제, 통제와 자유 사이의 윤리적 선택의 문제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려고 한다.

1. 효율성을 위한 과학기술의 생명 통제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

이 작품 속의 공동체는 효율성을 위해 과학기술을 사용하며 동일함

(sameness)을 추구한다. 동일함을 추구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사용되어 기후가 조절되고 생태계 내의 생물 다양성이 제거되며 언덕이 없어진다. 이로 인해 공동체 사람들은 단지 경제의 번영을 위한 동일함을 추구하며, 자연계의 다양한 양상과 관계 맺지 못하고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는 자연과 분리되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사회 통제를 통해 효율적 생산성을 추구한 과학기술은 인간 삶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일정 부분 성취한 듯 보인다. 그러나 특정 소수만이 자연 생태계의 다양한 양상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가치를 다른 구성원과 공유할 수 없으며, 통제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질 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공동체 일원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를 배태하게 된다.

조너스의 공동체에서는 기억 보유자와 조너스만이 인간의 기억을 통해 자연 생태계의 다양한 양상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통제가 시작되었는지는 오직 이들만이 알게 된다. 인간의 삶의 향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산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농업생산성의 효율적 분배는 인간 공동체에서 매우 필수적인 양상이었다. 이 공동체는 동일함을 추구하며 식량생산과 분배의 효율성을 이루게 되었다.

“기후 조절. 눈은 작물들이 자라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농업 작황 기간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는 그때 운송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실용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함을 실시하였을 때, 눈은 구시대 유물이 되었다.

“그리고 언덕들도 마찬가지로 있지,” 그는 말하였다. “그들은 상품들의 운송을 어렵게 만들었다. 트럭, 버스 같은 것들을 느리게 하였지. 그래서.” 그는 손 흔드는 행동이 언덕을 사라지게 했던 것처럼 손을 흔들었다. “동일함,” 그는 이야기를 마쳤다.

“Climate Control. Snow made growing food difficult, limited the agricultural periods. And unpredictable weather made transportation almost impossible at

times. It wasn't a practical thing, so it became obsolete when we went to Sameness.

“And hills, too,” he added. “They made conveyance of goods unwieldy. Trucks; buses. Slowed them down. So-” He waved his hand, as if a gesture had caused hills to disappear. “Sameness,” he concluded. (83-4)

위 예시에서 자연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은 인간의 생산 효율성을 저해하여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통제의 근거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인류 생존과 번영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생태학적 가치, 즉 생태계의 다양성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사라져 버렸음을 드러낸다. 특히 생물 다양성 중 생태계의 다양성의 하나인 여러 지형지물이 생산 효율성으로 인해 사라져버렸다. 조너스의 공동체는 이뿐만 아니라 유전자 통제로 생물 다양성을 축소하고 있다. 예컨대 사람들의 피부색과 머리색을 똑같이 만들고 자연의 색깔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또한 신생아의 출산은 각 공동체 부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제한된 산모(birthmother) 집단을 형성하여 신생아의 출산을 맡긴다. 산모 집단의 지정은 공동체 내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보다는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와 그 유전적 형질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동체의 유전 공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동일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95).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기대했던 효율성만 낳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유전자에 대한 완전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산모 집단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냉대가 산모들에게 존재하는데 이것은 이 공동체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조너스의 여동생 릴리(Lily)가 산모 집단이 좋은 대우를 받는다며 그 직업을 동경하자 그녀의 어머니는 3년간의 3번의 출산 후, 가족 유닛(family unit)을 만

들지 못하고 혼자서 힘든 노동이 수여됨을 지적한다(22). 조너스가 자원 봉사를 하는 노인의 집(the House of the Old)에서 노인인 라리사(Larissa)는 교사였던 로베르토(Roberto)와 산모였던 에드나(Edna)의 일을 비교하며 에드나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31). 인간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산모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자신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모르는 기억의 상실에서 오는 가치관의 상실이다. 공동체와 산모와의 분리는 바로 자신과 기억과의 분리이며 행동과 가치관의 분리이다.

유전 공학은 원래 육종학에서 시작되었는데 기존의 종들 사이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종을 발견하여 궁극적으로 인간 삶을 향상하는 것이다. 종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종간 결합을 통해 변이체를 찾아내어 인류 사회에 대한 이익을 찾게 된다. 그러나 유전 공학이 생산 효율성만을 중시할 때 인류 사회에 어떤 위협을 주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종 다양성이 감소할 경우 새로운 질병에 대처할 수 없음은 바나나가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대량 생산을 위해 단일종으로 재배되던 바나나는 파나마병과 같은 유전 질병들의 피해를 입었으며, 변종 파나마병은 현재의 바나나 재배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⁴⁾. 물론 유전 공학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

4) 바나나는 주로 영양 생식을 하여 인류가 즐기는 품종은 한정적이었다. 특히 19세기 말부터 주로 애용되던 그로 미셸(Gros Michel) 종은 단일 종의 대량 생산 체계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단일 종의 대량 생산 체계는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1903년에 처음 발견된 바나나 전염병인 파나마 병으로 인해 1960년대 그로 미셸종의 재배가 중단되어 세계적 바나나 공급은 위기에 처했다. 최근에 우리가 즐기는 바나나는 이전의 종보다 상품 가치는 떨어지지만 파나마병에 저항성을 가지는 캐번디시(Cavendish) 종인데 이마저도 변종 파나마병에 위협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바나나의 재배는 캐번디시 단일종의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신용익 연구실장은 종 다양성이 감소될 경우 새로운 질병에 대처할 수 없어 생존이 불가능함을 지적하였다. (EBS 지식 채널 e, 『안녕, 바나나』편, 2011년 3월 14일 방송분)

은 작품에서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종의 멸종으로 인한 생태학적 가치의 상실을 목격할 수 있다. 조너스의 공동체에서는 동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인위적인 멸종이 가능한지, 자연이라는 유기체가 동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이것은 소설적인 상상력 부분으로 남겨 두자. 이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단지 아이들의 장난감을 통해서 이전에 존재했던 동물 종을 인식하고 동물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가치로만 여겨진다.

“릴리야 너는 한때 진짜 코끼리가 있었던 것을 아니? 살아있는 것 말이야.”

그녀는 낡은 장난감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 그녀는 회의적하게 말했다. “그럼, 오빠.”

조너스는 그의 아빠가 릴리의 머리 리본을 풀어 내릴 때 다가가 그들 곁에 앉았다. 그는 그들의 어깨에 손을 놓았다. 그는 최선을 다해 기억의 단편들을 그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하였다. 코끼리의 처참한 울음이 아니라, 코끼리의 존재를. 높고 거대한 생물체이며 그리고 그의 친구가 최후를 맞을 때 세심하게 어루만져 주었던 코끼리의 존재를.

“did you know that once there really were elephants? Live ones?”

She glanced down at the ragged comfort object and grinned. “Right,” she said, skeptically. “Sure, Jonas.”

Jonas went and sat beside them while his father untied Lily's hair ribbons and bombed her hair. He Placed one hand on each of their shoulders. With all of his being he tried to give each of them a piece of the memory: not of the tortured cry of the elephant, but of the being of the elephant, of the towering, immense creature and the meticulous touch with which it had tended its friend at the end. (101)

공동체의 기억을 상실한 릴리는 코끼리를 단지 장난감으로만 인식하지만, 공동체의 기억을 회복한 조너스는 코끼리의 존재, 특히 코끼리가 비록 동물이지만 가지고 있었던 존엄성, 죽어가는 동료들을 위한 연민 어린 행동들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릴리는 코끼리 장난감을 매우 아끼지만 코끼리의 물질적 가치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과 비슷한 존엄성과 연민의 가치 역시 인식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다. 효율성이라는 가치만 추구할 때는 존엄성과 연민이라는 가치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동료에 대한 연민을 보이는 코끼리를 더 존엄하게 인정하는 것은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인식 능력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코끼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인식 능력을 상실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점은 바로 이어지는 절에서 인간의 가치와 생명의 존엄성을 논의할 때 다시 한 번 강조될 것이다.

2. 감정의 회복과 생명윤리 의식

생명윤리 의식은 생태계의 다양함을 인식하며 발달할 수 있다. 신문수는 자연의 직접 경험의 부족과 최근 청소년들의 인성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자연환경에 접촉해야 인성이 발달함을 주장하였다(114). 다양한 자연환경에 대한 직접 경험은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여 보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윤리 의식으로의 확장을 촉진할 수 있다. 작품 속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기존의 자연환경에 대한 감정을 인식하는 기억 보유자는 조너스와 기억을 공유하며 윤리 의식을 자각하게 된다.

“그것은 진실이지.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나와 네가 여기 있으면서 나는 많은 일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That's true, and having you here with me over the past year has made me realize that things must change.” (154)

기억 보유자는 조너스 이전에 기억 전수자로 뽑혔던 로즈메리(Rosemary)와 있었던 경험과, 조너스와 새롭게 겪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조너스에게 전하게 된다. 기억 보유자는 로즈메리와 있었던 경험으로부터 기억 전수자가 사라져 버리면 공동체가 기억 보유의 의무를 짊어져야 함을 깨닫게 된다(155). 공동체 내에서 기억이 공유된다면 신문수의 지적과 같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에 따른 자발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감정으로 윤리 의식에 대하여 고민할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또한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은 당대의 사회 문제에 대해 인식하며 그것의 여러 양상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동체 내의 기억 공유는 단지 일반 대중뿐 아니라 기억을 보유하는 특정 소수에게도 이익이다. 인류 전체의 기억과 지식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실질적으로 매우 필수적이기에 누군가는 기억을 보유해만 했고 그 사람이 곧 기억 보유자였는데, 기억 보유자는 기억의 보유뿐 아니라 다른 감정적인 고통을 짊어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억 보유자가 짊어져야 하는 고통은 소외와 외로움의 문제였다. “기억을 보유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고통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그래서 기억이 공유되어야 한다(154)”라는 언급은 공동체 내의 관계 단절이 갖는 폐단을 드러내는 것이다.

공동체내의 구성원 전체가 기억을 공유한다면 그들 자신의 감정을 회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공동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작품 속 공동체는 기억을 한 사람의 기억 보유자에게만 부담하게 할까?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들 자신이 직면해야 하는 고뇌로부터의 고통을 외면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미루어 자신들의 정신적 육체적 안락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작품 속 공

동체가 추구하는 안락은 효율적 생산 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은폐된 채 고뇌로부터의 고통을 기억 보유자에게 양도하고 외면하여 유지되고 있다. 기억 보유자는 이 공동체에서 자신의 직위가 중요하며(vital), 명예로운(honored)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기억의 짐과 고통을 떠맡고 있기 때문임을 드러낸다(113).

다양한 감정이 상실된 대신에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사회와,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지만 고통스러운 감정에 괴로워해야 하는 사회 중 어느 사회가 더 이상적인가? 두 사회 중 한 사회의 선택은 단순히 어떤 가치를 더 지향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인가? 글쓴이들은 그 선택이 단순히 가치 지향에 따른 선택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과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신생아를 대리모로부터 분리하고, 기억 보유자를 대중으로부터 분리하고, 공동체를 인류의 기억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감정을 둔화시키고, 중국에는 여러 생명윤리적 문제를 배태하게 된다.

작품에서 생명윤리 의식이 약화된 실례들을 보자. 조너스의 공동체 일원들은 직업윤리가 매우 강해 보이지만 그것은 생명윤리 의식보다는 업무 성취라는 측면이 강화된 것이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사인 조너스의 아버지의 경우에서 직업 성과의 효율성이 강화된 반면에 생명윤리 의식은 약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의 아버지는 영아 보육사로 영아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가브리엘(Gabriel)이 수면 장애로 인한 평가 하락으로 방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장로 위원회(The Committee of the Elders)에 청하여 가브리엘의 평가와 처리를 유예하고 자신의 집에서 특별히 관리하게 된다(42).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물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연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아버지는 올해 단 한 명의 영아도 죽이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죽는

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업무상의 실제적인 실패와 슬픔을 의미할 수 있었다. 비록 조너스가 릴리나 그의 아버지처럼 그 작은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 주변을 서성거리지는 않았지만, 역시 가브리엘이 죽지 않은 것을 내심 기뻐했다.

Father had not had to release a single newchild this year, so Gabriel would have represented a real failure and sadness. Even Jonas, though he didn't hover over the little one the way Lily and his father did, was glad that Gabe had not been released. (43)

특히 “이것은 무엇인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아버지와 같은 영아 보육자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This was especially troubling for the Nurturers, like Father, who felt they had failed somehow, 7-8).” 라는 표현에서 주어진 업무의 실패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아버지의 가브리엘에 대한 마음은 윤리 의식보다는 주어진 업무의 성취라는 측면이 더욱 드러난다. 또한 조너스의 친구 피오나(Fiona) 역시 노인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그들을 돌보지만 그녀의 업무 중에는 조너스의 아버지와 같이 ‘임무 해제(release)’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공동체는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임무 해제’라는 낱말로 은폐하여 ‘죽음’이라는 낱말이 주는 두려움을 망각하게 만든다. 그들의 상반된 업무의 근저에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지적된다(153).

윤리적 추론은 이성적 사고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대상에 대한 동정심과 같은 감정에 의해 촉발된다. 영아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생명의 신비’와 같은 막연한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가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공감하고 거기에 연민을 느끼기 때문이다. 조너스는 아버지가 쌍둥이 중 한 명을 임무 해제하는 장면을 녹화한 것을 기억 보유자와 함께 보게 된다. 공동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면 혼란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한 명을 임무 해제하는데, 몸무게가 덜 나가는 쪽이 선택된다. 아버지가 영아에게 주사

를 놓자 아기는 울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아기야 이것이 아프다는 것을 안다, 알아. 하지만 난 정맥에 주입해야 해. 하지만 네 팔에 있는 정맥은 너무 가늘구나.”(I know, I know. It hurts, little guy. But I have to use a vein, and the veins in your arms are still too teeny-weeny, 149). 아버지는 이 과정을 명랑하게(cheerfully, 150) 진행한다. 사실은 아버지는 “그것은 그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받았던 것이고 그는 명령 말고는 아는 것이 없지”(It's what he was told to do, and he know nothing else, 153)라고 말한다. 매뉴얼에 따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스스로 윤리적인 성찰을 통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비록 영아이지만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은 아버지에게 무시된다. 더 나아가 미래에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아버지에게 무시된다. 물론 생명윤리에서는 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영아의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에는 안락사가 옹호되기도 한다.⁵⁾ 그러나 작품 속의 사례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정당화되지 않는 근거로 살인을 하는 경우일 뿐이다.

자연환경에 대한 직접 경험의 부재는 감정의 부재를 초래하고 감정의 부재는 윤리 의식의 부재를 수반됨이 위 예시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렇다면 올바른 윤리적 성찰을 위해서는 생태학적 다양성의 직접 경험과 감정의 회복이 매우 필수적임을 인식해야만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측면을 상호 연결시키며 다양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통제와 자유 사이의 윤리적 선택의 문제

공동체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장로 위원회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명목상 기억 보유

5) 장애를 가진 유아에 대한 살해에 대해서는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황경식·김성동 옮김)(연암서가, 2013), 7장 2절을 보라.

자의 조연을 구하지만, 그것은 매우 선택적이고 제한적이다. 기억 보유자는 보다 많은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론화를 원하지만, 장로 위원회는 변화를 원치 않고, 질서 정연하고 예측 가능하며 고통이 없는 공동체를 선택하며 의사 결정의 다양성을 통제하고 있다(103). 통제된 사회에서 과학기술적 가치에 대해 생태학적 가치뿐 아니라 윤리적 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면 인류를 위한 보다 나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쓴이들은 이 작품이 단지 과학기술의 통제에 대한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여 일반 대중이 그에 대해 논의할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 예로 통제의 긍정적인 면이 작품에서 드러난다. 이 작품을 분석하는 여러 연구는 통제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과학기술이 인간의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조너스와 가브리엘은 공동체를 떠난 후 자연이 주는 경이를 경험하며 여러 감정을 회복함과 동시에 생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실제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이 인간에 무한한 자원을 준다는 낙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매우 무관심하다는 비관적인 측면을 제시하며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다. 조너스는 이제까지 기억을 통해서만 인식하여 왔던 실제 자연을 접하게 된다. 작품의 21장에서 공동체를 빠져나온 조너스와 가브리엘은 이제까지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실제 자연으로서의 나무와 강, 초원 등을 바라보며 매우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통제된 공동체와는 달리 자연의 다양함이 존재하는 바깥세상은 그들에게 생물 다양성을 제공한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생물 다양성은 그들에게 즐거움과 환희를 주게 된다.

지금 주위 풍광은 바뀌고 있었다. 그것은 미묘한 차이여서 처음에는 그것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 길은 더욱 좁아지고, 울퉁불퉁하며, 확실히 길 관리자의 관리를 더 이상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자전거의 앞바퀴가 들과 골에 걸려 흔들려서, 자전거

의 균형을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Now the landscape was changing. It was a subtle change, hard to identify at first. The road was narrower, and bumpy, apparently no longer tended by road crews. It was harder, suddenly, to balance on the bike, as the front wheel wobbled over stones and ruts. (170)

하지만 자연은 인간에게 즐거움과 환희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어떤 점에서는 잔인하고 광폭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를 받지 못한 공동체 외부의 길에서 조너스와 가브리엘이 자전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겪는 어려움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무관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과학기술이 자연을 파괴하는 기능을 가지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오히려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너스가 공동체 외부에서 겪는 어려움에서 인간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간·자연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게 도와주는 긍정의 측면을 포착한다면, 과학기술이 배제된 자연에 대해 이 작품이 가지는 한층 정확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위의 묘사 다음에 이어지는 조너스의 부상은 야생의 자연에서 인간의 생존은 담보되지 않음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또한 앞으로의 닥칠 두려움은 그들을 쫓는 기존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친숙하지 않는 자연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기인한다. 미래의 불확실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고픔이다. 인간 사회에서 멀어져 자연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들은 음식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던 것이다.

통제 사회에서 벗어난 조너스와 가브리엘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 그들에게는 그 대신에 배고픔과 두려움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선다. 자유와 평안함 중 어느 쪽

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정의론』의 철학자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첫 번째 원칙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롤스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라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시하는데, 어떤 경제적, 사회적 이득보다 자유를 우선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13-214). 이솝 우화의 ‘서울쥐와 시골쥐’가 말하려고 하는 바도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보다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롤스의 이론과 이솝 우화가 말하려는 바와 달리, 경제적 이득과 자유 중 어느 쪽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는 각 개인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글쓴이들은 여기서 『더 기버』가 어떤 한 가지 윤리적인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놓고 활발한 논의의 장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 속에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로 인구 통제의 두 가지 상반된 양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인구 통제는 공동체의 인구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노인의 안락사와 신생아의 수의 조절에 의해 그 조절이 이루어진다.

형벌이 아닌 임무 해제는 단지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인생을 잘 살고 완전히 살았던 것을 축하하는 시간인 노인의 임무 해제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좌절감을 들게 하는 신생아들의 임무 해제이다.

There were only two occasions of release which were not punishment. Release of the elderly, which was a time of celebration for a life well and fully lived; and release of a new child, which always brought a sense of what-could-we-have-done. (7)

앞서도 말했지만 여기서 임무 해제는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대상이 신생아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무 해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과거의 고려장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그 형식면에서 고려장보다는 안락사와 가깝기 때문에 무조건 무자비한 죽음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 작품 속에서는 일단 약물 주입으로 편안한 죽음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안락사가 생명윤리에서 침해한 주제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안락사’의 어원이 말해 주는 ‘편안한 죽음’만이 윤리적 논란이 없는 안락사의 선결 조건은 아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 무의미한 연명 치료만을 남겨 두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안락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작품 속에서 노인들에 대한 임무 해제는 이 조건들 중에서 불치의 병이라는 조건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약물 주입에 의한 편안한 죽음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 낸다.

“음, 그의 삶을 이야기 하지. 그것으로 항상 시작하지. 그리고 건배를 하고, 우리 모두는 잔을 들어 환호했지. 우리는 이별의 송가를 불렀어. 그는 사랑스런 이별 인사를 했어. 그리고 우리들 중 몇몇은 그가 잘 되길 기원하면서 거의 말을 하지 못했지, 나는 하지 못했어, 물론. 나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는 기뻐했지. 너는 그들이 그를 보낼 때 그의 얼굴의 표정을 봤었어야 했는데.”

“Well, there was the telling of his life. That is always first. Then the toast. We all raised our glasses and cheered. We chanted the anthem. He made a lovely good-bye speech. And several of us made little speeches wishing him well. I didn't, though. I've never been fond of public speaking.

“He was thrilled. You should have seen the look on his face when they let him go.” (32)

작품 속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임무 해제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과연 그 결정

이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 조너스가 전직 교사였던 로베르토의 임무 해제에 대한 자세한 과정에 대해 질문했을 때, 장로 위원회를 제외한 그 누구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과연 공동체 속 노인들이 임무 해제 직전의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규정해버린다(32). 죽음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것을 오로지 진정한 행복이라고 치부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또 다른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죽음만큼 우리의 존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건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성적인 토의에 의해 안락사의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임무 해제가 죽음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 평생을 살아온 노인이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면,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가장 강조되는 현대 윤리학에서는 임무 해제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으로 감정적인 대응만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작품에서 인구수의 조절은 노인들의 안락사와 같이 기존의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뿐 아니라 산아 제한으로 수행되고 있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70억을 돌파하며 인류 생존의 위협 요소로 고려되기도 한다. 최근 까지 시행된 중국의 일 가구 일 자녀 정책처럼 몇몇의 국가에서는 신생아의 수를 조절하며 인구수를 조절한다. 일찍이 맬서스가 『인구론』에서 갈파한 것처럼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속도는 더욱 더 빨라지게 되고, 그 속도 인간의 기초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초월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자원—인구—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또 다른 재앙을 촉발할 수 있다.

“몇 년 전,” 기억 보유자는 그에게 말했다, “네가 태어나기 전, 많은 시민들은 장로 위원회에 청원을 넣었지. 그들은 출생률을 올리길 원했지. 그들은 각각의 산모가 3명 대신 4명을 할당받아 출산하길 원했지, 인구가 증가하고 그래서 더 많은 노동력을 위해서 말이지.”

조너스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타당하군요.”

...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기억을 사용했군요?”

기억 보유자는 그렇다고 했다. “그리고 먼저 생각했던 가장 강한 기억은 배고픔이었다. 그것은 오래전 세대로부터 온 기억이었지. 몇 세기 전이었지. 인구는 증가하여 모든 곳에 배고픔이 만연했지. 고통을 주는 배고픔과 기근. 그 후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어.”

“Some years ago,” The Giver told him, “before your birth, a lot of citizens petitioned the Committee of Elders. They wanted to increase the rate of births. They wanted each Birthmother to be assigned four births instead of three, so that the population would increase and there would be more Laboreres available.”

Jonas nodded, listening. “That makes sense.”

... “And you used your memories?”

The Giver said yes. “And the strongest memory that came was hunger. It came from many generations back. *Centuries* back. The population had gotten so big that hunger was everywhere. Excruciating hunger and starvation. It was followed by warfare.”(111)

조너스가 고통스런 배고픔의 기억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였을 때, 기억보유자는 장로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기억을 통해 관련된 여러 사회문제들을 고려하였다.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여러 파생 현상들 중 식량의 부족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에 매우 위협이 된다.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 편에서는 화학 비료, 공장식 농장,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의 대량 생산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아 제한도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현재의 지구상의 농산물 생산만으로 전 지구의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으며, 굶주

림이 발생하는 이유는 농산물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글쓴이들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떤 판정을 내릴 위치도 되지 않고 이 논문은 그럴 만한 공간도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이 작품에서 제시되는 임무 해제와 산아 제한은 전 인류적인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무자비한 정책으로 매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실제로 작품에서 임무 해제는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조너스는 “그런 식으로 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하는 방법 말이예요.”(It seems to work pretty well that way, doesn't it? The way we do it in our community?, 125)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그러나 조너스는 바로 이어서 “저는 다른 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그 기억을 받기 전까진.”(I just didn't realize there was any other way, until I received that memory, 125)이라고 말한다. 조너스가 임무 해제가 죽음이라는 것과 죽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엄청난 윤리적 고통에 휩싸이게 된다. 그 때 기억 보유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연의 경험을 통한 기억의 부재와 그로 말미암은 윤리 부재에 대한 비난보다는 새로운 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한다(154). 기억 보유자는 조너스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논의 가능성을 깨달았다(155). 기억 보유자가 제시한 새로운 계획이란 공동체 구성원과의 기억의 공유를 통한 윤리 의식의 자각과 그로 인한 새로운 논의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들은 기억 보유자가 던진 이러한 논의 가능성이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윤리학적 질문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설부른 대답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예시를 통해 통제와 다양성의 여러 측면들은 이제까지의 이분법적인 논의—통제 또는 다양성의 추구—와는 달리 본 작품에서는 이 두 측면을 아우르며 그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불확실한 외부 세계로 자신과 어린 가브리엘이 탈출하는 것은 가브리엘의 생존

에 대해서는 자유를 향한 노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외부 세계에서 고생하며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노정이기도 하므로 때로는 비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 개체의 특정 행위에 대한 윤리적 지적보다는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윤리 의식을 고려한다면, 조너스와 가브리엘의 탈출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전반의 윤리 의식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생태계 다양성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를 다른 구성원과 공유할 수 없고, 통제에 대한 그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인간 삶을 억압하게 되어 과학기술이 성취했던 소정의 업적마저 그 의미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뿐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학적 논의를 진행한다면, 이와 같은 논의는 과학기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분명히 규명하여 인류 번영과 과학기술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과학기술의 가치와 생태학적 가치 그리고 그것들과 윤리학의 상호 연구에 유용한 텍스트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IV. 맺으며

생명과학기술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들의 궁극의 목적 중 하나는 인간 삶의 향상일 것이다. 그러나 단지 학문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며 사회와 분리된다면, 그 어떤 학문도 그것의 연구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외따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 삶은 한정된 요소로 지탱되지도 않고,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다양성, 특히 생태계 내의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여야만, 진화론적이거나 실용주의적 또는 윤리적인 다양한 학문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중 생명과학기술은 우리 인류의 생명을 통제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생명을 유지하는 측면 역시 동시에 존재

한다. 그러므로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나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보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정밀하게 그 방향성을 추구한다면, 그것의 궁극의 목표인 인간 삶의 향상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증대, 그리고 그것의 윤리적인 문제까지 동시에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과학기술과 윤리학이 표면적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이거나 상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생태학을 매개로 상호간의 관련을 따져 본다면, 그 관련은 더욱 밀접해질 것이다. 이러한 학제 간 연구들의 예시를 문학 작품 속에서 규명한다면, 작품을 접하는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접근법을 소개할 수 있어 인간 사회와 과학기술의 상호 보완적 관계 역시 더욱 밀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은 자연환경이나 인간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거나 질문을 제기하거나 기존의 이론을 강화하는 특징 때문에, 문학 작품의 분석 역시 단지 제한된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학제 간 연구가 요구된다.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발굴하여 그것을 대중에게 제시한다면, 새로운 논의의 근거를 제공하여 인간 사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대)

■ 주제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생태학적 관점, 윤리적 담론, 로이스 로리, 『더 기버』.

■ 인용문헌

- 고수현, 『생명 윤리학』, 경기도 파주, 양서원, 2013.
-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 2001.
- 롤스, 존, 『정의론』, 이학사, 2004.
- “생물 다양성”, 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1s2909a> 2015. 11.30
- 신문수, 「자연 체험의 중요성: 갈색 도시 환경과 청소년의 인성 발달」, 『문학과 환경』 제8-2호, 2009, 111-139.
- 싱어, 피터, 황경식·김성동 옮김, 『실천 윤리학』, 연암서가, 2013.
- 스콧 래, 폴 콕스, 김상득 역, 『생명 윤리학』, 서울, 살림출판사, 2004.
- 유제분, 「감정/윤리/영어교육을 위한 로이스 로우리의 『기억전달자』 읽기」, 『영미문학교육』 제17-2호, 2013, 103-124.
- 이수진, 「“동일함”의 절망과 “차이”의 희망-로리의 『수여자』」, 『영어영문학21』 제24-3호, 2011, 75-97.
- “바나나 의 유전자 다양성과 파나마병”,
http://www.ebs.co.kr/tv/show;jsessionid=IUCmVXdFlvdLNJ6gXrwaJxyNmyduNxmsy3JI8do6URolMjEROB7AUAYZ1PzjK30Y.enswasp01_servlet_engine4?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3070759 2015. 12.1
- Albrecht, Milton C. The Relationship of Literature and Socie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9.5 (1954, 3): 425-36.
- Cheryll Glotfelty & Harold Fromm,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Athens, GA: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6.

- 생명과학기술, 생명윤리,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의 관계 고찰 | 김대영·최 훈

Deming, Alison, Hawthorne. Writing the Sacred into the Real.
Minneapolis: Milkweed, 2001.

Lowry, Lois. The Giver. New York: Dell Laurel-Leaf, 2002.

■ Abstract

An Interdiscipline Study of Bio-technology,
Bio-ethics and Ecological Perspectives in Lois
Lowry's *The Giver*

Choi, Hoon · Kim, Dae-you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io-technology and bio-ethics through ecological perspectives and to find examples in literature for the inter-relationships and activating public's ethical discourse. This study explores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bio-technology and bio-ethics because if our human society ignores bio-technology's positive fruits due to some faults, it will lack elements of human's fundamental quality of life as well as the uncertainty of our survival. Therefore, our human society needs various resources to sustain its quality of life through diverse discourses, from different viewpoints such as ethics and literature as well as science-technology.

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effectiveness and biodiversity and to connect them to bio-ethics' possibility based on an ecological perspective. To find the social control's problems of human society, First, this study analyzes biodiversity decreases. Also, it relates biodiversity to the absence of bio-ethic consciousness. With these theoretical basis, this study suggests that Lois Lowry's work, *The Giver*, exemplifies inter-

relationships among bio-technology, bio-ethics, and ecological perspectives. The reason to find this inter-relationship in the literature is that the literary works can easily connect each disciplines and interpret each other. In addition, because literature can also have relations with the public audience, it can widen some discourses in the public.

With this interdisciplinary aspect among bio-tech, bio-ethics, and literature, this study would like to reveal new approaches to a variety of problems in human society, to have some discussion, and to find proper responses for these problems.

■ Key Words

Bio-ethics, Bio-technology, Ecological Perspective, Ethical discourse, Lois Lowry, *The Giver*.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5년 12월 4일 ○심사일: 2015년 12월 18일 ○게재일: 2015년 12월 31일



셔만 알렉시의 『파트타임 인디언의 정말로 진실한 일기』: 패러디로서 유머

김 종 갑

I. 서론

워싱턴 주의 스포케인(Spokane)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태어난 아메리칸 인디언 작가인 셔만 알렉시(Sherman Alexie)는 소설가, 시인, 영화대본, 그리고 코미디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내에서 자신만의 색채로 초상화를 그려가고 있다. 2007년에 출판한 『파트타임 인디언의 정말로 진실한 일기』(*The Absolutely True Diary of a Part-Time Indian*) (이하 『일기』)는 작가로서 그의 경력에 전환점을 제공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으로 알렉시는 ‘전미 청소년 문학상’(The 2007 National Book Award in Young People’s Literature)와 ‘보스톤 글로브 아동문학상’(The 2008 Boston Globe-Horn Awards for Excellence in Children’s Literature in Fiction)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작가로서 그의 위상은 높아졌고, TV 토크쇼의 게스트로 출연 할 수 있는 기회와 여러 문학관련 출판사들로부터 인터뷰를 하면서 인디언으로서 자신의 작품 세계 직접 알릴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알렉시가 미국의 백인들로부터 이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알렉시는 초기에 다른 인디언 작가들과 유사하게 백인들에 의해 말살된 인디언의 정체성, 역사, 그리고 문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인디언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9/11 사건을 계기로 인디언을 넘어서 세계와 인류에 대한 관심으로 그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알렉시에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테러행위는 인디언의 근원적인 세계를 찾아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자신을 포함한 인디언 작가들의 근본주의적 태도와 유사한 행위로 투영되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디언의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인디언 문제를 포함해서 인류라는 보편적 차원으로 작품의 지평을 확대하기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그의 작품 세계가 기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작가들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했다. 레슬리 실코(Lselie Silko), 조이 하르조(Joy Harjo), 사이먼 오티즈(Simon Ortiz)와 같은 아메리카 인디언 작가들이 특수성에 근거해서 인디언 정체성을 규정하려 시도했다면, 알렉시는 인디언이라는 역사적 굴레와 문화라는 범주의 요소인 민족, 보호구역, 인디언 근본주의와 같은 공간과 의식을 벗어나 “트랜스내셔널 인디언 문화의 건설을 주창”(노현균, 6)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알렉시는 트랜스내셔널 인디언 문화의 건설을 지향하지만, 아메리카 인디언으로서 자신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지워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보스턴 글로브 수상 소감에서, 『일기』는 “자서전적이 아니지만”(not autobiographical) “자서전적”(autobiographical)(“Fiction and Poetry,” 26)인 소설이라고 언급했다. 다소 애매모호하게 읽힐 수 있는 그의 언급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겪은 사건들이 작품의 소재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자서전적이지만, 동시에 인디언을 포함한 인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자서전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인디언 문화와 백인 문화 어느 한쪽에 속하기보다 두 문화 어느 곳에 속할 수도 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작품이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이 작품의 지형학적 위치는 두 문화 사이의 간극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의 이런 의도는 글을 쓰는 목적에서도 충분히 반영된다. 그는 글을 쓰는 목적을 “어린 인디언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기 위하여”(he was writing books to interest the sort of young Native reader) (Jeff Berglund & Jan Roush,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xvi)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의 이런 표현은 보호구역이란 폐쇄된 공간에서 조상들과 어른들의 알콜 중독, 도박, 폭력과 같은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인디언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더불어 인간의 보편적 문제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기 바라는 소망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재된 독자’ (implied reader)가 인디언 아이들이고 그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인디언들의 현실에 내재된 ‘고통’과 ‘유머’가 작품 전반에 고루 펼쳐져 있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기』는 인디언성과 탈 인디언성이 내재해 있는 작품이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인디언이 백인으로부터 받은 억압과 착취가 집약된 표현인 ‘고통’과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몸짓인 유머와 재치를 통한 ‘웃음’으로 형상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고통이 인디언들의 현실이라면, 웃음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주’의 힘이라 할 수 있다. 고통의 승화가 웃음이라면, 알렉시의 유머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인디언성과 인디언의 현실, 인디언과 백인 사이의 균열과 틈으로 파고드는 진지한 웃음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고통과 웃음 관계를 통해서 일종의 패러디로서 알렉시의 유머의 의미와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본론

『일기』는 이 작품의 출판을 기준으로 전후에 나온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인디언』(*The Toughest Indian in the World*)(2000), 『열 명의 인디언 소년』(*Ten Little Indians*)(2003), 『탈주』(*Flight*)(2007), 그리고 『워댄시즈』(*War Dances*)(2009) 등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 위의 작품들이 인디언의 정체성과 문화적 관습 등 인디언성을 구성하는 여러 특성들이 이와 다른 여러 외적 조건들이 공존하는 도시라는 다인종들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인디언 등장인물들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형식을 취했다면, 『일기』는 인디언 소년 아놀드 스피릿 주니어(Arnold Spirit Jr.)가 출생한 워싱턴주의 스포케인 인디언 보호구역(Spokane Indian Reservation)에서의 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보호구역은 또한 알렉시가 출생한 고향이기 때문에 아놀드를 통해서 자신의 유년기 경험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만, 단순한 회고담의 성격이 아니라 소설의 형식으로 재구성되어 재현되었다.

대뇌에 척수액이 차는 질병(I was born with water in the brain)(1)을 타고난 아놀드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자신이 유년기를 보낸 보호구역에서의 생활과 백인 학교(Reardan)로 전학을 가면서 발생하는 인디언 문화와 백인 문화 사이의 차이와 이를 극복할 수는 공존 가능성, 그리고 이런 성장 과정을 그림¹⁾과 더불어 표현한 일종의 성장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유년기의 아놀드가 바라본 인디언 보호구역의 실상은

1) 그림을 넣은 이유를 아놀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글은 너무 종잡을 수 없어서 그림을 그린다. 글은 너무 한정적이어서 그림을 그린다.”(I draw because words are too unpredictable, I draw because words are too limited.)⁽⁵⁾ 이 표현은 아놀드가 작품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언어는 국가들의 국어 때문에 소통의 한계가 있지만, 그림은 독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국적이거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 이해할 수 있기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적 곤란, 대물림되는 가난,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마약, 알콜 중독, 도박, 폭력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간이다. 아놀드는 이런 가난과 경제적 문제를 자신의 선천적 질병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체험한다. 뇌에 물이 차는 질병 때문에 아놀드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많은 4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다. 그는 10개의 치아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 일반적인 사람은 치아를 한 번에 하나씩 뽑지만, 보호구역의 병원은 재정문제 때문에 아놀드의 치아를 한꺼번에 10개를 뽑는 황당한 치료를 감행한다. 또한 뇌에 고이는 척수액의 문제는 아놀드의 눈을 한쪽은 근시, 다른 쪽은 원시가 되게 한다. 시야 문제로 아놀드는 병원을 찾았지만, 또한 재정문제로 안경을 일 년에 한번만 구입할 수 있고, 한 종류의 안경만을 받는다. 그래서 아놀드는 자신의 기호와 관계없이 병원에서 지정해 준 “모양이 이상한 두껍고 검은 플라스틱 안경”(those ugly, thick, black plastic ones)(3)을 착용한다. 이런 문제는 보호구역의 의료 체계뿐만이 아니라 교육 환경도 비슷하다.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읽은 것은 모두 암기하는 어머니를 “아그네스 아담스”(Agnes Adams)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놀드는 “우리 학교와 우리 마을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슬퍼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공부했던 너절한 책으로 수업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다”(My school and my tribe are so poor and sad that we have to study the same dang books our parents studied from. That is absolutely the saddest thing in the world)(31)라고 말한다. 교육 환경도 부모님 세대와 차이가 없이 열악한 상태 그대로 이다.

유년기부터 개인적인 가난과 인디언 보호구역의 경제적 문제를 체험한 아놀드에게 가난과 관련된 가장 잔인한 첫 번째 사건은 그의 친구 오스카(Oscar)의 죽음이었다. 화씨 102도에 습도가 90%가 넘는 무더운 날 오스카가 아프다고 이야기 하자, 아놀드는 처음에 날씨 때문에 생긴 열사병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물을 가져다주지만 그는 물을 마

실 수조차 없었다. 아놀드는 고통스러워서 신음만 흘리는 오스카를 부모님에게 병원에 데려가자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은 경제적인 문제로 오스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아놀드는 “오스카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There was nothing I could do to save Oscar.)(10)라고 자신을 책망한다. 어찌할 수 없는 가난과 굶주림에 직면한 아놀드는 “가난 = 텅 빈 냉장고 + 굶주린 배”(Poverty = empty refrigerator + empty stomach)(8)와 같은 산수 공식으로 가난을 공식화한다. 다소 유머러스한 이 표현은 어린 아놀드에게 그만큼 가난과 빈곤이 체화되어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아놀드가 겪는 이런 가난은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물림 되는 것이고, 보호구역을 만든 시점부터였다.(My parents came from poor people who came from poor people who came from poor people, all the way back to the very first poor people)(11). 보호라는 대외적인 명분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했지만, 지배 이데올로기 하에서 백인들은 인디언들을 지원금과 같은 제도에 의존하게 하면서, 그들의 자립의지를 서서히 약화시켰다. “텅 빈 냉장고”와 “굶주린 배”로 압축되는 가난과 굶주림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디언 종족 전체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이고, 결코 빠져 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이다. 가난은 이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 따라서 직업의 선택을 비롯한 어떤 선택의 기회조차도 앗아가 버렸다. 모든 것을 빼앗긴 인디언들에게 가난은 그들의 운명과 동의어이다.

그러나 우리 보호구역의 인디언들은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기회조차 없다. 선택의 여지도 없다. 우리는 단지 가난할 뿐이다. 가난이 우리의 전부이다.

가난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그리고 가난하게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느낌

에 젖어든다. 어리석고 우둔해서 가난하다고 믿기 시작한다. 그다음 인디언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우둔하다고 믿기 시작한다. 인디언이기 때문에 가난한 운명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이것이 추잡한 운명의 순환이고 이 운명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But we reservation Indians don't get to realize our dreams. We don't get those chances. Or choices. We're just poor. That's all we are.

It sucks to be poor, and it sucks to feel that you somehow deserve to be poor. You start believing that you're poor because you're stupid and ugly. And then you start believing that you're stupid and ugly because you're Indian. And because you're Indian you start believing you're destined to be poor. It's an ugly circle and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13)

미국 정부는 인디언 보호구역의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보조금을 지원 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펼쳤다. 그 중에 하나가 아놀드가 작품 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언급하는 것이 카지노이다. 아놀드가 백인 학교인 리어단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후, 리어단의 백인 학생들은 인디언 보호 구역에 설치된 카지노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백인 학생들에게 기죽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아놀드를 보 며, 백인 학생들은 인디언들이 보호구역에 설립된 카지노에서 많은 경제적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놀드가 바라 본 카지노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리어단의 모든 학생들은 우리 스포케인 인디언들이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카지노는 미숙한 경영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업이었다. 카지노에서 돈을 벌려면 카지노에서 일을 해야 했다.

Everybody in Reardan assumed we Spokanes made lots of money because we had a casino. But that casino, mismanaged and too far away from major highways, was a money-losing business. In order to make money from the casino, you had to work at the casino. (119)

인디언들의 경제정책으로 세워준 카지노의 실상은 운영문제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어서 인디언들이 카지노에서 받는 경제적인 혜택은 없었다. 오히려 카지노는 그곳에서 일하는 소수 인디언들에게만 효과를 주고, 대부분의 인디언들을 도박 중독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카지노는 인디언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디언들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부추기는 복마전과 같은 공간으로 전락했다. 경제활성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카지노와 같은 정책 자체도 인디언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라기보다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백인의, 백인을 위한 정책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카지노와 같은 정책의 실패에서 파생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알콜이다.

카지노가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인디언들의 경제 문제의 축소판을 상징한다면, 알콜은 인디언 여러 사회문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아놀드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삼촌처럼 따르는 유진(Eugene) 삼촌을 술자리의 다툼으로 잃고, 가장 존경하고 인디언의 전통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인 “관대함”(tolerance)(155)을 보유하고 계신 할머니를 음주운전가에 잃는다. 친누나인 메리(Mary)마저도 술에 취해 자신의 간이집인 트레일러가 불에 타는 줄도 모른 채 사망한다. “인디언들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죽고, 술에 취한 많은 인디언들이 술에 취한 다른 인디언들을 죽인다.”(I mean, the thing is, plenty of Indians have died because they were drunk. And plenty of drunken Indians have killed other drunken Indians.)(157)라는 아놀드의 말처럼, 알콜은 가난처럼 인디언들에게 서로 물고 물리는 죽음의 순환고리처럼 작용한다. 신이 이

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었다면, 알콜은 신이 준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신이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발생한 술과 관련된 일련의 죽음들을 겪은 이놀드는 자신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리어단 학교의 백인 친구 고디(Gordy)가 전해준 행복과 관련된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고, 톨스토이는 인디언들의 불행의 원인을 모르고 소설을 썼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인디언들의 불행의 원인을 알콜이라고 지적한다. (About 90 percent of the deaths have been because of alcohol ... And he[Tolstoy] didn't know that all Indian families are unhappy for the same exact reason: the fricking booze)(200)

보호구역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의료와 교육 정책,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건설했지만 인디언들의 타락의 원인이 된 카지노, 그리고 생계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술에 의해 야기되는 죽음 등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인디언들의 고통은 그들의 영혼까지 파고들었다. 인디언들의 아픔, 상처, 또는 고통을 과감 없이 표현한 알렉시의 의도는 무엇인가? 존슨(Jan Johnson)은 『일기』를 초기의 다른 작품에서 다루지 않은 백인들에 의한 인디언의 집단 학살과 식민주의라는 비극적 유산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일기』를 "인디언 역사와 경험에 내재된 목격의 무게를 견디며 등장인물에게 진행하고 있는 고통의 현장을 표현하는 트라우마의 서사"(narrative of trauma that bear witness to American Indian history and experience and seek witnesses to their characters' ongoing suffering)(Johnson, 226)라고 평가한다. 『일기』는 등장인물을 포함해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영혼까지 잠식한 슬픔과 고통이 내재된 트라우마를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트라우마가 응축되면 분노로 표출된다.

이 작품보다 앞서 발표된 『탈주』의 지츠(Zits)의 경우에 이런 트라우마가 분노로 표출된 전형적인 작품이다. 지츠가 자신의 양육 집안에서 도망치고, 자신의 몸에 난 여드름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도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분노의 표현이다.(Johnson, 229) 일반적으로 분노는 외부와 내부 두 방향으로 표출된다. 인디언들의 경우도 분노의 표출은 두 방향으로 향하지만 대상과 범주가 다르다. 인디언들의 경우에 분노의 방향이 내부로 향하면, 우울증, 불안, 약물 남용, 그리고 자살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며, 외부로 향할 경우에 가정 폭력 또는 다른 인디언들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지만, 인디언 사회 내부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삶의 경계가 드러난다.

알렉시는 아즈 니그렌(Ase Nygren)과의 인터뷰에서 인디언은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인디언 역사는 살인과 전쟁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상황을 ‘폭력’이라고 표현하면 절절하지 않고, 인디언들의 기억, 삶, 문화를 대상으로 한 인디언 문학을 “치욕과 수치의 문학”(the literature of humiliation and shame)(Ase Nygren, 149)이라고 규정했다. 알렉시에게 식민주의 관점에서 언급된 ‘폭력’이란 표현은 백인과 인디언 사이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일반적인 전쟁에 의한 폭력을 지시하는 언표이고, 백인들이 자신들의 학살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지워버리는 언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시에게, 인디언의 역사와 현재의 삶을 재현한 텍스트는 자신들이 당한 치욕과 수치의 기록일 뿐이고, 치욕과 수치는 인디언들 개개인에게 내재되어 패배의식과 현실의 무력감으로 전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알렉시가 전형화 된 인디언의 모습을 재현한 작가들에 대한 비판과 그런 이미지와 거리두기를 한 의미가 드러난다. 알렉시에게 백인들 또는 인디언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인디언이란 치욕스럽고 수치스런 인디언이고, 이는 인디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인디언의 모습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

치욕과 수치의 역사는 인디언 개개인에게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좌절감을 동반한 현실의 고통으로 축적된다. 알렉시는 인디언의 정체성을 묻는 니그렌에게 “고통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리시킬 수 없다. 어느 시점에 고통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된다.”(The fact is you cannot separate

our identity from our pain. At some point it becomes primarily our identity)(Ase Nygren, 157)라고 말하면서 현실적으로 인디언들이 겪는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알렉시에게 고통은 인디언성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알콜은 인디언들에게 트라우마와 고통을 잊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백인들은 인디언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백인들의 인디언 차별 의해서 야기된 고통에 대한 관심이 없다.(Johnson, 230) 더 심각한 상황은 의사와 같은 치료자 또는 상담자가 없는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의 근원을 파악하거나 자신을 관찰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구원이나 위로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고통을 잊게 만드는 알콜 중독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알렉시가 그의 작품 전반에 알콜 중독, 카지노, 도박 등 인디언의 고통을 드러내는 장면을 배치한 이유가 드러난다.

이런 악순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가 이 작품의 주제라 할 수 있다. 던윈드(Dunnwind)는 『일기』의 주제는 '탈출'에 관한 것이고, 알렉시도 이 작품이 이런 굴레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이 탈출의 느낌을 공감하는 작품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말한다.(Diary's theme is about escape and he[Alexie] hope "it encourages all sorts of trapped people feel like they escape.") (Dunnwind, "Sherman Alexie Captures the Voice, 4. 재인용) 앞에서 언급했듯이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벗어나기 힘들다. 아놀드도 자신이 처한 보호구역이란 굴레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학교 수업시간에 P선생님(Mr P)의 코를 책으로 때리게 되는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다. 이 사건으로 아놀드는 학교에서 정학을 맞고 가족들은 실의에 빠진다. 어느 날 P선생님은 빈둥거리는 아놀드를 찾아가서 이런 저런 잡담을 주고받는다. 미국 정부에서 보호구역의 인디언에게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파견된 P선생님은 아놀

드가 자신에게 한 행위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백인들의 인디언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 한다.

“아니, 아니,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말 그대로 인디언을 죽이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너희들이 인디언이 되는 것을 단념시키려고 했어. 인디언 노래와 이야기, 언어와 춤, 모든 것을. 우리는 인디언을 죽이려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려 했어.”

“No, no, it's just saying. I didn't literally kill Indians. We were supposed to make you give up being Indian. Your songs and stories and language and dancing. Everything. We weren't trying to kill Indian people. We were trying to kill Indian culture.”(35)

P선생님의 고백은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인디언 교육의 목표를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P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백인 지배 문화의 관점에서 노래, 이야기, 언어, 그리고 춤을 포함하는 인디언 문화는 원시적이고 야만적이어서 백인, 더 나가 미국의 발전과 통합에 저해가 되는 방해요소이다. 백인들의 정책에 의한 인디언 교육은 이러한 그들 고유의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P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너희 인디언 아이들이 배우는 유일한 내용은 포기하는 법이야. 네 친구 로우디는 이미 포기했어. 그것이 그가 사람을 때리는 이유이지. 그는 사람들이 자기만큼 기분 나쁘길 원해.”

“인디언 아이들 모두 포기했어.” 그가 말했다. “네 모든 친구들. 불량배들. 그리고 그들의 엄마와 아버지들도 역시 포기했어. 그리고 그들의 조부모들도 포기했고 그들 전에 살았던 그들의 조부모들도 포기했어. 그래서 나와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여

기 온 거야.”

“The only thing you kids are being taught is how to give up. Your friend Rowdy, he's give up. That's why he likes to hurt people. He wants them to feel as abd as he does.”

“All these kids have given up,” he said. “All your friends. All the bullies. And their mothers and fathers have given up, too. And their grandparents gave up and their grandparents before them. And me and every other teacher here.”

(42)

P선생님의 고백으로 드러난 백인중심의 인디언 교육은 식민주의적 교육이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보호구역의 인디언들은 역사적 상처와 고통, 그리고 무력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백인들에 의해 강요된 이런 교육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아놀드는 인디언들이 처한 현실의 원인, 그리고 제도가 인디언들에 대한 차별과 인디언과 백인 사이에 단절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깨닫는다. 정책과 제도에 의해 블랙홀과도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한 아놀드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P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P선생님은 아놀드에게 보호구역에 머무르면 자신을 포함한 백인들이 죽일 것이니 여기에서 멀리 벗어나야만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you're going to find more and more hope the farther and farther you walk away from this sad, sad, sad reservation)(42) P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한 아놀드는 숙명처럼 따라 붙는 가난과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나려면 보호구역을 벗어나야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에게 백인 학교인 리어단 고등학교로 전학 보내 줄 것을 요구한다.

리어단 고등학교에서 백인과 인디언 문화 사이의 차이를 경험한 아놀

드는 자신을 “밝은 미래 대 사라지는 과거, 랄프 로렌 셔츠 대 K마트 셔츠, 긍정적인 롤 모델 대 당뇨와 암에 걸린 가족사 희망 대 짓뭇개진 현실”(57) 등 이분법적인 대립관계에 위치한 백인 대 인디언의 모습으로 재현한다. 그림으로 표현된 새로운 현실에 직면한 아놀드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쪽은 인디언, 다른 쪽은 백인”(half Indian in one place and half white in the other)(118)에 속하는 이중적인 존재로 묘사한다. 『탈주』의 아일랜드계 어머니와 인디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혼혈 인디언 지츠의 혼혈성, 아놀드를 통한 이중적 정체성은 알렉시의 탈주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글쓰기 전략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인디언 근본주의의 관점에서 재현된 인디언 등장인물들은 아마도 많은 백인들 또는 인디언들이 원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 모습을 통해서 백인 독자들은 잊혀져가는 인디언들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되살릴 수도 있고, 인디언들 또한 자신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의 재현이라 환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알렉시는 아놀드와 지츠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여러 인디언 비평가들의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알렉시는 인디언의 전통에 근거해서 전형화 된 등장인물을 재현하기를 기대하는 인디언 비평가와 작가들을 역으로 비난한다. 알렉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전통 노래를 부르며 길가에 서있는 인디언은 없을 것이다.”(No Indian will stand on the roadside singing traditional song for money)(Jeff & Jan, xxiii)라고 비꼬면서 전통에 근거해서 인디언들의 모습을 재현하는 인디언 작가들은 인디언 문화를 판매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알렉시는 대중 매체를 중심으로 조성된 인디언 출신의 작가이자 미국 시민으로서 자신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비켜감으로써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가면서 자신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다. 그는 인디언들의 실상을 모르고 백인들의 요구와 기대에 맞춰 재단된 전형화 된 인디언들의 모습 또는 개념과 관련해서 역으로 독자들의 인식의 태도를 바꾸려 한다. 그는

자신만의 개념인 “자아의 주권”(sovereignty of self)(Jeff & Jan, xxviii)이란 개념을 독창적으로 내세운다. 그가 이야기하는 ‘주권’이란 대부분의 인디언들이 원하는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독립이라기보다, “별난 놈이 되고자 하는 한 인디언 예술가의 기본권”(the individual Indian artist's basic right to be an eccentric bastard)(Jeff & Jan, xxviii)을 의미한다. 여기서 ‘별난 놈’은 인디언 사회에서 완전히 유리된 인디언이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한 지츠와 아놀드와 같은 이중적 존재이며 또한 동시에 두 문화 사이를 자유로이 횡단할 수 있는 예술가를 지시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의 이런 자아의 주권이란 아놀드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표현한 이분법적 모습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역설적이기도 하다. 자아 또는 정체성이란 확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아놀드의 모습에서 드러난 정체성은 인디언 또는 백인 문화 그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모습이고, 오히려 그 경계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하여 ‘자서전은 아니지만 자서전적’이라는 알렉시의 표현의 의미도 이런 맥락에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중적 정체성은 알렉시 작품의 전반으로 확대된다. 그의 작품의 등장인물과 제재 또한 보호구역 또는 도심의 스포케인 인디언들의 문화적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지츠의 ‘시간 여행’(time travel)처럼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인디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독특한 시간관과 의식, 그리고 역사를 잊지 않으며 백인 문화와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렉시는 인디언성을 유지하면서도 벗어나려는 이런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단이자 방법론으로써 유머를 사용한다. 『일기』의 첫 장부터 대뇌에 척수액이 너무 많아서 생명을 건 수술을 받은 아놀드는 자신의 뇌를 “커다란 프렌치 프라이”(a giant French fry)(2)같다고 이야기 하고, 너무 마른 몸을 “옆으로 서면 보이질 않을 것이다”(I was skinny. I'd turn sideways and disappear.)(3)와 같은 표현들 그리고 만화와 같은 수

많은 그림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웃음을 유발시킨다. 하지만 이런 장면들은 가벼운 유머라기보다 인디언들의 가난, 실업, 알콜 중독, 약물 남용, 당뇨병,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사라져가는 문화전통과 같은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 장면으로 전환시키는 ‘골계미적 유머’라 할 수 있다. 또한 알렉시에게 유머는 백인의 식민화 정책에 의해 유발된 인디언들의 불평등한 상황을 지시하고, P선생님의 표현처럼 인디언 문화를 말살해서 인디언들을 백인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에 의해 생긴 갈등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전복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헬드리치(Philip Heldrich)의 주장에 따르면, 알렉시가 사용하는 유머는 궁극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사회적 현상의 표층 넘어 또는 밑에 내재해 있는 “혼란스러운 의미들의 다양성”(the chaotic multiplicity of meanings)(“Survival = Anger X Imagination” 25)을 포착해 내는 도구이며, 동시에 백인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해체시킴으로써 독자들에게 “문화적 자각”(cultural awareness) (26)을 이끌어 내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힘을 내포하고 있다.

알렉시의 유머는 인디언과 백인, 안과 밖, 그리고 중심과 주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착화된 의미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알렉시는 두 문화와 진영 사이에 끊임없이 균열을 일으켜 독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시킨다. 알렉시는 백인의 식민지 언어인 영어를 사용해서 유머를 전달함으로써 고착화된 인디언의 이미지와 의미를 전복시키는 도구이자, 궁극적으로 인디언을 해방시키는 수단으로써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영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인디언과 백인의 고착화 구조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는 알렉시의 유머는 패러디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아감벤이 주장하는 패러디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아감벤은 패러디를 “단순히 다소 희극적인 내용을 진지한 형태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언어 자체를 패러디한다. 그러므로 패러디는 언어 속에 어떤 균열을 도입한다.”(아감벤, 『세속화 예찬』, 67) 아감벤의 관점으로 알렉시의 유머를 접근하면, 알렉시의 유머는 사라져 가는 인디언 언어와 지배

언어인 영어, 인디언 문화와 백인 문화 사이의 긴장과 차이를 통해서 “내적인 ‘불협화음’”(68) 일으키는 패러디라고 할 수 있다. 패러디가 본질적으로 다시 얻을 수 없는 상실한 대상을 향한 것이라면, 유머를 통한 알렉시의 패러디는 이제는 사라져서 버린 인디언성과 그 인디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인디언 작가들의 본질주의적인 태도와 백인들의 기대 사이를 자유로이 횡단하면서 끊임없이 균열을 일으키며 새로운 가능성 또는 양진영 사이의 간극을 지시하는 언표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알렉시는 『일기』는 그의 작품 세계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작품에서 백인에 의한 인디언 착취에서 비롯된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유머와 풍자를 통해서 과감 없이 표현했다. 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인디언 전통의 회복을 주장하며 작품을 출판한 기존의 작가들과 비평가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들이 인디언의 문화와 현실을 상업적 세력들과 결탁해서 매판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이런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알렉시는 작품을 통해서 인디언 작가들이 재현한 인디언 모습에 대한 백인들의 기대를 패러디함으로써 고착화된 인식의 틀을 전복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의 이러한 전복의 전략은 열악한 상황에 처한 인디언들에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고 백인들이 원하는 인디언 모습에 대한 전형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오히려 인디언들의 현실에 대한 울림을 느끼게 하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런 시도의 한 방법으로 인디언의 정체성을 한쪽은 인디언 그리고 다른 편은 백인이라는 이중적인 존재로 제시했다. 알렉시는 이중적 존재로서의 인디언 정체성은 인디언과 백인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 존

재들 사이의 틈에서 찾으려고 시도했다. 이 공간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빈공간이다. 따라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담아낼 수 있는 패러디와 같은 양식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작품 전체에 펼쳐져있는 다크 유머는 곧 일종의 패러디라 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 주제어

서만 알렉시, 인디언 문학, 고통, 유머, 패러디

■ 인용문헌

- 노현균. “셔만 알렉시의 『어느 파트타임 인디언의 진짜 일기』: 현대 미
국사회에서 인디언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트랜스내
셔널리즘,” 『미국소설』 제21권 1호, (2014) : 5-26.
- 조르조 아감벤. 『세속화 예찬』. 김상운 옮김. 서울: 난장출판사, 2005.
- Alexie, Sherman. *The Absolutely True Diary of a Part-Time Indian*.
New York: Little, Brown and Company, 2007.
- _____. “Fiction and Poetry Award Winner: *The Absolutely
True Diary of a Part-Time Indian*,” Horn Book Magazine
85.1 (2009): 25-28.
- _____. *Flight*. New York: Black Cat, 2007
- Berglund, Jeff & Roush, Jan. Eds. *Sherman Alexi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Salt Lake City: The Univ. of Utah P, 2010.
- Heldrich, Philip. “Survival = Anger × Imagination: Sherman Alexie’s
Dark Humor,” *Sherman Alexi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Berglund, Jeff & Roush, Jan. Eds(2010): 25-43.
- Johnson, Jan. “Healing the Soul Wound in *Flight* and *The Absolutely
True Diary of a Part-Time Indian*,” *Sherman Alexi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Berglund, Jeff & Roush, Jan.
Eds(2010): 224-240.
- Nygren, Ase. “A World of Story-Smoke: A Conversation with
Sherman Alexie,” *Conversations with Sherman Alexie*.
Peterson Nancy J. Ed. Jackson: UP. of Mississippi, (2009):
141-156.

■ Abstract

Sherman Alexie's *An Absolutely True Dairy of a Part-Time Indian*:
Humor as a Parody

Kim, Jong-Gahp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humor as a parody in Sherman Alexie's *An Absolutely True Dairy of Part-Time Indian*. Pain continued to generate from the era of drawing Indian Reservations spreads out throughout *Diary* and history of American Indian. For Alexie, pain is the same word with the identity of Indian and is expressed in alcoholism, drug abuse, casino, and violence in his works. Generally, Indian nationalist writers try to regain the tradition in songs, stories and culture of Indian. They reprehend Alexie for giving up Indian tradition. But for Alexie, their writings depicted the image of Indian is the doings to sell Indian culture to White. Instead, he explores the various aspects of traditional Indian and transnational Indian. The goal of his writing is to ultimately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co-existing Indian and White. In order to do this, he uses humor as a means of co-existing both of Indian and White and subverting the Indian image fixated by the dominant culture and some of Indian writers. Alexie's humor acts, thus, as a parody to refer to the rupture or void between Indian and White.

• 셔만 알렉시의 『파트타임 인디언의 정말로 진실한 일기』 | 김종갑

■ Key Words

Sherman Alexie, Indian literature, pain, humor, parody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5년 12월 4일 ○심사일: 2015년 12월 18일 ○게재일: 2015년 12월 31일



Speaking Stella and Silent Astrophil :

An Unstable Gender Paradigm in *Astrophil and Stella*

Bae, Kyung-Jin

I

Writing love sonnets became a vogue in England in the 1580s and 1590s as a genre to express desire. While desire was multileveled, from a desire for the love of a beloved lady to a desire for the favor of a patron, sonnets are pursued and exercised as a means to a most effective rhetoric. The first English sonnet sequence, *Astrophil and Stella* (1591) by Philip Sidney (1554–1586), embodies a powerful sense of subjective presence and philosophical trappings in relations to love and desire. Traditional literary criticism has long been preoccupied with the poet as a desiring subject in the Renaissance love lyrics of sonnet sequences. From this perspective, love poems are a guise for the male poet's political concerns. Gary Waller analyzes the typical presentation of this position: “the Petrarchan love poem is a theater of a desire – one in which men have the active role and the women are assigned silent iconic functions, and are notable primarily for their absence in the script” (242). The mistress is silenced within the poems. As a projection of the

poet-lover, the beloved lady is passively and silently represented by a male voice. In her traditional idealization, bordering at times on idolatry, the beloved lady is in fact reduced to silence, which was the most virtuous ideal of feminine decorum in Elizabethan period.

The title of Suzanne Hull's bibliography of books for Renaissance women succinctly represents the period's image of the ideal woman as "Chaste, Silent and Obedient." The simple ideal of feminine decorum, silence, was untiringly recommended by many Renaissance conduct books. Not only the conduct books but also the literary texts reinforce feminine silence. A chaste, silent and obedient wife becomes an admirable and thus desirable figure while satires are aimed at women who transgressed this gender decorum. A virtuous wife, Hermione silently and obediently endures accusations and trials to be rewarded in the end in *The Winters' Tale*. When Hermione defends herself eloquently at her hearing, her speech is interpreted by Leontes as effrontery and she is condemned not for what she says, but for saying anything at all (Dusinberre, 220). Studying female silence in Renaissance drama, Catherine Belsey concludes that historically women were "enjoined to silence, discouraged from any form of speech which was not an act of submission to the authority of their fathers and husbands" (149). However, the dangers of mistaking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for practice have been pointed out (Lamb 4). The repeated exhortations of conventional tracts can actually suggest that practice might well have been the opposite of what was recommended or commanded. In *Epicoene, or the Silent Woman*, there is no such thing as the silent woman, whom the domineering and noise-hating Morose desires.

Epicoene turns into a scolding shrew immediately after the marriage.

Patriarchal ideology recommends silence as an ideal virtue in women because it is a way of taking control of women's voices, by which they are eventually rendered voiceless and powerless. Feminist scholarship faces two major concerns: deconstructing a dominant male perspective and reconstructing female experience previously hidden or overlooked (Green and Kahn 1–6). In search of the lost and repressed female voices, this study reexamines the typically gendered paradigm in Sidney's sonnet sequence between a silent female beloved lady and a speaking male poet-lover. Heather Dubrow points out that although the Petrarchan mistress is sometimes silenced, in some significant cases she is not (11). Not only does Stella speak, but the power and significance of her speech are also found at several points in the sequence (Fienberg 5–19). Sidney conferred an unusual degree of subjectivity upon his inscribed addressee, Stella, whose voice is represented equal to Astrophil's own. Examining some significant images of Stella's speaking requires a more complex reading of Petrarchan love poetry for the reason that “the paradigm of the dominant and manipulative poet and silenced mistress is deceptive not merely because it neglects that variety but also because it typically presupposes the stability of gender categories” (Dubrow 11). Multifarious interpretations of Stella's speaking encourage us to see both gender and sexuality in terms of overlapping and unstable subject positions rather than clear-cut binaries.

II

Feminist criticism of the Petrarchan sonnet tradition has explored how the beloved lady, despite her traditional idealization, bordering at times on idolatry, in fact reduced to a silent, passive, and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blazon, disembodied object by the male poet's representation (Schalkwyk 385). A Petrarchan model reduces the beloved lady to silence, which provides a precondition for the poet-lover's considerable volubility. Though the mistress in a Petrarchan love poem is a proxy for the representation of the male poet-lover's self and therefore assigned a silent and iconic function, she occasionally plays an active role, while the male poet is passive and silent. Stella is represented to sing, read, speak and admonish. In Sonnet 44 Stella finally responds to Astrophil's poems, which he has anxiously longed for to happen. However, what he faces at this apparently long awaited moment is her authority which silences him by thwarting his intention. In Sonnet 44, when Astrophil has to reason why his well-written "piercing phrases" (58.9) fail to work on Stella's kind heart, we witness Stella metamorphose them into "tunes of joy" (44.14).¹⁾

My words, I know, do well set forth my mind;

My mind bemoans his sense of inward smart;

Such smart may pity claim of any heart;

Her heart (sweet heart) is of no tiger's kind:

1) Quotations from Sidney's poems are from *Sir Philip Sidney* (Ed. Katherine Duncan-Jones, Oxford: Oxford UP, 1989).

And yet she hears, yet I no pity find,
But more I cry, less grace she doth impart. (44, 1-6)

Clark Hulse indicates that here in Sonnet 44 Astrophil is confronted with the full extent of Stella's power and sees her create an effect entirely the opposite of his original intention. Hulse considers this sonnet to be a crucial one since Stella's power over Astrophil and his poetry emerges in this sonnet:

This marks a crucial turn in the entire sonnet sequence, for at this point Stella becomes the virtual coauthor of the sonnets (not that she physically wields the pen - I mean that she exercises authority by her virtù. He may make the words, but she has the power to form her response to them so to transform their meaning. Stella then appears in public as the performer of Astrophil's sonnets, replacing his voice with her own. (279)

Similarly, in Sonnet 57, Stella appears to replace his voice by singing the sonnets and in doing so sweetens them and drains them of pathos.

She heard my plaints, and did not only hear,
But them (so sweet she is) most sweetly sing,
With that fair breast making woe's darkness clear,
A pretty case! I hoped her to bring
To feel my griefs, and she with face and voice
So sweets my pains, that my pains my rejoice. (57.9-14)

Focusing on Stella's power to exert an art of her own, Jacqueline Miller observes that Stella denies and diminishes Astrophil's art by transforming "the impact of his words so radically that the speaker ends up enjoying the recital of his own sorrow" (97). While in Sonnet 44 Astrophil vaguely speculates that his well-chosen words for his "inward smart" (44.2) are transformed to hymns of joy when they entered Stella's celestial mind, here he elaborately analyses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his poetry by focusing on her singing image. It is through her sweetly singing voice that he is deprived of his own painful voice in his poem. Astrophil admits that he rejoices in this sweet transformation but at the same time he laments his helpless and ironical situation in front of her sweet power. His own words turn against him leaving his poems to be deprived of their intended meaning and therefore his voice in them to be silenced.

In spite of her authority over Astrophil's poems, Stella is still aestheticized here. Astrophil claims that "Her soul, armed but with such a dainty rind, / Should soon be pierced with sharpness of the moan" (57.7-8). Her soul seems a little bit hollow under the mere layer of sweet-looking appearance. Denying her soul any deeper intellectual content, Astrophil still seems to focus on her "dainty" face and sweet voice and represents Stella as an object to be penetrated by his "sharpness of the moan." In the following sonnet the speaker, Astrophil, has become Stella's audience.

Now judge by this: in piercing phrases late
The anatomy of all my woes I wrate,
Stella's sweet breath the same to me did read,

O voice, O face, maugre my speech's might,
Which wooed woe, most ravishing delight
Even those sad words even in sad me did breed, (58,9-14)

Stella's graceful voice and face make Astrophil experience "most ravishing delight" even in his own "sad words." Interestingly enough, Stella uses Astrophil's words: she reads "the same" to him though the last line reveals Astrophil's lament over his powerlessness in front of the transforming power of the sweet Stella. Astrophil still denies Stella the substance of what she speaks. Though she sings, reads, even produces her own meanings, it is his words that she uses. Astrophil focuses on how she speaks or sings rather than on what she says. For much of the sequence, when Astrophil mentions her voice, it is merely a sweet sound devoid of meaning. Fienberg argues that in the continental lyric tradition, male poets allow little room for a woman's speech, while, in comedy, women's voices play a stronger part (17). In the Eighth song, for the first time in the sequence Stella speaks in length. Though Sidney dramatizes the power of her speech, it must not be overlooked that her speech is always reported, created and even imagined by the male poet-lover. Before Astrophil gives Stella seven-stanza speech in the Eighth song, he indirectly reports the substance of what she says in Sonnets 61 and 62. In Sonnet 61, Stella replies to Astrophil's appeal.

But this at last is her sweet-breathed defence:
That who indeed infelt affection bears,
So captives to his saint both soul and sense

That wholly hers, all selfness he forbears;

Thence his desires he learns, his life's course thence. (61. 4-8)

Stella admonishes that Astrophil should realize his desire and change “his life's course” to a more virtuous and spiritual path. Nevertheless, what she says seems like what any virtuous conduct book may advise to do and does not leave any trace of her personality. Stella is represented to repeat what has been postulated in conduct books just as she is represented as merely repeating “his words” when she sings his poems. Whether it is her own words or those in virtuous conduct books, Stella's speech has affected him.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what she says, Astrophil feels that he should prove to her that his mind can be made as chaste as hers: “Now since her chaste mind hates this love in me, / With chastened mind I straight must show that she / Shall quickly me from what she hates remove” (61.9-11). Astrophil understands that he must show his submission in front of her virtuous love. However, his assuming helplessness cannot simply be associated with his powerlessness. Confronted with the power of her speech, Astrophil assumes this submissive posture and employs the rhetoric of helplessness, which turns out to be one of the powerful and effective eloquence aimed at her.

In Sonnet 62, the moment in which Stella speaks is when Astrophil is most worn out and helpless in face of her unkind but virtuous love. Stella confesses to this exhausted and languishing Astrophil that she loves him, but she mingles this avowal with noble counsels. And for the first time in the sequence, Astrophil focuses

on what she says and reports it seriously.

She in whose eyes love, though unfelt, doth shine,
Sweet said that I true love in her should find,
I joyed, but straight thus watered was my wine,
That love she did, but loved a love not blind,
Which would not let me, whom she loved, decline
From nobler course, fit for my birth and mind: (62.3-8)

When Stella says “love she did,” Astrophil rejoices. However, as he summarizes in the following lines, while she says more about her love and he is listening more about it, his joys are weakened. Stella admonishes that Astrophil should throw away his vain desire and follow the virtuous course of love. Though what she says is reported indirectly by his summary, her noble speech is shown firm and full of reason. Whereas how she says sounds sweet, what she says is sour. Her speech is sour in that it is an unyielding counter-discourse of moral admonition against his desire and complaint. Here, Astrophil seems less focused on the manner of her speech than on its content. In front of Stella's authoritative and virtuous speech, Astrophil is presented helpless, passive and silent.

On other hand, Sonnet 68 presents Astrophil in the role of a subversive audience. While he is listening to her speech, he is not simply listening passively and silently but he thinks, doubts, and subverts what she says.

And all in vain, for while thy breath most sweet

With choicest words, thy words with reasons rare,
Thy reasons firmly set on virtue's feet,
Labour to kill in me this killing care:
O think I then, what paradise of joy
It is, so fair a virtue to enjoy. (68,9-14)

While Stella is speaking, Astrophil remains silent. He may be listening to her, admitting the quality of her argument. Nevertheless, his silence assumes multiple and contradictory functions. His silent listening hints that he is not listening to her speech, but already preoccupied with his own world of thought. Astrophil reveals that what he actually does all the while she is speaking is to think how much he wants her. While she tries hard to advise him to follow her virtuous love, he imagines and desires the enjoyment of her virtue. The more she protests her virtue, the more he desires her. As his desire is “fed” by her worth and “kindled” by her sight (68.8), her virtuous speech and her sweet voice simply inflames him all the more. This imagining and desiring Astrophil anticipates Angelo in Shakespeare's *Measure for Measure*. Inflamed by the virtuous Isabella pleading for her brother's life, Angelo wonders in his soliloquy how a chaste lady rather than a licentious woman can kindle his lust more (*Measure for Measure*, 2.2,162–186). To Astrophil and Angelo, the more their ladies speak, the more they are inflamed by them. Juliet Dusinberre points out that Isabella's rhetoric entices Angelo, as her speech sound “aphrodisiac” to him (224). As a woman's speech is coloured by her sex, Isabella and Stella contain an unconscious erotic charge to what they say.

Speech does not necessarily indicate powerful agency, while silence also does not always signify its absence. The relation between speech and silence in regard to power is more complicated and slippery. Here, though it is Stella who is speaking and Astrophil is listening, his silence is subversive. Making Stella's speech a futile attempt, Astrophil distorts her virtue and transforms her from an authoritative subject who tries to subdue his desire into an aesthetic object for him to enjoy. The power and significance of her speech seems diminished by his subversive silent thought. His silence appears more powerful than any of his speech.

III

Though Stella's power of speech is limited in Sonnet 68, in the Eighth song, where she speaks at length for the first time and only time in the sequence, her words finally leave Astrophil speechless. Stella confesses her love but at the same time denies Astrophil on account of "tyrant honour":

'Astrophil,' said she, 'my love
Cease in these effects to prove:
Now be still; yet still believe me,
Thy grief more than death would grieve me,
.....
'If more may be said, I say:
All my bliss in thee I lay;

If thou love, my love content thee,
For all love, all faith is meant thee.

‘Trust me, while I thee deny,
In my self the smart I try;
Tyrant honour thus doth use thee;
Stella's self might not refuse thee.

‘Therefore, dear, this no more move,
Lest, though I leave not thy love,
Which too deep in me is framed,
I should blush when thou art named.’ (73-100)

Studying the emergence of Stella in the sequence, Fienberg observes that Stella is muted and passively subject to Astrophil's fixed system until the Eighth Song:

When Stella steps out of silence, she merely echoes Astrophil's words and reads his poetry. Then her language is reported in indirect discourse, subject to the speaker's mediation. When [in the Eighth song] she begins to generate her own language, she achieves a measure of reality. (10)

Though Cotter considers her speech in the Eighth song “most reasonable” and “straightforward and unadorned” (195), Fienberg also notices that there is a tension in the repeated “if” sentence structure. Still some of her vocabulary is exactly the same as Astrophil uses: “grief,” “hellish anguish,” “bliss in thee,” and “the

smart.” While we recognize the grace and pose of the female voice which commands seven quatrains, we need to note that her words in the Eighth song may not be her real and original speech. It can be an imagined speech by Astrophil as a way of interpreting her continual silent response. From the beginning of the song, there is a long silence from both Stella and Astrophil. What we can hear is only birds' singing in the green woods. Though they are silent in a rich grove, the atmosphere is open, fresh, and candid. Surrounding their silence, there is “the hushed tension of deep feeling restrained because of its very depth” (Rudenstine, 259).

In a grove most rich of shade,
Where birds wanton music made,
May then young his pied weeds showing,
New perfumed with flowers fresh growing,

Astrophil and Stella sweet
Did for mutual comfort meet;
Both within themselves oppressed,
But each in the other blessed. (1–8)

While they are in a fresh and sweet pastoral setting, their love is forbidden. In the restrained tension of deep and hushed feelings, they weep, sigh, grieve, and share mutual love. Facing each other, Astrophil and Stella silently converse in their hearts and this moment is so intense and intimate that they seem to be united by this mutual silence. This is a silent communication that only

intimate lovers can understand, as in the silent and intimate condition of the lovers in John Donne's "The Ecstasie," which is strongly influenced by this song.²⁾

"Love itself did silence break" (26) at last and Astrophil begins his praise and lament. When she begins to speak in turn, the description of her speech hints that it is unusual:

Then she spake: her speech was such
As not ears, but heart did touch;
While such wise she love denied,
As yet love she signified. (69-72)

Astrophil insists that her speech is the one which touches the "heart," not the "ears." He also claims that her speech indicates one thing ("she love denied") but at the same time signifies another ("love she signified"). Stella signifies assuredly her refusal by repelling his hands before she speaks of her feelings:

There his hands in their speech fain

2) George Williamson argues that John Donne's "The Ecstasie" is one of the poems that descend from the Eighth song of *Astrophil and Stella*. Both of them have in common the pastoral setting, the description of a May landscape, the long silence of the two lovers, with analysis of their emotion and their absorption in the rapture of love. In Donne's poem by a characteristic subtlety the dialogue is reduced to a monologue spoken by the undistinguished soul of the two lovers. See his *A Reader's Guide to the Metaphysical Poets* (London: Thames and Hudson, 1968), 73-74; and his *Seventeenth Century Contexts* (London: Faber and Faber, 1960), 64-77.

Would have made tongues' language plain:
But her hands, his hands repelling,
Gave repulse, all grace excelling. (65-68)

Stella's argument in her speech is that she has to deny Astrophil to obey "tyrant honour." However, she also admits her feelings for Astrophil. The Eighth song offers Stella's most frank and first person description of her desire for Astrophil (Sanchez 14). Here, Sidney's attention to female desire also complicates the roles of lover and beloved that most traditional Petrarchan sequences keep separate. Her speech silences both Astrophil and the poet in the end.

Therewithal away she went,
Leaving him so passion-rent
With what she had done and spoken,
That therewith my song is broken. (101-104)

IV

Stella speaks in one further song. In the Eleventh song, she exchanges a dialogue with Astrophil standing in the night under her window like Romeo and she is once again allowed to speak her displeasure and deny his voice: "Peace, I think that some give ear; / Come no more, lest I get anger" (36-37). In the exchange of debates with Astrophil, Stella is the initiator rather than respondent. When

Stella is speaking and Astrophil is answering her, she turns out to be more argumentative. Nowhere is her voice more significantly and quietly “contestatory” than in the Eighth song, where she ends her affair with Astrophil (Prendargast, 81). Stella enumerates all the reasons that Astrophil’s love must end: the passage of time, her absence, other women, his own reason and the memory of all the sufferings inflicted by this love. But Astrophil rebuffs all these arguments: in time his love will not diminish but grow, her absence would only help if he could learn how to separate his mind from the body, other women are like the pictures of saints, not matching her perfection, but just poorly counterfeiting her and reason and the past wrongs just make him love her more. She has to forbid him to come as she is afraid she may be observed and finally he has to depart. Stella has to be clear about her rejection: “Well, be gone, be gone, I say, / Lest that Argus’ eyes perceive you” (41–42).

When Astrophil is denied by Stella in the Eighth and Eleventh songs, the sense that the poet cannot write any longer is strong: he does not have the sun, his only light, beloved Stella, and he cannot write “with such a darkened mind” (99.14). However, he has to go on writing after the Eighth song, because writing is, in a sense, a way of avoiding and postponing his failure. If a poet-lover is denied by his lady, he may simply confess his defeat and fall silent. Similarly, facing her refusal and his failure, Astrophil turns to looking inward to “discern the shape of mine [his] own pain” (94.4) and retreats into silence. The final sonnet of the sequence shows this Astrophil in his dark, private and inward state. He remains in “a most infernal night” (33.3) where his heart is boiling in the “dark

furnace” without respite and hope:

When sorrow, using mine own fire's might,
Melts down his lead into my boiling breast,
Through that dark furnace to my heart oppressed
There shines a joy from thee, my only light;
But soon as thought of thee breeds my delight,
And my young soul flutters to thee, his nest;
Most rude despair, my daily unbidden guest,
Clips straight my wings, straight wraps me in his night,
And makes me then bow down my head, and say:
'Ah, what doth Phoebus' gold that wretch avail
Whom iron doors do keep from use of day?'
So strangely, alas, thy works in me prevail,
That in my woes for thee thou art my joy,
And in my joys for thee my only annoy. (108, 1-14)

Astrophil's sorrow which is oppressing his heart is only relieved by the joy that shines from Stella. But this fleeting joy is soon vitiated by frustrating despair. Finally the poet-lover can only choose but to be silent, except for restating his condition in a conventional paradox of joyful woe or sweet sorrow. Marion Campbell argues that the final couplet of the last sonnet in the sequence becomes a meaningless, mechanical and sterile metaphor:

The sequence runs down after the rejection of the Eighth song as Astrophil merely acts out a series of Petrarchan poses, trapped inside a convention that no longer expresses any of the emotional realities of his situation. *Astrophil*

and *Stella* falters to a stop in Sonnet 108 in the deadlock of despair, realized in the final couplet. [...] The mechanical manipulation of this familiar rhyme reveals the potential sterility of Petrarchan paradox. The intricate connection of 'joy' and 'annoy' is no longer a fruitful metamorphosis under the power love, but the sterile deadlock of despair. (90-91)

This last sonnet is overtly artificial and conventional with its Petrarchan metaphors and sentiments. The conventional repetition of the Petrarchan paradox in the final couplet also reveals a sense of inability: confined within a convention and unable to say anything else. What we face at the end is the *Astrophil*'s silence, his absence of words. It is perhaps true that the sequence merely ends rather than concludes. *Astrophil* is left to be silent with his acceptance of the lasting frustration to which his love and powerful and eloquent beloved lady has brought him.

(Hoseo University)

■ 주제어

Sir Philip Sidney, *Astrophil and Stella*, silence, gender and power

■ Works Cited

- Belsey, Catherine. *The Subject of Tragedy: Identity and Difference in Renaissance Drama*. London: Methuen, 1985.
- Campbell, Marion. "Unending Desire: Sidney's Reinvention of Petrarchan Form in *Astrophil and Stella*." *Sir Philip Sidney and the Interpretation of Renaissance Culture*. Ed. Gary Waller and Michael Moore. London: Croom Helm, 1984. 84–94.
- Cotter "The Songs in *Astrophil and Stella*." *Studies in Philology* 67 (1970): 178–200.
- Dubrow, Heather. *Echoes of Desire: English Petrarchism and Its Counterdiscourses*. Ithaca: Cornell UP, 1995.
- Dusinberre, Juliet.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Women*. London: Macmillan, 1975.
- Fienberg, Nona. "The Emergence of Stella in *Astrophil and Stella*."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25 (198): 5–19.
- Green, Gayle and Coppelia Kahn. "Feminist Scholarship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Woman." *Making a Difference: Feminist Literary Criticism*. London: Routledge, 1988.
- Hull, Suzanne W. *Chaste, Silent and Obedient: English Books for Women, 1475–1640*. San Marino: Huntington Library, 1982.
- Hulse, Clark. "Stella's Wit." *Rewriting the Renaissance: The Discourse of Sexual Difference in Early Modern Europe*. Ed. Margaret W. Ferguson, Maureen Quilligan, and Nancy J. Vickers. Chicago: The U of Chicago P, 1986. 272–86.

- Lamb, Mary Ellen. *Gender and Authorship in the Sidney Circle*. Madison: The U of Wisconsin P, 1990.
- Miller, Jacqueline. “‘What May Words Say’: the Limits of Language in *Astrophil and Stella*.” *Sir Philip Sidney and the Interpretation of Renaissance Culture*. Ed. Gary Waller and Michael Moore. London: Croom Helm, 1984. 94–109.
- Prendergast, Maria Teresa. “The Unauthorized Orpheus of *Astrophil and Stella*.”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35 (1995): 19–34.
- Rudenstine, Neil L. *Sidney's Poetic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P, 1967.
- Sanchez, Melissa E.: “‘In my selfe the smart I try’: Female Promiscuity in *Astrophil and Stella*.” *English Literary History* (80:1) 2013: 1–27.
- Schalkwyk, David. “‘She Never Told Her Love’: Embodiment, Textuality, and Silence in Shakespeare’s Sonnets and Plays.” *Shakespeare Quarterly* 45 (1994): 381–407.
- Shakespeare, William. *Measure for Measure*. *The Riverside Shakespeare*. 2nd ed. Ed. G. Blakemore Evans and J. J. M. Tobin. Boston: Houghton Mifflin, 1996. 579–623.
- Sidney, Philip. *Sir Philip Sidney*. Ed. Katherine Duncan-Jones. Oxford: Oxford UP, 1989.
- Waller, Gary F. “Struggling into Discourse: The Emergence of Renaissance Women’s Writing.” *Silent but for the Word: Tudor Women as Patrons, Translators, and Writers of Religious Words*. Ed. Margaret Patterson Hannay. Kent: Kent State UP, 1985.
- Williamson, George. *Seventeenth Century Context*. London: Faber

and Faber, 1960.

_____. *A Reader's Guide to the Metaphysical Poets.*

London: Thames and Hudson, 1968.

■ Abstract

Speaking Stella and Silent Astrophil :
An Unstable Gender Paradigm in *Astrophil and Stella*

Bae, Kyung-Jin (Hoseo University)

The first English sonnet sequence, *Astrophil and Stella* (1591) by Philip Sidney (1554–1586), has been traditionally considered to embody a powerful sense of subjective presence and philosophical trappings in relations to love and desire. Traditional literary criticism has long been preoccupied with the poet as a desiring subject in the Renaissance love lyrics while the beloved lady is passively and silently represented by a male voice. In her traditional idealization, bordering at times on idolatry, the beloved lady is in fact reduced to silence, which was the most virtuous ideal of feminine decorum in Elizabethan period. In search of the previously hidden or overlooked female voices,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the typically gendered paradigm in Sidney's sonnet sequence between a silent female beloved lady and a speaking male poet-lover. Although the Petrarchan mistress is sometimes silenced, in some significant cases she is not. Not only does Stella speak, but the power and significance of her speech are also found at several points in the sequence. It is notable that Stella's voice is represented equal to Astrophil's own. Being a proxy for the representation of the male poet-lover's self, and therefore assigned a silent and iconic function, she occasionally plays an active role, while the male poet is passive and silent. In

front of Stella's authoritative and virtuous speech, Astrophil is presented helpless, passive and silent. Though the Eighth song offers Stella's most frank and first person description of her desire for Astrophil, she denies Astrophil. Facing her refusal, Astrophil turns to looking inward in his dark, private and silent state. The last sonnet is overtly artificial and conventional with its Petrarchan metaphors and sentiments and reveals a sense of inability: confined within a convention and unable to say anything else. Stella is enforced to silence but on occasion she repels Astrophil in her speaking in contrast with a passive, helpless and most of all silent Astrophil.

■ Key Words

Sir Philip Sidney, *Astrophil and Stella*, silence, gender and power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5년 12월 4일 ○심사일: 2015년 12월 18일 ○게재일: 2015년 12월 31일



Anne Sexton의 *Love Poems*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적 효과*

Émile Durkheim의 ‘Anomie’와 Lacan의 ‘Signifiant’

유 미

I. 서론

앤 섉스턴(Anne Sexton, 1928~1974)은 미국의 여류 시인 작가로 1928년 11월 9일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의 유복한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나, 1950~1960년대에 시인으로 활동했으며, 1974년 10월 4일 그녀의 차고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작품집으로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To Bedlam and Part Way Back*, 1960), 『나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All My Pretty Ones*, 1962), 『살거나 아니면 죽거나』(*Live or Die*, 1966), 『사랑의 시들』(*Love Poems*, 1969), 『변형』(*Transformations*, 1971) 그리고 사후에 출간된 『하느님을 향한 서툰 배젓기』(*The Awful Rowing Toward God*, 1975), 『에임스』(*Ames*, 1977) 등이 있으며, 『살거나 아니면 죽거나』를 통해 1967년 풀리처상(Pulitzer prize)을 수상하였다.

섉스턴은 동 시대에 활동했던 로버트 로웰(Robert Lowell), 스노드그라스(W. D. Snodgrass),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 등과 함께 고백파 시인으로 분류되는데, 고백시는 비교적 비인간적 문학의 보편성을 추구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4H1A2A1019767).

해 온 전통적 시들과 달리 시적 화자에 가려진 시인(개인)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강렬하게 드러낸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여성의 구체적 신체 이미지나 비유들을 피하는 것이 이른바 ‘고급문학’의 관례로 여겨져 왔다.”(이정원, 199)는 이정원의 지적처럼 고백파의 등장은 전후 미국 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소 파격적인 실험이기도 하였다.

1950년대 전후 미국사회는 승전에 따른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안정과 보수적 질서가 중시됐다. 번영이 주는 쾌(快)가 순응에 따른 불쾌보다 컸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개인들은 TV드라마나 광고를 통해 생산되는 일률적으로 이상화된 여성상, 가족상을 수용했고, 매카시즘으로 대표되는 우파정치의 통제 속에서 사상적, 정신적 자유 또한 포기해 버렸던 것 같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 풍토 안에서 훗날 고백파로 명명된 시인 집단의 등장은 필연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풍요라는 미명 하에 억압되고 있었던 개인적 감정들의 분출을 통해 주체성의 회복과 나름의 문학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였다.

본 글에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여류 시인 앤 섉스틴과 그녀의 작품을 존재론적 차원에서 당시 사회(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시인 개인의 고백 그 자체이기도 한 시작(詩作)이 갖는 치유의 힘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한다. 우선 자살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집단적 현상으로 설명했던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 1858~1917)의 저서 『자살론』(Suicide, A Study in Sociology, 1987) 중 ‘아노미적 자살’ 개념을 중심으로 여성 개인인 앤 섉스틴이 사회적 통제에 저항하는 방식들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정신분석이론 중 ‘시니피양 논리’, ‘주체분열’ 개념을 중심으로 앤 섉스틴이 『사랑의 시들』(*Love Poems*)을 통해 도달하고자 한 진정한 주체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성적 아노미 상태라 불려도 무방한 현대 사회에서 시 쓰기와 시적 치유가 갖는 의미와 실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정신분석학에 대한 논의는 임상적 차원의 접근은 아니며, 주

체와 타자, 개인과 사회, 시인과 시적 화자가 맺는 역학 관계에서의 존재를 향한 주체의 저항이라는 욕망의 윤리학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것을 앞서 밝혀두고자 한다.

II. 본론

자살을 구성하는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인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은 사실 고전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만큼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저작이다. 발표된 지 백 년이 더 지난 연구인 ‘자살론’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자살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 가능한 집단적 현상이라기보다, 개인의 정신질환과 관계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전제 하에 일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특히 뒤르켐이 분류한 네 가지 자살 유형 ‘아노미적 자살’,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숙명적 자살’ 중 아노미적 자살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뒤르켐에 따르면 ‘아노미’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욕망이 사회의 규제를 받지 못하는 일종의 무규율 상태를 의미하는데, 현재에는 로버트 K. 머튼(Robert K. Merton)을 거치면서 일종의 개인과 사회의 규범갈등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하다. 뒤르켐은 자살을 일으키는 아노미를 경제적인 것과 가정적인 것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다음 인용문은 산업사회의 아노미와 자살의 상관관계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산업 사회에서는 위기 상태와 아노미가 항구적이며 정상적이다. 상층에서부터 하층에 이르기까지 탐욕은 끝을 모르고 일어난다. 욕구수준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보다 훨씬 멀리 있기 때문에 안정을 찾을 수 없다. 그와 같이 흥분된 상상에 비하면 현실은 너무나 무가치하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현실을 버리게 된다. 그러나 가능성

도 현실이 되면 마찬가지로 버려진다(자살론, 318~319).

이는 사회적 규제가 개인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과 달리 오히려 건전한 규제가 끝없는 흥분과 상상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반복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뒤르켐은 대공황과 같은 갑작스런 경제위기가 빈곤을 초래하고, 빈곤의 결과 자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의 자살률 또한 경제위기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결국 위기가 집단적 질서를 흔들게 됨으로 자살이 증가하는 것이지, 경제위기가 빈곤이 그 자체로 자살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 셈이다.

또 다른 형태의 아노미로서 가정적 아노미가 존재하는데, 마찬가지로 뒤르켐은 일부일처제나 혼인제도가 사회적으로 약한 여성이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과 달리 남자들이 관습적으로 성적 관계의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음을 가정하면서, 결혼은 자연적으로 남자보다는 욕망의 제한이 가능한 쪽인 여자에게 덜한 규제¹⁾로 기능함을 사례들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반대로 이혼(‘이혼의 허용’을 의미)은 결혼규제의 약화를 의미하므로, 결국 이혼(=자유)은 곧 결혼(=규제)의 아노미의 다름 아닌 셈이다.

뒤르켐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사회적 규제와 개인적 자살간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사회가 탄력적으로 개인의 행동 및 판단규범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상태인 아노미적 상황 하에서 자살(혹은 비극, 혼란, 불안 등) 경향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국의 1950년대는 전후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진영

1) 여기에서 ‘덜한 규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치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논리전개 과정에서 근거 약한 남녀의 자연적, 관습적 구분에 대해서는 비판 여지 있음을 밝힌다.

내 안정)의 시대로 기억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지나친 사회적 규제(규범, 통제, 억압)에 따른 상실과 소외의 시대이기도 하였다. 앤 섉스틴은 미들브룩(Diane Wood Middlebrook, 1939~2007)과의 인터뷰에서 『사랑의 시들』은 매우 밝은 사랑에 관한 시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들의 정서는 미국의 1950년대처럼 안정과 소외, 자유와 불안이 동시에 느껴진다. 따라서 그녀의 글쓰기는 개인주체, 특히 여성으로서의 앤 섉스틴이 어떻게 사회적 억압 속에 실존하고, 저항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욱 강렬한 고백으로 느껴진다.

시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기 이전까지의 앤 섉스틴의 삶을 미들브룩이 집필한 그녀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짧게나마 요약해보면,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난 앤 섉스틴은 굉장한 에고이스트였던 부모들이 요구했던 질서정연함과 거리가 멀었다. 그런 딸을 그녀의 부모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앤 섉스틴은 그러한 인정의 부재를 십 대에는 큰이모인 나나(Anna Ladd Dingley)²⁾와, 이십 대에는 약속된 결혼마저 저버리고 달아나 결혼하게 된 남편 카요(Alfred Muller Seton II)에게 상당 부분 의존했다고 한다. 그런 그녀에게 나나의 자살이라는 사건과 남편 카요의 부재(한국전쟁 참전, 잦은 출장)는 큰 충격과 혼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결혼 이후 아버지의 엄격함은 병적으로 심해지고, 어머니의 알코올 의존 등 가족의 몰락을 고려해 볼 때 앤 섉스틴 짧은 인생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앤 섉스틴이 시인으로 활동했던 1950년대 미국 사회의 개인 여성주체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박주영이 또 다른 고백과 시인인 실비아 플라스에 관해서 쓴 『오염된 부엌, 불안한 집 - 실비아 플라스와 냉전시대 편집증적 공포』에서 매우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앤 섉스틴의 저항이 단순히 이상화된 가족의 구성원, 아내, 어머니가 아닌 바로 사

2) 미들브룩이 집필한 앤 섉스틴의 자서전에 따르면 큰 이모는 애칭 Nana로 불리었다.

회가 강요하는 여성성 그 자체를 겨냥하고 있음을 간접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 이상적인 여성성은 보수적인 가정성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현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즉 여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하며, 전적으로 아이의 양육과 요리, 집안 가꾸기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 애써야 한다. 이 시기에 여성이 개인적인 성적 욕망을 표현하고, 아이에게 무관심하며, 집을 무질서하게 방치한다는 것은 가정성의 이상에서 이탈을 의미한다. (박주영. 9)

당시 미국 사회가 개인들에게 강요했던 신비화된 가정성과 주변화된 여성성의 이미지는 「나의 자궁을 축하하며」(“In Celebration of My Uterus”)에서 매우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시는 앤 섉스턴이 자신의 자궁에 종양이 발견되면서부터 자궁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성의 자궁이 개인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로 분화되는 양상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안에 모든 이들은 새다.

나는 나의 모든 날개를 휘젓는다.

그들은 너를 잘라버리기를 원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리 못할 것이다.

[...]

달콤한 무게여,

여성인 나를 찬미하며

그리고 여성인 나의 영혼을 찬미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존재 그리고 기쁨을 주는 것이며

나는 너를 위해 노래한다. 나는 감히 살기를 원한다.

[...]

각각의 세포는 생명이 있다.

거기에는 충분히 국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있다

Everyone in me is a bird,

I am beating all my wings,

They wanted to cut you out

but they will not,

[...]

Sweet weight,

in celebration of the woman I am

and of the soul of the woman I am

and of the central creature and its delight

I sing for you, I dare to live,

[...]

Each cell has a life,

There is enough here to please a nation, (*LP*:12)

나는 한 마리의 새, 나의 자궁은 날개이다. 그리고 여성에게 자궁은 달콤한 무계이다. 학문 영역에 따른 개념 및 용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대 자본주의의 등장 이래 ‘사회’는 분명 개인과 개인들의 단순 합 이상의 의미와 지위를 갖고 있다. 비약해서 존 콧시(John Maxwell Coetzee)의 소설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Diary of a Badyear*, 2009)의 노작가 세노르 C의 의견처럼 사회(국가)는 이미 그것을 구성한 개인들에 선재(先在)하며, 개인들을 압도하는 실체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위시의 ‘자궁’은 번식을 통한 유지라는 사회적 요구를 짊어진 달콤한 무계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루스 이리가레(Luce Irigaray, 1930년~) 또한 그녀의 논문 「The Bodily Encounter with the Mother」에서

“아이를 출산한 모든 여성들이 상징적으로 그리고 문자 그대로 종족의 번식을 위해 희생을 치루고 있음(41)”을 언급한 바 있다.

「나의 자궁을 축하하며」에서의 자궁이 가정성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자궁의 이미지라면, 다음의 시 「나체 수영」 (“The Nude Swim”)에는 가정성 이데올로기를 빠져나가는 혹은 그것에 저항하는 달콤함으로서의 자궁의 이미지가 있다.

남서쪽에 위치한 카프리 섬이여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굴을 찾았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흔적이 없었으며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 그 속에 들어가
우리의 몸속에 모든 외로움을 놓아버렸다.

우리 안에 모든 물고기들은
잠시 우리 곁에서 탈출했고
진짜 물고기들은 이에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그들의 사생활을 방해하지 않았다.

On the southwest side of Capri
we found a little unknown grotto
where no people were and we
entered it completely
and let our bodies lose all
their loneliness,

All the fish in us
had escaped for a minute,

The real fish did not mind,

We did not disturb their personal life. (LP14)

「나체 수영」의 동굴은 여성의 자궁이자, 우연히 발견된 사회와 단절된 공간을 상징한다. 또한 우리 안의 물고기는 사회화된 신체의 붕괴이고, 진짜 물고기는 무의식의 바다를 향하는 소외된 시인의 욕망이다. 사회와 개인의 관계가 엄격한 미적분의 관계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신비화된 여성성의 공백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마치 라캉의 시니피앙 논리처럼 사회화된 개인을 벗어나는 존재를 향한 시인의 욕망과도 같다. 「나체 수영」을 통해 비로소 자궁의 의미는 사회가 만든 여성성 이데올로기에 희생하는 무계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존재의 달콤함으로 분화한다.

라캉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 내면화하는 가부장적 권력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질서 속에서는 아버지의 성을 따서 이름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로부터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던 전통에서 유래한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현실에 적응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프랑스어에서 부정을 뜻하는 le non(no)과 이름을 뜻하는 le nom(name)의 발음은 [nɔ̃]로 서로 동일하다. 어린이는 ‘이름’과 ‘안 되는 것’을 동시에 인식함으로써 ‘이름들의 체계’를 배워나간다. 그러나 언어를 사용하게 됨으로서 사회적 규범(아버지의 이름, 법)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 차라리 현실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갈망했던 앤 섉스톤의 고민은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로부터 소외되는 주체, 그리고 진정한 주체의 자리는 어디인가에 관한 라캉의 고민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라캉은 그의 정신분석 이론을 전개하면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후천적 산물로서의 주체개념을 강조한다. 주체가 시니피앙에 의해 구성된다는 논리가 라캉을 반-주체철학자로 위치시키는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어쨌든 라캉의 주체는 상상적 이미지이든, 상징적 시니피앙이든 존재성을 획득할 때 동시에 필연적으로 소외된다.

첫 번째 시니피앙이 또 다른 시니피앙을 위해 주체를 대리하는데 이 시니피앙은 주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 여기에 주체의 분열이 있다. 주체가 한 곳에서 의미로서 나타날 때 다른 곳에서 주체는 사라짐처럼 소실로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김석, 199)

위 주체분열의 논리는 타자, 즉 시니피앙 은유에 의한 주체의 발생이 현존과 부재라는 문제를 주체에게 남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라캉의 주체분열 논리는 앤 섉스틴의 글쓰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찾고자 했던 진정한 주체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앤 섉스틴은 평생을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반복하였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미들브룩이 집필한 앤 섉스틴의 자서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녀의 치료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의사 Dr. Orne은 모든 정신의학자들 사이에 정신분석적인 원리가 도입된 시기에 의학교육을 받았고, 앤 섉스틴이 정신분석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약을 처방하기도 하였지만 환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은 충분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앤 섉스틴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Dr. Orne의 제안에서 비롯되었고, 그녀가 쓴 시에 대한 최초의 인정 또한 Dr. Orne으로 부터였다.

라캉의 주체분열 논리가 갖는 윤리적 차원의 의미는 시니피앙에 의해 주체가 상징계로 진입할 때 소외되는 주체의 문제를 통해 시니피앙에 의해 제거되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주체의 근원적 차원 혹은 주체의 진정한 자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글이 정신분석학에 다소간의 빛을 지고 있음을 인정할 때, 라캉이 언어학에서 빌려 온 언술주체와 언술행위의 주체의 예는 그대로 개인주

체와 사회화된 주체로서의 개인, 본래의 여성과 상징화된 여성성, 시인 앤 섉스턴과 시적 화자 앤 섉스턴의 예로도 옮겨올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담론의 주어로 설정되는 언술주체인 시적 화자와 언술행위의 주체인 시인이 맺는 관계 그리고 시인 앤 섉스턴이 시작(詩作)을 통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진정한 주체의 문제를 그녀의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백적 글쓰기를 통해 앤 섉스턴이 시적 화자에 의해 소외된 시인의 목소리를 되찾고자 했던 당시 시문학계의 상황들에 대해 앤 섉스턴의 자서전에서 집필자인 미들브룩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958년도 당시 시에서의 자전적인 “나”의 시장가치는 상승하고 있었다. 문학 비평에선 “페르소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시인과 시적 화자를 구분 지었고, T. S. Eliot과 Ezra Pound의 작품들이 위대한 예술은 비인간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강화해주었다. [...] 이 자전적인 혹은 고백적인 방식이 독자들로 하여금 단어와 사람을 동일시하도록 하였다. [...] 독자들은 이것에 매료된다. 시를 칭송하고, 시인을 예상하게 된다. 하지만 독자들은 문화적인 가치가 보장되어있는 시만 칭찬하는 기질이 있다.

In 1958, the market value of an autobiographical “I” in a poem was rising. Literary criticism had devised the term “persona” to reinforc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oem’s maker and its speaker, and the work of T. S. Eliot and Ezra Pound had helped to strengthen the notion that greatness in art was equivalent to impersonality, sometimes called universality. [...] The autobiographical or “confessional” mode, no less literary for seeming less literary, invited the reader to equate word with person. [...] Readers are taken in by this. Praising the poem, they create a poet by projection. But readers are only disposed to praise a poem that carries some guarantee of cultural value. (Middlebrook, 83)

이를 통해 당시 시문학이 시인을 배제시킴으로서 시적 화자에 의한 형이상학과 보편성의 예술적 전통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의 시들』은 당시의 좋은 시들이 추구하던 경향성을 과감하게 파괴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고전적인 주제에 어울릴 만한 표상적, 형이상학적 미(美)가 아닌 원초적, 유물론적 미(美)를 생산해 낸다. 방법론적으로 앤 섉스턴은 시인과 시적 화자를 분리시키기 보다는 시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드러냄으로서 시적 화자로부터 소외된 시인을 소환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첫 번째는 정신적 아노미의 시대였던 당시 미국사회에서 요구하던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보편성과 여성성을 깨뜨리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고백적 글쓰기가 시니피앙의 현실로부터 억압된 존재를 향하도록 하는 욕망의 긍정(성)이라는 측면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다음의 시는 「나의 사랑, 그의 부인에게 돌아가다」(“For My Lover, Returning to His Wife”)이다. 상징화에 대한 시인의 저항이 잘 나타나고 있는 작품에 해당한다.

그녀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위해 조심스럽게 사라졌습니다.

[...]

나는 당신께 당신의 심장을 돌려줍니다.

she is all there.

she was melted carefully down for you

[...]

I give you back your heart. (LP21-22)

‘그녀’는 다른 이에게 남편을 빼앗긴 정부(貞婦)이며, 시인 자신이며, 주체의 탄생과 동시에 사라진 존재이기도 하다. 반면 ‘당신’은 빼앗은 누군가의 남편이며, 시적 화자 또는 말(언어)이며, 시니피앙으로 구성된 상징계이기도 하다. 언어의 최소단위를 시니피앙으로 보는 라캉의 견해에 따르면, 의미는 가변적이며, 시니피앙에 종속되는 것이고, 시니피앙의 논리를 따르는 언어(문학)는 주체를 벗어나는 무의식의 효과를 동반하게 된다. 위 시의 그녀는 자신과 간통 중인 남자의 아내이면서,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시인 자신이고, 동시에 되돌려 주어야 상징적 앤 섉스톤을 의미한다. 당신은 현실의 주체로서의 앤 섉스톤에 의해 타자화된 진정한 주체일지 모르는 누군가이며, 앤 섉스톤이 문학을 통해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불가능한 지점이다.

다음의 「달의 노래, 여인의 노래」(“Moon Song, Woman Song”) 또한 앤 섉스톤의 고백적 글쓰기의 무의식적 측면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특징은 시인과 시적 화자의 식별불가능성 혹은 무의미한 구분 그리고 각각 삶과 죽음으로 연결되는 어둠과 아침의 이미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나는 밤에 살아있고
나는 아침에 죽어있습니다.
[...]
당신은 그저 부탁만 하면 되요
그럼 나는 승낙하겠어요
사실상 보장된 것이지요
마치 막사 안을 드나들 듯 나에게 오는 것은요.
그러니 와서 날 가지세요, 와서 가지세요.

I am alive at night,

I am dead in the morning,
[...]
You need only request
and I will grant it,
It is virtually guaranteed
that you will talk into me like a barracks.
So come cruising, come cruising, (LP31-32)

몸은 욕망을 순환시키는 상징계의 몸이며, 당신은 시인의 몸을 점유하는 시니피앙의 다름 아니다. 특히 몸은 '막사'로 표현되며 불변의 장소가 아닌 일시적으로 점유되는 장소인데, 이는 마치 주체의 구성을 은유로서 설명하고, 존재결여를 메우는 시니피앙의 연쇄를 환유로서 설명하는 라캉의 시니피앙 논리를 연상케 한다. 따라서 밤은 꿈, 무의식, 상징계의 틈새와 연결되는 이미지로서 시인의 몸을 점유하는 시니피앙들의 연쇄는 불충분한 의미(주체)를 지탱하는 환유의 지속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시들』은 분명 일생에 걸친 앤 섹스턴의 정신치료 과정에서 고백적 글쓰기가 그녀의 치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시기에 쓰인 작품이다. 앤 섹스턴에게 있어서 글쓰기 자체가 그녀를 괴롭히는 상징계의 결여에 대한 환유적 대응이었던 것처럼, 「달의 노래, 여인의 노래」에서는 상징계적 주체의 결여를 밤, 막사, 유혹의 이미지 연쇄를 통해 메워나감으로서 주체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무의식적 고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에서 무의식은 개인의 내밀한 소망이나 기억 따위가 아닌 시니피앙에 의한 은유로부터 구성되는 주체를 벗어나는 영역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앤 섹스턴의 고백적 글쓰기는 그녀가 의도했으리라 믿는 것보다 더 그녀의 담론과 무의식의 담론으로 텍스트를 분열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인 앤 섉스턴은 스노드그라스의 작품 「심장 바늘」(*Hearts Needle*)로부터 강한 영감을 얻었고, 존 홈즈(John Holmes), 로버트 로월, 맥신 쿠민, 실비아 플라스 등의 시인들과 교류하면서 고백파라고 불릴 만 한 고백적 글쓰기 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고백파 시인이기에 앞서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았던 평범한 여성 앤 섉스턴은 그녀의 주치의 Dr. Orne의 제안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녀의 글쓰기가 거둔 최초의 효과는 타자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자의식의 발견이었다. 그 근거들은 미들브룩이 집필한 앤 섉스턴의 자서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Dr. Orne은 섉스턴의 시들을 가지고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려 하지 않았다. 더불어 예술작품으로서 다루지도 않았으며, 그녀가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게 격려했다. 그는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들이 철저하게 그녀의 것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Dr. Orne did not discuss Sexton's poems with her as sources of insight into psychological problems, much less as works of art, but he did vigorously encourage her to keep writing. It was important, he thought, for the poetry to be something completely hers. M. 43) 앤 섉스턴 또한 노골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시가 철저하게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했다.

“그녀는 공격적으로 강사들(1958년에 열린 Antioch Writers' Conference에 참석했을 당시)의 주의를 찾아다녔고, 늘 같은 질문을 했다. “이 시에 목소리가 있나요? 나의 목소리가?” 놀란 밀러는 앤 섉스턴의 태도를 마치 “나는 여기 있어요. 보잘 것 없는 주부였는데, 갑자기 시인이 됐고, 나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와 같았다고 기억했다.

“She aggressively sought the attention of instructors, always asking the same question” does this poem have a voice, my voice? Nolan Miller remembered her

attitude as “Here I am, a little housewife, and suddenly I've turned to poetry and I still don't know what I'm doing.” (Middle, 81)

이를 통해 앤 섉스틴이 의식적으로는 타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글이라는 수단을 활용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앤 섉스틴의 고백적 글쓰기가 갖는 의식적 효과 이외에도 시인의 의도와 달리 텍스트가 부수적으로 발생시키는 무의식적 효과라는 라캉의 탁월한 견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시인의 의도를 비껴가는 시니피양 연쇄의 반복이야말로 시인의 잃어버린 무의식적 주체가 드러나는 상징계의 빈틈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외로운 자위행위자의 시」(“The Ballad of the Lonely Masturbator”) 이야말로 그러한 고백적 글쓰기의 의식적 효과와 더불어 불가능한 욕망의 본질 차원에서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 작품이다.

정사에 마지막은 언제나 죽음이랍니다.

[...]

이 밤을 예로 들어요, 나의 사랑이여

[...]

나의 작은 자두라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밤에, 홀로이, 나는 침대와 결혼했습니다.

[...]

어느 날 밤 소년과 소녀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은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었고 바지를 풀었어요.

그들은 신발을 벗었고 불을 켜었어요.

가냘픈 빛의 존재는 거짓으로 가득 차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잡아먹었고, 그들은 배가 불렀어요.

밤에, 홀로이, 나는 침대와 결혼했습니다.

The end of the affair is always death,

[...]

Take for instance this night, my love,

[...]

My little plum is what you said,

At night, alone, I marry the bed.

[...]

The boys and girls are one tonight,

They unbutton blouses. They unzip flies,

They take off shoes. They turn off the light,

The glimmering creatures are full of lies,

They are eating each other. They are overfed,

At night, alone, I marry the bed. (LP33-34)

「외로운 자위행위자의 시」는 남편 카요와의 순수한 사랑과 결혼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 온 실망과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앤 섉스톤의 자서전을 읽다보면 그녀의 인생 대부분의 고통은 부모로부터의, 남편으로부터의, 사회로부터의 인정의 결핍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로 점철된다. 부모, 남편, 아이들로 대상을 옮겨가며 분명 그녀는 인정받는 딸로, 사랑스런 아내로, 다정한 엄마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작은 울타리에 자신을 가둬두기를 허락지 않는 진정한 주체의 목소리가 그녀를 괴롭혔을 것이다. 따라서 「외로운 자위행위자의 시」에는 상반되는 이미지들의 계열이 존재한다. 하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관계되고, 다른 하나는 인정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과 관계되는 이미지들이다. 예컨대 순수와 육체적 결속을 의미하는 소년과 소녀의 사랑은 책임과 사회·문화적 결속을 의미하는 결혼과 대비되고, 가냘픈 빛의 존재는 사라지는 존재와 대비되

며, 정사와 죽음은 고통과 쾌락으로 상호 교차하며 대비되고 있다. 또한 밤에 홀로 침대에 남겨짐은 결여된 실제 대상이 아닌 경험적 대상을 쫓는 환상과 대비되는 이미지이다.

앤 섉스톤의 자서전을 살펴보면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진행자에게 “저는 13살 때부터 결혼하기를 바랐어요.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 땐 아이를 갖는 것이 어떤 해답이 될 줄 알았어요.”(I wanted to get married from the age of thirteen on, I wanted nothing else. I thought that having children was some kind of answer, then, M.40)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녀의 방식은 당시 사회가 요구했던 여성성 및 가족성 이데올로기에 순응적이지 못했고, 카요의 아내로서도 린다(Linda Gray Sexton)와 조이스(Joyce Ladd Sexton)의 엄마로서도 그녀의 결혼생활은 실패로 이어졌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인정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은 시니피앙의 주체에게 부과되는 숙명이다. 따라서 그녀의 고백적 글쓰기의 촉발이자 원천은 사회적으로 신비화된 여성성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촉발되는 것이었다. 특히 그녀의 자서전에 실린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 놀랍게도 그녀가 시니피앙의 효과로서의 주체, 의미에 대한 시니피앙의 우위라는 라캉의 시니피앙 논리개념을 직관적으로 통찰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만약 내가 RATS라고 쓰고, rats를 거꾸로 하면 STAR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리고 놀랍게도 STAR가 내가 rats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면 그건 진실 되지 않은 건가요? 나는 단어들이 그저 숫자놀이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단어들이 배열되면서 내가 절대로 알 수 없을 정도의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 나는 시를 정말로 믿지는 않지만, 그 이름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시에 맞는 것 같아요. [...] 그래서 나는 실제인거예요. ... 당신이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예요. 나는 그저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쓰이는 단어들의 장난일 뿐이에요.

If I write RATS and discover that rats reads STAR backwards, and amazingly STAR is wonderful and good because I found it in rats, then is star untrue? [...] Of course I KNOW that words are just a counting game, I know this until the words starts to arrange themselves and write something better than I would ever know. [...] I don't really believe the poems, but I must be real. ... When you say "words mean nothing" then it means that the real me is nothing. All I am is the trick of words writing themselves. (M, 82)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문학은 쓰이기를 멈추지 않는 욕망의 다름 아니다. 즉 쓰이기를 멈추지 않는 문학은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실재계를 향하고, 상징화의 실패를 통해 상징적으로 부재하는 실재를 드러냄으로서 진정한 주체의 자리는 무엇인가라는 정신분석의 윤리의 실천이 된다. 따라서 정사의 끝이 언제나 죽음일 수밖에 없음은 정사 이후 부과되는 금기(결혼, 성욕 제한, 아내의 역할 등) 속에서 그녀의 잠재성들이 억압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상징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주체화의 가능성인 주이상스의 의미로 분화된다. 즉 앤 섉스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시를 썼고, 또 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그녀에 의해 쓰여진 시는 그러한 인정들을 비껴가는 욕망의 전형이자 실재에 대한 갈망으로 그녀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III. 결론

그녀의 글쓰기는 마치 굴러 떨어질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적 반복 또는 아베 코보(安部公房, 1923~1993)의 소설 『모래의 여자』(砂の女, 1964)의 모래 구덩이에 갇힌 남자가 퍼 올리는 모래의 반복처럼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을 향하고 있다. 뒤르켐은 적절한 사회적 규

범은 개인에게 안정을 주고, 삶의 불안을 제거해준다고 하였다. 라캉은 시니피앙들의 세계인 상징계에서 은유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주체는 결여를 통해 상징화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시문학은 시인의 개인적 서사 혹은 시인의 직접적 등장을 경계하고 시적 화자를 통한 보편성 추구에 더욱 큰 가치를 두었다. 그러나 개인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는 개인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주체의 말은 주체를 벗어나는 무의식을 향하기도 하고, 시인의 고백은 때때로 시적 화자의 정제된 말보다 더 큰 울림을 갖기도 한다. 라캉의 상호주체성 개념을 통해 앤 섉스톤과 그녀의 작품들을 읽어낸다는 것은 시니피앙, 즉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주체에 동반되는 소외가 동시에 또 다른 주체를 구성하는 힘이기도 한 것임을 고려할 때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인정받고자 하는 앤 섉스톤의 평생의 노력은 그녀의 소외의 다름 아니었고, 그 소외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시를 지었으며, 그녀의 시는 분명 그녀의 소외된 존재를 향한 그녀의 무의식적 욕망의 반영이다. 미들브룩은 앤 섉스톤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분명히 앤 섉스톤이 1957년 1월에 의사에게 쓴 글은 단순히 불만족스런 주부로서 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병들었고, 치료가 필요했다. 단지 병리적이지만은 않은 많은 것들이 글에서 해명할 기회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아내로서, 애인 혹은 엄마로서가 아닌 진정한 사회적 존재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소망. 섉스톤은 망설이며 시도하려 한다. 증상이 아닌 글쓰기를 통해 그녀의 “끔찍한 기운”을 해방시키기 위해.

Obviously, Anne Sexton was not simply a discontented housewife when she wrote to the doctor in January 1957. She was sick, and she needed treatment. Yet something not merely pathological is struggling to get a hearing in these pages: an irrepressible wish for an authentic social presence that was not wife,

lover, or mother. Sexton was beginning, tentatively, to release her “terrible energy” not only in symptoms but in writing. (M, 40)

『사랑의 시들』을 통한 앤 섉스틴의 의식적 글쓰기와 그것을 벗어나는 텍스트의 무의식적 욕망에 관한 연구는 말과 존재 사이의 괴리를 통해 지속되는 인간과 삶에 관한 연구이기도 하였다. 시지프스적 역설처럼 앤 섉스틴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자 노력하였고, 동시에 그 목소리를 통해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체로 인정받기를 바랐던 것 같다. 저항과 인정 그리고 인정으로부터의 저항의 반복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앤 섉스틴의 삶을 요약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그녀에게 있어서 시를 쓰는 것의 의미는 정신치료를 위한 도구나 지적 유희의 도구가 아니며, 앤 섉스틴이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 그대로 RATS와 STAR의 차이처럼 자신이 늘어놓는 단어들과 단어들의 조합 안에서 소외된 진정한 주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친 소망의 반영이었다. 따라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진 시집 『사랑의 시들』은 역설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도달할 수 없는 좌절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며, “그것은 마치 비극과 희극이 서로 다르지 않다”(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shot)는 찰리 채플린의 명언처럼 사랑과 좌절의 서로 다른 층위에서 삶 속에 항상 공존함을 통해 앤 섉스틴의 주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동국대학교)

■ 주제어

앤 섉스틴, 사랑의 시들, 상호주체성, 에밀 뒤르켐, 아노미적 자살, 라캉, 시니피앙 논리

■ 인용문헌

- 자크 라캉, 김석 역, 『에크리 e시대의 절대사상 -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서울: 살림, 2007.
- 에밀 뒤르켐, 황보종우 역, 『자살론』, 서울:청아출판사, 2008.
- 박주영, 「오염된 부엌, 불안한 집 -실 비아 플라스와 냉전시대 편집증적 공포」, 『현대영미시연구』 Vol.21 No.1 (2015): 1-29.
- 이정원, 「앤 섉스틴의 몸의 시학 : 『사랑의 시편들』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어문학』 Vol.18 No.1 (2000): 199-216.
- Sexton, Anne. *Love Poems*.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P, 1999.
- Durkheim, Emile.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Free Press, 1987.
- Lacan, Jacques. *Ecrits*. W W Norton & Co Inc P, 2007.
- Middlebrook, Diane Wood. *Anne Sexton*. Houghton Mifflin Company P, 1991
- Irigaray, Luce. “The Bodily Encounter with the Mother.” Conference on . *Women and Madness*, Montreal, 1981.

■ Abstract

Conception of Unconsciousness by Anne
Sexton's *Love Poems*:
Émile Durkheim's 'Anomie' & Lacan's 'Signifiant'

Yoo, Mi (Dongguk University)

Anne Sexton is classified as one of the Confessionary Poets – such as Robert Lowell, W. D. Snodgrass, and Sylvia Plath. Unlike conventional poetry that emphasizes universality of literature, Confessionary Poetry vibrantly exudes the poet's personal voice, usually hidden behind the character. The appearance of Confessionary Poets shows a new direction of American Poetry, although somewhat radical an experiment after the war.

Within such societal ambience, the appearance of Confessionary Poets was inevitable. They tried to recover their subjectivity and literary achievements by exploring personal emotions that were repressed under affluent society.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Anne Sexton – who ended her life by committing a suicide – along with her works. It will highlight her relationship with the society in an ontological dimension. In addition, the therapeutic power poetry has will also be illustrated.

I will first examine how Anne Sexton resists the social control through Emile Durkheim's 'anomic suicide' from *Le Suicide* that covers suicide as collective phenomena instead of personal matter. Second, I will discuss over the matter of subjectivity by Jacques

Lacan's "logic of signifiant," "division of subjectivity." Lastly, the behavior or writing poetry and its therapeutic significance will be examined in times of a modern "anomic" society.

The psychoanalytic discourse herefrom is not a physical approach, but a moral one that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a subject and an anti-subject, individual and society, and the poet and the main character of its poem.

■ Key Words

Anne Sexton, Love Poems, Émile Durkheim, Jacques Lacan, Intersubjectivity, Confessionary Poets.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5년 12월 4일 ○심사일: 2015년 12월 18일 ○게재일: 2015년 12월 31일



비판과 매혹 사이

: 『코스모폴리스』가 그리는 한 금융자본가의 초상

이 정 진

I. 서론

2008년 금융위기 이래로 부도덕한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은 가히 새로운 산업을 형성했다고 할 만큼 분야를 막론하고 예술계 전반에서 인기있는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2010년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인 <인사이드 잡>(Inside Job)같은, 마이클 무어의 선례를 따르는 사회비판적 다큐멘터리들이 이례적으로 다수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월스트리트의 문화적 재현에 관한 가장 중심적인 장르는 역시나 논픽션 분야이지 싶다. 대공황 이래의 강력한 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 월스트리트가 주도하는 투자 붐이 과열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1980년대 후반부터 금융사기꾼들의 행태를 폭로하는 논픽션들이 다수 출간되었고, 그때부터 이런 ‘월스트리트 문학’(Wall-Street Literature)은 줄곧 인기있는 대중적 장르로서 종종 영화화되기도 하면서 월스트리트의 대중적 이미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러 작품들이 출간되었는데, 이 장르의 초기 대표작인 『라이어스 포커』(Liar’s Poker)의 작가이기도 한 마이클 루이스가 금융위기 직후에 출간한 『빅쇼트: 종말 기계의 내부에서』(The Big Short: Inside the Doomsday Machine)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금융산업

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표방하는 제목을 단 이 작품은 비판대상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로 인해 그 실질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저자의 비판적 의도를 반영하듯 부에 상대적으로 덜 중독되었으며 업계의 관행에 비판적인 괴짜 개인 투자자들이지만 바로 그렇기에 그들은 엄청난 재정적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독자들은 이 책을 명민한 투자조언서로 받아들일 공산이 제법 큰 것이다. 이렇듯 이 작품은 금융자본주의를 비판한다지만 동시에 자본가에 대한 신화를 온존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이중성 내지 모순은 애초부터 이 장르에 대중적 성공을 가져다준 요인이었고, 그런 사실은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 시대의 정치적 (무)의식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징후로 보인다. 이 장르는 대개 표면적인 플롯상으로는 소위 금융사기꾼들을 단죄하지만, 동시에 그들에 대한 풍부한 묘사는 동일시를 부추길만큼 매혹적인 면모 또한 담고 있다. 막대한 부만큼이나 독자들을 매혹시키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다. 이 범죄적인 자본가 인물들은 자본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위축되기 마련인 강력한 주체성의 판타지를 제공하는 일종의 ‘슈퍼 주체’들이다.¹⁾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의 외부도

1) 월스트리트 문학은 확립된 학술용어는 아니며, 대중장르의 명칭으로서도 그리 널리 통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월스트리트를 배경으로 하는 논픽션, 소설, 영화들은 꾸준히 생산되고 있으며, 그런 작품들을 느슨하게나마 하나의 장르로 묶어줄만한 서사 및 인물 형상화의 관습들이 존재한다. 『머니볼』(*Money Ball: The Art of Winning an Unfair Game*)로 유명한 논픽션 작가 마이클 루이스(Michael Lewis)의 데뷔작 『라이어스 포커』(*Liar's Poker: Rising Through the Wreckage on Wall Street*)와 올리버 스톤(Oliver Stone)의 영화 <월스트리트>(*Wall Street*)가 이 ‘장르’ 형성기의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으며, 이 두 작품은 월스트리트의 대중적인 이미지의 형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 작품 모두 표면적으로는 전통적인 노동관의 관점에서 손쉬운 부의 획득을 도모하는 ‘금융사기꾼’들을 단죄한다. <월스트리트>의 ‘기업 사냥꾼’ 고든 게코(Gordon Gekko)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되고, 『라이어스 포커』가 묘사하는 투자은행 살로먼 브라더스(Salomon Brothers)는 경영진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짧은 전성기를 뒤로 하고 다른 은행에 합병되고 만다. 그러나 이 범죄적 인물들에 대한 두 작품의 형상화는 사뭇 공

자본가를 통해 상상할만큼 성공적인 자본가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주체성의 모델로 통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자본주의 자체의 오작동 상황을 시사하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발발 빈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축인 자본가에 대한 신화는 아직까지는 근본적으로 도전받지 않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때 드릴로(Don DeLillo)의 『코스모폴리스』(*Cosmopolis*)가 보여주는 한 금융자본가의 형상화는 각별한 주목에 값한다. 이 작품은 월스트리트 문학의 관습에서 훌쩍 벗어나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 장르의 관습을 적극 차용·강화함으로써 그 어떤 작품보다도 압도적인 위상의 자본가 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사실 이 작품은 자본가들에 대한 도덕적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기까지 하다. 이 작품에서 표면적으로 그와 대립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일군의 인물군들은 거듭해서 그에게 매혹된 존재들로 밝혀진다. 그러나 이런 극적 전개야말로 상당한 비판적 함의를 띠는데, 자본주의에 철저히 포박당한 이즈음의 세계의 실상에 대한 자각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그런 전개는 그저 일체의 반자본주의 운동에 대한 비판주의의 반영일

정하기도 해서 그들에 대한 묘사는 대단히 풍부하고 그들이 설파하는 새로운 가치 또한 충분히 대변된다. 이 작품들의 대중적인 성공은 일단 금융계 인사들의 화려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매혹적인 묘사 탓이 클 것이다. 특히, 뉴욕의 고층 아파트라는 주거환경은 이 장르의 시각적 서명과도 같다. 더 나아가 이 인물들, 특히 게코는 자신들의 투자행위를 정당화하는 그 나름의 이데올로기를 펼치는데, '탐욕'(greed)을 미덕시하는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좀더 과격한 형태일망정 근본적으로는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ideology)로 요약되는 투자자 본위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념과 일치한다. 이들에 대한 묘사에서 창의성으로 발현되는 아웃사이더적인 기질이 강조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가히 이단적이라 할 투자기법을 창안해서 투자업계 용어로 '시장을 꺾는'(Beat the Market) 성과를 거두는데, 그들의 성공담은 자본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위축되기 마련인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판타지인 것이다. 월스트리트 문학은 아직 하나의 장르로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지 않으며, 이 절박한 개관은 원래 이 글의 서론을 염두에 두고 연구한 내용이지만 글의 통일성 문제 때문에 짧게 각주로 처리한 것이다.

수도 있다. 이렇듯 이 소설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이나 그 정치적 효과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까다로운 과제이며, 작품의 여러 모로 과잉된 스타일이 야기하는 모호성때문에 더욱 그렇게 된다. 특히, 이 소설의 중심사건인 주인공의 의지적인 자기파멸행위에 담긴 의미는 상당히 모호하다. 이 글은 그 사건의 비판적 함의를 부각시키는 읽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작품이 여러 한계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본격문학 특유의 비타협적이고 과격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탈자본주의적 상상력의 일단을 제시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코스모폴리스』는 한 거대 금융자본가의 생애 마지막 날 펼쳐지는 의미심장한 여정을 따라간다. 그는 그 여정의 끝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소설은 마치 고전비극처럼 그의 죽음에 예정된 운명의 분위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분위기라는 말을 보탠 것은 주인공이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서 실현되는 그의 죽음이 흔히 참다운 비극성과 결부되는 특성을 구현하고 있는지는 자못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사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이 인물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 그러나 주인공과 서술자간의 거리가 지워질 만큼 주인공의 내적독백이 주를 이루는 서술양식과 자기연출에 능한 주인공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 인물에 대한 도덕적 관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작가가 시대사적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인물을 신비화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인물의 위상에 부합하는 인상적인 결말을 연출하고자 상당히 작위적인 플롯 장치들이 동원되는 소설의 2부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이 인물을 죽음으로 이끄는 실제적인 이유를 해명해 줄 단서가 충분히 존재하며, 이 글은 주로 1부를 중심으로 주인공이 연출하는 자기상 너머의 문제적 성격, 즉 첨단 금융자본주의와 관련된 극심한 자기분열상을 도드라지게 드러내하고자 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에릭 팩커(Eric Packer)는 고전비극의 인물들에 견주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사회적 위상과 큰 영향력을 갖춘

인물이다. 우선 소설이 시작하면 독자들의 관음증을 자극하는 막대한 부의 광경이 펼쳐진다. 그의 집 역시 소위 월스트리트 문학(Wall Street Literature)의 관습에 따라 맨해튼을 내려다보는 초고층 건물의 맨 위에 자리잡고 있지만, 그간 술한 소설과 영화에 등장했던 여타 금융자본가의 집을 규모와 시설 면에서 압도한다. 예컨대, 48칸이나 되는 삼층짜리 그 저택의 꼭대기에 위치한 침실은 시간에 맞춰 천천히 회전하며, 그밖에도 그 저택은 오로지 그만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투자현황을 보고받는 “부속시설”(annex) 및 추상표현주의 계열의 대형회화들을 전시해놓고 있는 “홀식 안뜰”(atrium)을 갖추고 있다.(5-8) 그가 이 폐쇄적인 장소에서 지상으로 내려가 뉴욕을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 여정을 시작하면 이번에는 길게 개조한 그의 대형 리무진에 설치된 최첨단 전자장비들과 희귀한 고가의 장식품들이 시시때때로 묘사된다. 더불어 점차 그에게 이 막대한 부를 가져다준 투자 전력과 그가 현재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성격과 범위가 밝혀진다. 이런 정보는 주인공의 내적독백과 함께 그가 자신이 고용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조금씩 드러난다. 이때 거듭해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그의 아내를 제외하면 이 보조 인물군들은 예정된 순서에 따라 호출되어 뉴욕을 횡단중인 그를 방문한다. 주인공을 이 소설 무대의 중심에 못박아두는 이런 설정으로 말미암아 독자들은 고전비극에서처럼 세계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실제로 소설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세계 전체가 그의 이단적인 투자 결정으로 인해 요동치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통화가 곤두박질치고, 은행의 파산이 확산되고 있었다. [...] 투자 전략가들은 이 몰락의 깊이와 속도를 설명할 수 없었다.”(115) 현재 패커는 엔화의 지속적인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엔화를 차입해서 여러 부문의 금융시장에 투자중인데, 그는 엔화의 강세를 설명해줄 합리적 요인이 없다는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며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 시세차익(아비트라지, arbitrage)을

노리는 중인 것이다. 물론 사적 부문의 개별적인 투자결정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이런 파급효과는 통합화가 진전되면서 공황의 전염가능성에 항시적으로 노출된 오늘날의 세계경제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는 너무나 많은 자본을 차입했고, 포트폴리오의 규모 또한 크고 복잡하게 퍼져 있으면서 그토록 많은 주요 기관의 업무와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서로 각자의 위협에 취약했다. 그리하여 시스템 전체가 위협에 빠졌다.” (116) 이렇듯 이 소설은 소위 닷컴버블로 인한 호황 말기에 해당되는 2000년 4월이라는 명시된 시간적 배경보다는 2008년의 금융위기 상황을 연상시키는 파국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게다가 전세계의 유력한 정재계 인사들의 암살 소식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무슨 이유에서인가 패커와 같은날 뉴욕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기도가 알려지면서 묵시록적인 분위기마저 조성된다. 그렇다고 이 작품이 미래의 경제위기를 미리 예견했다는 식의 상찬은 터무니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작품의 핵심적인 작의와는 거리가 멀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소설’로서 이 작품의 성취는 무엇보다도 패커라는 한 금융자본가의 형상화에 달려있고, 드릴로는 이 인물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진화와 더불어 인류에게 강제되는 어떤 존재사적인 변이를 보여주 고자 하는 듯하다. 그런 점에서 이 인물이 자신을 종종 ‘we’로 지칭하는 것은 그의 오만함과 자기중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인물에 부여된 인류대표로서의 상징성을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금융자본가이며, 바로 그 점으로 인해 그의 운명이 세계의 운명을 예시하기에 이 인물의 형상화에는 최근 미국경제를 주도해간 금융산업의 변천사가 중요하게 활용된다. 반면 200쪽을 조금 넘는 짧은 분량이지만 이 정도로 한 인물에 집중하는 작품치고는 통상 인물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라 할 가족사나 교우관계 혹은 교육배경 등 과거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상당한 지면이 할애되고 있는 주인공의 내면독백은 뉴욕의 거리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들과 함께 투자에 대한 자

못 열렬하면서도 사변적인 사색들로 채워진다. 그만큼 패커에게 투자는 단순히 부의 축적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사적인 삶이란 관념이 의미없을만큼 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열정의 대상이자 이념적 실천이다.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주활동무대를 주식시장에서 외환시장으로 옮긴 그의 동기이다.

패커가 현재의 투자현황에 대한 검토를 잠깐 제쳐두고 과거의 투자경력을 회상하는 것은 리무진이 교통체증 때문에 중개업 위주의 투자은행(brokerage house)을 천천히 지나가는 1부 막바지에서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들의 상황을 조금은 부러워도 하지만, 자신과 그들간의 거리는 실로 그의 자부심의 근거이다. 눈에 띄지 않는 진중한 사육의 면모만큼이나 보수적인 은행들이 기존의 자금운용방식을 고수하는 동안 패커는 주식시장의 선도자로서 금융시장의 확대를 가져왔고, 현재는 전통적인 은행들마저 트레이딩의 규모를 늘림으로써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작가는 패커를 소위 신경제의 부흥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유력한 ‘투자 구루’(investment guru)로 설정하는 듯 하다. “그때 그의 주가 예측은 순수한 힘이었다. 그가 기술주를 추천하거나 어떤 부문 전체를 축복하면 자동으로 그 주가가 두 배씩 폭등하고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때 그는 실질적으로 역사를 창조하고 있었다.”(75) 주지하다시피 신경제라 불린 1990년대 내내 지속되었던 미국경제의 장기 호황국면은 주식 거품의 자산효과에 의해 유도된 소비와 투자의 촉진에 힘입은 것이었고, 신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쳤던 것이 첨단통신분야의 기술주였다.²⁾ 지금에야 일종의 ‘국가 주도형 폰지게임’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당시 연방준비위원회(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판(Alan Greenspan)

2) 전후 세계경제의 구조변동이라는 큰 맥락 하에서 신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책으로는 브레너(Robert Brenner)의 『붐 앤 버블』(*Boom and Bubble*)이 대표적이다. 특히, 8장 「자산효과와 그 한계」, 9장 「미국 호황의 지형과 특성」, 10장 「거품의 종말에서 호황의 종말로」가 직접적으로 신경제에 관련된 장들이다. 정성진 옮김, 『붐 앤 버블』(아침이슬, 2002).

의 발언³⁾을 떠올려보면 위의 과거회상에서 드러나는 패커의 고양된 자기상은 다소 과장된 감이 없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확실히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줄곧 영향력을 키워온 인물이다. 바로 그런 면모가 그를 외환시장으로 이끌었으니, 그는 자본주의가 찬양해 마지않는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의 소유자이기에 주식시장의 대중화가 달성된 이후에는 다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왜 외환시장인가?

주지하다시피 닷컴버블의 붕괴 이후 미국 금융시장의 주축은 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기반한 채권과 그 파생상품 시장으로 옮겨갔기에, 외환시장 진출은 패커의 선진적인 자본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소설적 설정이지만 더욱 전면화되고 있는 실제 금융시장의 주요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패커는 “보다 순수한 어떤 것, 즉 돈 자체의 움직임을 예측”(75)하려는 충동 때문에 외환시장을 새로운 활동무대로 선택했다고 밝히는데, 이 구절은 대번 점차 실물경제와 동떨어져 고유의 흐

3) “It is safe to say that we are witnessing this decade, in the United States, history of the most compelling demonstration of the productive capacity of free peoples operating in free markets. [...] The quintessential manifestations of America's industrial might earlier this century—large steel mills, auto assembly plants, petrochemical complexes, and skyscrapers—have been replaced by a gross domestic product that has been downsized as ideas have replaced physical bulk and effort as creators of value.” Remarks by Chairman Alan Greenspan, 8 September 1999. 클린턴 행정부는 마침내 70년대 이래로의 장기불황국면이 종식되었으며, 더 나아가 향후 심각한 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새로운 경제형태, 즉 신경제가 출현했다고 임기 막판까지도 믿을 수 있었다. 기존 경제학 이론들을 뒤집는 이런 낙관적인 믿음을 최종적으로 뒷받침했던 이가 통화정책의 결정권자였던 그린스핀이었다. 20년간이나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는 신경제에 호응하는 정책기조를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용문같은 공적발언을 통해 신기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중들의 환상을 부추겼다.

름을 만들어내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금융시장의 비물질화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면 최근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거래의 전자화를 꼽아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금융시장의 전지구적 통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동시에 거래속도와 거래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세차익의 발생가능성이 늘어나는 탓에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첨단경향을 대변하는 패커가 기술진보가 가져다준 이런 가능성을 외면할 리 없다. 소설 내내 패커는 리무진을 타고 움직이면서도 최첨단 전자 장치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송신되는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그는 “현대적인 민주주의 국가, 술탄이 다스리는 낙후된 국가, 편집증적인 인민들의 공화국, 마약에 취한 소년들이 다스리는 끔찍한 반군 국가 등 모든 지역의 국가들과 외환을 거래하고”(75-76) 있다. 이렇듯 패커는 자본주의의 오랜 숙원인 인종과 이념을 초월하는 진정으로 통합된 세계 시장의 도래를 주도하며, 정보통신 분야의 첨단기술로 말미암아 실현가능해진 이 새로운 단계의 자본주의를 적절하게도 ‘사이버 자본주의’(cyber capitalism)라고 명명하며 환영해 마지 않는다. 그런데 그는 자본주의 발전의 최종국면으로 보이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늘상 그래왔듯이 다음 단계의 자본주의에 대한 모색을 멈추지 않는데, 그가 꿈꾸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미래상은 그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왔고 사이버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더욱 정련된 그의 투자방법론에 이미 함축되어 있다.

그는 거기(데이터)에서 유기적인 패턴들을 작동시키는, 새 날개 혹은 소라 모양 같은 추상적 형태를 유심히 살폈다. 숫자와 차트는 그저 제멋대로인 인간의 에너지를 차갑게 응축시킨 것이거나, 금융시장에서는 그 모든 종류의 갈망과 한밤중에 흘리는 땀이 명료한 단위로 환원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알팍한 생각이었다. 사

실 데이터는 영혼이 있고 빛나며, 생명 과정의 한 역동적 측면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알파벳과 숫자 체계의 유창함이 세계가 0과 1로 수렴되는 전자적인 형태를 통해 완전하게 실현된 것이며,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 생물의 모든 숨결을 규정하는 디지털적인 정언명령이었다. 여기 생명계의 들썩거림이 있었다. 여기 우리와 신체와 대양이 통째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존재했다.

He studied the figural diagrams that brought organic patterns into play, birdwing and chambered shell. It was shallow thinking to maintain that numbers and charts were the cold compression of unruly human energies, every sort of yearning and midnight sweat reduced to lucid units in the financial markets. In fact data itself was soulful and glowing, a dynamic aspect of the life process. This was the eloquence of alphabets and numeric systems, now fully realized in electronic form, in the zero-oneness of the world, the digital imperative that defined every breath of the planet's living billions. Here was the heave of the biosphere. Our bodies and oceans were here, knowable and whole. (24)

패커의 투자결정은 주류 경제학과 긴장된 관계를 맺고 있는 소위 차트 분석(chart analysis) 기법에 의존해 이루어진다.⁴⁾ 실제 미국경제의 지

4)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야말로 금융시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이해방식이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각종 금융시장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될 경우 가격은 상품의 가치를 즉시 반영하기에 미래의 예측을 통한 폭리의 발생가능성은 사라진다는 입장이며, 이런 이론에 따르면 '시장을 꺾는' 전문 투자자의 존재는 허구일 뿐이다. 그러나 실제 금융시장의 행태는 이런 공식적인 경제학 교의와는 거리가 멀다. 금융시장의 어떤 내재적인 흐름으로부터 패턴을 읽어내는 소위 차트 분석가(chartist)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경제학 전반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했다. 이찬근,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효율적 시장가설 등등의 금융투자와 관련된 이론과 개념들은 3장 「자본시장

배적인 흐름에서 약간 비껴서 있는 이런 비주류적인 면모 역시 오히려 그의 선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소설적 설정이다. 주류 자유주의 경제학의 핵심 교의라면 시장의 자연화일 것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의 폭력은 고의적으로 망각됨으로써 시장 개념은 초역사화되고, 또한 시장은 인위적인 규제가 사라졌을 때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생명체로 묘사된다.⁵⁾ 패커의 투자이론은 이런 자기조절적인 시장(self-regulating market)보다 더 진전된 시장 이념에 근거한다. (적어도 패커가 느끼기에) 모든 대상을 전자적 데이터로 환원시키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체와 대양”을 포함하여 “생명계” 전체의 본질은 컴퓨터 화면 위에서 여타 정보들과 어우러져 명료하게 파악가능한 “추상적 형태”로 재현될 수 있고, 패커의 투자는 그에 의거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그는 시장을 그저 자연에 비유될 수 있는 자율적 대상 정도가 아니라 자연마저도 수렴되는 통일적 전일체 같은 것으로 상상한다. 물론 섬뜩하도록 극단적인 이 기술주의적 유토피아의 비전은 모든 대상을 시야에 두고 통제하려는 합리화 충동의 반영이고, 이 소설의 비의적인 제목(*cosmopolis*, 필자강조)은 바로 이 비전에 대응하는 듯하다. 더불어 위 인용대목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말의 아이러니도 끼어들지 않아 거의 종교적 확신마저 느껴지는 어조이다. 그만큼 자신의 투자기법에 대한 패커의 확신은 확고하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적어도 소설 초반에는 자신의 투자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망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몽상처럼 들리기 쉬운 패커의 비전은 소설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고, 패커와 그의 “이론 부서장”(theory chief) 킨스키(Kinski)는 사이버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혁

의 주역, 투자은행」, 4장 「기관투자의 대명사, 펀드」에서 찾을 수 있다.

5) 근대적인 경제체제와 그것을 떠받치는 새로운 시장 개념의 역사적 출현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칼 폴라니(Carly Polanyi)의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mation*)이 선구적이다.

명적인 변화를 이미 감지하고 있다. 실상 어떤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전체 역사가 비상품적인 삶의 영역들이 강제로 시장에 편입되어온 지속적인 과정으로 정리될 수 있겠지만, 사이버 자본주의가 추동하는 삶의 변화 내지 변형은 패러다임 전환이라 불릴만한 성격을 띤다. 과거의 자본주의가 공간적인 팽창을 통해 성장했다면, 사이버 자본주의는 시간의 식민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킨스키는 패커가 실천하고 있는 사이버 자본주의가 시간에 가하는 작용을 일종의 현재에 대한 착취로 규정한다. 그녀는 금융공학에서 점점더 극소의 시간단위가 활용되는 현상이 “시간이 이제 회사의 자산”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그래서 점차 “현재가 찾기 어렵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현재는 미래의 통제할 수 없는 시장과 막대한 투자 잠재력이 실현되도록 이 세계로부터 빠져나가고 있으며, [반면] 미래는 집요해졌다.”(79면) 다분히 사변적인데가 이론 담론 특유의 과도한 일반화에 경도되긴 했어도 그녀의 발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금융화가 야기하는 시간체험의 변화 양상을 잘 포착하고 있다. 모든 투자행위는 곧 미래의 예측에 다름 아니며, 그 예측은 집합적인 투자의 결과가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끊임없이 갱신되는 투자정보에 기반한다. 간단없이 밀려오는 미래가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를 휘발시켜 버리는 형국인 것이다. 그래서 패커와 킨스키가 뉴욕 중심가의 빌딩 벽면에 설치된, 각종 표준화된 금융정보들이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대형전광판을 자기 시대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열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패커의 자기상 또한 이런 미래 관념에 깊게 침윤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금융계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존재하며, 엄밀히 볼 때 자신들이 “외부 세계가 끝나는 지점”에, 즉 이미 “미래에 존재한”(16)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패커는 미래에 헌신하는 사람이고, 그에 걸맞게 새로운 존재방식을 꿈꾼다. 역시나 그의 세련된 대변자인 킨스키의 표현을 따르면 그는 “디스크”에 녹아들어 “신체를 초월하는 관념” 혹은 “거쳐왔던 과거와

앞으로 올 미래의 모든 경험을 간직하되 결코 지치지도 혼란을 느끼지도 훼손되지도 않는 정신”(105)이 되어야 했다. 사실 이미 그런 방향으로의, 즉 시간과 육체의 제약을 초월하려는 존재의 변형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소설 내내 간헐적으로 각종 영상기기를 통해 근미래의 자기모습을 목격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미래의 시간이 현실로 투입해오는 이런 일종의 신비체험은 킨스키의 해석으로는 “일반적인 지각을 뛰어넘는 현실과의 접촉점을 가진 격하게 활동적인 정신”의 증표로서 “진정한 미래주의자”(95)로서의 자질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 체험의 당사자인 패커는 오늘날 펼쳐지는 이 예외적인 현상에 대해 극도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소간 비현실적인 이런 플롯요소가 패커의 예외성을 강조하는 상징장치이자 사건전개에 중요한 복선으로 기능한다면, 좀더 일상적이되 그에 못지않게 미래의 인간에 부합하는 그의 면모로는 ‘낯은’ 언어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이 두드러진다. 그는 소설 내내 최초의 맥락에서 이탈함으로써 원래의 의미가 흐려지게 된 단어들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는 전자수첩을 꺼내 마천루라는 낱말의 시대착오적 성격에 대한 메모를 짧게 휘갈겨 썼다. 최근의 어떤 건물도 그런 이름을 달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인 뾰족한 높은 건물과 그에 감탄한 옛 영혼들에 속했다.”(9) 언어와 현실의 불일치에 대한 이런 예민함은 미래의 도래를 지체시키는 과거의 흔적에 대한 갑갑증의 표현일 것이다.

이런 예민한 언어감각과도 관련되어 있을, 시에 대한 그의 관심도 자본가의 이색취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첨단 금융자본의 성격에 정확히 대응하는 면이 있다. 모레티(Franco Moretti)는 입센의 작품에 등장하는 부르조아지의 표현방식이 점차 산문에서 탈피해 시적인 특질이 증가하는 일관된 경향을 추적하고, 그런 현상이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수사가 발전단계별로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자본이 기존 현실의 제약을 넘어 지속적인 팽창을 하자면, 자본가는 점차 구체적인 현실에

바탕한 산문적인 계획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품은 시적 언사를 동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본래적으로 “단단한 물리적 근거없이 사유하거나 이론화한다”는 뜻에서 투기적이며, 그런 성격이 고도로 실현된 것이 현재의 금융자본주의인 것이다.(Moretti) 과거의 결과물로서의 고착된 현실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자본의 내재적 경향성이고, 모레티는 물론이고 이 소설의 킨스키도 인용하는 바 그런 경향성에 대한 고전적 표현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추상표현주의 계열의 회화를 선호하는 패커의 미술취향 또한 ‘유동성’을 중시하는 자본가다운 면모이다. 또한 그는 건강염려증에 가까운 극도의 신체관리를 생활화하고 있는데, 그런 습관은 인간인 한에 벗어날 수 없는 제일의 구체적 현실이라 할 육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역설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최고의 성공을 구가하는 패커는 병적인 상태에 빠져있다. 그는 소설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벌써 한참동안 일주일에 네댓새씩 아예 잠들지 못하는 심각한 불면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그 병은 어떤 근본적인 정신적 위기의 발현일 공산이 크다. 극단적인 반대방향, 즉 집중적인 내성(“self-haunted”, “inward in tight spiral)과 불안정한 확장(“in the stir of restless identities, 6)을 오가는 그의 정신은 해체의 조짐을 보이는 듯 하며, 자본가로서의 정체성과 배치되게도 욕망과 목적의식 또한 약화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못 돌발적으로 그의 여정이 개시된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그는 이발을 하기를 원했다.”(7) 그렇듯 충동적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간단한 일과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목적지조차 한참 후에야 밝혀지며 그 실제적인 동기 또한 소설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 소설 초반부만 놓고 보면 이런 사정은 패커에게도 해당되며, 이 소설의 플롯은 그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이 여정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려니와 도입부에서 묘사되는 패커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 여정은 의식적인 자기교정의 노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병적 상태에 대한 반발로부터 비롯되었을 공산이 크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여정을 촉발시킨 그의 현재상태는 그의 삶에 속속들이 침투해서 그의 존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이버 자본주의의 영향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이 점은 패커의 대변자 겸 해석자이며 함께 사이버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새로운 세계상에 열광하는 킨스키에 대해 그가 느끼는 거리감을 통해 시사된다.

그는 기본적으로 그녀의 지적능력을 신뢰하고 찬탄을 보내지만, 인간적 감정을 초월한 듯한 그녀의 모습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녀는 공감이나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두 감정을 표출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도 생각해 보았다.”(93) 사적인 감정이 제거된 그녀는 그에게 사뭇 탈인간의 경계에 선 존재로까지 인식된다. “창백한 회색빛인 그녀의 눈은 그에게는 멀게 느껴졌고 살아있지 않았으며, 이따금 그 눈이 빛나는 것은 통찰과 추측의 일순간뿐이었다. [...] 그녀는 목소리였고, 몸은 후에 보태어졌을 뿐이다. 또한 그녀는 이 지독한 교통정체를 헤치고 나가는 빼딱한 미소였다. 만약 역사를 부여하면, 그녀는 사라져 버릴 것이었다.”(104-105)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며, 앞서 보았듯 역사와 육체로부터의 초월은 오히려 그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확실히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를 강제하는 사이버 자본주의 영향에 더 전면적으로 노출된 이는 패커이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더 나아가 혐오와 같은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킨스키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 내내 패커의 생각에 머물며 그의 사변을 자극하는, 자못 비의적인 시적 문장 중의 하나인 “내 전립선은 비대칭이다”(my prostate is asymmetrical, 3)의 의미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주류 경제학의 핵심 어휘인 균형(=대칭)은 그의 투자를 인도하는 원칙이자 앞서 보았듯 투자와 떼놓을 수 없는 그의 세계이해

를 떠받치는 원리이다. 그런 원리에서 이탈한 패커의 신체는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두려운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단어 [비대칭]을 우주적 의미역에서 떼내 한 수컷 포유류의 육체인 자신의 신체에 적용했을 때 그는 겁이 났고 창백해진 느낌이었다. 그는 그 단어에 대해 어떤 기이한 경외감을 느꼈다. 두려움 혹은 거리감 같은.”(52)

그러나 패커가 자신의 병적인 상태의 근원에 대해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앞서 보았듯 그는 사이버 자본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이고, 삶의 이념과도 같은 이런 의식적인 차원의 신념으로 인해 그에 대한 반발은 주로 무의식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소설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가 보이는 격렬한 분열상태는 무의식적인 반발이 통제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점에서 소설 말미에 대면하게 되는 패커의 암살자이자 또 한명의 유력한 해석자라 할 수 있는 베노 레빈(Benno Levin)의 ‘진단’은 통렬하도록 정확하다. “너의 깨어있는 삶 전부가 자기모순이지. 그게 네가 자신의 몰락을 도모하는 이유야.”(190) 사실 이런 극심한 분열상은 그의 각별한 취미인 시읽기와 추상화 수집에도 드리워져 있다. 앞서 확인했듯 시읽기를 통해 길러진 그의 예리한 언어감각은 주로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공격성을 표출하는 데 동원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구체적인 세계에 대한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순간을 낳기도 한다. “시는 패커가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도록 했다. 시는 그가 시를 읽는 동안 보통은 알아챌 준비가 안 된 사물들을 드러내주었다.”(5) 마찬가지로 패커가 막대한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고가의 회화들 또한 경제적 인간으로만 존재하기를 거부하는 억압된 자아의 표현수단이기도 하다. 그가 그 작품들에 끌리는 것은 의미가 모호한데다 “새롭지 않아서 더욱 위험하기”(8) 때문인데, 여기서도 자본주의가 부추기는 새것 강박증에 대한 무의식적 반발을 읽을 수 있다. 또 한명의 패커의 해석자라 할 수 있는 그의 미술투자자문이자 비밀애인이기도 한 디디 판처(Didi Fancher)는 패커가 “스스로 파악하는

것보다 더 깊고 온화한 존재의 폭”으로 인해 “신비에 반응하는”(30) 것이라고도 설명한다. 또한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을 읽어내는데, 이제 패커가 “의심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흥미롭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32)는 것이다. 킨스키에 따르면 의심은 침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거되기 마련인 과거의 흔적, 즉 자본주의의 적일 뿐이다.

이렇듯 패커의 여정은 자기분열이 임계치에 다다른 상황에 의해 촉발된 것이며, 이 여정의 목적지는 판처가 예감한 변화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패커는 맨해튼의 서쪽 반대편에 있는 극빈층 슬럼가에 위치한 아버지의 단골 이발관에 가고자 했던 것이다. 실로 이 여정은 현재(아니 미래)에서 과거로의, 막대한 부의 광경에서 비참한 가난의 풍경으로 향한다. 사실 구체적인 목적지가 밝혀지기 전이라도 금세 그런 여정의 방향성은 확인된다. 패커는 도시 횡단 중에 잦은 교통정체로 말미암아 다양한 인종·직업군들이 어우러진 뉴욕의 활기찬 거리풍경을 관찰하면서 다면적인 면모를 누적시켜온 이 대도시의 오랜 역사를 거듭 떠올리게 된다. 더불어 그는 투자에 관한 사변을 멈추고 주변 인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변화는 과거에는 거의 그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리무진 운전수에 대한 강렬한 관심이 잘 예시해준다. 특히 그 이민자 출신 노동자의 훼손된 육체가 그를 매혹시킨다. 짧은 대화를 통해 운전수가 정치범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패커는 그의 함몰된 한쪽 눈을 보고 고통스러웠을 그의 과거사에 대해 상상하기도 한다. 역사가 새겨져 있기에 정체성의 물질적 표식이라 할 그 육체적 상처에 대한 매혹은 그와 대조되는 자신의 탈역사적 면모에 대한 예리한 자각을 함축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그 운전수가 목적지인 유년기의 단골 이발소까지 패커를 대동하는 최후의 인물이며, 마침내 도착한 이발소에서 패커의 생애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소설 말미에 패커가 다소간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이런 순간을 눈여

겨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여정은 전체적으로는 원만한 삶의 균형찾기로 결실되는 자기교정의 과정은 아니다. 그 점은 소설 전체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패커가 반자본주의 시위대와 조우하게 되는 1부의 끝 장면에서 명확해진다. 시위대의 월스트리트 기슭점거가 시작되기 전 에라도 그는 “쥐가 통화가 되었다”(A rat became the unit of currency)와 “하나의 유령이 세계를 떠돌고 있다-자본주의라는 유령이”(A specter is haunting the world, the specter of capitalism)라는 자못 비의적인 구호를 외치며 쥐 모형을 들고 서 있거나 살아있는 쥐를 식당에서 던지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펼치는 시위대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결정적으로 분신자살을 하는 한 시위 참가자의 모습을 거의 운명의 계시처럼 받아들인다. 그 직후 그는 이제는 의도적으로 파산하기 위해서 엔화의 차입 규모를 더욱 늘리고, “본부”(complex)에서 보고되는 암살 위협의 고조를 환영한다. 이때부터 그는 죽음까지 포함하는 완벽한 몰락을 기획하는 듯한 모습이며, 소설이 시작하고 처음으로 생생한 활력을 느낀다. “그는 자신이 예리한 윤곽선을 지닌 분명하게 규정된 존재로 느껴졌으며, 고양되고 명확한 자기실현의 느낌이 샘솟는 것 같았다.”(102) 이런 급격한 마음의 흐름이 이 소설에서 제대로 설명되고 있지는 않다. 2부에서의 사건전개를 볼 때 전반적인 인상은 의도적인 죽음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듯 하고, 그런 결정은 앞서 확인한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그의 일관된 열망에 부합한다. 그러나 자본가 패커가 왜 그렇게 반자본주의 시위대에게 매혹을 느끼는지, 그러면서도 그들의 대의에 공감하거나 지지를 표하기보다는 그들로부터 자살의 영감을 얻고 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자면, 어쩌면 패커야말로 시위대의 구호가 뜻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는 유일한 인물일 수도 있다. 시위대가 저 유명한 『공산당선언』의 첫 문장을 뒤집은 구호로 전달하려는 바는 사실 극히 모호할 뿐이며, 원래 시의 맥락에서 이탈한 또다른 구호 또한 주되게는 주

목을 끌기 위해 선택된 듯 하다.⁶⁾ 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패커의 현재 상태야말로 ‘유령’으로 칭할 만하다. 그는 첨단 자본주의가 불러오는 시공간의 혼돈 속에서 ‘지금 여기’와의 관련성이 희박해지는 존재인 것이다. 이렇듯 시위대의 구호는 패커 자신의 존재방식과 새로운 세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통렬하게 압축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대는 그저 의도치 않게 그에게 이런 깨달음을 선사할 뿐이며, 첨단 자본주의의 진전에 방해조차 되지 않는 존재들로 그려진다.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으며 이들 시위대 또한 그 창조적 파괴 과정의 일부라는 킨스키의 비판적 진단처럼 한바탕 폭풍과도 같았던 시위는 전세계로 중계되어 소비되며, 시위가 진압되자마자 일상적인 월스트리트의 풍경이 금새 회복되고 마는 것이다. 패커 본인 또한 사제 폭탄까지 동원한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는 시위대에게서 “비위를 맞추는 듯”(ingratiating, 99) 태도를 느끼기도 하다. 이런 논평은 소위 파이 암살자 페트레스퀴(Petrescu)에도 해당될 것이다. 사회 운동가로 자처하는 그는 거대 자본가를 포함하는 유명인사들을 파이로 공격함으로써 조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지만 실상 그들의 명성에 기생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이 작품에서 반체제운동은

6) 이 구호는 폴란드의 레지스탕스 출신 반체제 시인 즈비그뉴 허버트(Zbigniew Herbert)의 시 「포위된 도시의 기록」(“Report from the Besieged City”)을 출처로 한다. 이 작품은 시공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목이 시사하는 바 세계대전 당시의 참혹한 체험이 소재인 듯 하다. 시위대가 위의 쇠구를 구호로 삼은 것은 아마도 그것이 금융경제의 부조리함에 대한 인상적인 논평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부조리함을 자본가 또한 기꺼이 인정하기에 위 구호가 그닥 충격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패커는 그 시를 이미 읽은 상태이며 소설 초입에 투자분석 전문가인 직원과 그 쇠구로 말장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There’s a poem I read in which a rat becomes the unit of currency.” [...] “The name alone. Better than the dong or the kwacha.” “The name says everything.” “Yes. The rat,” Chin said. “Yes. The rat closed lower today against the euro.” “Yes.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Russian rat will be devalued.” (23)

희화화되기도 하며 전반적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제시되기에, 그들에게서 어떤 대안적인 삶의 원칙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패커의 극단적인 선택은 그가 처한 삶의 논리적 귀결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그는 ‘첨단의 인간’으로서 다른 이들에 앞서 자본주의의 미래를 체험했기에 그 미래상이 인간성에 가하는 압력을 일찍 감지하지만, 또 그만큼 그 영향에 깊이 노출되어 삶의 방향을 쉽사리 되돌리기 어렵다. 여기서 소설이 전개되는 하루동안 패커가 다소간의 자기인식과 자기교정을 달성하는 한편으로 거듭해서 미래의 자본주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공표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패커는 자기분열을 해소할 길이 없고,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 소설의 결말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의 근원을 파헤치는 이런 비판적인 작의는 2부에 접어들어 유사-비극적인 플롯요소들이 더욱 강화되면서 상당히 희석되는 면이 있다. 이미 1부에서 유력인사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연거푸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파국의 분위기가 팽배했다면, 2부에서는 그의 죽음을 예고하거나 그 실현에 일조하는 신비로운 사건이나 우연들이 자주 발생한다. 예컨대, 패커는 이발소에 당도하기 직전 다시금 야외의 영화촬영 현장에서 부인과 조우하는데, 둘은 처음에 익명의 엑스트라 군중 틈에서 서로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아마도 사살되어 내버려진 듯한 난민 무리를 연기한다. 그렇게 그는 완벽한 무를 상징하는 듯한 존재로 화합으로써 죽음의 여행연습을 치른다. 앞서 언급한 최후의 식사를 마친 후 이발소에서 나오면 이번에는 그를 겨냥한 짧은 총격이 벌어지는 동시에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신이 암살자의 집 앞에 당도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심지어 그는 그 암살자 레빈과의 대화 도중에 자신의 첨단전자시계를 통해 자신의 시신을 미리 보기까지 한다. 더불어 그는 예고된 운명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운명への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준다. 이미 1부에서 육체의 소멸을 위

대함의 증표인 불멸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상상하는 사색을 펼쳤다면, 2부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직접 완성하는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2부 초반에 패커는 암살자와의 만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경호 책임자를 살해 하는데, 더 나아가 여러 정황상 패커가 자신의 운명의 집행자일 공산이 크다. 그의 시신을 앞에 두고 온갖 상념을 펼치는 레빈의 첫번째 고백 장(“The Confession of Benno Levin”)이 벌써 1부의 중간쯤에 등장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지만, 거기서 그의 죽음의 경위는 전혀 거론되지 않으며 두 인물이 마침내 대치하게 되는 마지막 장면이 끝날 때까지도 그는 살아있다. 게다가 그 장면에서 둘은 점차 말을 무기삼아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무언의 공감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던 중에 패커는 충동적으로 자신의 손바닥 한가운데 총을 쏘고 출혈 과다로 쇼크 상태에 빠지며 바로 그때 시신으로 화한 자신의 미래상을 목격하게 된다. 최후의 식사 장면과 함께 고려할 때 이런 사건 전개는 다분히 예수와의 유비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에 의해 관철되는 것으로 그려지는 패커의 죽음은 숭고한 분위기를 띠게 된다.

이렇듯 이 소설의 비판적인 작의와 길항하는 요소들이 소설의 말미에 집중적으로 동원될 때 이 여정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이발소의 의미는 독자들의 주의에서 벗어날 공산이 크다. 사실 흔히 ‘라저 댄 라이프’(larger than life)로 묘사되는 메갈로매니아적인 자본가 주인공이 등장하는 미국 문화의 기념비적인 작품들도 그런 인물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명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런 인물 유형에 대한 미국문화의 깊은 동경을 반응하듯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나 〈시민 케인〉(*Citizen Kane*)같은 작품들 또한 전반적으로 주인공을 신비화하려는 충동이 강하게 드러난다. 다만 그 작품들에서는 신화화된 공적 자아에 의해 소외되는 자연인으로서의 소박한 면모를 대변하는 의미심장한 상징들이 일종의 라이트 모티프로 기능함으로써 주인공에 대한 보다 중층적

인 반응을 유도한다. 이 작품의 이발소 역시 <시민 케인>의 ‘로즈버드’ (Rosebud)⁷⁾처럼 현재 너무나 멀어져버린 유년기의 삶에 대한 패커의 회귀욕구를 상징하는 듯하지만, 작품 말미의 플롯전개 양상 때문에 이발소로 대변되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 구도는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다. 그에 앞서 다분히 작위적인 플롯전개 자체가 인물의 현실감을 떨어뜨리고 작품 전체에 신화적인 색채를 입힘으로써 비판적인 작의를 저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탓에 이 작품의 전체 플롯을 “한 자본가의 미학적 승리”로 요약하는 비평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패커]는 큐레이터와 인문학자를 고용해 예술품을 소유하고, 세계의 작동방식을 논한다. … 에릭은 여기서 더 나아가간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삶 자체를 비극화하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데이비드 크로넨버그는 에릭의 ‘죽음의 선택’을, 자기파괴적 충동이라는 심리적 동기를 삭제하여, 온전한 미학적 선택으로 바꾸어 놓는다. <코스모폴리스>는 그런 점에서 시스템 승리자의 미학적 승리담이기도 하다.” (허문영) 사실 이 비평은 『코스모폴리스』를 원작으로 삼은 크로넨버그 (David Cronenberg)의 동명 영화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그 영화가 패커의 사변을 제외하고 원작의 사건과 대화를 거의 그대로 스크린에 옮겨놓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위와 같은 의견은 원작에 대한 있음직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오독을 낳을 정도로 이 작품의 모호함은 분명 지나친 감이 있는데, 저명한 대중 문학비평가인 제임스 우드 (James Wood)는 이 작품의 그런 면모를 과도한 스타일의 추구로 인해 발생한 예술적 실패로 규정한다. 그는 이 작품의 비판적인 취지를 인정하지만 인물과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런 작의를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

7) <시민 케인>은 언론 재벌 케인이 죽으면서 내뱉은 ‘로즈 버드’란 말의 의미를 한 기자가 추적하는, 일종의 수사 플롯을 통해 전개된다. 결국 기자는 그 의미를 밝혀내는 데 실패하고 말지만, 영화의 마지막 플래쉬백 장면은 ‘로즈 버드’가 케인이 친했던 유년기에 타고 놀던 썰매의 이름임을 보여준다.

로 그 실패를 요약한다. 분명 드릴로는 예민한 언어적 감각을 지닌 작가로서 새로운 경험에 대응하는 독창적인 표현을 조어해내는데 탁월한 솜씨를 보이지만, 우드가 보기에 흔히 최고작으로 꼽히는 『언더월드』(Underworld)까지도 포함하여 자주 그의 스타일은 소설의 다른 요소들과 겹도는 과잉의 조짐을 보인다. 『코스모폴리스』의 경우 드릴로는 자못 비범한 감각의 소유자인 패커에 의해 동기화된 과잉의 수사에 몰두하기에 이 인물은 어떤 의미에서 작가의 대리인(mouthpiece) 노릇을 맡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리하여 독자는 “이제 패커/드릴로가 혼재된 근본적으로 무비판적인 언어에 갇히게 되었다.”(Wood)

이 글에서도 ‘시사하다’, ‘~인 듯 하다’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쓰이는데, 우드의 논평처럼 독자들은 한편으로는 자명하게 문제적이지만 시종 일관 의미심장한 문장을 쏟아내며 소설 전체의 관점을 대변하는 듯한 이 인물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자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혼란스러운 양식을 이 작품의 주제의식에 비추어 옹호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일단 드릴로는 이 소설이 그리는 세계에서는 안정적이고 비판적인 윤리적 평가의 기준이 되어 줄 제임스적인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듯하다. 앞서 반자본주의 시위대의 묘사에서 알 수 있듯 드릴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 관점이 우리 시대에 대한 상당한 진실을 담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구의 종말보다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은 대다수 문화분석가들이 거듭 되뇌이는 경구같은 표현이 된 지 오래이다. 앞서 간략하게 소개한 소위 월스트리트 문학만 보더라도 자본가들의 탐욕에 대한 표면적인 비판 이면에 그들이 누리는 부와 자율성에 대한 매혹적인 묘사로 독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반면 이 작품은 이 장르의 관습을 적극 차용하여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자본가에 대한 매혹을 부추기지만, 그렇게 확보된 동일시가 현재의 결핍을 상상적으로 위로해주는 판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⁸⁾ 이를테면

독자들은 주인공과 더불어 그가 개척하고 있는 첨단 자본주의의 미래상을 내일의 현실로서 미리 체험하도록 초대된 것이며, 근접한 거리에서 자기파멸을 주시하도록 강제된 그 독서체험은 깔끔한 카타르시스 대신 쉽게 해소되지 않는 짝짝함을 선사하는 불쾌한 것에 가깝다. 이렇듯 이 작품은 미래 자본주의의 발전방향이 인간성에 가하는 파괴적인 영향을 극화하고 그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나름으로 의미있는 탈자본주의적 상상력의 일단을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대)

■ 주제어

금융자본주의, 자본가의 형상화, 윌스트리트, 윌스트리트 문학

-
- 8) 이 작품에는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패커와의 동일시를 견제하는 요소들 또한 심어져 있다. 우선 이 소설의 전반적인 상황설정이 극도로 고양된 패커의 자기상과 배치되면서 은근한 아이러니를 만들어낸다. 미래의 도래를 주도하는 패커이지만, 그 또한 교통체증에는 속수무책이며 꼬박 한 나절이 걸려서야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에 그 와중에 시공간의 초월을 논하는 그의 화려한 연사들은 다소간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에게조차 연극적이라 할 만큼 내적독백에서조차 고양된 어조를 고수하는 패커가 솔직하게 보다 '인간적인'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들도 가끔씩 등장하는데, 그는 자신이 완벽한 몰락을 도모하는 것은 다시 성공하기 위해 참여야 하는 노고를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고백성 발언을 내뱉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패커의 '암살자' 베노 레빈이 있다. 앞서 그가 패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 자임을 확인한 바 있다. 패커의 비판자라는 기능외에도 그 자체로 흥미롭게 형상화된 이 인물은 더욱더 세계화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적인 삶의 조건으로부터 생성되는 반-자본주의적 의식의 일단을 구현하고 있다. 이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또 한 편의 글을 필요로 한다.

■ 인용문헌

- 브레너, 로버트, 정성진 옮김, 『봄 앤 버블』, 아침이슬, 2002.
- 이찬근,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부키, 2011.
- 플라니, 칼, 홍기빈 옮김, 『거대한 전환』, 길, 2009.
- 허문영, 「한 자본가의 미학적 승리」, 『씨네21』 (2013. 7. 11.),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3793
- Delillo, Don, *Cosmopolis*. New York: Scribner, 2003.
- Greenspan, Alan. “Maintaining Economic Vitality.” Millennium Lecture Series, sponsored by the Gerald R. Ford Foundation and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Grand Rapids, Michigan, September 8, 1999.
(<http://www.federalreserve.gov/boarddocs/speeches/1999/19990908.htm>)
- Lewis, Michael. *Liar's Poker: Rising Through the Wreckage on Wall Street*. New York: Norton, 1989.
- _____. *The Big Short: Inside the Doomsday Machine*. New York: Norton, 2010.
- Moretti, Franco. “The Grey Area: Ibsen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Left Review* 61-1(2010).
(<http://newleftreview.org/II/61/franco-moretti-the-grey-area>)
- Wood, James. “A Review of *Cosmopolis*.” *New Republic* (2003. 4. 10.)
(<https://business.highbeam.com/4776/article-1G1-99824188/traffic>)

■ Abstract

Between Fascination and Criticism
: A Portrait of a Financial Capitalist in *Cosmopolis*

Yi, Jung-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a very peculiar capitalist character, the protagonist of *Cosmopolis* by Don DeLillo. In a day the novel records minutely, Eric Packer, a private financier of a very high profile, refuses to withdraw a fatally mistaken investment in the currency trading market, thus intentionally causing his complete bankruptcy. Furthermore, he willfully visits his former employee, a lone outsider who wants to assassinate him. His self-destructive impulse is manifest; however, the plausible psychological explanations for it is far from clear. On the contrary, this problematic character is apparently being elevated to tragic height. His grandiosely philosophical thoughts on investment seem to carry considerable weight, being pregnant with prophetic implications for the common fate of mankind now inextricably tied with capitalism. Also, the trajectory of his willful death is geared to create the analogy with Jesus by employing plot motifs of (pseudo-) tragic nature comparable to the Last Supper and the Stigmata. However, the novel's so focused description of the protagonist is rich enough to reveal his other aspects, which support a more critical interpretation of his death. Packer is suffering from a severe case of insomnia and, more seriously, loss of purposefulness. These are

symptomatic of a fatal state his whole being is trapped in, As one of the characters comments, “his “whole waking life is self-contradiction.” He is thoroughly committed to the future of capitalism, As he himself proudly claims throughout the novel, he is pioneering the future of capitalism at the forefront of capital market. Now, capitalism begins to colonize time after many other areas of non-commodity and, therefore, life in general is once again about to be drastically distorted and impoverished. Of course, Packer is under the full influence of this new brand of capitalism and his unconscious is revolting against it. But he cannot corrects nor even be clearly aware of his disintegrating state because he has been so deeply infiltrated with the influence. He can be said to be in a warring state with himself. His death is the logical conclusion of this insoluble contradiction.

■ Key Words

financial capitalism, characterization of capitalists, wall-street, wall-street literature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5년 12월 4일 ○심사일: 2015년 12월 18일 ○게재일: 2015년 12월 31일



반영과 굴절의 경계

: 『술라』(*Sula*)의 영한번역 비교연구

장재일

I. 서론

문학 작품의 번역은 단순히 한 출발 언어(Source Language; SL)를 다른 도착 언어(Target Language; TL)로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한 장르로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학적 관점과 기법, 표현,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 등, 매우 섬세하고 의미 있는 부분들까지도 그 번역된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가(… the author who creates *ex nihilo*…)”(Lefevere, 234)의 천재성과 독창성에 이상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번역의 통로에는 SL 독자와 TL 독자 간에 차이의 경계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 텍스트가 번역자의 글로 옮겨지면서 발생하는 “오해(misunderstandings)”와 “오인(misconceptions)”, 즉, “굴절(refraction)”은 숙명과도 같이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여겨졌으며 “번역 불가능성(untranslatability)”이라는 말이 종종 번역 역사에서 목격되는 이유이다¹⁾. 이에 대한 대안으로 르페브르(Andre Lefevere)는 번역이란 거

1) “A writer’s work gains exposure and achieves influence mainly through ‘misunderstandings and misconceptions,’ or, to use a more neutral term, refractions. Writers and their work are always understood and conceived against a certain background or, if you will, are refracted through a certain spectrum, just as their work

울과도 같이 원 텍스트를 그대로 비추어주는 “반영(reflection)”의 과정이 아니라 스펙트럼과 같은 “굴절(refraction)”의 과정임을 상기시킨다. 타 문화의 텍스트를 TL로 바꾸는 과정에서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굴절의 현상이 곧 번역의 과정이며, 르페브르가 번역을 “다시쓰기(rewriting)”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핼(Anthony Pym) 역시 문학작품 뿐 아니라 어떤 텍스트를 접하던 독자들은 번역된 작품을 원작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여기진 않을 것이므로 번역자는 번역에 대한 나름의 개념을 설정하여 원문을 추정함으로써 번역이 만들어진다고 언급한다(Pym, 76).

이처럼 반영과 굴절의 경계에서 SL에서 TL로의 변환 방식이 단순히 표피적인 내용만을 다른 언어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때부터 원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의미의 왜곡과 함께 그 문학적 가치 또한 상실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번역 평가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기준, 즉 원작에 대한 충실성과 TL 독자를 배려한 가독성의 기준만으로는 그 진정한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이다.²⁾ 따라서 문학 작품을 포함하는 문화 텍스트의 번역과 그 평가에 있어서는 SL에 보다 중심을 두고 원본의 어휘와 구문, 표현, 기법 등을 강조하는 직역(metaphrase)풍의 번역과 TL 독자의 가독성에 보다 비중을 두는 의역(paraphrase)풍의 번역 사이에서 선택하고 타협하는 번역 과정과 그 평가가 필요하다.

‘의미의 등가성’이라는 객관화된 원칙을 두고 ‘단어 대 단어’의 직역이냐, ‘의미 대 의미’의 의역이냐에 대한 논쟁은 번역에서 상존하는 과제이

itself can refract previous works through a certain spectrum” (Lefevere, 234).

2) *verbum pro verbo*(word-for-word) translation으로 대표되는 충실성(fidelity)의 기준과 *les belles infidèles*(beautiful but unfaithful lady) translation으로 대표되는 투명성(transparency)의 기준은 오랫동안 번역 평가의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다. 다만 국내에서는 ‘투명성’이라는 용어보다는 ‘가독성(readability)’의 용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주로 쓰이고 있다.

다. 언어적 차원에서 좀 더 확장된 문화번역으로 보자면 문학작품의 번역은 특히 타문화 속에서 자문화의 의미를 발견하고 상호간의 문화적 요소들을 교류시키고 침투시키는 과정이 포함된다. ‘문화’란 범주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체계를 말하며, 사회상상, 가치관, 행동양식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관점의 이론적 기반을 지닌다. 따라서 정형화할 수 있고 기호로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능력을 문화로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원작과 번역작의 교류를 두고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는 문화교류 차원의 번역을 언어와 문화의 소통의 통로로, 그리고 SL과 TL과의 교류 뿐 아니라 자국과 이국 간의 경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보았다(2000: 477).

그렇다면 어떻게 ST(Source Text)를 대리할 TT(Target Text)의 표현의 정당성을 성취하면서도 ST의 이국적 요소를 TL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SL과 TL 간의 어휘, 문법과 같은 언어적 요소와 가치나 시대, 인종 등을 아우르는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복잡한 문학성을 반영하는 과정은 번역가들에게도 큰 난제임에 틀림없다.

전통적인 번역 평가를 둘러싼 논쟁은 주로 TT 독자들의 이해에 중점을 둔 자국화(domestication)와 ST의 언어·문화적 차이를 그대로 TT에 반영하는 이국화(foreignization)의 관점에서 전개되어 왔다. 자국의 문화에 최대한 적합한 번역을 지향하는 일부 영미-유럽권 국가에서는 의미대 의미의 번역을 중시하는 반면, 이국화의 우위를 주장하는 견해는 자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보다는 ST의 독창성을 살려 번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로빈슨 7-8, 169-72). 영미문학연구회는 “이 두 범주의 구별은 방법적인 것으로서, 좋은 번역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영미문학연구회, 22)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 번역 작품을 경시하고 창의적인 번역가의 역할을 도외시하는 한국의 번역문화 환경에서의 번역 평가는 어휘와 문장 등의 피상적인 정확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ST의 독창적 세계가 TT의 새로운 세계로 전이되면서 충실한 반영과 도전적 번역을 둘 다 수용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문학작품 번역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작가는 자신의 언어로 된 자신의 작품세계를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그러나 번역가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문화의 언어와는 이질적인 다른 SL로 된 작품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해하여 TT로 번역한다. 이 번역 과정에서 소위 '이상적인 번역가'는 단순히 SL을 거울에 비추듯 TL로 반영(reflection)하는 형식적 등가(formal equivalence)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번역관과 TL 독자를 고려한 의미와 이해에 대한 기능적인 등가(functional equivalence)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또 다른 번역관 사이에서 갈등하고 선택을 강요당한다.

그러나 모든 글을 “다시쓰기(rewriting)”라고 정의하는 르페브르는 번역가를 창작의 영역에까지 개입하는 ‘제2의 작가’이며, 번역이란 당대 사회와 문화 내의 다양한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여긴다. 르페브르가 자신의 저작물을 통해 평생 주장하고 적시했던 시스템에는 후원(patronage), 이데올로기(ideology), 시학(poetics), 당대 통용 담론(universe of discourse) 등의 4가지가 포함되는데³⁾, 번역은 바로 이 시스템과 작가로서의 번역가의 위상이 스펙트럼의 작용을 하여 이루어지는 굴절(refraction)의 작업이다.

르페브르는 특히 번역가의 창의적인 다시쓰기 작업을 강조하는데, 번역은 “출발어 중심”(source-oriented)도, “도착어 중심”(target-oriented)도 아닌, 번역자마다 개별적으로 남긴 흔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Hu, 106, 113). 따라서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사람은 원 작가와 TT 독자와의 사이에서 원문 텍스트를 가장 잘 재해석하여 소통시키는 또 다른 작

3) Lefevere의 ‘Rewriting theory’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 *Translation, Rewriting and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2) 참조.

가여야 하고 본 논문은 모리슨(Toni Morrison)의 『술라(Sula)』 영한 번역본에 대한 구체적인 번역 평가를 통한 비교 연구를 통해 르페브르의 “다시쓰기 이론(Rewriting theory)”에 따른 번역가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 그리고 “굴절된” 번역의 과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반영과 굴절의 시각에서 본 『술라』번역

모리슨의 『술라』는 ST와 TL 중심 번역 사이에 상존하는 침예한 대립적 요소를 화해시키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작품이다. 이 작품의 기본 플롯은 메달리온의 ‘바텀(Bottom)’ (역본에서는 “바닥촌”으로 번역됨) 마을에 사는 두 흑인여성인 Sula와 Nel 사이의 깊은 유대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 소설은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이 두 흑인 여성의 40여년에 걸친 서사적 스토리, 나아가 흑인이라는 특정 인종의 공동체의 식과 삶의 틀과 금기에 맞서 자기애를 지키고 정체성을 찾으려는 여성상을 부각시키는 작품이다. 따라서 SL에서 TL로 옮기는 과정 중 백인 중심 미국 사회 속 소수 흑인 가부장 사회의 이중적인 억압 하에서 사회적 편견의 틀을 깨고 자아를 찾는 여성의 모습을, 그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생경한 TL 독자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Sula* 번역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발간된 『술라』 번역본 중에서 본 연구는 장정남(1993)과 김애주(2005)의 번역본을 비교 연구한다. 장정남의 번역본이 출판될 당시 모리슨의 소설은 한국 독자들에게는 비교적 낯선 작품이었고,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작품은 읽고 번역하기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이후 2005년에 흑인 특유의 문화 번역의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번역의 타협을 강조했던 김애주의 번역본이 출판되었고, 이 두 번역본의 비교 분석을 통해 SL과 TL 간의 타협점을 찾아보고 이 과정에서 번

역가의 새로운 역할을 기늴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중심 테마이다.

장정남이 번역한 『술라』는 김애주의 『술라』보다 12년 앞서 발간되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역자의 글도 존재하지 않고, 번역된 원전과 참고한 주석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단지 도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저작권 표시에서 1973년 판 『술라』를 원본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장정남은 영문학자이자 교수이지만 김애주와는 달리 토니 모리슨을 전공하지는 않았다. 모리슨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던 시대를 감안해 볼 때 원문 텍스트를 번역 독자의 이해도에 맞춘 굴절성이나 번역가 나름의 재창조 과정은 이후의 번역에 비해 찾기 어렵다. 한국적 경험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의역하거나 극명하게 이질적인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한국어로 표현하기 보다는 ST의 충실한 언어적 해석이 두드러진다.

김애주의 번역본은 장정남의 『술라』에 비해 12년이 지나고 나서 출간이 된 책으로, 스타일 면에서 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문체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면으로 볼 때도 토니모리슨의 작품세계를 연구한 영문학 교수로 원저자의 작품을 학문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토니 모리슨의 작품에 생경한 TL 독자들을 이해시켜주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번역본이라는 인상을 준다.

『술라』의 문학세계는 흑인 특유의 정서라든가 문화를 특히 극단적인 인물과 상황에 맞추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한국어로 옮기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 사실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특유의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한국어로 옮기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내용들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상빈은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을 함께 사용하여 번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와 형태의 축소를 최소화하고 보충전략(compensation) 등을 통해 상실된 문화번역의 내용을 다른 요인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이상빈, 120). 이처럼 TT 독자들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자국화 되다 보면 ST에 독창적으로 존재하는 의미와 상징성을 잃을 수 있으

며, ST에 집중한 이국화는 TT 독자들의 가독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요소 간의 타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관용어나 속담을 번역하고 그 맥락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고유명사나 언어유희(pun) 등의 전달에 이르기까지 잘 ‘반영’하면서도 잘 ‘굴절’시켜야 하는 중개양상이다. 이와 같은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두 번역본을 반영과 굴절의 경계에서 구체적으로 비교 연구한다.

(1) ST와 TT의 정보공유

『술라』의 주 배경인 Bottom이라는 흑인 마을은 ST에서 “the Bottom”⁴⁾이란 고유명사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 “Bottom”이라는 단어는 ‘바닥’이라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인종적 억압을 받는 흑인들의 최하층 계급을 함축하는 어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주제를 고려하면 “Bottom”이 저항, 그리고 자본주의로 인하여 왜해된 흑인 공동체의 역사를 보여주는 복합적 장소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고유명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흑인의 비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의미해야 하기 때문에, 고유명사 ‘바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김애주, 2009: 25-26) 하지만 장정남과 김애주 모두 번역본에서 “Bottom”을 “바닥촌”(김애주, 9)으로 옮기고 있다. 번역본을 읽는 독자들에게 “바텀”이라는 표기는 생소했을 것이고, 중요한 상징성 역시 퇴색되었을 것이다. SL과 TL의 상호 전달에 적절한 중개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고유명사의 TL 표기는 최근 들어 서적이거나 영화의 제목 표기 문제와 더불어 재조명되는 경향이 있다. 이재호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SL을 직역하거나 의역하는 것이 그 자체만의 우열로 평가되지 않고 문화적 코드에 맞게 혼용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그는 그 예로, 영화 *A Man For All*

4) Morrison, op. cit., p. 3. 이후로는 페이지만 표기

*Seasons*는 ‘4계절의 사나이’라는 직역보다는 내용에 맞추어 의미를 전달한 ‘지조 있는 사나이’, *The Ballad of Reading Gaol*이라는 시의 제목은 ‘독서하는 감옥의 노래’라는 황당한 번역에서 원래의 고유명사를 살린 ‘레딩 감옥의 노래’로, 그리고 브랜드 *cat's cradle*은 ‘고양이의 요람’이 아닌 SL 문화 용어인 ‘실뜨기’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64-71). 이 사례들은 직역과 의역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적절히 굴절시키지도 못한 문화 오역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Bottom이라는 지명은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와 원어의 뜻을 타협한 ‘바닥촌’으로 번역했지만 일반적으로 고유명사는 출발어의 원래표기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예문의 경우처럼 지역이나 장소의 고유명사는 ‘바닥촌’을 표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기와 ‘굴절’시키는 표기는 주제나 상황에 따라 그 경계를 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ST: It had to be as far away from the Sundown House as possible. (17)

TT1: a) 석양옥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다. (장정남, 27)

TT2: b) 선다운 하우스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다. (김애주, 25)

고유 명사 ‘Sundown House’의 뜻을 살려 한자어로 변환해 단어로 만드는 예는 2000년 대 이전에는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나 SL의 가장 이국적인 요인인 고유명사가 특별한 의미전달의 명분 없이 TL로 굴절되는 것은 오히려 번역독자들에게 정보의 오류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고유명사의 원어 표기가 보편화되어 있다.

(2) TT 독자들을 위한 정보의 확장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볼 때『술라』는 ST와 TT 간의 간격을 좁히기 힘

든 많은 장애들이 있다. 시대적 배경과 인종의 차이, 환경과 습관에서 비롯된 상징성의 차이 등 많은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서 TT 독자를 배려하는 보조 장치가 불가피하다. 즉, ST의 독특한 정보를 TT 독자들도 공유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정보 공유를 위해 번역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조 장치로는 (1) 본문 내에서의 확대, (2) 본문 내에서 괄호 안에 설명 추가, (3) 본문 내에서 괄호 안에 설명 추가와 역주 표시, (4) 각주, (5) 권말의 용어 해설 등이 있다(곽성희, 85). 『술라』의 경우 두 역자가 모두 (1)과 (3)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중 가장 객관적이고 쉬운 정보 공유는 주석이다. 이 외에도 변환의 굴절 방식으로 변환(shift)이나 삭제(deletion or ellipsis), 왜곡(distortion) 등이 있지만 정보의 확장 차원에서 볼 때 번역 독자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문화번역은 주석이나 관련정보 확장 장치와 같은 삽입(addition)이다. 우선 주석은 원작의 내용이나 본질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번역자의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정보 확장을 할 수 있어서 오랜 기간 번역작업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다.

ST: "On Thursday, when Hannah brought Eva her fried tomatoes and soft scrambled eggs with the white left out for good luck, she mentioned her dream of the wedding in the red dress. Neither one bothered to look it up for they both knew the number was 522"(64)

의 번역의 경우에 장정남은,

TT1: “한나가 에마에게 튀긴 토마토와 행운의 표시로 흰자위를 빼어버린 부드러운 스크램블 달걀 (우유·버터를 넣고 풀어진 달걀 - 역주)을 가져왔었던 목요일 날에, 그녀는 붉은 옷을 입고 결혼식을 올리는 꿈 얘기를 했다. 그 번호가 522번이란 것을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찾아

보려고 애쓰지 않았다.”(장정남, 101)

고 번역하고 있다.

장정남의 번역에서는 522번의 의미를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스크램블 달걀’에 주석을 달아 놓았다.

반면 김애주는,

TT2: “한나가 에마에게 튀긴 토마토와 행운의 표시로 흰자위를 빼어버린 부드러운 스크램블을 가져다주던 목요일, 그녀는 붉은 옷을 입고 결혼식을 올리는 꿈 얘기를 했다. 그날의 행운의 숫자가 522번 (바닥촌 사람들은 숫자 맞추기 노름을 즐겨했다.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행운의 숫자를 정할 이런저런 단서들을 찾았다- 읍간이)이란 것을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김애주, 98)

고 번역했다.

흑인들은 스크램블 에그를 요리할 때, 행운을 표시하기 위해 흰자위를 빼다. 또 붉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는 꿈을 꾸면 불길한 징조로 본다. 게다가 마지막 숫자 522에 대해서는 여러 주석서를 보아도 단순히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역자는 이 부분에 주석을 달았을 것이다.

장정남이 TT 독자에게 ‘스크램블 달걀’을, 김애주가 TT 독자에게 ‘522’의 상징을 부연설명 하고자 했던 것은 시대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반영’의 과정이다. 각각 다른 용어에 주석을 달았지만 TT 독자들에게 생소한 문화를 이해시키는 문화번역이었다. 그러나 독서의 흐름을 방해하는 주석을 없애고 그러면서 독자에게 원작의 정보를 이해시키는 확장번역의 예가 많이 등장하면서 문학작품에서의 주석은 되도록 지양하는 추

세이다.

SL 중심주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번역이 원문 텍스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충실성이란 ST의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한 충실이다. 따라서 ST 중심이라 해도 SL을 TL로 번역만 하는 단순 행위가 아니다. 번역가는 원문 텍스트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이해해야 함과 동시에 이 의미와 의도를 어떤 번역 전략을 이용하여 독자에게 맞춘 텍스트로 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지를 늘 고민해야 한다.

한편 TL 중심주의 이론의 중심 과제는 번역가가 자신이 ST에서 이해한 바를 TL로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을 하면서 역자들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원문 표현의 등가물을 찾아낼 수는 없다. 번역자는 번역할 때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고려하고 번역문 텍스트 독자들의 가독성을 중시하여 원저자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창조과정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이희재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정보 확장의 여러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TT 독자 위주로 변환하면서도 ST의 원 의도를 저해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이다. ‘we no longer saw the world of *Gatsby* but that of *The Grapes of Wrath*’에서 ‘위대한 개츠비의 상류층 세계,’ ‘분노의 포도에 그려진 밀바닥’으로 밀줄 부분을 옮기고 있다. 이미 다수의 독자들이 작품과 그 특징을 알고 있다는 판단 하에 상류층, 밀바닥과 같은 가벼운 첨가로 원래 고유명사의 표기에 주석 없이 번역하였다. 그러나 ‘they called up the very thin, fawning–sinister figures of some of the Cruikshank illustrations for Dickens’의 경우 ‘그들은 찰스 디킨스 소설의 삽화에 나오는 비쩍 마르고 음흉한 간신배를 연상시켰다’는 번역에 대해 번역 독자가 알지 못하고 문맥상 핵심 언어가 되는 것도 아닌 18세기 영국의 삽화가 이름 ‘Cruikshank’는 아예 삭제하고 대신 그에 관한 정보로 문맥을 완성시킬 간신배라는 용어로 대신하였다고 설명한다. 또 하나의 예는

'The George Groszian figure of Professor Emil Simon'을 '풍자화가 게오르게 그로스의 그림에 나오는 인물처럼 머리가 벗겨지고 고집스럽게 생긴 에밀 시몬 교수'라고 다소 장황하게 번역한 것이다. 한국의 번역 독자들에게 생소한 'George Groszian'은 문맥상 묘사가 불가피한 것이고 장황한 듯하지만 적절한 삽입으로 보인다(이희재, 226- 28).

획일적이고 손쉬운 정보공유 보다는 다음 『술라』에서의 예를 통해 타협할 수 있는 경계를 모색해 보자.

ST: (...)when Lindbergh sleeps with Bessie Smith and Norma Shearer makes it with Stepin Fetchit(...)(125)

TT1: 린드버그가 베시 스미스와 동침하고 노마 시어러가 스테판 페치치트와 그 짓을 할 때 (장정남, 196)

TT2: 린드버그가 베시 스미스(1920년대를 주름잡던 블루스의 여왕 - 옴킨이)와 동침하고 노마 시어러(1930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여배우 - 옴킨이)가 스테판 페치트(유명한 흑인 코미디언 - 옴킨이)와 그 짓을 할 때 (김애주, 189)

번역본을 읽는 독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문맥을 생생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 앞서 언급했듯 정보의 부연은 아예 텍스트에 정보를 첨가하거나 지금처럼 주석을 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TT에 알맞은 표현의 재구성과 분석적 대안 없이 주석에만 의존한다면 ST 속 원래의 문학적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 독자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도 물론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 장치는 적절한 첨가를 통한 정보의 확대이다. 역주나 각주는 학술지에는 흔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수용과 판단과 자료일 수 있으나 문학작품 ST의 경우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확대번역을 지향해야 한다. 정보의 확대는 정확한 '반영'과 융통성 있는 '굴절'의 경계에서 항시 타협을 꾀해야 한다. 문맥에 맞게 번역 하

는 과정에서 언어의 침삭과 같은 일정 부분의 굴절을 이용하는 것은 번역 독자들이 원문의 내용을 언어적 표현 그대로 고착화시켜 받아들이도록 하는 작업이 아니라 원문을 보다 자유롭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면서 문맥에 대한 이해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Lefevere, 248).

이 두 기본 이론 중 TL 중심주의에 따라 단어나 문맥을 재정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모리슨의 대부분의 소설이 한국 독자들에게는 낯선 인물과 문화, 정서, 언어 뿐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현재의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어서 원문 텍스트에서 침삭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에 언급했던 ‘private’를 두고 김애주는 “일등병(미국에선 일등병을 ‘private’라 부르는데, 이 말은 본래 ‘사적인’ 것을 뜻하며, 샤프랙은 이 말에서 ‘비밀스럽다’는 말을 연상하고 있다-역주)이라는 말과 자신의 얼굴을 연결시켜 보고 싶었다.”(김애주, 16)라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 어휘를 두고 너무 긴 설명을 하고 있어 문맥을 파악하는 흐름은 느슨해지고 두 가지를 따로 수용하는 번거로움도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 역주 대신 타인이 그를 부르는 ‘private’이라는 명칭을 주석이라는 보조 장치 없이 ‘헤이, 비밀장이 이등병’(필자의 번역)으로 번역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다음 인용은 두 역자의 첨가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ST: (...) the soil slid down and washed away the seeds, and where the wind lingered all through the winter. (5)

TT1: 씨를 뿌려도 비만 오면 씻겨 내려가 버렸으며, 겨우내 바람만 불어댔다. (장정남, 12)

TT2: 흘러내리는 흙에 뿌려놓은 씨앗마저 다 쓸려 내려갔으며 겨우내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김애주, 12)

TT1는 ‘비만 오면’이, TT2는 ‘뿌려 놓은’이 첨가되었는데, 전자는 ‘비’

에 대한 원망이, 후자는 이미 ‘뿌려 놓은’ 노동에 대한 아쉬움이 더 추가되었다. 두 번역 모두 TT 독자의 즉각적인 이해를 돕는 정보 확장의 예이다.

ST: Godheavenlymercy, I couldn't birth him twice. (62)에서 두 역자는 SL과 TL의 어휘 외적 뉘앙스를 고려한 번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TT1: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도, 난 그를 두 번 탄생시킬 수 없었다. (장정남, 98)

TT2: 아무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도, 난 그애를 두 번 낳을 수가 없었어. (김애주, 95)

문맥을 보면 전쟁의 상흔으로 미쳐버린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오려는 비극적 상황을 설명하는 어머니의 참담함이 어려 있다. ‘Godheavenlymercy’라는 단어는 하늘의 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뜻으로, 같은 뜻을 지닌 반복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가 강조된 복합어이다. 이를 탄식어조의 부사어로 바꾸었고 특히 TT2에서는 간절한 느낌의 ‘아무리’가 첨가되었다.

ST: (...) they strapped her to a piece of canvas. (81)

TT1: 그녀를 들것에다 놓고 끈으로 꽁꽁 묶어 버렸다. (장정남, 127)

TT2: 그녀를 즈크(삼베, 무명 따위를 짠 올이 굵은 천-웁긴이) 끈으로 꽁꽁 묶어 버렸다. (김애주, 123)

TT1의 경우는 아예 ‘캔버스’라는 특정 용도의 물건이 그냥 ‘끈’으로 번역되었는데, TT2의 경우는 ‘즈크’라고 번역하면서 오히려 주석이 필요한 어려운 단어가 되어 버렸다. 원문의 즈크 보다는 즈크의 재료가 되는 삼베나 무명을 썼더라면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덜 낯선 어휘였을 것 같다.

이 밖에도, ST: Shadrack took the plunge (11)를 번역하면서 첨가된 경우를 보면,

TT1: 샤프랙은 경쾌하게 앞으로 돌진하였다. (장정남, 20)

TT2: 샤프랙은 앞으로 돌진했다. (김애주, 18)

처럼 독자들에게 생생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경쾌하게’라는 어휘를 첨가한 예도 있다. 문화번역의 차원에서 ST의 독창성을 전달하기 가장 힘든 요인 중 하나는 소수언어(minority language) 번역의 차별화이다. 소수언어는 수사적인 측면이나 통사론적 차원에서 영향력이 강한 주요언어(majority language)의 힘에 눌러 지배적인 주요언어를 반영하는 거울 이미지가 된다. 결국 독창성이 부족해지면 주요언어의 범주에서 동화되고 모방되는 역동성 없는 번역이 되고 TT 독자들은 다양성으로서의 번역(translation-as-diversification) 보다는 주요언어에 반영된 동화성으로서의 번역(translation-as-assimilation)을 통해 ST를 경험하게 된다(Cronin, 6-7).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리고 독일어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주요언어의 범주에 속하므로 흑인 영어도 영어의 범주로 볼 수 있겠으나, 지역색이 짙으면서 하층민들이 사용하던 흑인 영어는 백인 영어에 반하여 소수의 저급한 언어로 무시당해 왔다. 소수언어는 가시적으로 차별화되지 못한 채 백인들의 표준영어인 주요언어의 사전적 의미로서만 모방되거나 백인문화의 측면에서 피상적으로 이해되다 보니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객관성 있는 굴절과정이나 이국적 정서를 담기가 어려운 것이다. 흑인영어를 음운론적이나 통사론적으로 연구한 국내 논문이나 저서는 많지만 문학이나 철학적 관점에서 용어를 정리한 객관화된 연구가 적다는 점도 흑인영어의 ST를 한국어 TT로 번역하기 힘든 요인이다.

『술라』에서의 흑인영어는 표준적인 영어와 음운적 측면(phonology), 문형적 측면(syntax), 그리고 어휘적 측면(vocabulary)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특히 이 소설에는 흑인의 말투 특유의 리듬감이라든가, 재즈의 기법 등이 차용된 대사들이 많이 등장한다. 교육이나 지위, 나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어투와 운율감을 살리는 번역이야말로 난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김애주는 스스로도 미국의 흑인 여성작가의 작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문체적 번역불가능성(untranslatability)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피력했다. 김애주는 한국 독자의 수용성 차원에서 한국문화에 없는 미국 흑인의 문화와 한글 문체로 반영이 힘든 요소들로 인해 애초 이국화 전략이라는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애주, 2009: 24)

다음은 죽어가는 Sula가 Nel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ST: "Show? To who? Girl, I got my mind. And what goes on in it, which is to say, I got me."

"Lonely, ain't it?"

"Yes. But my lonely is mine. Now your lonely is somebody's else. Made by somebody else and handed to you. Ain't that something? A secondhand lonely."(123)

장정남의 경우에는 같은 부분을 두고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TT1: "보이라고? 누구에게? 이봐, 난 내 마음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말하자면, 난 나를 갖고 있지."

"외롭지 않니?"

"외롭지. 그러나 내 외로움도 내 것이니까. 그러나 너의 외로움은 너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이야.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너에게 넘겨진 것이야. 그것도 괜찮은 거 아냐? 중고품 외로움이지만."(장정남, 193)

여기서 "lonely"라는 단어가 리프(riff)로 사용되고 있지만 번역의 기술로 이를 살려내기란 쉽지 않다. 리프란 재즈와 같은 흑인 음악에서 반복적

으로 사용되는 중심 약절을 뜻한다. 여기서 작가는 이 기법을 통해 ‘lonely’라는 단어를 말한 뒤 여기에 즉흥적으로 응답하고 또 거기에 변주를 더해 이 대화를 마치 재즈 듀엣과 같은 느낌이 나도록 장치를 해 두었다. 한편으로는 자아정체성을 포기하려는 벨과 달리 자아를 실현하려는 무한한 노력으로 일관하는 술라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기능이기도 하다. 이러한 리듬성을 표현한 원문을 장치가 전혀 없는 도착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원문의 해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김애주의 번역본을 보면 이에 대한 고민이 느껴진다.

TT2: “보이라고? 누구에게? 이봐, 난 내 마음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말하자면, 난 나를 갖고 있어.”

“외롭지 않니?”

“외롭지. 그러나 내 외로움도 내 것이잖아. 그렇지만 네 외로움은 네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 것이야.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너에게 넘겨준 거야. 그것
도 괜찮은 거 아냐? 중고품이긴 하지만, 외로움은 외로움이니까.”(김애주,
186)

중고품 외로움이라는 SL 위주의 번역을 연장하여 ‘외로움은 외로움이니까’라는 문구를 첨가한 김애주는 위의 번역을 두고 스스로는 이보다 더 흑인 특유의 리듬감을 살릴 수 있도록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였어야 한다고 자평하였다.⁵⁾ 이처럼 미묘한 문화적인 특성, 흑인 특유의 억양과 방언, 그리고 보이지 않는 리듬과 같은 습성까지도 번역에 수용하려는 번역가들의 지식과 지혜가 TT만으로 작품을 이해해야 하는 독자들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장정남의 번역에는 출판당시의 번역추세가 그러했듯 ST에 충실한, 비

5) 김애주, 앞의 논문, p. 34.

교적 SL 위주의 맥락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 즉 사전적 용어를 충실히 반영한다거나 해석적 규범을 잘 지키고자 했다. 반면 김애주의 번역은 언어의 리듬감, 번역 독자들의 공감각적 반응 등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므로 보다 굴절성을 보여 주는 TL 위주의 번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ST와 TT 간 의미의 등가

번역을 기계적이고 부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는 추세로 창조적이지 않은 열등한 분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번역이 종속적이고 파생적인 작업인 것은 틀림없지만 원문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롭기 때문에 TT 독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배적 권력을 지닌 창조자이기도 하다. 더구나 영어의 사전적 의미로 정확한 한국어를 골라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번역자마다 원작을 향한 기준도 다를 수 있다. 『술라』의 복잡한 구성과 어려운 기법을 추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어휘에서 문장에 이르기까지의 번역은 그래서 번역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아래는 이 소설의 분위기를 담당하는 최초의 배경으로, 주변에 흔하게 존재하는 비교적 간단한 물체를 나열한 간단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단어 뿐 아니라 문장 전체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일찍이 제시하는 문장이다. 여기서 '형식적 등가(formal equivalence)'에 대비되는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를 통해 번역자가 단순한 언어 변환자가 아닌 문화적 중개자라는 점을 알 수 있다.

ST: One road, shaded by beeches, oaks, maples and chestnuts, connected it to the valley. (3)

TT1: 자작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밤나무들이 시원하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한길로 가노라면 자연히 읍내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었다. (장정남, 9)

TT2: 너도밤나무, 떡갈나무, 단풍나무, 밤나무 그들이 드리워진 길은 골짜기까지

이어졌다. (김애주, 9)

나무의 종류를 아예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자작나무와 너도밤나무, 참나무와 떡갈나무는 흔히 번역에서 혼용되는 예이다. 전자에서 보다 후자에서는 소리를 내어 읽을 때 언어적 리듬감이 훨씬 느껴진다.

ST: it would be easy for the valley man to hear the laughter and not notice the adult pain that rested somewhere under the eyelids, somewhere under their head rags and soft felt hats, somewhere in the palm of the hand, somewhere behind the frayed lapels, (...) (4)

TT1: 계곡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눈꺼풀 밑 어디엔가, 머리에 쓰고 있는 누더기 같은 것이나 보드라운 펠트 모자 어디엔가, 또는 그들의 손바닥 어디엔가, 아니면 구겨진 옷깃 뒤 어디엔가, 혹은 그들의 근육 곡선 어디엔가에 도사리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모르는 체하는 것이 속편한 일이었을 게다. (장정남, 10-11)

TT2: 계곡에서 온 그 남자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눈꺼풀 아래 어디엔가, 머리를 묶은 형겅 끈과 부드러운 펠트 모자 아래 어디엔가, 손바닥 어디엔가, 해진 옷깃 어디엔가, 근육의 곡선 어디엔가 깃들여 있는 그들의 한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속편했으리라. (김애주, 10)

TT1의 누더기와 TT2의 형겅 끈은 ‘head rags’에 대한 두 역자의 해석 차를 보여 준다. ‘frayed lapels’ 역시 ‘구겨진 옷깃’과 ‘해진 옷깃’으로 다른 해석이다. SL인 영어 원문에 대한 TL의 해석은 완벽하게 일치하기가 어려워 작품을 바라보는 역자들이 문맥에서 느끼는 뉘앙스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전자의 ‘누더기’나 ‘구겨진 옷깃’은 바닥층 사람들의 열악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후자의 ‘머리를 묶은 형겅 끈’과 ‘해진 옷깃’에서는 친근함이 묻어난다. 장정남의 번역이 대체로 흑인들의 애환이라

는 현실에 집중한다면 김애주의 번역은 좀 더 사실적이고 여성적이다.

두 역자의 어휘 해석 차이는 출판된 연도에 따른 명칭 차이나 번역자 각자가 느끼는 뉘앙스 차이에서 왔을 것이다. 여기 몇 개의 어휘를 예로 들어 보겠다.

ST	TT1 (장정남)	TT2 (김애주)
the taste of lipstick (7)	립스틱을 연상시켜 주는 입(14)	립스틱을 바른 것 같은 입술 (15)
private (9)	일등병 (18)	이등병 (15)
Catholic church (18)	카톨릭 교회 (29)	성당 (26)
colored (19)	유색인종 (29)	흑인 (27)
tiny green peppers (43)	조그마한 사자고추 (62)	작은 피망 (59)
purty (47)	통통해요 (66)	예뻐요 (63)
triangles (8)	삼절판 (17)	양철식판 (15)
the bottom of heaven (5)	하늘의 바닥 (12)	천국의 바닥 (12)

앞서 언급한 바 있듯, 번역은 TT의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에 통용되는 어휘나 뉘앙스는 번역의 주요 단서이다. 어떤 기준으로 인물을 평가하는지도 작품을 인지하는 단서이다.

옛되고 순수한 외모를 떠오르게 하는 ‘립스틱을 연상시켜 주는 입’과 달리 ‘립스틱을 바른 것 같은 입술’에서는 성적 호기심을 느낀다. 사실 원작의 인물 묘사에서 이 두 요소는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장정남의 ‘일등병’과 김애주의 ‘이등병’은 원문의 단어적 해석에서는 둘 다 맞는 해석이다. 다만 요즘 들어 우리는 ‘카톨릭 교회’ 보다는 ‘성당’이라는 용어를, ‘유색인종’ 보다는 ‘흑인’이라는 일반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사자고추’는 모르지만 ‘피망’은 누구나 안다. ‘삼절판’은 이미 ‘양철로 된 식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번역은 SL과 TL 간에 어휘나 문법과 같은 구성 요소를 대체하는 것 이상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번역자는 텍스트 간의 ‘표현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목표하는 의미의 등가가 어떤 수준인지를 스

스로 결정해야 한다(수잔 바스넷, 김지원 · 이근희 옮김, 57).

'the bottom of heaven'(5)의 번역처럼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작품의 흐름을 주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원작의 출판시기와 번역본의 출판시기에 관계없이 'heaven'이 무엇인지는 자국어 번역의 중심 논제 중 하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번역 전문가들과 비평가들은 이 단어를 단순한 의미의 '하늘'보다는 바닥층에 사는 인간들의 원초적 비전인 '천국'으로 번역하는 데 동의하는 듯하다. 물리적인 의미의 '하늘'에게 있어 바닥은 단순히 낮은 '땅'이다. 이 작품에서의 상징은 낮고 높은 지형이나 검고 흰 색깔의 피부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번역자가 의미의 등가를 설정할 수준을 결정할 때는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교육, 경제 등의 환경에 따라 묘사의 수준도 결정해야 한다. 인물의 묘사 중 두드러진 표현은 외부적 특징 이외에도 내적 성품과 갈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묘사를 번역한 부분 역시 독자들이 인물을 통해 주제를 파악하게 하는 주요 단서이다.

ST: Suddenly without raising his eyelids, he began to cry. Twenty-two years old, weak, hot, frightened, not daring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he didn't even know who or what he was... (10)

TT1: 갑작스레, 그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울기 시작하였다. 스물 두 살의 허약하고 열정적이고, 겁먹은,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히 인정하려 들지 않는 (...) (장정남, 21)

TT2: 갑자기, 그는 눈도 뜨지 않고 울기 시작했다. 22세의 나이, 허약하고 쉽게 화를 내고 겁에 질려있고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조차 하려 하지 않았으며, (...) (김애주, 19)

TT1의 '열정적'인 것과 TT2의 '쉽게 화를 내'는 것은 다르다. 장정남의 견해에서 이십대는 젊고 열정적이나 세상에 나설 용기가 부족한 유약

한 미완성의 인물이다. 반면 김애주의 이십대는 정체성을 지키기엔 너무도 두려운 현실을 마주한 감정적 인물이다. 모리슨이 제시하고자 했던 젊은 날의 인물들은 사실 이 두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남녀의 성별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나 번역자의 시각은 이 성별 차이에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원 작가가 선택한 많은 어휘들을 대하면서 번역자는 일단 자신이 정해놓은 수준의 의미등가에 맞추게 되어 있으므로 사전적 의미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번역자 자신의 경계이다.

III. 결론

번역이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미 국내에 소개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국내의 번역문학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번역 비평에 대한 활로를 찾고 현황을 분석하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번역의 이론에서 모색해야 할 과제인 번역본을 제 2의 창작으로 만드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작가의 의도와 SL 사용 문화권을 잘 소화시키면서 동시에 TL 독자들을 이해시키는 장치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술라』를 번역하면서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 점은 우리와 다른 문화는 물론이고 특수한 인종과 계층이 사용하는 언어의 낯설음이다. 본 연구에서 장정남과 김애주의 번역을 비교하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은 두 번역 작가의 우열이 아니다. 우선 두 작가가 번역본을 발표한 시기도 12년 차가 나기 때문에 세월의 변화에 따른 독자중심 이론도 변화가 있었고 문체나 어휘가 달랐다. 두 번역 작가가 *Sula*의 원문을 번역하는 데 있어 SL 중심이냐, TL 중심이냐에 대한 철학적 차이도 있었다. 삭제나 첨가처럼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장치도 달랐고 무엇보다도 인물 묘사나 행동방

식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랐다. 때로는 단순히 어떤 어휘에서 관용 어구에 이르기까지 *Sula* 는 여성성과 정체성 측면에서 고민해야 하며, 비유적 표현이나 방언과 같은 언어의 변별성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한다. 원문 작가가 작품을 발표한다는 것이 작품성을 위한 고통스런 작업이듯 번역가가 원작을 번역하여 발표한다는 것은 독자와 작가 사이에 교감이라는 다리를 놓는 고된 작업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 문화적 코드가 다른 두 텍스트 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때로는 반영의 장치로, 때로는 굴절의 장치로 번역 독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지만 여전히 성(gender)의 번역이나 방언의 번역처럼 『술라』의 특수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번역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남성주의적인 번역 론이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할 언어선택과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어로의 번역에서는 젠더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젠더가 언어의 역학적 구성요소임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면 영어의 대명사나 소유격이 한국어로 이동하면서 그 강렬한 차별성이 희석되기 일쑤다(정혜욱, 260-70).

한국의 인문학 번역은 지금껏 대부분 서구의 번역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이 와중에 번역은 문화 뿐 아니라 권력과의 상관관계가 생길 수 있다.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요소들이 번역행위에 복합적으로 개입하기 마련이라면 그러한 번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번역 이론은 과연 번역·문화·권력의 함수관계에서 벗어나 있을까?”(정혜욱, 559)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문학성이나 언어 외적인 문제로 ST의 변환 과정이 그 자체의 가치 보다 TT 독자를 겨냥한 경제 원리에 지배당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은 SL과 TL을 1대 1로 대응시키는 과정이 아니다. 원문의 거울이 아니므로 번역은 반영 보다는 굴절이라는 복잡한 모형으로 제시된다. 장정남과 김애주의 번역을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서 ST를 TT 독자

단어 대 단어의 번역과 의미 대 의미의 번역 간의 차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술라』 원작의 다양한 관점을 조명하는 방대한 범주의 작업이 번역임이 드러났다. 비록 완벽한 번역의 불가능성이라는 딜레마를 떨칠 수 없는 것이 번역이지만 원 작가와 번역 작가, 독자 간의 객관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타협점을 모색할 수는 있을 것이다.

(동국대)

■ 주제어

르페브르, 굴절, 다시쓰기, 『술라』, 창의적인 번역

■ 인용문헌

- 곽성희, 「정보성과 번역전환」, 『번역학연구』, 2.1(2001): 77-97.
- 김애주, 「타협의 과정으로서의 번역: Sula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1.2(2009): 21-38.
- 더글라스 로빈슨, 정혜옥 옮김, 『번역과 제국』, 서울: 동문선, 2002.
- 수잔 바스넷, 김지원 · 이근희 옮김, 『번역학: 이론과 실제』, 서울: 한신 문화사, 2002.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서울: 창비, 2005.
- 이상빈, 「문화번역의 텍스트적 재현과 ‘번역’: 이창래의 *Native Speaker* 와 그 번역본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4(2014): 119-140.
- 이희재, 『번역의 탄생』, 서울: 교양인, 2009.
- 정혜용, 「서구번역이론 수용에 관한 단상」, 『프랑스 문화예술연구』, 26 (2008): 557-573.
- 정혜옥, 『번역과 문화 연구』,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0.
- Cronin, Michael. “The Cracked Looking Glass of Servants: Translation and Minority Languages in a Global Age.” Ed. Mona Baker.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2009. 3-21.
- Hu, Gengshen. “Translator-centeredness,”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12.2(2004): 106-17. Maier, Carol. “The Translator as an Intervient Being.” Ed. Jeremy Munday. 2008.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2008. 재인용.

Lefevere, Andre. "Mother Courage's Cucumbers: Text, System and Refraction in a Theory of Literature." Ed. Lawrence Venuti.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2000. 233-250.

Pym, Anthony. *Exploring Translation Theories*. New York: Routledge, 2010.

Venuti, Laurence. "Translation, Community, Utopia." Ed. Lawrence Venuti.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2000. 468-526.

* 분석 텍스트

Morrison, Toni. *Sula*. New York: Bantam Books, 1973.

김애주, 『술라』, 서울: 들녘, 2005

장정남, 『술라』, 서울: 을유문화사, 1993.

■ Abstract

Reflection or Refraction? : A Study on the English–Korean Translations of *Sula*

Jang, Jai-il (Dongguk University)

The two Korean versions of Toni Morrison's *Sula* (1973) translated by Jang Jung-nam (1993) and Kim Ae-joo (2005) are compared and analyze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 Source Language (SL) has been translated or “rewritten” into the Target Language (TL) in the light of Andre Lefevere's theory of “rewriting” or “refraction.” The two translators made much effort to bridge the gap between SL and TL from many perspectives, using diverse themes such as mythologies of Africa and Europe, fairy tales of Europe, and African–American folk culture. A good translation conveys the original text conforming to the “writer's intent,” “accuracy of translation languages,” and “faithfulness to the reader.” Hence, the TL must be held as important as the SL. The problems that must be overcome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Sula* dealt with in this essay lie both in language and in differences in time, location, and culture. The surrounding factors in translating the original work in Korean reflect the translating writer's personality or field of professional study or is possibly reflec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ranslation's publication era. The aforementioned factors are analyzed to examine whether a refraction has taken place by comparing the two Korean translations.

■ Key Words

Lefevere, refraction, rewriting, *Sula*, creative translation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5년 12월 4일 ○심사일: 2015년 12월 18일 ○게재일: 2015년 12월 31일



신, 윤리, 신념에 대한 이글턴의 성찰과 이데올로기적 주체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읽기*

정 윤 길

종교를 그대로 둔 채 부패한 윤리 체계와
그 국가 체제 및 법률 체제를 바꾸는 것은
미친 것이다.
(『죽은 신을 위하여』 9)

I. 들어가며

‘신의 죽음’은 과거 서구사회의 산물로서 그들의 오랜 지적 여정의 결과물로 선포된 명제였다. 서구의 지적유산인 계몽주의 이후 그들이 경험한 ‘신의 죽음’은 자신들에게 하느님의 종교와 그것의 교리에 대한 연구인 신학을 근거로 하고 있었던 보편주의 사상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한동안 비평담론 영역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주제인 신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서구사회, 특히 좌파 이론가들에게서 급격하게 부활하고 있으며, 어느새 현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주요한 인식적 접근

* 본 논문은 2015년 제7회 맑스コミュ날레 <다른 삶은 가능한가: 맑스주의와 일상의 변혁>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글임을 밝힌다.

방식이 되었다. 사실 마르크스주의로 대변되는 이론가들은 신, 종교, 신념과 같은 영적, 윤리적 혹은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을 논의하기를 회피내지는 꺼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흔히 종교적 신념을 비판하는데 많이 인용되는 문구가 바로 마르크스가 「헤겔 법철학의 비판을 위하여」에서 한 “인민에게 종교는 아편이다.”(2)라는 명제일 것이다. 실제 이 명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종교와 윤리 문제에 대해 대체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견해들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왔으며 실제 그러한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말을 통해 마르크스가 전하려는 바를 종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념이 결국에는 인간을 파괴시키는 마약과 같이 유해한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독해라 할 수 있다. 그는 종교를 없애자는 포이에르바하의 주장이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가치에 대한 신념 행위로서의 종교를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게 한 조건, 즉 사회적 소외의 조건을 없애는 것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한 것은 종교와 그것이 내세우는 신념이 한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의 불행을 드러내줌과 동시에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잠시나마 위로해주거나 정당화해주는 일시적 방책에 지나지 않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그의 문제의식이 최근 들어 일종의 ‘형이상학적’ 혹은 ‘신학적 전환’이라는 하나의 비평적 담론으로 부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2010년 9월 방한하였던 영국의 대표적 마르크스주의자인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은 「신념과 근본주의」(“Faith and Foundationalism”)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지난 몇 년간 서구에서는 종교를 중심으로 한 신에 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흥미로운 현상이 생겨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¹⁾ 신에 대한 이러한 재논의는 물질적 삶을 이해하는 양

1)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10년 9월 6일 고려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가 인촌기념관

식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와 영적 삶을 이해하는 양식으로서의 기독교 사이에 놓인 동일한 종류의 분열에 대한 문제적 인식처럼 부정적 시각을 띠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글턴은 일부 무신론자들의 경우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난 특성 즉,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신의 복귀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지적대로 오늘날 서구에서 극좌파라고 할 수 있는 이론가들, 가령 『사도 바울: 제국에 맞서는 보편주의의 윤리를 찾아서』(*Saint Paul : la fondation de l'universalisme*)에서 새로운 차이들, 새로운 특수성들에 대한 추구에 기초하여 바울에게서 하나의 보편주의적 진리론의 시작을 확인하고, 제국이 만들어 놓은 담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혹은 보편적 주체의 전형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을 한 알랭 바디우(Alain Badiou), 『남겨진 시간: 로마서에 대한 주해』(*Il tempo che resta: Un commento alla lettera ai Romani*)에서 ‘법률 내·외부가 서로 배제함이 아니라 서로 구분하지 못하는 식별불가능성’, ‘법률의 이행불가능성’ 그리고 ‘법률의 정식화 불가능성’과 같은 예외상태의 일반적 특징들이 주권적 예외상태나 메시아적 예외상태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남을 진단하고 결과적으로 ‘진정한 예외상태’는 메시아와 더불어 도래함을 주장한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죽은 신을 위하여: 기독교 비판 및 유물론과 신학의 문제』(*The puppet and the dwarf : the perverse core of christianity*)에서 종교와의 관련성 속에서 근대성을 설명하며 불가해한 신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수치와 고통을 환기시키는 기독교적 체험이야말로 윤리적 주체의 초석임을 말하고 있는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 그리고 “공론장(public sphere)에서 종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관심”(최경환 191)을 새롭게 제기한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²⁾등 그야말로 면면이 화려한

에서 개최하였던 석학 초청강연 내용에 기초한 것이며 관련된 이글턴의 글 전문은 <http://virtuepeak.tumblr.com/post/1075045959> Web, 25 November 2015. 참조

좌파 이론가들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론가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무신론적 좌파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모두 신에 대한 논의, 즉 신학이 오늘날 지구사회가 겪고 있는 전지구적 곤경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한 하나의 대안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사회주의권의 몰락, 신자유주의의 대두 그리고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등을 겪으며 정치적, 이념적으로 마땅한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지적 원천은 지금의 이론적 위기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필요충분 조건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결과로 “정치적 좌파에 속한 급진적 사상가들과 복음서를 현세의 권력에 대한 비판의 도구로 여기는 기독교 신학자”(「신념과 근본주의」 Web)들 간에 어색하고도 아이러니한 동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글턴의 분석대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도 근원적인 문제들—죽음, 고통, 초월, 성(섹슈얼리티), 삶의 찬양, 공동체, 악, 구원 등—을 다루는 신학”(「신념과 근본주의」 Web)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현재 그 유용함이 새로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이들의 사유와 그 결과물들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평적 점검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영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이

2) 최경환은 공공신학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공론장에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며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통해 공공신학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공공신학의 과제와 방법론은 무엇인지 재고해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공공의 적, 공공의 신: 한국개신교는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기독교철학』 19호(2014) 혹은 <http://cairos.tistory.com/280> Web, 26 November 2015.

론가인 테리 이글턴이 최근 개진하고 있는 신(종교) 담론에 관한 논의들을 신념의 문제와 이데올로기적 실천이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접근해보고 오늘날 신 혹은 종교와 관련된 담론이 개인적 내면성에 대한 영역을 의미하기보다는 마르크스주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이며 체제 변형적인 사유의 틀이며 '기독교의 혁명적 기원'을 부활시키려 하는 시도임을 이해해보려는 비평적 시도의 글이다.

II. 혁명가로서 예수, 신념적 주체 그리고 자기 포기의 윤리학

이글턴은 영국에서 잘 나가는 소위 명문대학의 교수였으며 트로츠키주의(Trotskyism) 노선에 입각한 '노동자 사회주의 연대'의 당원이기도 하다.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제자로서 여전히 영국의 학문체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존 서덜랜드(Joan Sutherland)의 말처럼 영문학 연구와 문학회론의 지평도를 바꿔 온 인물이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라는 정체성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이론가이다. 그가 걸어온 이론적 여정은 마르크스주의라는 큰 틀 아래 다양한 이론적 물결들을 흡수·거부하며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이러한 험난한 파고들을 건디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산증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이글턴은 레이몬드 윌리엄스, 루이 알튀세르 그리고 피에르 마쉴레이 등의 이론, 특히 이데올로기 문제를 문학 비평에 적용함으로써 지배권력을 감추거나 그것에 기여하는 문학을 탈신비화하는 작업에 주력했다면 이후 문학의 특별한 위상, 즉 전지주적 불평등이나 권력구조를 탈신비화하는 문학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왔다. 그 과정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지나친 기표적 문화주의를 정치적 패배주의로 비판해왔고, 같은 맥락에서 주요 현대 이론가들의 이론중심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해왔다. 최근 그의 비평적 관심은 좌파 이론가들에게 당연시되거

나 관심 밖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왔던 종교, 신, 고통, 선과 악, 사랑 등의 개념들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매슈 보몬트(Matthew Beaumont)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전형적으로 좌파, 특히 남성 좌파들이 이야기하기를 피해왔던 일련의 관념들이 있으며 사랑, 죽음, 악, 신앙, 윤리학, 비극, 비존재, 필멸성, 희생, 고통 등이 그것에 속한다. 나는 가장 최근의 나의 연구들이 의도적, 도발적으로 그러한 좌파들에게 도전하는 혹은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시도라 생각한다.”(*The Task of the Critic* 286)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그가 갖는 이론적 지향점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벤야민을 이어받아 신학의 재전유를 시도한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디우, 지젝, 아감벤과 같은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이글턴은 신학의 현재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 앞의 이론가들이 사도 바울을 경유했던 것과 달리 그는 직접 기독교의 역사에서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라 생각된다. 자신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과 신학 논쟁에 대해 이글턴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서구의 근대적 윤리 가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을 기독교로 대변되는 종교적 가르침과 마르크스주의로 대변되는 정치체제(사회주의)가 서로 분리된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근대성이란 종교가 더 이상 특정한 문화적 삶-형식 속에 온전히 통합되지도 않고 그러한 삶-형식과 동일시되지도 않는 사회 질서—종교가 자율성을 획득하는 사회 질서, 따라서 하나의 종교가 여러 문화 속에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질서—를 말한다.”(『죽은 신을 위하여』 6)는 지젝의 주장처럼 서로 중첩하고 교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는 “시급하고 중요하게 적절한 사상이 필요한 시대”(Reason, Faith and Revolution 7)인 현 상황에서 좌파들에게 신학은 “인간 해방을 위한 중요한 성찰을 할 수 있는”(8) 계기를 제공하는 하나의 상징체제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 둘의 간극을 메우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글턴의 간극 잇기는 지금의 서구사회를

낳은 토대라 할 수 있을 보편적인 기독교적 주체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의 중심세력이라 할 수 있는 근본주의자들의 대두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금융자본의 축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소비욕망이 가져다줄 무한한 쾌락 그리고 가족주의에 간혀있는 오늘날의 개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위해 이글턴은 무신론자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는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의 양면성을 비판적으로 지적한다.

계몽주의의 언어는 기업의 탐욕, 경찰국가, 정치에 굴복하는 과학, 지속적인 전쟁 상황의 경제 등을 변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계몽된 초기 중산계급의 경제적 개인주의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유린하고 대중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지금의 거대기업을 발생시킨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된 자유주의 국가가 지금에 와서는 감시국가로 변해버린 것이다. (*Reason, Faith and Revolution* 89)

계속해서 그는 이성의 위대함에 대한 계몽주의적 신뢰를 “주술적인 것”(120)으로 인간의 자기개선 능력이 무한하다는 믿음을 “미신”으로 빗대어 말한다. 이런 결과로 이성은 종교적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종교가 어떤 의미 체계로 수용하는가를 꿰뚫어 보지 못한 채 종교를 터무니없고 기이한 미신이자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허무맹랑한 것으로만 간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시선이 바로 이성이 종교를 극복할 수 없게 한 원인인 것이다. 최종적으로 그는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계몽이라는 거대한 기획 자체에서 유래한 것임을 지적하고 현재를 진단함에 있어 이러한 부정적인 면들을 직시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가치와 요구들도 함께 보는 일종의 총체적인 시각을 견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성의 죽음을 말하는 것도 이성이 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그릇된 신념의 결과임을 테일러(Charles Taylor)의 주장을 인용하며 “근대 초기에 일어난 일은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에서의 큰 변화였다. 시간과 공간, 주권, 자아와 사회, 신체, 기율 등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얘기다. 과학적 합리성은 그런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리고 신화가 사실 앞에 무너졌다기보다는 기존의 도덕관이 새로운 도덕관에 자리를 내준 것이었다. 과학적 합리성은 과거의 것들에 대한 단순한 부정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획득한 새로운 형태의 자기이해를 의미했다. 과학적 합리성은 자체의 존재론적이고 상징적인 틀에 의해 유지됐지 과거의 것에 대한 고집스러운 거부만으로 유지된 게 아니었다.”(김겸섭 170 재인용)고 설명하고 있다.

계몽(과학)의 부정성에 대한 논의의 한편에서 그는 신학적 사유의 긍정성을 전개한다. 그는 예수를 갈보리 언덕 위에서 두려움 없이 사랑과 정의를 외침으로써 지상의 권세를 위협하는 그러면서 그 권력에 의해 파괴되는 희생자로 스스로를 드러낸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가운데 하나였던 로마제국의 통치에 정면으로 도전한 혁명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로 제시한다. 로마시대의 형벌 가운데 십자가형이 일종의 체제전복적인 선동을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형벌이었으며 예수가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붙어있던 죄목을 알려주는 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는 점 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혁명적 성격의 예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나아가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만큼 바보스러운 사람은 그 누구라도 국가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면서 주어진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죽음, 무, 자기 해체라는 끔찍한 길을 통과”(Task 315)해야 하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충분히 혁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해석을 빌리자면 예수는 전통적인 방식의 권력 구조의 전복이 아닌 새로운 형식, 더 완벽한

존재 양상(일종의 예수의 부활과 같은)에 의해 기존 권력구조가 완전히 제거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혁명가들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혁명가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글턴에게 있어 하느님의 직접적이고도 완전한 표상으로서의 예수는 두려움 없이 사랑과 정의를 외치다가 국가에 의해 고문과 조롱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한 정치범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공포스러운 현실에 대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면서도 스스로 '아버지'라 부르는 눈앞에 놓인 세상의 권위를 넘어서는 힘의 약속에 대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충실한 사람이다. 이점에서 기독교는 원죄적 관점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면모에 대해 단호하게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 입증된 천국이 인간 존재의 혁명적 변모를 통해 이 땅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급진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모습에서 현실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즉 사랑 없는 인간은 이미 죽은 목숨에 불과한 것이며 반대로 사랑을 베푸는 인간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된다. 이글턴이 보기에 이러한 사랑으로 죽임을 당한, 구원으로서의 사랑을 자신의 모습으로 체화하신 분이 바로 예수이며 이것이 기독교적 사랑의 본질이 자 종교적 신념이라 할 수 있다. 정당하고 올바른 결과를 장담할 수도 없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보장도 없지만 신이 준 힘의 약속에 따라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만이 예수가 보여준 주체의 모습인 신념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힘의 약속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소환하여 황량하기 짝이 없는 고통의 사막으로 이끌어간다. 이처럼 전혀 자비스럽지 않은 어쩌면 테러리스트 같은 그의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던 스스로에 대한 무한한 확신과 가르침을 한 순간에 일소해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제 예수는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자기 부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입증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돈 없고 험벗은 이는 하늘로 불러 올려 복을 주고 배부른 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낼 것을 주장하는 이글턴의 표현 그대로 '사랑의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신념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신념의 주체가 지니고 살아가야할 자세인 것이다. 패배할 것임을 아는 냉정한 현실주의자로서 "실패에 대한 충실성"(Reason 76)이라 불릴 만한 신념의 자세로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은 현실의 실재와 대면하려는 자세는 합리주의 신화가 만들어 낸 이성이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야말로 신앙이 갖는 진정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로부터 살해당한 메시아인 예수가 우리에게 전한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는 그저 터무니없는 환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이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부단히 작동하는 신과 메시아, 그들의 목소리는 인간의 존엄과 해방을 위한 실천에 아주 의미 있고 필요한 현재적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 보수적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마르크스주의자 교황이라 비판받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규제였던 것처럼, 오늘날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해 “그래서는 안돼”라고 말해야 한다. ...중략... 그들은 일자리도 없고, 미래도 없고, 탈출할 수단도 없다. 인간 자체가 쓰고 버려지는 소비재로 간주되고 있다. 인간이 쓰고 버려지는 존재가 된 문화를 우리가 만들었고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착취와 억압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차원의 문제다. 배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떨어져나가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 배제된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의 밑바닥이나 주변에 속한다거나, 권리가 박탈됐다는 정도가 아니다. 그 사회의 일원도 아니라는 것이다. 배제된 사람들은 착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며, 잉여가 되어 있다. (53)³⁾

3) 교황의 권고문은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apost_

교회의 사회적 포용성, 연대를 향한 바티칸 2차 공의회 정신을 한층 더 확장하고 나아가 신학적 교훈들을 배신해온 제도교회의 자기 역사에 대한 반성을 위해 두려워말고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교황의 가르침이야말로 신학적 정신과 마르크스의 정신이 서로 맞닿아 있음을 말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들끓는 탐욕과 이상숭배와 미망, 지배와 소유를 향한 저 깊은 본능, 끈질기게 지속되는 불의와 착취”(Reason 40)를 현재의 세상이 극복해야 할 대상인 원죄로 설명한 이글턴의 주장 역시 이러한 사유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적 진리 추구에 있어 이글턴과 교황이 맞닿은 지점은 바로 윤리의 문제이다. 교황은 오늘날 이러한 배제가 일어난 것의 근본적 원인이 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종교가 말하는 윤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한다. 윤리에 대한 이러한 거부와 무시는 자본주의와 떼어 놓을 수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돈이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가 된 지금의 상황에서 자본의 최종 목적인 이윤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성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것이며 오히려 자본 숭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위와 같은 윤리로의 귀결이라는 논지는 너무나 자명한 주장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글턴이 주장하는 논지의 한계 역시 이 부분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그가 좋아하는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를 곁들이자면 실제계라는 것이 개인에게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정도로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임을 전제할 때 과연 그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윤리가 갖는 어떤 측면이 진정한 돌파구이자 전면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가의 질문이다. 즉, 과연 이글턴이 말하는 윤리적 욕구가 상상계에서 경험할 수 있을 자신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한 걱정을 모두 털어내고, 상징계에서 보여지는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집착이나 그로 인한 욕망의 문제

exhortations/documents/papa-francesco_esortazione-ap_20131124_evangelii-gaudium.html Web. 26 November 2015 참조. 괄호안의 숫자는 권고문의 해당 페이지를 의미한다.

를 넘어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타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을 발휘하는 그 순간에 다다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의 글에서 분명한 해답은 찾을 길이 없는 것 같다. 『반대자의 초상』에서 “자발적으로 자기희생을 하는 혁명가는, 해방된 미래의 이미지를 보여 주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혁명가는 미래의 표상이 아니라,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보여주는 표상이다. (...) 유사한 사례로, 수도사나 종교적 금욕주의자는 천국의 심상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의의 세상에서 천국에 이르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기표일 뿐이다.”(『반대자의 초상』 184)라는 식의 자기 포기 혹은 버림의 윤리학이 그가 제시하는 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어떤 이해관계나 대가도 없이 그저 선행이라는 그 자체로서 죽음과 절망을 극복하려는 자세가 그의 윤리학의 핵심을 이룰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기 포기’의 윤리가 역설적으로 인간 주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긍정이며 이것으로부터 혁명적인 좌파 정치를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글턴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그가 강조하는 윤리는 조금은 지나치게 말한다면 종교적 성향이 강한 영적인 좌파의 삶의 규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Ⅲ. 선과 악의 대립을 넘어 사랑의 테러리스트로

물론 이글턴이 기존 종교의 문제적인 모습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는 기독교가 “예수의 이름으로 비판자들을 고문하고 창자를 꺼냈으며, 이의 제기에 재갈을 물리고, 그래도 비판하는 사람들은 산 채로 화형에 처했다”(Reason 81)는 점, “거짓말쟁이 정치인과 부패한 은행가들, 광적인 네오콘들의 혐오스러운 위선의 도구가 되었으며, 교회 자체도 엄청난

게 돈을 버는 산업이 되었다”(80)는 점, 그리고 “오래전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부유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의 편으로 돌아섰다”(79)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악에 대한 문제나 근본주의자들의 행동에 관한 논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근본주의는 현실정치 공간에서 선/악의 구분과 대립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내세운다. 이 점에 대해 이글턴은 자신의 책 『악』(*On Evil*)에서 근본적으로 혹은 그 자체로 악으로 규정되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관심과 배려가 어떤 식으로 제외되어왔는가를 자신의 방식으로 설명한다. 악이 없으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악은 선을 파괴함으로써만 존재한다. 더 나아가 악은 파괴할 선을 필요로 한다. 악이 선을 만들어 낸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게 ‘악’이란 죽음과 관련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일상적 삶의 반대편에 있는 죽음지향 혹은 죽음충동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악은 그 자체로 ‘악’이기보다는 ‘나쁜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악은 자기 온전성과 자족성의 영역이다. 이런 점에서 악은 인정사정없는 무관심과 완벽성의 추구 그리고 비사회적 조건 속에 있다. 나쁜 성향의 사례들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것을 사회적으로 교정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글턴은 진보적 입장에서 수많은 비도덕적 행위들이 물질적 조건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근본주의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서에 아무런 오류가 없음, 인간의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상에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그리고 부활 등을 기독교 신앙의 근본으로 강조하는 사상을 말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인 지적은 근본주의가 종교적 신념인 믿음⁴⁾과 객관적 정보체계인 지식을 제

4) 바디우에게 믿음이란 그가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끈질긴 충실성에 있다. 진리는 세상의 결을 거슬러 옛 체제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현실의 토대를 놓는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진리적 사건은 예수의 부활에서 프랑스 혁

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지적은 자신의 저서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In Defense of Lost Causes*)에서 근본주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종교적 진술과 과학적 진술을 같은 유의 실증적 지식으로 받아들인다. … 일부 근본주의 종파가 자기네 이름에까지 ‘과학’이란 말을 넣었다는 점(크리스천 사이언스 Christian Science, 사이언톨로지 Scientology 등)은 불쾌한 웃음거리에 그치지 않고 믿음이 이처럼 실증적 지식의 문제로 전락했음을 보여 준다. (31)

이처럼 지적은 “근본주의자는 자신이 사랑받는다든 것을 믿지 못해서 분명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어린애처럼 보채는 신경증 환자와 같으며 이런 점에서 근본주의자는 신념을 지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 믿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결국 지적에게 있어 근본주의자는 회의주의의 또 다른 모습에 불과한 뿐이다. 극단적으로 불확실한 세계에서 하느님이 직접 선포한 명백하고 확실한 진리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Reason 151-52)하는 것이다. 지적의 이러한 인식은 이글턴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 이글턴은 자신의 글에서 근본주의란 애초에 눈에 보이는 분명한 토대나 바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없음으로 인해 인간이 겪게 되는 존재적 불안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는데 이러한 그의 입장은 자신이 강조하는 신념을 기존의 근본주의 논의와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라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글턴 역시 지적과 마찬가지로 근본주의자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을 회의주의자에 대한 그것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명, 입체파의 등장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찾아왔다. 그의 따르면 인간은 깨우침을 주는 그 같은 사건에 혼신을 바쳐 충실함으로써 생물학적 종의 이름 없는 구성원에서 진정한 주체로 변신한다.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이글턴은 앎을 기초로 한 기독교적 주체성을 넘어서는 신념의 주체와 실천적 행위로서의 신념을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지식 그리고 그러한 지적 인식 능력에 기초한 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회의주의를 넘어서는 종교적-이성적 회의주의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인식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로 주체의 행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며, 지식/이성의 행위와 구별되면서도 전통적인 근본주의에 반하는 것에 기초한 주체의 모습이 될 것이다. 즉, 본질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 불확실한 상황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 조건이 전제가 되는 주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해당 주체는 앞에서 언급한 예수의 경우처럼 스스로 왜 그 해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만 한다고 자기 믿음을 갖는 주체이다. 이것은 자아와 주체와의 관계에서 자아가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주체가 선택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체가 자기 자체를 스스로 구성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신념이라는 것이 선한 사람의 전유물인 것은 아니다. 나쁜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근본주의자들에게도 신념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신념은 이글턴이 말하는 신념적 주체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성격의 신념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등에서 차이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글턴이 보기에 그들의 죽음은 더 이상 쓸모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리 비참하고 박탈당한 사람일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시무시한 힘”(Holy Terror 170)이다. “모든 것이 실패한다 해도 아직 죽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170)이다. 심지어 이글턴은 “죽음은 삶의 부러움을 살 만한 완전함을 당신에게 선사한다”(170)고 말한다. 그 완전함이 의미하는 것 또한 의문스럽지만 무엇보다 의문스럽고 중요해 보

이는 것은 그들이 숭고한 희생이 희생의 이유였던 억압적이고 비참한 현실을 변화시켰는가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글턴의 논의에 대해 또 한 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글턴이 제시하는 현재의 전형적인 정체성의 두 형태라 할 수 있는 테러리스트와 소비주체 모두 앞에서 언급하는 스스로를 구성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⁵⁾ 이글턴은 “정복자나 식민주의가 되었을 때 좋은 점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 반면, 피정복자나 박탈당한 이들은 정체성의 문제를 일상의 짐처럼 등에 지고 살아야 한다.”(「신념과 근본주의」 Web)고 말하며, 정체성 문제를 기준으로 근본주의자들은 너무 지나치게 정체성 문제에 몰두하는 반면 자본주의의 중심 세력들은 정체성 문제를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박탈된 상태는 치명적 약점인 동시에 일종의 힘’이기 때문에 배제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이 현 체제의 중심에서 굴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 사회의 시스템을 개조하고 변혁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이글턴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의 테러리스트 방식) 현재의 곤란한 상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예견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은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바탕한 근본주의 세력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테러의 모습이 아닌 그 옛날 로마제국에서 예수가 보여주었던 일종의 사랑의 테러리스트의 출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글턴의 이러한 주장에 쉽게 수긍하기는 힘들다. 물론 필자의 생각에 바디우나 아감벤의 그것보다는 다분히 더 전투적인 방식을 사용하며, 특히 사랑과 테러리스트를 조합하는 독특하면서도 전투적인 정치적 주체를 구체적인 모델로서 제시한 점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혁명가와 근본주의자, 보편주의자와 특수주의자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그것이 가능한

5) <http://blog.jinbo.net/simppo/76> 글 참조. Web, 26 November 2015.

할까?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모든 행위가 종결된 이후 결과론적으로 규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현재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대해 이러한 주체 논의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강하게 남는다. 아울러 자본이 만들고 제공하는 욕망 구도 그리고 끝없이 생산되고 소멸되는 열정을 생산하는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생산하는 소비 지향적 인간형에서 그가 말하는 신념의 약화가 어쩔 수 없는 결과라 할지라도 그 과정 전체를 그저 자본주의에 대한 불가피한 동화로 간략히 설명해버리는 것은 지나친 도식화의 오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그의 글쓰기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믿음, 신념, 지식의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너무 함축적인 언어로 설명하여 그것과 관련된 기타 문제들이 간과되거나 불분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신학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믿는 자가 정치적 주체라 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진 자로 그리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행위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혹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와 반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자신과 세상에 대해 회의하는 자로의 전환이 어떻게 변화되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이론적 작업을 기대해 본다.

IV. 나오며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마르크스주의자인 이글턴이 기독교적 신학을 자신의 이론에 어떻게 끌어들이어서 새로운 대안적 사유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 핵심적 좌표(예수, 주체, 신념, 윤리, 근본주의 그리고 사랑 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좌표들의 연결을 통해 그가 그려내고자 하는 인식적 지도는 겉으로 보기에 종교라는 포장지로 싸여져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러한 신념의 문제를 넘어 구체적 행위의

실천자로서의 정치적 주체, 특히 얇의 주체를 넘어선 종교적-보편적인 신념의 주체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이론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 한편으로는 선진국-시장사회의 아바타인 중산층 이상의 신념 없는 정치와,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의 현신인 대다수 민중이 무력화된 상태인 반주변부적 위치에 놓인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신념과 지식의 간극을 메우는 작업은 어디론가 사라진 —그렇다고 단절되어 소멸되지는 않은— 정치적 주체를 다시금 도래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유의미한 문제의식들을 던져줄 수 있는 논의라 생각된다.

이글턴의 신학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에 있는 주제이다. 그는 “비평가의 진정한 임무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 순간 순간이 언제라도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좁은 문이라는 벤야민의 말이 문자 그대로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불시에 우리를 덮치는 것이야말로 미래가 곧잘 하는 일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비평가의 임무를 사유하는 것, 그것은 도달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는 한 방법”(Task 103)이라고 말하였는데 신학에 대한 그의 논의는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는 한 방법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매순간 순간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치열하게 사유하고 이들에게서 하나의 흐름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그의 노력과 열정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신념적 주체행위의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동국대)

■ 주제어

테리 이글턴, 혁명적 신념, 주체, 윤리, 신

■ 인용문헌

- 김겸섭. 「비극적 인본주의자의 신앙고백—이글턴의 『신을 옹호하다』. 『현대사상』. 14호(2014): 159-177. Print.
- 마르크스, 칼. 「헤겔 법철학의 비판을 위하여」.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권』. 김세균 감수. 서울: 박종철 출판사, 1997. Print.
- 바디우, 알랭. 『사도 바울: 제국에 맞서는 보편주의의 윤리를 찾아서』. 현성환 옮김. 서울: 새물결, 2008. Print.
- 지젝, 슬라보예. 『죽은 신을 위하여: 기독교 비판 및 유물론과 신학의 문제』. 김정아 옮김. 서울: 길, 2007. Print.
- _____.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박정수 옮김. 서울: 그린비, 2009. Print.
- 최경환.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과 공공신학」. 『기독교철학』. 19권(2014): 189-221. Print.
- Eagleton, Terry. *Holy Terror*. London: Oxford UP, 2005. Print.
- _____. *Reason, Faith, and Revolution: Reflections on the God Debate*. Ed. Matthew Beaumont. New Haven: Yale UP, 2010. Print.
- _____. *The Task of the Critic: Terry Eagleton in Dialogue*. London: Verso, 2009. Print.
- _____. 「신념과 근본주의」. Web. 25 November 2015.
<<http://virtuepeak.tumblr.com/post/1075045959>>
- _____. 『반대자의 초상』. 김지선 옮김. 서울: 이매진, 2010. Print.
- _____. 『악』. 오수원 옮김. 서울: 이매진. 2015. Print.
<http://blog.jinbo.net/simppo/76> Web. 26 November 2015.

■ Abstract

A Critical Reading on Eagleton's Reflection on the God, Ethics and Faith and the Problem of an Ideologic Subject

Jeong, Youn-Gil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Eagleton's assertion for revolutionary faith in opposition to the liberal humanism whose ignorance of faith in God yields a politics of capitulation to the status quo. He demolishes what he calls the superstitious view of God held by most atheists and agnostics and offers in its place a revolutionary account of the Christian Gospel. On the other hand, he launches a stinging assault on the betrayal of this revolution by institutional Christianity. He argues that humanity is in a desperate situation largely of the West's making. In a world where reason and faith are increasingly polarized, they are pushed to their extreme forms: rationalism and fideism. He suggests we need to foster conditions in which a reasonable kind of faith can flourish in order to reclaim the kind of transformative and revolutionary potential of early Christianity. Neither politics nor culture offers a way out of the crisis, but theology, with its critical contemplation of the nature of humanity and humanity's future, may suggest answers to some of the very problems it helped to create. As a result, I think his faith involves the affirmation that reality is, and therefore ultimately can be beautiful, free of all disfiguring injustice.

- 신, 윤리, 신념에 대한 이글턴의 성찰과 이데올로기적 주체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읽기 | 정윤길

■ Key Words

Terry Eagleton, revolutionary faith, subject, ethics, God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5년 12월 4일 ○심사일: 2015년 12월 18일 ○게재일: 2015년 12월 31일



베누티의 이국화로 본 김지영의 번역 텍스트

Please Look After Mom :

문화특정어를 중심으로

조 숙 희

1. 들어가는 말

베누티(Venuti 1995: 1장)에서 지적되었듯이 ‘유창성’(fluency)은 영어권 번역 전통에서 번역의 최우선 가치로 이어져오고 있다. 번역물이 번역이 아닌 바로 원작으로 보이는 착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영어 원작처럼 유창하게 읽히는 번역물들이 미국 번역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영어 번역 텍스트 *Please Look After Mom* 또한 유창성의 이념 하에서 번역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Please Look After Mom*의 재미교포 번역자 김지영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번역할 때 영어로 쓴 것처럼 읽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영어로 쓰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것은 잘 드러나고 있다. 이의 서평을 분석한 김영신(2012: 76) 또한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의 국내 서평과 해외 서평은 ‘유창하고 투명하며 매끈한 번역’을 높이 평가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인 경향을 보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유창성이 번역의 자국화 이론으로 환치되었는지 박철우(2014: 182)는 신경숙의 영어 번역 텍스트 *Please Look After Mom*에 대해 “자

국화 전략으로 해외 무대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비록 유창성이 자국화 이론의 중심에 있다고 할지라도 본 논문은 번역의 유창성이 외국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문화적 차이가 번역물에서 번역권 자민족중심주의 문화에 귀속 또는 동화되거나 제거되는 것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번역의 이국화를 주창한 베누티(2006: 26)는 “번역이란 근본적으로 자민족중심적인 활동이다”며 “번역의 기능은 바로 외국 텍스트를 자국의 것으로 동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조속희, 조의연 (2013)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문화 특정어와 같은 요소는 번역에서 자민족중심으로 귀납되어 목표 텍스트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¹⁾

이상원(2011)에서 지적되었듯이, 이국화, 자국화는 양자택일의 번역 전략은 아니다. 그러나 번역이 유창성의 이념 하에 자국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번역자가 목표문화에 자민족중심주의에 일탈되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나타낸 요소가 존재하는가 여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베누티의 이국화 행동 지침에 기반하여 *Please Look After Mom*에 나타난 이국화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다. 베누티의 이국화는 단지 원천 텍스트를 목표 독자에게 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시한 이국화의 행동 강령에 따라 번역자가 서구 중심주의 문화적 담론에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문화적 표류로 목표 텍스트 독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번역이 실행되었는가를 말한다.

2절은 베누티에서 논의된 유창성을 중심으로 자국화, 이국화 논의를 할 것이며 3절은 *Please Look After Mom*에 나타난 이국화 요소를 논의할 것이다. 4절은 결론이다.

1) 베누티(1995)에게는 비영어권 원천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유창성의 이념 하에 제거하려는 시도는 영어권 자민족 중심주의의 폭력이며 이는 번역자가 저항해야 하는 대상이다.

2. 영어 번역 텍스트의 이국화 번역 전략

베누티(1995)의 『번역사의 불가시성(*The translator's Invisibility*)』에서 번역의 자국화 방법과 이국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²⁾ 앵글로-색슨의 영어권 번역의 역사에서 번역 작품이 원작처럼 읽히는 영어의 유창성(fluency) 중심주의를 영어권 자민족중심주의의 폭력으로 간주한 그는 번역문에서 번역자의 존재가 드러나는(visible) 이국화 전략을 통하여 목표 문화권 독자들로 하여금 두 문화간의 차이와 번역자의 존재를 인식시켜야 한다 (Venuti 1995: 17-18). 베누티는 자국화와 이국화 번역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domesticating method, an ethnocentric reduction of the foreign text to target language cultural values, bringing the author back home, and a foreignizing method, an ethnodeviant pressure on those values to register the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 of the foreign text, sending the reader abroad (Venuti 1995: 20).

자국화 번역 전략은 원천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언어적, 문체적 특성을 목표텍스트 독자들의 자민족 중심의 가치로 환원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번역작업은 번역물이 영어권 원작처럼 읽히게 되어 번역물이 번역물이 아닌 원작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한

2)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번역의 두 가지 방식으로 자국화와 이국화가 제시된 것은 1813년 독일의 슈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이다. 그에 따르면, “(번역의)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저자를 가능한 본래 자리에 가만히 둔 채 독자들을 저자 쪽으로 끌어오든지 아니면 독자들을 본래 자리에 가만히 두고 저자를 독자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다”(Lefevere 1977: 74, Venuti 1995: 20 재인용). 여기에 베누티는 전자를 이국화(foreignization) 그리고 후자를 자국화(domestication)라고 불렀다.

편, 이국화 전략은 원천텍스트에 나타난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목표텍스트에 포함시켜 목표텍스트의 문화적 가치에 일탈된 것으로 자민족중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국화 번역전략은 번역텍스트를 영어권의 목표문화권 독자들에게 낯설게 함으로써 번역자의 존재는 가시화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누티의 이국화 전략은 번역가가 영어권의 문화 패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문화적 혁신과 변화의 촉진이라는 목적(베누티 2006: 322)을 이루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³⁾

그는 영미문화권 내의 자민족 중심주의의 번역관행에 대한 후기식민주의 입장을 취하며 번역자는 이에 대항하는 이국화 전략을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한 행동요청(call to action)을 번역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번역가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주변화시키거나 자신들을 착취하는 문화적, 경제적, 법적 요소들이 개선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본다. 텍스트와 관련해서는 도착어 문화권에 주변적인 외국 문학 텍스트를 선택하여 이를 목표어 문학의 정전화된 담론으로 투명하게 번역하거나 이와는 달리 도착어 문화권에서 정전화된 외국 문학 텍스트를 선택하여 이를 고어나 비속어 등의 주변적인 담화전략을 써서 번역하는 것이다. 후자에 나타난 주변적인 담화전략은 이국화를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국화는 유창성과 투명성을 수반한 번역전략이며 이는 곧 도착어 문화권 독자들에게, 한영 번역 상황의 맥락에서는 영어 독자들에게 영어 원전처럼 읽혀서 지적 해독력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번역을 말한다. 이를 역으로 뒤집어 말하면, 자국화 번역전략에 대립된 이국화 번역전략은, 영어로 번역된 텍스트의 경우, 영어권 문화 담화에서 이탈(deviation) 또는 표류(dérive)를 유발하여 외국 텍스트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담화적

3) 이상원(2011)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국화와 자국화 논의가 베누티의 이러한 후기식민주의 관점에서 쓰여진 사회 정치적 이념을 간과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상원은 국내에서의 이국화 자국화 연구는 마치 이 두 요소가 양자 택일의 전략으로 잘못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변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⁴⁾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Translators committed to changing their cultural marginality can do so only within the codes that are specific to the target-language culture. This means limiting discursive experiments to perceptible deviations that may risk but stop short of the parodic or the incomprehensible, that release the *dérive* of cultural discourses in the target language (Venuti 1995: 311).

우리는 다음 절에서 『엄마를 부탁해』의 영어 번역 텍스트 *Please Look After Mom*의 번역 서평 또는 번역자의 언론 인터뷰에 나타난 이국적 요소와 영어 번역 텍스트에 나타난 영어와는 다른 담화적 변이 또는 이탈 요소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3. *Please Look After Mom* 텍스트의 이국화 요소

앞서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번역자 김지영은 『엄마를 부탁해』의 영어 번역 텍스트 *Please Look After Mom*의 근본적인 성공 요인을 “번역서 같지 않은 자연스러운 번역”에 두고 있다. 이는 번역자 또한 앵글로색슨 영어권 번역 문화에 부합하는 유창성⁵⁾ 성취를 번역의 우선 순위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유창성의 자국화 전략 이면에는 이국화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이 보여진다.

번역서로 선정된 한국 문학 작품 『엄마를 부탁해』는 도착 언어 문화권인 영어권 문화에서 정전이 아닌 주변부의 문화적 위치에 놓여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 문학 사회에서는 주변적 위치에 속

4) 물론 베누티(Venuti 1995: 311)는 여기에 조건적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담화적 변이들은 도착어 문화권의 부호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독성의 범위를 넘어선다든지 패러디의 수준에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한 작품 또는 문학이라는 것이다. 김지영은 영어권 문화 내에서 한국문학 작품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대다수 미국인은 우연하게나마 한국 소설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미국인들은 번역서 읽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 전체 출간도서 가운데 문학 번역서는 1%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한국 작가는 말할 것도 없이, 아시아 작가의 출간 사례가 얼마나 적은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주변적 문학의 위치에 있는 『엄마를 부탁해』를 “애초부터 영어로 쓰여진 글처럼 읽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번역자는 이를 위해 영어권 독자들이 선호하는 짧은 문장으로 “미국인의 기준에 맞게 본문을 정돈한다”는 것이다.⁵⁾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영어 원어민에게 읽게 함으로써 애초에 영어로 쓰여진 글처럼 번역한다는 이른바 원문처럼 읽히는 번역서의 환영이 이 번역 텍스트에 들어있다. 한마디로 영미 도착 문학권에 주변적인 작품을 선정하여 이를 도착어인 영어 문화권에 정전화시키는 전략이다. 이는 다름 아닌 이국화 전략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번역 텍스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주변적 지위의 작품을 정전화시킨 번역 텍스트 *Please Look After Mom*에도 도착어인 영어 담론 문화에서 이탈된 담론적 변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국적 번역 전략의 실험적인 예들을 *Please Look After Mom*

5) 이 입장은 번역자 김지영의 입장이다. 한 심사자가 지적하였듯이, 작가에 따라, 장르에 따라 문장의 길이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김지영의 입장으로 『엄마를 부탁해』의 번역을 이러한 문장 규범에 맞추어 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아래의 예가 보여주듯이 출발어 텍스트의 한 문장이 영어 도착어 텍스트에서는 세 문장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표현되고 있다.

ST: 술에 취한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으나 안에서 문을 여는 기척이 없었다.(133)

TT: He is drunk. He gets off the elevator and presses the doorbell. No response.(126)

에서 볼 수 있다.

먼저 길이나 넓이를 표시하는 도량 단위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제는 한국 현대 문화에서도 고어로 여겨지는 길이의 단위인 ‘리’나 이제는 정부도 더 이상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면적 단위인 ‘평’을 번역된 소설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

ST: 보증금 500내면 15만원에 가능.

8평. 싱크대 기본. 화장실에 샤워시설 있음.

남산이 가까워 운동하기 좋음.

20분 안에 강남갈수있음. 종로 10분. (95)

TT: 150,000 WON PER MONTH POSSIBLE WITH A DEPOSIT OF

5 MILLION WON.

8 *pyoung*, standard sink, shower in bathroom.

Close to Namsan, good for exercising.

Can get to Kangnam in 20minutes,

Chongno in10 minutes. (89)

지명을 음차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일반화된 이국화 번역전략이다(조숙희, 조의연 2013). 이를 도착언어인 영어에서 이탈 또는 표류를 불러일으킬 만큼의 번역 결과는 아니다. 언어맥락으로 보아 ‘Kangnam’이나 ‘Chongno’가 지명으로 해석되며 화폐의 단위인 ‘won’ 또한 문맥 상 한국 화폐 단위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문화에서 세를 놓는 아파트나 집에 대한 광고에 쓰이는 일차적 정보는 면적 대신 ‘one bedroom’ 또는 ‘studio’식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서 쓰이는 면적 단위 ‘*pyoung*’은 미국 문화의 담화 방식에서 이탈된 것으로 미국 자민족중심주의에 문화적 압력을 가하는 외국 텍스트의 문화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예는 거리 단위 ‘리’에 해당된다.

ST: 진뽀. 그곳은 당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십여리 들어가는 산골이었다. (157)

TT: Chinmoe, it was a mountain village about *ten ri* away from your village. (150)

ST: 방앗간은 다리 건너 사오리는 되는 곳에 있었소이. (226)

TT: The mill was *four or five ri* away, across the bridge. (18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는 현대 한국 문화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거리 단위이다. 출발 텍스트 문화에서는 거리 단위로 ‘킬로미터’나 ‘미터’가 사용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마일’이며 영국에서는 ‘킬로미터’/ ‘미터’가 통용되고 있는 문화 현실과 번역자가 “애초부터 영어로 쓰여진 글처럼 읽혀야 한다”는 번역관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통적인 단위로 이제는 고어에 가까운 ‘리’를 원천 텍스트에 나타난 그대로 음차하여 번역하였다는 것은 미국 독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의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일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리’의 번역 방식은 번역자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미국 독자들에게 외국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이국화 번역 방식으로 이국화 전략에 부합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술’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위어 ‘rice wine’으로 번역자 김지영에 의해서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지영은 이를 도착 텍스트에서 한국 문화특징어 ‘막걸리’로 부연하여 ‘술’을 표현하고 있다. 아래의 예가 이를 보여준다.

ST: 쟁기질을 해주고 얻어먹은 술의 힘이 당신을 거기까지 가게 한 것이었다. (183)

TT: It was the rice wine that had brought you there, the *makgoli* you had been given after you helped a neighbour plough his fields. (166)

위의 텍스트에서 술을 마신 주체는 엄마의 남편이다. 소설에 나타난 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보아 남편이 마신 술은 막걸리일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번역자는 ‘술’을 술의 한 종류인 ‘rice wine’이라고 번역하고도 부연하여 이를 이태릭체로 ‘the *makgoli*’라고 표현함으로써 도착어 문화권에 다언어적 요소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도착어 문화권 독자들에게 일종의 문화적 변이 형태로 인지될 수 있는 문화적 담화의 표류(*dérive*)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이 원천 텍스트 소설의 다른 부분에서 나타난 ‘술’이 영어 도착 텍스트에서 이와 같이 하위어로 번역되거나 동시에 ‘소주’와 같은 한국의 문화특정어가 부가되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를 보면 ‘술’은 영어의 어법을 따라 ‘drinking’의 일반대화함축으로 이해되어 전달되고 있다.

ST: 다시 들으니 딸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술을 마신 듯했다. 혀가 말릴 때나 나오는 소리였다.
술 마셨나?
…… 몇잔요.
이 첫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던 말인가?(194)

TT: Your daughter's voice sounds strange. As if she has been drinking. It sounds as if she's slurring her words.
‘Have you been *drinking?*’
‘Just a couple of drinks.’ She's about to hang up.
Drinking until these morning hours?(178-179)

이와 같이 원천 텍스트 내에서 ‘술’이 여러 번 발생하여도 이를 하위어 ‘rice wine’으로 번역하고 이를 한국 문화 특정어인 ‘makgoli’로 부가하

여 표현한 것은 서구문화에 외국문화를 드러내려는 이국화 번역 방식의 결과이다.

*Please Look After Mom*을 미국에 출판하게 된 크노프 출판사 상임이사 쏜튼씨는 그의 대답에서 “엄마가 요리해준 음식의 맛이나 냄새” 같은 묘사가 인상적이라고 언급하듯이 『엄마를 부탁해』는 한국 문화, 특히 한국인들의 일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음식에 대한 묘사가 아주 구체적이며 인상적이다.

ST: 네가 P시의 어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살아 있는 문어를 엄마와 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둔 채 아주 오래전처럼 음식을 애써서 만들지 않은 소박한 밥상 앞에 마주앉았다. 물김치와 두부조림과 멸치볶음 그리고 구운 김을 반찬으로 조용히 밥을 먹었다. (38)

TT: You left the live octopus you'd bought at the Pohang fish market in the kitchen, since neither you nor your mom knew what to do with it, and you sat across from Mom at the table like old times, quietly eating a simple meal of rice and *panchan*, side dishes of water kimchi, braised tofu, sauteed anchovies, and toasted seaweed.

위에서 보여주듯이 밥 반찬으로 물김치, 두부조림, 멸치볶음, 구운 김은 전형적인 밥 반찬이다. ‘반찬’을 그대로 음차하여 외국어 표현임을 번역 텍스트에서 이태릭 체로 쓰고 있으며 아울러 이에 상응하는 서구 문화어인 ‘side dishes’로 그 의미를 명시하고 있다. 번역자는 이 경우 ‘반찬’을 음차로 표현하지 않고 서구 문화 표현 ‘side dishes’로 쓸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반찬’을 음차한 것은 서구중심주의 문화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반찬’이라는 표현은 원작 텍스트 74쪽에서 다시 2회 반복하여

쓰이고 있다. 아래의 ST 인용이 이를 보여준다.

ST: 반찬이라도 뭐 다른 것을 만들 여유가 있음 덜했겠는디 밭에 심은 것이 똑같으니 맨 그 나물에 그 반찬. (74)

TT: It might have been better if I could have made different side dishes, but since the same things were planted in the fields, I always made the same *panchan*. (63)

이에 상응하는 도착 텍스트를 보면, 처음의 경우는 ‘side dishes’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panchan*’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유창성과 이국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번역 텍스트의 혼종성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창하게 번역되었지만, 외국 문화의 이질성이 드러나는 한국 문화 특정어 표현이 번역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번역 사례들은 서구 자민족중심주의에 도전하는 그래서 서구 독자들에게 문화적 압박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문화적 담화의 표류 요소이며 이는 베누티의 이국화 번역 전략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원천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 문화의 일상성이 도착 텍스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서구 독자들에게 낯선 외국 문화가 이국화로 드러나는 경우를 *Please Look After Mom*에서 볼 것이다.

원작 『엄마를 부탁해』는 전통적인 한국 가족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가족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서구문화중심주의 독자들에게는 낯설음이다. 한 번역 서평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Elegantly translated by Chi-Young Kim, the novel retains a strong Korea feel, filled with beguiling particulars of a culture alien to most Western readers (Robert Weibezahl 2011).

이러한 외국 문화의 낯설음이 한편으로는 서구 독자들에게 흥미로움으로 작용한다. 『엄마를 부탁해』를 미국 번역 시장에 진출시킨 크노프 출판사의 상임이사 쏘튼씨가 언급한 내용을 다시 보면 아래와 같다.

이 책이 한국의 일상을 구체적이면서도 진솔하고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맘에 든다. 서울의 풍경이라든가, 엄마가 요리해준 음식의 맛이나 냄새, 추석에 대한 묘사 같은 것 말이다.

즉, 낯선 외국 문화, 즉 낯선 한국 문화에 대한 묘사는 이국적이서 낯설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서구 독자들에게는 매력적이다.⁶⁾ 한국 문화에서 엄마와 음식은 한국 독자들에게 동일한 기억 속에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원천 텍스트에 나타난 엄마와 관련된 음식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분명 서구 독자들에게 낯선 것이며 번역 텍스트에서 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서구 독자를 원천 텍스트에 데리고 간 것은 분명 서구중심주의 문화에 대한 압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보기로 하자. 원천 텍스트 53쪽에서부터 56쪽에 이르기까지 부엌에서 엄마가 음식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음식이 특별히 준비되는 제사, 설, 추석 명절이 구체적으로 소설 속에서 언급되고 있다. 서구 문화에 이국적인 흥어가 제사, 설, 추석 명절 음식으로 등장한다. 이 부분을 보기로 하자.

6) 이러한 서구 문화와 대비되는 한국 문화가, 특히 한국의 가족 문화가 서구 독자들에게 흥미 이상으로 매력적이라는 것이 또 다른 서평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아래의 예가 그것이다.

The other attraction of Please Look After Mom is its portrayal of Korean life. I truly, truly loved the descriptions of the Korean festivals and how they are very much based around honouring the family unit. In the West, we pickup a greeting card (maybe); in Korea, there is a celebration of food and togetherness and shard happiness. (posted 17th April 2011 by Jubert O'Hearn)

ST: 엄마의 집이 있는 고장 사람들의 제사상엔 항상 홍어가 올랐다. 봄제사와 여름제사 두 번, 겨울제사 두 번을 거쳐야 엄마의 일년이 갔다. 설과 추석 명절 두 번까지 합하면 엄마가 우물에 주저앉아 껍질을 벗겨야 하는 홍어는 일곱 마리였다.

이에 상응하는 아래에 인용된 번역 텍스트는 이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TT: People from Mother's region always put skate on their ancestral rite table. Mother's year was structured around the ancestral rite she held, once in spring and twice each in summer and winter. Mother had to sit next to a well and clean seven skates each year, if one counted New Year's and Full Moon Harvest.

한국의 어느 특정 지방에서 제사 때나 설 그리고 추석 때에 홍어가 음식으로 쓰이고 또한 엄마의 한 해는 이 음식을 장만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엄마에 대한 추억은 분명 외국인에게 낯설고 흥미로운 것인가 보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선의 종류 그리고 콩의 다양한 종류가 음식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조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묘사는 한국 독자들에게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며 서구 독자들에게는 낯선 것이다.

ST: 엄마에겐 고등어나 쫄면이나 갈치나 통통어 '비린 것'으로 통했다. 콩을 부를 때 강낭콩, 메주콩, 흰콩, 검정콩, 일일이 가려 말해주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엄마는 생선이 생기면 회를 치지도 굽지도 조리지도 않고 무조건 소금에 간했다가 찌먹었다. 고등어나 갈치도 고춧가루와 마늘과 풋고추를 넣은 간장양념을 해서 밥물에 찌다.

TT: To Mother, mackerel and pike and scabbard fish were all just fish. But she differentiated between types of beans: kidney beans, soybeans, white beans, black beans. When Mother had fish in her kitchen, she never made sashimi or broiled or braised it, but always salted and steamed it. Even for mackerel or scabbard fish, she made a soy-based sauce with red-pepper flakes, arlic and pepper, and steamed it on a plate over rice that was cooking.

결국 서구 독자들에게 이 번역 텍스트가 아무리 원작처럼 유창하고 투명하게 번역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학 작품이 외국 번역 소설이며 서구의 자민족중심의 문화와는 다른 외국 문화임을 소설 속의 엄마와 음식에 대한 기억이 잘 드러내고 있다.

4. 맺음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영어 번역 소설 *Please Look After Mom* 는 번역자 김지영이 언급하였듯이 분명 서구 독자들에게 영어 원작처럼 읽히게 하려고 유창성이 우선시 되어 번역되었다. 그리고 외국 서평에서도 확인되듯이 유창하게 번역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번역 텍스트의 유창성 자체가 자국화 번역 전략만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베누티(1995: 5장)가 언급하였듯이 이국화의 번역 전략은 도착 텍스트, 즉 영어 문화권 부호 내에서 서구 독자들에게 문화적 담론의 변이 또는 표류를 시도하는 것이다.

신경숙의 원작 『엄마를 부탁해』는 서구 문학 전통에서 볼 때 주변부에 속하는 소설이다. 베누티에 따르면 서구의 정전에 속하지 않는 주변적인 외국 문학을 서구의 담화에 맞게 번역하는 것은 이국화 번역 전략에 속한

다. 김지영이 밝혔듯이 원작의 번역이 서구 독자들에게 유창하게 읽히게 하기 위하여 서구 독자들에게 익숙한 단문으로 번역을 한다든지 하는 전략은 미시적으로는 자국화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주변 문화에 대한 이국화 전략이다. 우리는 김지영의 *Please Look After Mom* 번역에서 서구 자민족 중심의 문화에 도전을 하는 서구 문화적 담론의 표류들을 문화특정어 번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술’을 언어적 번역으로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 하위어 ‘rice wine’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makgoli’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 서구 중심주의 문화에 대한 압력임에 틀림없다. 이와는 다르지만 원천 텍스트의 ‘반찬’은 영어 표현에서도 언어적 해석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 ‘side dishe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 주 모티브인 엄마의 기억에 중요한 요소인 음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음차로 표기한 것은 분명 외국 문화를 서구 문화에 드러내기 위한 전략의 결과로 보인다. 즉 이국화 번역 전략의 결과이다. 아울러 한국 문화에서도 이제는 고어인 거리 단위 ‘리’를 도착 텍스트에 그대로 음차한 것도 서구 중심주의 문화에 대한 문화적 표류이다. 끝으로 우리는 원천 텍스트에 나타난 엄마의 기억의 중요한 부분인 음식 문화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서구 독자들에게는 분명 낯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착 텍스트에 그대로 묘사한 것은 서구 독자들을 원작에 데리고 간 번역 방식으로 서구 독자들은 *Please Look After Mom*을 읽으면서 외국 문화에 노출되어 번역 소설을 읽는 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분명 이것은 서구 문화에 대한 압박으로 이 소설이 번역 소설임을 서구 독자들은 인지할 것이다.

(신한대)

■ 주제어

이국화, 유창성, 담화적 표류, 문화특정어, 『엄마를 부탁해』

■ 인용문헌

- 국민일보 (2011),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미 열풍 주역 번역가 김지영 씨가 밝히는 비법」, 2011년 4월 15일.
- 김영신 (2012), 「번역 서평 분석을 통한 번역사의 비가시성 연구—『엄마를 부탁해』의 서평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14(2): 63-78.
- 해외출판정보 (2011), 「미국 크노프 출판사—미국을 울린 ‘신경숙’의 목소리 『엄마를 부탁해』」
〈http://opia.klti.or.kr/news_view.jsp?g_cd=0&ncd=267〉
- 박철우 (2014),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에 나타난 ‘자국화(自國化, domesticating)’ 전략 분석」, 『한국문예창작』13:2, 181-197.
- 베누티, 로렌스 (1998), 임호경 역 (2006), 『번역의 윤리-차이의 미학을 위하여(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New York: Routledge), 서울: 열린책들.
- 신경숙 (2009), 『엄마를 부탁해』, 창비: 서울.
- 연합뉴스 (2011), 「〈인터뷰〉 『엄마를 부탁해』 번역 김지영씨」,
<http://www.yonhappnews.co.kr/bulletin/2011/04/10/0200000000AKR20110410044100005.HTML?did=1179m>.
- 이상원 (2011), 「베누티의 이국화와 자국화, 그 적용을 위한 고찰」, 『T&I review』 1: 113-125.
- 이형진 (2011),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영어 서평에 나타난 문학번역 평가의 관점」, 『세계문화비교연구』37집, 303-328.
- 조숙희·조희연 (2013), 「글자번역 형식과 문화특정어 용례분석: *Sun-i Samchon*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14(5): 241-262.

- O'Hearn, Hubert. (2011) Please Look After Mom – By the Book Reviews. In <http://bestofohearn.blogspot.kr/>
- Shin, Kyung-Sook. (2011) *Please Look After Mom*, New York: Alfred A. Knopf.
- Venuti, L.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A history of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 Weibezahl, Robert. (2011). The Price of a mother's love. In <http://bookpage.com/columns/11229-price-mothers-love>.

■ Abstract

Kim Chi-Young's translated English text
Please Look After Mom :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Venuti's foreignization

Cho, Sookhee (Shinhan University)

Shin Kyoung-Sook's *Please Look After Mom* translated by Kim Chi-Young has been well received in the Western countries for its fluency in English translation as well as its universal theme, being a mother for 'the inequitabl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 and her children.' In addition, the story also has been well reviewed for retaining "a strong Korean feel, filled with beguiling particulars of a culture alien to most Western readers" (Weibezahl 2011). For its fluency in English, the translated text has been analyzed as if it was translated by domestication translation strategy (김영신 2012, 박철우 2014).

However, in this paper, it will be shown that the English translated text has many foreignizing aspects which are cultural pressures on the Western readers, being derive of Western discourse. The translated text contains Korean archaic forms such as 'ri' and culture specific items like 'makgoli,' 'pyoung' and 'panchan.' According to Venuti (1995), if marginal literary works are translated into English, being translated to resemble the Western canonical discourse forms, it is taken to be a foreignization translation strategy. The Korean original 『엄마를 부탁해』 is not a

canon from the Western perspective; it is marginal to the Western literary world. But it has been known its being fluent in English.

It is concluded that being fluent in English translation does not entail that the translated text is a result of domestication. The translated text *Please Look After Mom* by Kim Chi-Young is a hybrid of domestication and foreignization.

■ Key Words

foreignization, fluency, discourse *dérive*, culture specific items, *Please Look After Mom*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5년 12월 4일 ○심사일: 2015년 12월 18일 ○게재일: 2015년 12월 31일



Study on the Time Consciousness of Wordsworth in the “Tintern Abbey”

최창영

I

The question of time exploration has been interpreted and defined in a various way until now, but to define it as simple is not so easy problem. Though the understanding of time by the ancients stayed at the objective view focusing on the human beings and the changes in the movement of the universe, the period after medieval times can be said to be the time trying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meaning of time mainly from a religious and theological perspective.

Especially for Aurelius Augustine, the writer of “Confessions”, starting from his discussion about time in the frame of religious and theological background and getting out of the physical and classical discussion about time, such as the linear movement of a clock or a calendar, and focusing on the human psychology as a subject of a perception and experience, he opened a new chapter of time discussion by introducing the psychological understanding and approach¹⁾.

1) M.H. Abrams, *Natural Supernaturalism*, W.W. Norton & Company,

In modern times, the study on time broke from the function of time itself measuring the external events instrumentally or the time relationship of linear meaning which divides past, present and future mechanically, and it has moved to the organic time-theory with epistemolog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that they are combined with each other dynamically in the mediated function of human consciousness. Likewise, as for the change in the discussion and consciousness about time, its essence has been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contemporary aspects and critical mind.

However, the differences in time-consciousness, despit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pproach path, have a common voice in that they are conscious of time as a universal human problem and a frame to understand the human being and the world. That is, the direction of the discussion is moved from the objective exploration of time theory of “what is time?” to the experienced time of “how can humans experience time? And how do they mean their experience and organize it consistently?”

The world of specific and ordinary time experience like this is made in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man, the subject to be conscious, and the object, and it tells that the power to understand and reconstruct its own experience actively, in other words, the consciousness of time, is always placed,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in human consciousness.

This means that the human consciousness is not disconnected one but connected in the concept of time and space like a life, and it has

1971, pp.46~48.

the same meaning to the concept of continuity by Bergson which understands past, present and future as an organic whole thing. According to him, there is no the fixed thing or the stationary thing inside of time but only the process of change and creation like a constantly flowing river in the inner self.

In this research, it is to find how Wordsworth, who had raised a question about the origin of time and life continuously, developed the stages of consciousness, which is the mental growth and self-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in the “Tintern Abbey” and to understand the result of his consciousness.

II

The often raised issue during the discussion about the poems of Wordsworth is that his subjective consciousness gotten from the meeting with nature has passed through what kind of process and development phase. The product of poet's imagination is a poem, but only with poetic imagination, the recreation process of nature to reinterpret the object and inspire the dynamic life force and spirit and the poetics to interpret poem, nature and man in the same line have the parts which we cannot understand actually through general sensibility.

Therefore, as for his unique world of poem, we're just satisfied with the representation of eclectic words, such as originality or intuition, which have a little bit of general and comprehensive meaning. Thus, in order to understand his poetic and philosophical

thoughts more precisely, we have to trace the whole stage of consciousness between subject and object, that is, the phases of his awareness toward the object according to the lapse of time, and to follow which process they have passed through, what was the reason and how the mutual exchange between subject and object was made in order to find out what his consciousness of time and space was like ultimately.

The poetics of the “Tintern Abbey”, which is understood as a poem escaping from the classification of a simple romantic nature poem but with the character of philosophical meditation poem, starts from the point that he revisited the Tintern Abbey five years after his first visit and confirmed two different selves by the passage of time and recognized a new nature.

Five have past; five summers, with the length
Of five long winters! and again I hear
These waters, rolling from their mountain-springs
With a soft inland murmur. (Tintern Abbey II, 1-4)²⁾

Abrams interprets his poetic world travelling back in time as a try to call ‘the first creative sensibility’ searching for the continuity between the separated selves due to the time-shift³⁾. So the water sound from the mountain that he revisited seems to have the inner power more than a delivery of beautiful landscape. In the introduction, his five years of leaving seemed to be longer than the actual

2) Ernest De Selincourt, *Wordsworth Poetical Works*, Oxford UP, 1981.

3) Abrams, p.75.

calendar days and the view of the poet and abbey was expressed as a strict time pressure differently from the past. It is because all things which have a repeated structure of creation, growth and distinction are ruled by the intervention of time and belong to time in the end.

When we talk about the essence of time generally, we only discuss about the movement of linear or physical time and its external result. But a time consciousness is an issue directly affecting the human sensibility or mental by the lapse of time. Therefore, the change in human consciousness by the lapse of time is a subjective thing and only the question of inner consciousness which is a self exploration through the passage of memory remains as an important problem to be noted. Thus, Wordsworth focuses on the life force of nature as an origin of poetic inspiration and mental growth and tries to explore one life principle in the spirit of nature recognized by him. Then, we are to find out how Wordsworth recognizes the object.

According to Bergson, there are two ways of recognizing the object. One thing is to go around the object and the other is to go inside the object. The former is to reach for the relative recognition and it is called as an analysis. The latter is to reach for the absolute recognition as much as possible and it is called as an intuition. Intuition means to see from the inside, and we cannot see from the inside without entering the object. Moreover, to see from the inside needs to feel inside the object by being the object for itself.

In case of Wordsworth, he is to see through the inside of object with his rich sensibility and poetic sense which he inherited from his beautiful hometown's nature, therefore, the nature is an existing

object and a living subject at the same time. He feels the river, lake, field, rocks and all things in nature as a living and breathing creation which delivers the mysterious secrets of nature instead of an object giving simple pleasure, and he has a special interest and affection in the beautiful nature, such as the rainbow which made his heart leap, the songs of birds and even a flower beside the lake, as well as the change in time and season. Nature gave the poet a sense of awe as well as a sense of beauty to taste the beautiful things, and this kind of past memories and the coarser pleasure and happiness of his childhood that he was romping around in the nature healed his wounds when he was suffering from the pain and frustration in the real world after he became an adult or supplied the spiritual hometown awakening his poetic sensibility which has been slept in the worldly anguish.

Then now, what is the reason that he felt the existence like a living God in the object of nature and see it as an animistic or pantheistic existence? It seems because the circumstances where he was born were mixed with his natural personality. First, Wordsworth was born and grown in Cockermonth, the northern area of England, where the beautiful lake and the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are, and he could enjoy the nature like an animal as much as he wanted.

And since he lost his mother when he was nine years old, he had no choice but to search for his mother's love in the arms of Mother Nature. So I guess that his affection to the nature which was imprinted in his childhood was always shining from the deep inside of his heart and became the soil for his mental growth as a nature poet and the solid foundation delivering the frame of imagination.

Nature implanted a beauty and mystique in the heart of a child to be placed as an existence with a life force rather than a simple external phenomenon.

And he was lucky to meet the excellent works of his former generations, and his father collected a lot of works with a great interest in the English poems and made a little Wordsworth read and recite the poems of Shakespeare, Milton or Spencer. He, who already had known the magic of language through their works, could have the ability to express his emotions and joy experienced by the nature of his hometown with his natural linguistic sense.

The things that he did in his schooldays or the story that he had read the collection of Spencer's poems for hours even when he went fishing with his father tell his character as a poet very well. So the look of nature which he felt is expressed vividly as a living and breathing thing, and even in the landscape that he had played in, the rocks and hills, the frozen lake and the gentle breeze, he had grown feeling the energy of nature that could be said as a movement or a spirit. He could think the nature as a living thing with the pure sense in the childhood like a white paper, and what he accepted was the unconditional and enthusiastic delight from the interchange with nature, instead of an order or thought. However, since this kind of enthusiastic intoxication by the impression of nature comes from the external sense rather than the inner experience, it is strong but insufficient.⁴⁾ So this period is expressed as,

4) John A. Hodgson, *Wordsworth's Philosophical Poetry 1797-1814*, Nebraska, 1980, p.41.

the coarser pleasures of my boyish days,
And their glad animal movements. (II,73-74)

and he see and hear all kinds of flowers and birds' twittering growing in the field of his hometown and the flows of streams or waterfalls with the animal feelings and passions. His sensitive eyes and ears enjoy the feast of nature to the full.

The poet in his childhood who has played in the arms of nature with an animal movement and enjoyed the coarser pleasures indulges in nature passionately like an appetite and accepts the joy and pleasure given by nature as an unrefined raw state. We can accept this period as a stage of an unconditional intimacy with nature or a sensitive identification.

A. Beatty or J. Hodgson who accepts the Locke's philosophy of emotion or Hartley's mnemonic theory divides the stage of mental development of Wordsworth in three stages. The childhood is called as the age of sensation and the youth is divided into the age of feeling and the age of thought⁵⁾.

It seems to be proper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human spirit is not fixed but changed to grow. So, the experience and sense of each stage is being regenerated in a specific place and time for the goal of the achievement of self-consciousness of the poet, with the close and organic connection, and these chains of time are fixed but permanent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times of subjective experience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for the creation of objective time, and each stage is

5) Arthur Beatty, *William Wordsworth*, Madison, 1960, p.67.

circulating inside of consciousness like a cell to make a whole thing. The way to divide the stages of human intellectual maturity by introducing this kind of time concept can be seen often in the modern literature techniques, and it can be compared to the conscious obsession or absorption in time which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ust, Joyce or T. Eliot's literatures⁶⁾.

The subjective time consciousness represented in these modern writers excludes the common time device or concept like a clock or calendar completely and uses visions, dreams, free consciousness and the flow of association to express the psychological obsessions or the time consciousness, or, it expresses the divided consciousness that human has by juxtaposing one event and another event or extending the common time generally.

In the “Tintern Abbey”, the outflow of consciousness through the exploration of past by subjective time concept or reminiscence is shown in a little bit different direction from other writers above. That is, the separated events which appear fragmentarily in the general time concept of the progress of time and the fixed frame of time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The piece of experience, which is often called as the ‘spots of time’ described in his autobiographical growth poem of “*Prelude*” has passed the living organic development in his works and became the separated memory cell implanted in his deep consciousness to make the extended one big whole thing.

This piece of experience, which can be a specific place of nature or a fixed time, and sometimes which means the time of regeneration

6) Abrams, p.87.

with the property of fixed mind, has an association with a specific place or time and the event or memory which affected himself in the past is regenerated with a new energy to evoke the poetic creativity which was barren for a while again.

When he felt the consciousness of crisis as a poet due to the loss by his depleted imagination or the mental anguish by the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from the real society, in the arms of nature that he revisited, these time spots played a role of a revival or a guide confirming himself and awakening his lost responsibility as a poet.

But these pieces of memory, not as an emotional reminiscence simply showing the past memories or time, show the separated self and the deviated space which the poet has forgotten in the lapse of time to him, by reflecting themselves in the present consciousness of poet and together with a dramatic contrast. So these time spots remind the poet of the life force in nature again and make him recognize his role as a poet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G. Hartman, the concept of time spots has a fixedness nature and permanence simultaneously as a creative time and space to make the poet face the revelatory consciousness and is also temporary and integrative⁷⁾. The reason that Wordsworth has this unique concept of time spots is his natural sensibility that he could notice the mysterious spirits in nature since he was a child.

However, the thing that we cannot ignore is that his poetic world is not just a sensitive and mysterious thing to follow the fantasy. Actually, he explores nature with a strict scientific attitude and has

7) Geoffrey Hartman, *Wordsworth's Poetry 1787-1814*, Yale, 1964, p.210.

a different view from the extrasensory world of W. Cowper or Blake who tried to understand nature as a world of fantasy with many folds. First, Wordsworth doesn't express the world of truth or religious insight. Rather than ideological speculation or speculative attitude, everything starts from the realistic beauty. He displays his poetic world describing the beautiful landscape with colors, sound and change with his sensuous words.

The “Tintern Abbey” is started from revisiting the beautiful landscape of Wye valley five years after his first visit. The nature seen through this visual and auditory world is the ‘beauteous form (1,22)’ which provides the consolation and rest to people and it is the object to bring about the ‘sensation sweet(1,27)’. In the beginning of the poem, through the intersection and rhyming couplets of poetic rhythm, the repetition of blue color and the musicality of the initial sound of a word, he expresses the real landscape as it is.

Once again
Do I behold these steep and lofty cliffs,
That on a wild secluded scene impress
Thoughts of more deep seclusion ; and connect
The landscape with the quiet of the sky.
The day is come when I again repose
Here under the dark sycamore, and view
These plots of cottage-ground, these orchard-tufts,
Are clad in one green hue, and lose themselves
‘Mid groves and copses. Once agin I see

These hedge-rows, hardly hedge-rows, little lines
Of sportive wood run wild; these pastoral farms,
Green to the very door, and wreath of smoke
Sent up in silence, from among the trees! (II, 4-18)

In the lines above, we can see the representation about the specific natural beauty and the human harmonious arrangement rather than a romantic and sensitive description of pastoral landscape. Wordsworth describes nature in detail with a scientific attitude as above. Instead of excessive admiration and praise for nature, he shows the realistic minuteness with his affection in the shape of forest, the bushes of grove and the looks of farms and cottages. And by using the contrasting words, such as 'steep cliffs and secluded scene', 'sky and landscape' and 'wood and orchard', he describes the interrelation between human and nature and the harmony through contrast.

The repetition and first sound of hedgerows shows the naturality as if there were a rush overgrown shrubbery, and by arranging the blue color even at a sky, grass of orchard, wood, forest, hedge-rows and threshold in general, it delivers the poet's image seeking peace and relaxation as it is. These lines are the part that the poet, who was exhausted by the bitter experience in the real world, described the landscape of the upstream at the "Tintern Abbey" when he revisited the Wye riverside in July 1798, and it shows the excellent representation starting from the realistic beauty and developing to the world of imagination naturally.

He, who revisited the Wye River remembering the past 5 years of

mental crisis, expressed his ultimate desire through the great landscape as a metaphor of a cave in the next fourth line, and it is also the part to transfer him from the realistic description of nature to the world of thoughts.

With some uncertain notice, as might seem
Of vagrant dwellers in the houseless woods,
Or of some Hermit's cave where by his fire
The Hermit sits alone. (II, 19-22)

In the lines above, ‘vagrant dwellers’ or ‘hermit’ makes a contrast to the words of ‘houseless wood’ or ‘cave with fire’ implying the harmonious world of human and nature. He discovered the image of cave, the original place of life from the wild and realistic looks of nature and induced the imaginary world where human and nature are unified.

If the childhood is a period to get the animal joy and mysterious experience in the simple reaction to nature, the youth represented as ‘an age of feeling (sentiment)’ is a period to be ruled by sense. The poet's spirit which mainly played a negative role to nature in his childhood is changed into the attitude to make an interaction with nature. That was the period that he was captured by the love for nature like a fever, and he sing how much the waterfalls or rocks has captured his sense as follows.

The sounding cataract
Haunted me like a passion: the tall rock,

The mountain, and the deep and gloomy wood,
Their colors and their forms, were than to me
An appetite; a feeling and a love,
That had no need of a remoter charm,
By thought supplied, nor any interest
Unborrowed from the eye. (II, 76-83)

The landscape around the Wye River which he revisited to forget the anguish even for a while stimulates the inside of the poet very intensely. So he experiences to describe four seasons of 'aching joy'(I, 84)' or 'dizzy rapture(I, 85)'. The period of sense in his youth was the time that his passion and sense was following him like anguish and his world of imagination could be developed into the thoughts through sense.

However, in this 'thoughtless youth(I, 90)', the world of 'a remoter charm by thought supplied(II, 81-82)' cannot be found. His intense absorption in his youth was changed into the political desire to support the revolution since he thought the French Revolution as an opportunity to realize his imaginary world in the real world.

The poet in youth thought the French Revolution as a natural principle which should be realized naturally and these philosophies of revolution was connected to the positive hope for humanity. In his poem of 'Prelude', he dreams the coming of his imaginary world as follows.

But 'twas time when Europe was rejoiced,

- Study on the Time Consciousness of Wordsworth in the “Tintern Abbey” | 최창영

France standing on the top of golden hours,
And human nature seeming born again. (Prelude V, 352-4)

Since he revisited France in 1791, he started to be absorbed in the philosophy of revolution in earnest. He believed that the French Revolution could realize the concept of nature that he had pursued, which is his ideals and hopes asked for in nature, in the real world, and due to that, the Revolution was the order of nature which should be realized⁸⁾.

But the Revolution was not made for his expectation and brought about the Reign of Terror losing its own ideals. Since he had a strong confidence in ideal politics, his disappointment and disillusionment couldn't be bigger. Especially when the war between England and France broke out in February 1793, he, who had been back in England in the previous year, had to left his beloved wife Annette Vallon and his daughter Caroline against his will.

He experienced the severe frustration and the mental shock due to his personal sufferings and it is said that he had been in the state of extreme nervousness for a while after he came back to England. He expresses his feeling at that time as follows.

And thus a way was opened for mistakes
And false conclusions of the intellect,
As gross in their degree, and in their kind
Far more dangerous. (Prelude X, 766-769)

8) Paul o, Sheats, *The Making of Wordsworth's Poetry 1785-1798*, Harvard, 1973, pp.105-6.

However, what we have to take notice is not the biographical facts such as his political ideals or passion for the Revolution but what kind of a role the Revolution, which had been the center of his life, played in his continuous life. It is because his passion for the French Revolution implies his interest and affection to the human beings. Therefore, he still had a hope in his mind even in the process that the revolution became a terror and that was the faith in humanity.

We need to think about whether he could be the great poet if the ordinary individual had no confidence in the freedom and creativity of human spirit and if he had no process to overcome the mental crisis. Moreover, that kind of sufferings became the valuable experience to expand his consciousness and the chance to promote the exchange with nature.

Thus, his deviation from the natural world, ironically, brought about the return to nature together with his mental growth through a course of reaction. So we can find that his affection to the human beings was formed naturally from his affection to nature and that the imagination in his mind started shining through the process of self-deviation after he became an adult. And this process can be said as a regenerative circulation or a creative circulation through mental crisis.

And now, we need to think about a few factors which played a decisive role in his recovery from the mental crisis from 1795 to 1797. Actually, Wordsworth didn't explain enough about his recovery process but we can infer the several events as the important factors. First, the inheritance of 900 pounds by his friend R. Calvert who made him out of the economic pressure can be the factor. Wordsworth

settled down in Racedown with this money and became possible to contact nature again and recovered the mental and physical stability.

And the fact that he could settled down with Dorothy is also very important. As an intelligent woman who has an intellectual sharpness and rich sensibility more than her brother, Dorothy has affected his poetic world with more affection than the one of brother and sister. Lastly, to meet Coleridge, according to his words, was the more pleasant and productive thing in his life. We already know that the result of his meeting made the great fruit of “*Lyrical Ballads*”.

Likewise, the present that ‘Nature never betray / the heart that loved her (II, 123–3)’ gave to him when he came back to nature was the ‘healing power’, and nature implied that he was a poet from the first time. In the nature that he revisited after his long-time political and social chaos, he wasn't satisfied only with the simple rest and stability but tried to fill his inner desires.

That is, the confidence in the lost mental world and the process of self-consciousness to recover his creative poetic world were the precious challenges. He knew through his whole life that the mental creativity is made from the intimacy and interaction with nature and also recognized through his experience that, for the impression of nature accepted through sense to be interactive with human spirit, the internal spontaneous creation beyond the passive acceptance of external images is needed. This means that the human spirit does not just belong to sense but it is a positive and creative one. Therefore, the poet who has the mature sense of balance sings the

precious present given by nature as follows.

That time is past
And all its aching joys are now no more,
And all its dizzy raptures. Not for this
Faint I, nor mourn no; murmur; other gifts
Have followed; for such loss, I would believe,
Abundant recompense. For I have learned
To look on nature, not as in the hour
Of thoughtless youth; but hearing often times
The still, sad music of humanity
Nor harsh nor grating, though of ample power
To chasten and subdue. (II, 83-89)

The intense intoxication of sense in the past becomes the mature poet who can understand the general human loss and sadness as time passes, and in this process, he learns the healing power and intimacy that nature compensates for to human, that is, the way 'to see nature'. In other words, human spirits can get the 'elevated thought(1-95)' and the new power of cre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refore, human spirits play the role of 'receiver' which accept nature and the role of 'creator(Prelude 2, 265-76)' at the same time, he insists.

The reason that his passive experience to nature in his childhood, the spot of time, remained in his impression and became the origin of his poetic mind even after his growing is, as seen in his childhood episodes, because he always had recognized the presence of natural

things existing outside. His life itself was combined with nature more deeply than other people and it was formed in his mind unconsciously and voluntarily. In his “*Lyrical Ballads*”, as the quiet reminiscence in the silence disappears and clarifies, the images projected onto the world of human sense are rediscovered through the ‘inward eye (Daffodils 1, 21)’.

So he says that the harmonious silent eye and the eye with deep pleasure can see the life of things. It shows that the poetic world of Wordsworth is very different from the mechanistic view of nature like Hartley's association theory.

While with an eye made quiet by the power
Of harmony, and the deep power of joy,
We see into the life of the things. (II, 47-49)

The poet wants to see the ultimate realities in the midst of things. And it is the goal of romantic poets at the same time. Since there are the sublime spiritual existences also in the nature with external shape and in the spirit of human inside, human learns to love from them and it becomes the universal humanity through the sublime contemplation at the same time.

The sublime existence which he was trying to discover is also placed in the color of sunset, the blue sky and the human mind and becomes the power of life flowing and moving in everything. Away from the concept of abstract nature which gives human the limits and principles, Wordsworth believes that nature also has a dynamic and organic property and sees nature as an object with a variety of

lives itself. And, since the human spirit to recognize nature is also a living thing which changes and grows repeatedly, the world that the spirit of the poet pursues is the creativity of human spirit occurring from the interaction with nature.

And I have felt

A presence that disturbs me with the joy

Of elevated thoughts; a sense sublime

Of something far more deeply interfused,

Whose dwelling is the light of the setting suns,

And the round ocean and the living air,

And the blue sky, and in the mind of man

A motion and a spirit, that impels

All thinking things, all objects of all thoughts,

And rolls though all things. (II, 95-104)

Spirits inherited in all things are fused with the human sense and the sense works with the complex human spirit to lead the object to the living imaginary world, and the idea ultimately leads to the implementation of morality. The development process of his poetic world starts from one sense, passes the filtering of experience or inner world and marks the culmination in the world of morality. The opinion that the natural phenomenon meets the human morality had already seen in the Natural Deities thought of Shaftesbury in the 18th century and it is not a specific idea of Wordsworth. According to the deists, God has revealed himself through the harmonious beauty of nature and the human morality is formed and developed

by participating in this harmony⁹⁾.

In case of Wordsworth, he received this idea of morality from the specific experience and contemplation in the process of growth and the compensation of nature came from the reverence and love for nature which is the visible presence of Mother Nature led him to the Life-oriented idea. Therefore, nature is an ‘anchor of my purest thoughts(I, 109)’ to him and ‘the guardian of my heart(I, 110)’ and also the ‘nurse(I, 109)’ who protect him, an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subject and object, the distance between human spirit and nature is disappeared and one organic unified thing is formed. The essence of his poetic world, which explores the mysterious principle of life force in nature and mixes it with his experiences and integrates it as a positive humanity through the continuous inner growth, can be said as the creativity of human spirit and the life respect idea.

III

Since the “Tintern Abbey” is the poem describing the mental growth process from his childhood until he became an adult, it is often regarded as an abridged edition of the “Prelude”. Though it is hard and difficult to say about his mental growth definitely, the core idea through his whole poems is that the human spirit is not fixed one but it changes and grows.

9) W. J. Bate, *Criticism: The Major Texts*,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9, p.331.

The most important thing in his self-consciousness is nature, and the modification and recre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nature is conducted through his exploration to the past. Therefore, this poem has a non-chronological nature in the temporal structure and he recorded the significant things among his experiences ignoring the time sequence.

The initial part of this poem is about the time that he deviated from nature and recognized his lost ego, and this kind of revelatory consciousness is also shown in the latter part at the process of seeing through the life force and spirit. In this poem, the poet shows the circularity of time by making the time of subjective experience as an axis of the linear time and by projecting the past pieces according to his reminiscence and contemplation onto the present consciousness again.

The process that he recovers his lost ego and imagination already surpasses the objective time consciousness, and through this process, he recognizes the one life force and soul inherited in all things. Thus, this poem has to be understood as the one to give a lesson about what kind of meaning nature has to human and what things nature can do for human, rather than the one to describe the landscape sensuously or to reminisce the past time.

Likewise, the nature interpreted by Wordsworth is the medium which moves past and present into a harmonious space and also the presence which heals the lost ego. And the mental sufferings and frustration that the poet had experience in human society played a role of paradoxical leap which made him reach for the higher stage of consciousness.

- Study on the Time Consciousness of Wordsworth in the “Tintern Abbey” | 최창영

Thus, the poetic world of Wordsworth starts and is completed from the exploration of life force in nature and the harmonious interaction, and the interest and affection in human which came from that is connected with his positive confidence in the creativity and morality of human spirit.

(신한대학교)

■ 주제어

time consciousness, subjective time, creative sensibility, spots of time, interaction with nature, sublime contemplation.

■ Works Cited

- Kim Young-min, 『Phenomenology and Time』, Seoul: Magpie Publishing Company, 1994.
- Kim Jin-sung, 『Study on Bergson』, Seoul: Moonji Publishing Company, 1995.
- Jung Seok-hae and others, 『Bergson: Time and Free Will』, Seoul: Samsung Publishing Company, 1990.
- Abrams, M. H. *Natural Supernaturalism*, N.Y.: W.W. Norton & Company, 1971.
- Bate, W.J. *Criticism: the Major Texts*,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9.
- Betty, Arthur. *William Wordsworth*, Madison, 1960.
- Durrant, G *Wordsworth and the Great System*, London: Cambridge UP, 1970.
- Hartman, Geoffrey, *Wordsworth's Poetry, 1787-1814*, N.Y.: Yale UP, 1964.
- Hodgson J.A. *Wordsworth's Philosophical Poetry 1787-1814*, Nebraska, 1980.
- Selincourt, Ernest De. ed. *Wordsworth Poetical Works*, Oxford UP, 1970.
- _____. ed. *The Prelude*, London: Oxford UP, 1983.
- Sheats, Paul O. *The making of Wordsworth's Poetry 1785-1798*, Harvard UP, 1973.

■ Abstract

Study on the Time Consciousness of Wordsworth in the “Tintern Abbey”

Choi, Chang Young (Shinhan University)

The concept of time as a tool to understand human nature and the world is different with their historical background. The world of specific and ordinary time experience is made in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man, the subject to be conscious, and the object, and it tells that the power to understand and reconstruct its own experience actively.

The linear time consciousness and modernistic psychological concept of time consciousness consists the major concept of nature and man in Wordsworth's poetr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his self-consciousness is nature, and the modification and recre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nature is conducted through his exploration to the past.

Therefore, this poem has a non-chronological nature in the temporal structure and he recorded the significant things among his experiences ignoring the time sequence. The subject of perceiving nature was derived from the conviction that the nature has its own vital soul which derived from the acknowledgement of living presents in nature, seen through the poet's intuition.

■ Key Words

time consciousness, subjective time, creative sensibility, spots of time,
interaction with nature, sublime contemplation.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5년 12월 4일 ○심사일: 2015년 12월 18일 ○게재일: 2015년 12월 31일

『영어권문화연구』 발간 규정

제1조 (학술지 발간의 목적과 성격)

- (1) 동국대 영어권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함)는 영어권 문화와 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들의 연구활동과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술지 『영어권문화연구』(*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를 발간한다.
- (2) 본 학술지는 영어권문화연구와 관련된 논문들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은 영어권의 인문, 철학, 문학, 문화 연구나 학제적 연구의 범위 안에 포괄될 수 있는 독창적인 것이거나 그러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조 (학술지 발간 일정)

- (1) [학술지 발간] 학술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연 2회 발간한다.
- (2) [원고 접수와 심사] 원고는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기고자에게 게재 희망호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논문 접수 마감은 1권은 3월 15일, 2권은 7월 15일, 그리고 3권은 11월 15일로 하고 이때까지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호 게재 여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기한 보다 늦게 투고된 논문들에 대해서는 편집회의를 통해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 및 심사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투고 및 심사 일정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편집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호	투고 마감	심사	수정본 접수마감	심사 완료
1권	3월 15일	3월 16일 ~ 31일	4월 10일	4월 15일
2권	7월 15일	7월 16일 ~ 31일	8월 10일	8월 15일
3권	11월 15일	11월 16일 ~ 30일	12월 10일	12월 15일

제3조 (학술지의 발간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

- (1) 학술지의 발간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은 편집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영어권문화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

- (1)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영어권문화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수록될 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 (4)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5)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7) 편집위원은 학문적인 조예가 깊고, 연구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중에서 전문성, 대내외적 인지도, 경력사항, 연구실적, 연구소기여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8) 편집위원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상임이사나 회원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9) 편집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10)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기타 출판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소이사회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 (11) 편집위원은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투고 논문을 세부 전공에 맞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고루 선정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 (1) 편집위원장은 『영어권문화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학술

지와 관련하여 제반 대외 업무를 수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회의를 주관하고, 원고를 두고 받아 관리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회의에 투고된 원고를 보고하면서 각 논문마다 전공분야에 맞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해당 논문에 대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편집회의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위임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 2회 이상 학술지의 편집방향과 특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특집호를 기획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예정 발행일 8개월 전까지 편집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소의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조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

- (1) [접수 및 관리] 원고는 공정한 투고 시스템을 사용해 모집한다.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를 일람할 수 있는 원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2) [심사 송부] 논문의 심사는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blind test) 인비로 진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논문의 저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회에 송부한다.
- (3) [심사위원 위촉]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그 논문에 적합한 전공분야 3인의 편집위원으로 연구 기여도,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편집회의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에 해당분야 적

임자가 없을 시에는 다른 회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 (4) [심사 일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후 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심사결과서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5) [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1) 학회게재 형식 부합성, 2) 내용의 창의성, 3) 논지의 명확성, 4) 논증과정(문단간 연계성, 인용근거의 정확성, 구성의 밀도, 문장의 명증성, 설득력 등), 5) 주제의 시의성, 6) 논리적 논지전개, 7) 학문적 기여도와 같은 논문의 질적 심사와 8) 논문 형식, 9) 참고자료의 적합성, 10) 영문초록과 주제어가 적절한지 등과 같은 형식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심사자는 평가결과를 연구소의 심사결과서 양식에 따라 서술식으로 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판정한 후 논문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게재 가’ 판정이 아닐 경우 그 이유나 수정-보완 지시 및 게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 (6) [게재 판정] 논문의 게재여부는 해당 분야에 학문적 조예가 깊은 전공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평한 논문만을 원칙적으로 게재 대상으로 한다. 각 논문에 대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게재 가 :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 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나) 게재 불가 :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다) 수정 후 게재 :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 혹은 그 보다 상위의 종합평가결과로 판정하는 경우.

- 라) 수정 후 재심사 :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아 대폭적인 수정을 한 후에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로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혹은 그보다 하위의 종합평가 결과로 판정하는 경우.
- (7) [심사 결정 및 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이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심사자 인적 사항을 삭제한 후 첨부한다.
- (8) [논문 수정 및 재심사]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적어 논문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 혹은 재심을 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재심사는 1차 심사 위원 1인이 참여하고 2인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한다.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 (9) [심사결과 통보] 접수된 모든 논문은 연구소 일정에 따라 40일 이내에 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우선이나 전자우편으로 게재 확정을 통보하고, 논문의 집필자가 학술지 발행 전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편집위원장은 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집필자에게 <게재 불가 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일시를 적시하여 수정제의서를 발송한다.
- (10)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논문 제출자의 이의 신청이 접수

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단,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는 논문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 (11) [수정제의 수용원칙] 논문 집필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제의를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론문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요구도 없는 경우와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영어권문화연구』 편집 및 교정 기준

1. 논문의 구성

- (1) 제목 : 제목은 논문보다 큰 글자(14 포인트)를 사용하고 부제목 (12 포인트)이 있는 경우에는 주제목 다음에 콜론을 찍고 부제목을 쓴다. 작품제목은 영어로 쓴다.

예: 브라이언 프리엘의 휴머니티 이념: Translations를 중심으로

(2) 논문의 소제목

로마 숫자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 서론부분: I. 서론 (영문논문의 경우, I. Introduction)
- 본론부분: II, III, IV. . . (구체적 소제목 명기는 저자의 필요에 따른다)
- 결론부분: V. 결론 (영문논문의 경우, V. Conclusion)

(3) 필자이름

- ▶ 논문 서두 우측 상단에 위치. 한글 성명을 쓴다.
예 : 홍길동
- ▶ 논문 본문 마지막, 주제어 전에 소속 학교 명칭을 넣는다.
예 : 동국대
- ▶ Abstract 경우에는 영문 성명 아래 영문 학교 명칭을 쓴다.
예 : Hong, Kil Dong (or Kil-Dong)
(HanKuk University)
- ▶ 영문 성명은 Hong, Kil Dong으로 한다.
- ▶ 공동필자의 경우: 맨 앞에 위치한 필자가 제1필자이고, 그 다음의

공동필자는 가나다 순 (영어 이름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4) 참고 / 인용 문헌(References / Works Cited)

본문이 끝난 뒤 반드시 인용 문헌(11 포인트)이라는 제목 하에 참고 및 인용 자료의 서지사항을 열거하고 인용 문헌이 끝나면 200 단어 내외의 영문 요약을 붙인다.

(5) 영문 요약

논문제목(14 포인트)은 영어로 쓴다. 제목 1줄 밑 오른쪽 끝에는 필자의 영문이름을 쓴다.

예: Myth-seeking Journey in Brian Friel

Hong, Gil Dong
(Dongguk University)

The theme of rebirth in Brian Friel is well expounded in many aspects : . . .

Its main objective is. . . .

(6) 주제어

본문이 끝나면 2줄을 띄고, 한글 논문인 경우 “주제어”를 제목으로 하여 5개 이상의 주제어를 한글로 명기한다. 그리고, 영문초록이 끝나고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이상의 주제어를 영어로 기입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이상의 주제어를 영어로 기입한다.

(7) 본문

본문의 글자 크기는 10 포인트로 하되 줄 사이의 간격 비율은 160으

로 한다.

2. 한글 논문에서의 외국어 사용

- 고유명사의 경우 작품명은 우리말로 번역하고 인명은 우리말로 옮겨 적되 교육인적자원부 제정 외국어 발음 규정을 따른다.
- 처음 나오는 모든 외국어는 괄호 속에 원어를 제시하되, 두 번째 부터는 원어제시가 필요 없다. 작품명과 번역된 저서명은 처음에 번역한 제목을 『 』 안에 쓰고 이어서 () 안에 원어 제목을 병기하고, 그 다음에는 번역된 제목만 쓴다. 한글 논문 제목은 「 」 안에 쓴다.

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A Streetcar Named Desire)

3. 강조와 들여쓰기 (Indentation)

- (1) 본문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방점 혹은 밑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 ’ 안에 쓰며, 인용문 중 강조 부분은 원저자의 명기에 따르고, 논문 필자의 강조는 이탤릭체로 쓰며 인용문 끝 출처 표시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원문 강조) 혹은 (필자 강조)를 명시한다.

- (2) 모든 새로운 문단은 두 글자만큼(타자 철자 5칸) 들여쓰기를 한다.

4. 인용 및 출처 밝히기

모든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고 바로 뒤의 괄호 안에 원문을 덧붙인다.

- (1) 직접인용의 경우

- 한글로 된 번역본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 ” 안에 인용문을 쓰고 이어서 () 안에 출처를 밝히고 괄호 밖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도 말하듯이, “주인공은 죽지만 비극의 종말은 항상 삶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55-56).

- 외국어 원본에서 인용할 경우 “ ”안에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을 쓰고 이어서 ()안에 원문을 쓴 후에 적절한 문장부호를 사용하고 출처를 밝힌다.

예: “역설적으로, 오늘의 등장인물들은 저급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열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대함을 구축한다”

(Paradoxically, O'Neill's characters achieve their greatness through passions that might be thought of as base. 428-29).

예: “어제의 고통”(yesterday's pain, 471)

- (2) 간접인용의 경우 출처는 문장의 마지막에 칸을 띄우지 않고 바로 이어서 ()안에 쪽수를 밝히고 괄호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도 말하듯이 주인공은 죽지만 비극의 종말은 항상 삶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55-56).

(3) 독립인용문

- 두 줄 이상의 인용의 경우 독립인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독립인용문의 위쪽과 아래쪽은 한 줄씩 비워 놓는다. 독립인용문의 첫 줄은 어느 경우에도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나 두 개 이상의 연속된 문단을 인용할 경우 두번째 문단부터 들여쓴다. 또한 독립인용문은 본문보다 작은 9 포인트의 글자를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좌우를 5칸 정도 본문보다 들어가게 한다.
- 괄호를 사용하여 독립인용문의 출처를 밝힌다. 본문중 인용과 달리 인용문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한 칸 띄 다음 괄호를 시작한다.

예: 길을 가다 영희를 만났다고 그가 말했다. (15)

(4) 인용문중 논문 필자의 첨삭

- 인용문의 중간부분을 논문필자가 생략할 경우 마침표 세 개를 한 칸 씩 띄운다.

예: 길을 가다 . . . 만났다고 그가 말했다.

길을 가다 영희를 만났다. . . (뒤를 완전히 생략하는 경우에)

- 인용문의 대명사나 논문의 맥락에 맞춰 의미를 논문 필자가 지칭하여 밝힐 때 대명사나 어구 다음 []안에 쓴다.

예: In his [John F. Kennedy's] address, "new frontier" means . . .

(5) 구두점과 인용문

- 따옴표와 함께 마침표(또는 쉼표)를 사용할 때 마침표(또는 쉼표)는 따옴표 안에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처를 병기하여 밝힐 때는 '출처 밝히기' 원칙에 먼저 따른다.

예: 인호는 "영어," "불어"에 능통하다고 "철수가 주장했다."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도 말하듯이 "주인공은 죽지만 비극의 종말은 항상 삶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 (55-56).

5. 영문원고 및 영문요약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은 후 제출한다.

6. 서지 사항

- (1) 인용 문헌이라는 제목 하에 밝히되 모든 출전은 저자 항목, 서명 항목, 출판 배경 항목, 쪽수 항목 등의 순서로 적는다. 그리고 항목 내

의 세부 사항은 MLA 최신판의 규정을 따른다.

(2) 단 한국어로 번역된 외국 문헌을 명기할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저자 항목: 원저자의 한국어 발음 이름 중 성, 성표, 이름 순으로 기재한다.

- 번역자 항목: 번역자 이름을 쓰고 “역”을 붙인다.

- 서명 항목: 번역된 책 명을 겹낫표 안에 쓰고 괄호 안에 원서 명을 이탤릭체로 쓴다.

- 출판 배경 항목: 번역서의 출판 도시, 출판사, 출판 연도 순으로 쓴다.

예: 윌리엄스, 레이몬드, 이일환 역. 『이념과 문학』(Marxism and Literature).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2.

(3) 하나의 문헌에 관한 서지항목의 길이가 길어서 한 줄 이상이 될 때 두 번째 줄부터 6칸 들여 쓰도록 한다.

예: Lewis, C. S. “View Point: C. S. Lewis.”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Ed. Denton Fox.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8. 110-22.

(4) 외국문헌 서지목록에 국내문헌도 함께 포함시킬 때는 국내문헌을 가나다순에 의해 먼저 열거한 다음 외국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열거한다.

(5) 외국대학 출판사의 경우 University는 U로 Press는 P로 줄여쓴다. 외국출판사의 경우 Publishers, Press, and Co., 등의 약호는 모두 생략하고 하나의 머리 이름만 쓴다.

예: Harper, Norton, Houghton, Routledge 등.

예외로 Random House로 표기한다.

- (6) 같은 저자의 2개 이상 출판물을 명기할 때는 두 번째부터 저자이름은 다섯칸의 밑줄로 처리한다. (_____.)
- (7) 공동저자의 경우, 맨 앞에 위치한 저자가 제1 저자이고, 그 다음의 공동 저자는 가나다 순 (영어 이름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 (8) 기타 상세한 논문 작성법은 MLA 최신판을 따르고 그 기준을 한국어 논문 작성법에 응용하도록 한다.

『영어권문화연구』 투고 규정

1. [학술지 발간] 매년 6월 30일, 8월 31과 12월 31일 연 3회 발행하며, 한글논문은 앞부분에 외국어 논문은 뒷부분에 게재한다.
2. [원고 제출시한] 1권은 3월 15일, 2권은 7월 15일, 그리고 3권 11월 15일까지 편집위원장에게 투고 예정논문을 제출한다.
3. [논문의 내용] 투고 논문의 내용은 영어권의 인문, 철학, 문학, 번역, 문화 연구나 학제적 연구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독창적인 것이거나 그러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기고 자격] 논문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영어권문화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전공자나 연구자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생의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연구소장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5.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을 따른다.
6. [편집요령] 『영어권문화연구』 편집 및 교정 기준에 따른다.
7. [심사기준] 『영어권문화연구』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4항(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을 적용한다.
8. [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 시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은 20만원, 일반 논문은 10만원을 논문 게재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저작권 소유] 논문을 포함하여 출판된 원고의 저작권은 영어권문화연구소가 소유한다.
12. [규정의 개폐 및 수정] 본 규정의 개폐 및 수정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개폐 및 수정을 의결한다.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영어권문화연구』에 기고하는 논문은 아래의 원고 작성요령을 따라야 한다.

1. 논문은 제목을 포함하여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된 논문은 본문에 한자와 영문 등을 쓰지 않기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 괄호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쓰는 경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한다.
2. 외국어 고유명사는 한글로 표기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원어 표기를 제시한다. 작품명은 한글로 번역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원어 표기를 제시한다. 인용문은 번역하되, 필요에 따라 원문을 괄호 속에 병기한다. 운문의 경우에는 원문을 번역문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인명이나 지명의 경우 해당 언어권의 발음을 존중하되, 결정이 어려울 때는 교육부 제정 외국어 발음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3. 각주는 연구비 관련 내용 및 재인용 사실을 밝히거나 본문 내용의 필수적인 부연 정보를 위해서 간략히 사용하고, 인용문헌의 명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미주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실용논문의 경우 조사 및 실험 내용을 미주의 부록으로 첨부할 수 있다.
5. 컴퓨터를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되, 우리말 논문은 45자×450행, 영문논문은 70자×500행 (출판지면 약 20쪽) 내외로 한다. 논문의 작성은 가능하면 <아래한글>프로그램(hwp)으로 하고,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및 크기 등은 기본양식으로 한다.
6. 직접, 간접 인용 부분의 마지막 구두점이 마침표의 경우에는 출처 표기 원칙을 적용 받아 (따옴표 다음의) 괄호에 이어서 표기한다.

7. 국내 서적이거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본문 중에 괄호를 이용하여 미국현대어문협회(MLA) 『지침서』(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의 규정에 따라 저자와 쪽수를 명시하고, 논문 말미에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인용문헌(Works Cited)으로 밝힌다.
 -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 이름』. 편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 영문문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고 책 이름은 이탤릭체로 한다.
 -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 이름. 편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8.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을 함께 인용문헌으로 처리하는 경우, 국내문헌을 '가나다' 순에 의해 먼저 열거한 다음, 외국문헌은 'ABC'순으로 열거한다. 인용문헌은 본문 중에 직접, 간접 인용된 문헌만을 명시하고 참고(references)로만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피)인용지수(impact factor)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기하지 않는다.
9. 기타 논문 작성법의 세부 사항은 미국현대어문협회(MLA)의 『지침서』(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최근판 규정을 따르며, 한글 논문의 경우에도 미국현대어문협회 『지침서』의 세부 사항을 응용하여 따른다.
10. 심사의 공정을 위하여 필자의 이름과 대학 이름을 논문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본문에 필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원고 제출시 필자의 신원은 '논문게재 신청서'에 적어서 제출한다.
11. 원고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간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3부의 인쇄본을 동시에 우송한다. 제출할 때, 다음의 기본사항을 명시한 표지를 붙이고, 원고(영문요약 포함)에는 일체 필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게재 확정 이후 출판 교정 시에 필요에 따라 인적 사항을 첨부한다.
 - 논문 제목 (한글 및 영문)

- 필자 이름 (한글 및 영문) 및 필자 정보
 - 공동 연구의 경우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있을 때 명시
 - 필자 소속단체(학교)명(한글 및 영문)
 - 필자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게재 희망호
12. 모든 논문의 말미에 5개 내외의 어구로 주제어를 명시한다. 한글논문의 경우 논문 말미에 2줄 띄고 “주제어”를 제목으로 한글 주제어를 한글로 명기하고, 영문초록 말미에 2줄 띄고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영문으로 제시한다. 영어논문의 경우 논문과 영문요약 말미에 2줄 띄고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영어로 명기한다.
13. 모든 논문 뒤에는 20행 내외의 영문요약을 붙인다.
14. 원고는 접수 순서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각 논문의 심사위원회를 위촉하여 심사하고 게재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 4조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15.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포함한 원고 필자에게 출판 최종 송고 이전에 논문 형식과 맞춤법에 대한 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받은 논문의 경우 최종 교정 및 편집의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원고작성 세부 지침

1. 용지규격: A4
2. 용지여백: 위 쪽: 56.00 mm 머리말: 10.00 mm
 원 쪽: 49.99 mm 오른쪽: 49.99 mm
 아래쪽: 60.00 mm 꼬리말: 0.00 mm

3. 아래의 사항은 편집 메뉴 중 “모양 → 스타일”을 이용하여 정하십시오.

구 분	정렬 방식	행간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글자 크기	글자 장평	글자 간격	글 자 모 양
논문제목	가운데	160%	0글자	0글자	0글자	14 pt	90%	0%	한글: HY신명조 영문: Times New Roman 한자: HY신명조
부-소제목	가운데	160%	0글자	0글자	0글자	12 pt			
필자명	오른쪽	160%	0글자	0글자	0글자	10 pt			
본문/바탕글	혼합	160%	0글자	0글자	2글자	10 pt			
인용문	혼합	150%	2글자	0글자	2글자	9 pt			
각주	혼합	130%	0글자	0글자	2글자	9 pt			
머리말-홀수	오른쪽	150%	0글자	0글자	0글자	9 pt			
머리말-짝수	왼쪽	150%	0글자	0글자	0글자	9 pt			

*논문의 시작 쪽에서는 머리말 감추기를 하시오.

접수 제 호
(심사) 호

수정·보완 의뢰서

심사 위원 ()명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님의 논문을 『영어권문화연구』 제 ()호에 게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아래의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고 교정을 거쳐서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시 필수 기입 사항

1. 수정·보완 사항의 항목별로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고쳤는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1. 수정·보완이 완료된 논문과 수정·보완 의뢰서를 영어권문화연구소 이메일 계정(esc8530@dongguk.edu)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력물의 우편송부는 편집시 그림이나 도표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만 한합니다.

년 월 일

영어권문화연구 편집위원장

수정·보완 확인서

논문 제목		
수정 및 보완 사항	논문 형식	
	논문 내용	

영어권문화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학술 연구 활동 및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등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윤리와 진실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연구원 및 투고자는 학술연구자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증진되도록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는 학술연구 저작들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하고 게재한다. 이에 따라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 저자 뿐 아니라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의 연구윤리규정을 명확하게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학술행사 발표문, 단행본, 영상물을 포함한 모든 간행물과 출판물 및 심사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및 위 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forgery, fabrication)는 존재하지 않는 논문,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alteration, falsification)는 참고문헌 등의 연구자료,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plagiarism)”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및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 및 연구결과물(비학술단체 발간물, 학술대회 발표문, 연구용역보고서 등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붙지 않는 발표물은 제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논문 및 연구결과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 및 연구결과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제보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설치) 연구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조

사, 심의, 판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2. 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장,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연구소 전임 연구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의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구부정행위로 제보,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하여 연구기관에 의해 인지된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인지된 사안에 대한 조사의 적부 판단, 조사위원회의 설치,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안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설치)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그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과

- 외부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활동을 시작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후 해산한다.
- 3.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으로 한다.
- 4. 연구소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9조(조사위원의 의무와 자격정지)

- 1.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 2. 조사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검증과정에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3.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 4. 조사위원은 자신과 사안사이에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조사위원의 연구 결과 혹은 행위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당사자는 즉시 해당 심의 안건의 조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3장 연구윤리의 검증

제10조(검증 시효)

- 1. 연구 윤리성 및 진실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심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2. 5년 이상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기존의 결과를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 혹은 사회적으로 연구소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결과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심의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회 혹은 조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위원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연구 윤리 저촉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7.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의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며 조사위원회는 해산한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와 문제 제기가 허위이며 피조사자에 대한 의도적인 명예 훼손이라 판단될 경우 향후 연구소 활동을 제한하는 등 허위 제보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구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완료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조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취하며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 혹은 연구결과물 게재 취소 및 연구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 삭제
2. 해당 지면을 통한 공개 사과
3. 논문 투고 금지
4. 연구소의 제반 간행물과 출판물 투고 및 연구소의 학술활동 참여 금지
5. 해당자의 회원자격 정지

제14조(후속조치)

1.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확정되면 조속히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조치 후 그 결과는 인사비밀 문서화하여 연구소에 보존한다.
3. 필요한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결과조치를 통보한다.

제4장 기타

제15조(행정사항)

1.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영어권문화연구 *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

2015년 12월 31일 / 31 December 2015

8권 3호 / Vol.8 No.3

발행인 한태식

편집인 김애주

발행처 영어권문화연구소/Official Publication by

Institute for English Cultural Studies

Pil dong 3-26, Chung gu,

Seoul, Korea (Zip Code: 100-715)

(우편번호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Tel 02-2260-8530

<http://site.dongguk.edu/user/culture>

E-mail: ajkim@dgu.edu

인쇄처: 동국대학교출판부

(우편번호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 2260-3482~3

팩스: (02) 2268-7852